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

연구 책임자 : 이 한 섭 (고려대)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2-01-50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433-01

연구 보고서

일본어 투 어휘 자료 구축

2012년 12월 21일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일본어 투 어휘 자료 구축’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연구 책임자: 이한섭(고려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조원형(국립국어원 연구사)

연구 보조원: 정현우(선문대 강사)

박정(고려대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박현영(고려대 한문학과 석사과정)

한원미(고려대 중일어문학과 석사과정)

요 약 문

제목: 일본어 투 어휘 자료 구축

내용: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일본어 투로 알려진 한자어들에 대하여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500단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연구하였다.

- 일본어 투 한자어 500여개 목록 추출
- 상기 목록에 수록된 어휘의 최초 출현 문헌과 전파 경로 등 조사
- 조사 결과를 수록한 자료집 작성

실제 연구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① 우선 이번 연구에서 조사할 대상어 500단어를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어는 국립국어원에서 그동안 발간한 간행물(국어 순화 자료, 일본어 투 용어집 등에 수록된 440단어)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다 본 연구자가 선정한 단어를 추가하여 최종 500단어를 선정하였다.

② 이들 각 단어가 최초로 출현하는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코퍼스 자료와 역사자료, 대표적인 사전 자료, 선행 연구 자료 등을 조사하고 참고로 하였다.

③ 각 언어별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와 의미를 조사하였다.

④ 이를 토대로 하여 각 단어의 한국어로의 전파 경로를 판단하였다.

⑤ 한중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현재 사용 여부 및 검색 건수를 확인하였다.

⑥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각 단어별 초출(初出)용례와 의미 용법, 사용빈도 등이 포함된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투 한자어를 연구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특정 한자어가 일본어 투 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일본어 투 한자어, 국어 순화, 정체성, 최초 출현

<Abstract>

Constructing the database of Japano-Korean Vocabulary

This research aims to verify the identity of Sino-Korean words which have been known as Japano-Korean. Specifically, 500 words were investigated as follows:

- Extracting 500 Japano-Korean lexical entries
- Investigating the documents that first displayed these words and their propagation pathway
- Compiling the results into an information package

The detailed procedure of the actual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of all, 500 words have been selected for this particular study. More precisely, the database is composed of 440 words, based on the research publications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60 words additionally selected by the researcher.

Second, the documents where these selected words first appeared were identified. For this purpose, a variety of data (i.e., corpus data, historical data, representative dictionary data, and previous research data from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investigated and used as references.

Third, it was examined whether these words have been registered in modern dictionaries of each language, and how they have been defined.

Fourth, based on this, the route that led each word into Korean has been identified.

Fifth, internet portal sites in Korea, China, and Japan were screened to confirm the current usage of these words.

Finally, the results have been organized into a report. Also, the examples of the first appearance, meaning and usage, and frequency of use of each word have been compiled into a reference book.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used as the basis for the future studies on Japano-Korean in modern Korean. Moreover, the result is expected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general public who wishes to know whether certain Sino-Korean words are derived from Japano-Korean.

Keywords: Japano-Korean, Sino-Korean, Purism in the Korean Language, Identity, First Appearance

Project Director: Lee, Hanseop (Korea University)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1
1.1. 연구 목표와 필요성	1
1. 연구 범위	1
1. 연구 수행 기간	1
1. 연구의 세부 내용	1
제2장 ‘일본어 투 어휘’란 무엇인가?	2
2.1. ‘일본어 투 어휘’의 정의와 분류	2
2.1.1. 정의	2
2.1.2. 분류	3
2.1.2.1. 원어의 어종(語種)에 따른 분류	3
2.1.2.2. 차용 방법에 따른 분류	4
2.2. 현대어에서의 사용 여부	5
제3장 연구 과정 및 결과	7
3.1. 연구 방법	7
3.1.1. 조사 절차	7
3.1.2. 조사 대상 어휘의 선정	7
3.1.3. 조사에 사용된 자료	8
3.2. 조사 내용	9
3.3. 조사 결과	9
3.4. 남겨진 과제	9
참고문헌	10
제4장 일본어 투 어휘의 단어별 조사 자료집	13

제1장 연구 개요

1.1. 연구 목표와 필요성

본 연구는 일본어 투로 알려진 한자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들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우리말 속에는 개화기 이후 유입된 일본어 한자어가 적지 않게 존재해 있다. 이들 어휘는 우리말 순화 작업과 알기 쉬운 우리말 만들기 등을 논의할 때 늘 문제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가 부족하여 일본어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나아가서 우리말 다듬기 사업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국민들의 각종 문의에 대한 답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본어 투 한자어 500여개 목록 추출
- 상기 목록에 수록된 어휘의 최초 출현 문헌과 전파 경로 등 조사
- 조사 결과를 수록한 자료집 작성

1.3. 연구 수행 기간

2012년 10월 30일 ~ 2012년 12월 21일

1.4. 연구의 세부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투 한자어 500여 개에 대하여 다음을 조사하고 이들 각 단어에 대하여 자료집 구축한다.

- 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각 언어별 최초 출현 문헌 및 해당 문헌의 서지 사항
- ② 각 어휘별 전파 경로 및 시기
- ③ 각 언어별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 ④ 각 언어별 현재 일정 빈도 이상 사용 여부

제2장 ‘일본어 투 한자어’란 무엇인가?

2.1. ‘일본어 투 한자어’의 정의와 분류

2.1.1. 정의

‘일본어 투 한자어’가 무엇인가는 그 설명이 쉽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단 ‘일본어에서 유래한 한자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어투’나 ‘말투’는 원래 문장어보다는 구두어를 나타내는 데 잘 사용하고 또 단어 사용을 뜻하기 보다는 문장이나 음성언어를 설명할 때 잘 어울리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투(語套): =말투.

말투: 말을 하는 버릇이나 본세.

능구적(口跡) · 말조 · 어태 · 어투 · 언투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어투(語套): 말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방식이나 느낌

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실생활에 사용하는 용례를 보면

영자는 그에게 약간 빈정거리는 어투로 말했다.

철수의 어투는 때로는 다분히 도전적이다.

영희는 조심스러운 어투로 그녀가 있는 곳을 물었다.

등과 같이 쓰여 개별 단어나 어휘를 나타내는 데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일본어 투 한자어’나 ‘일본어 투 어휘’는 해당 어휘의 유래나 특징을 나타내는 데 적절한 용어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 ‘일본어 투 한자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종래의 『국어 순화 자료집』이나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국립국어원, 2005) 등에서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투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음독해서 사용하는 단어’로 정의하기로 한다.

2.1.2. 분류

‘일본어 투 한자어’는 원어(原語)의 어종(語種)이나 차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설명이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투 한자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하기로 하였다.

2.1.2.1. 원어의 어종(語種)에 따른 분류

일본어에서는 어휘를 보통 한자어와 고유어, 외래어, 혼종어 등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그 이유는 각 어휘의 발생적 유래와 독법(讀法) 및 사용면에서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위와 같이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어휘의 특성을 생각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일본어 어휘가 한국어로 들어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자 표기를 한국 한자음으로 음독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 일본어에서 어떤 어종의 단어였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어 투 한자어’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가 일본어에서 무슨 어종이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 한자어를 일본어에서의 원래 어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았다.

- ① 일본어에서 한자어였던 것: 일본에서 한자어는 모두 한자로 표기되며 우리말에 들어 올 때 이들 한자표기를 우리 한자음으로 음독한 경우이다.

懇談會(こんだんかい kondankai) → 간담회(懇談會)

感覺(かんかく kankaku) → 감각(感覺)

減俸(げんぼう genpoo) → 감봉(減俸)

經濟(けいざい keizai) → 경제(經濟)

時計(とけい tokei) → 시계(時計)

- ② 일본어에서 고유어였던 것: 순수 일본어 가운데 우리말에 들어올 때 한자 표기를 음독해서 들여온 것이다.

おぼえがき(覚書 oboegaki) → 각서(覺書)

かぶしき(株式 kabushiki) → 주식(株式)

とりしらべ(取調 torishirabe) → 취조(取調)

とりけし(取消 torikeshi) → 취소(取消)

たてつぼ(建坪 tatetsubo) → 건평(建坪)

みならい(見習 minarai) → 견습(見習)

はがき(葉書 hagaki) → 엽서(엽서)

- ③ 일본어에서 서양어를 받아들일 때 한자로 음차해서 표기했던 것을 우리말 한자음으로 음독하여 들여온 말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것은 그 수가 적었다.

倶楽部(クラブ club) → 구락부(俱樂部)

米突(meter) → 미돌(米突)

- ④ 일본어에서 원래 여러 가지 어종이 섞여 있던 것: 위의 세 가지 어종이 섞여서 만들어진 말이다.

○ 고유어+한자어 假登記(かりとうき karitooki) → 가등기(假登記)

受配(てはい tehai) → 수배(手配)

割増料(わりましりょう warimashiryoo) → 할증료(手配)

○ 한자어+고유어 輸入先(ゆにゅうさき yunyusaki) → 수입선(輸入先)

輸出高(ゆしゅつだか yushutusudaka) → 수출고(輸出高)

綺羅星(きらぼし kraboshi) → 기라성(綺羅星)

○ 고유어+외래어

生麥酒(なまビール ~beer) → 생맥주(生麥酒)

○ 한자어+외래어

입방메타 [立方米, ~meter]

2.1.2.2. 차용 방법에 따른 분류

① 독음(讀音) 방법

한국어에 들어온 일본 한자어는 한자 표기를 우리 한자음으로 음독한 것과 일본어 발음대로 읽어(음독과 훈독) 들여온 것이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手当(てあて teate) → 수당(手當)

覚書(ぼえがき oboegaki) → 각서(覺書)

正札制(しょうふだせい syoofudasei) → 정찰제(正札制)

洋羹(ようかん yookan) → 요강

이들 중 ‘手当’와 ‘覚書’, ‘正札制’는 일본어 한자표기를 우리 한자음으로

음독한 예이고 ‘洋羹’은 일본어 한자음대로 들여온 말이다.

또한 일본어에서 들어온 단어 중에는 우리 한자음과 일본어 발음 방법 두 가지가 다 들어온 경우도 있다.

階段(かいだん kaidan) → 계단(階段), 가이당[階段]

株式(かぶしき kabushiki) → 주식(株式), 가부시키[株式]

牽制(けんせい kensei) → 견제(牽制), 켄세이[牽制]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일본어 한자표기를 우리 한자음으로 음독해서 받아들인 것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② 한국어 조어 성과의 결합 유형

일본어에서 들어온 한자어에는 일본어 어형으로만 쓰이는 것과 한국어 조어 요소를 결합시켜 사용하는 것이 있다. 아래 예를 보면,

小荷物(こにもつ konimotsu) → 소하물(小荷物)

様式(ようしき yooshiki) → 양식(様式)

手製品(てせい tesei) → 수제+품(手製品)

保合(もちあい mochiai) → 보합+세(保合勢)

‘小荷物’, ‘様式’등은 일본어 어형으로만 쓰이는 예이다. 그러나 ‘保合勢’, ‘手製品’등은 각각 ‘保合(tamotiai)’, ‘手製(tese)’라는 일본어에다 한국어 조어 성분 ‘勢’와 ‘品’이 결합된 것으로 이들은 일본어 두 한자어를 한국어화한 예로 이해될 수 있어 흥미로운 것들이다.

2.2. 현대어에서의 사용 여부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500여 단어 중 대부분은 오늘날 우리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성조달(苛性曹達):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음. 가성 소다(苛性soda)는 있음

격별(格別): 『표준국어대사전』에 ‘→ 각별’

계출(届出): 『표준국어대사전』에 ‘=신고(申告)’
 노견(路肩): 『표준국어대사전』에 ‘→ 갓길’
 마법병(魔法瓶): 『표준국어대사전』에 ‘=마호병’
 맥고모자(麥藁帽子): 『표준국어대사전』에 ‘밀짚모자’로 순화.
 사입(仕入):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음
 상신(上申): 『표준국어대사전』에 ‘알림’, ‘여쭙’으로 순화
 소사(小使): 『표준국어대사전』에 ‘사동’, ‘사환’으로 순화
 소절수(小切手): 『표준국어대사전』에 =수표. ‘수표’로 순화.
 수부(受付): 『표준국어대사전』에 ‘→ 접수’
 수인(手引):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음
 수입(手入):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음
 신립(申立): 『표준국어대사전』에 ‘신청’, ‘아뢴’으로 순화
 양체(兩替):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음
 입체(立替): 『표준국어대사전』에 ‘꺼어줌’으로 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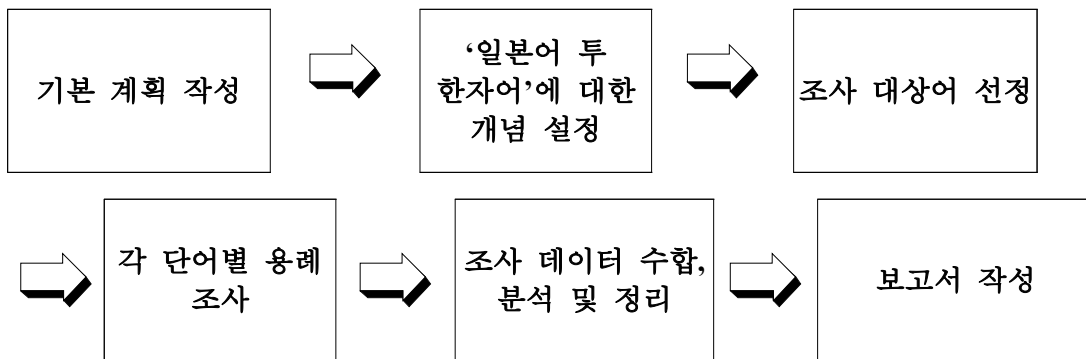
이들은 대부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말에 들어왔다가 해방 이후 국어 순화 운동 등으로 쓰이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노년층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들 단어를 알고 있거나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3장 연구 과정 및 결과

3.1. 연구 방법

3.1.1. 조사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각 단계별 연구 과정 및 방법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 계획 작성: 본 연구를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였다
- ‘일본어 투 한자어’에 대한 개념 설정: 본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어 투 한자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였다.
- 조사 대상어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투 한자어 500단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각 단어별 용례 조사: 일본어 투 한자어의 초출 및 의미 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중국의 용례를 조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 조사 데이터 수합, 분석 및 정리: 조사한 각국의 용례와 의미 용법을 수합·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초출 시기와 의미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였다.
- 보고서 작성: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1.2. 조사 대상 어휘의 선정

금번 연구에서 조사할 일본어 투 한자어는 약 600단어이며 최종 보고서에는 이들 중 500단어를 수록하기로 하였다. 조사 대상어 600단어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국어 순화 자료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국립국어원, 2005)에서

일본어 투 어휘로 밝힌 것: 454단어

- ② 이한섭이 보완한 단어 163개(국어 순화 자료 합본 10단어 + 이한섭 추가 조사 어휘 153단어)

3.1.3 조사에 사용된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초출 용례와 의미, 용법, 한국어로의 유입 경로, 현대어에서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중국의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각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

- 사전 자료: 『한국한자어사전』(단국대출판부, 1996), 홍운표 외 『17세기국어사전』(태학사, 1995), 황호덕·이상현 편 『한국근대어와 이중어사전』(인문사, 20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등
- 일반 자료: ‘21세기 세종계획’ 수록 자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 근대어 코퍼스(이한섭 교수 구축 자료, 2011년), 한국언론재단 고신문 검색 데이터베이스(<http://www.kinds.or.kr/>)

② 일본

- 사전 자료: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2002년 개정판), 『大辞林』(三省堂, 2006년 개정판), 佐藤喜代治 외 편 『漢字百科大事典』(明治書院, 1996)
- 일반 자료: 국립국어연구소 「일본어균형코퍼스」(<http://nlb.ninjal.ac.jp/2011>), 岩波書店 간 『日本古典文学大系DB』(<http://www.nijl.ac.jp/pages/database>), 青空文庫 자료(www.aozora.gr.jp) (19세기 말 이후 발행된 약 11000 자료 텍스트)
이한섭 편 『近代漢語研究文獻目録』(2010, 東京堂)

③ 중국

- 사전 자료: 中国汉语大词典编辑委员会 편 『汉语大词典』(汉语大词典出版社出版, 1994), 黄河清 편 『近现代辞源』(上海辭書出版社, 2010), 劉正琰 외 편 『漢語外來詞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중한사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 일반 자료: 전자판 四庫全書, 간사이 대학교 近代中国語コーパス(近代漢語語料庫) (<http://www2.csac.kansai-u.ac.jp:8080/library/>)

3.2.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할 연구 내용은 500개의 ‘일본어 투 한자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밝히는 것이다.

- 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각 언어별 최초 출현 문헌 및 해당 문헌의 서지 사항
- ② 각 어휘별 전파 경로
- ③ 각 언어별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 ④ 각 언어별 현재 일정 빈도 이상 사용 여부

3.3. 조사 결과

조사 결과는 제4장에 게재하였다. 제4장에서는 각 단어별로 초출 문헌과 의미, 전파 경로 및 시기,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사용 빈도 등을 나누어 기술하였다.

3.4. 남겨진 과제

본 연구는 일본어 투로 알려진 한자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들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려는 것이었으나 아직 남겨진 과제들이 적지 않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우선 들을 수 있는 것은 조사 단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번 조사는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500단어의 조사에 그쳤으나 실제로 우리말에 들어와 있는 일본어 투 한자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후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조사하지 못한 어휘로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면 더 많은 어휘가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 들을 수 있는 것은 연구 자료의 발굴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 투 한자어를 효과적으로 조사하려면 일본과 접촉 교류가 본격화된 19세기말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 당시 발간되었거나 기록된 신문 잡지류, 관보 등 정부 기록문서, 교과서류, 문학작품, 종교관련 문서들은 그 종류가 방대한 양에 달한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자료의 발굴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한중일 관련 학자들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이다. 오늘날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는 오랜 기간 동안 세 나라가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19세기 이후의 어휘는 그러하다. 이 때문에 한자어의 정체성을 밝히려면 한중일 세 나라의 학자들이 협조하여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번 연구 성과가 일본어 투 한자어 연구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논저류

- 박영섭(1994-1997)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 1-5, 박이정.
- 宋基中(1998) 語彙 生成의 특수한 類型 「漢字借用語」, 『國語語彙의 基盤과 歷史』, 太學社, 593-615.
- 宋基中(2006) 「東洋三国漢字語彙鳥瞰」, 『国語学会共同討論会発表論文』, 国語学会(韓國).
- 宋敏(1992) 개화기의 어휘개신에 대하여, 『어문학논총』 11, 國民大學校, 1992.2., 41-61.
- 宋敏(2001) 「自由」의 의미 확대,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연구원, 117-122.
- 宋敏(2001) 開化期の 新생 한자어 연구 1, 『語文學論叢』 20, 국민대어문학연구소, 33-77.
- 宋敏(2001) ‘열대·온대·냉대’의 출현, 『새국어생활』 11-4, 국립국어연구원, 89-94.
- 宋敏(2001) ‘합중국’과 ‘공화국’, 『새국어생활』 11-3, 국립국어연구원, 95-101.
- 宋敏(2001) ‘寫眞’과 ‘活動寫眞’ ‘映畫’, 『새국어생활』 11-2, 국립국어연구원, 101-107.
- 宋敏(2002) ‘병원’의 성립과 정착, 『새국어생활』 12-1, 국립국어연구원, 93-98.
- 이운영(2002) 『標準國語大辭典 分析研究』, 國立國語研究院.
- 沈在基(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李漢燮(2003) 「近代における日韓兩語の接触と受容について」, 『国語学』 54-3, 国語学会(日本), 71-84.
- 李漢燮(2010) 개화기 일본 신문명 어휘의 도입에 대하여, 『日本學研究』 25, 단국대일본연구소, 23-17.
- 李漢燮(2011) 「漢字文化圏における近代語彙の伝播の一例」, 『ことばに向かう日本の学知』ひつじ書房, 141-158.
- 李漢燮(1985) 「『西遊見聞』の漢字語について」, 『国語学』 141, 国語学会(日本).
- 李漢燮(2010) 『近代漢字語彙研究文献目録』, 東京堂出版.

- 講座日本語の語彙9~11(1983)『語誌Ⅰ、Ⅱ、Ⅲ』, 明治書院.
- 古藤友子(1988)「近代の日本語と中国語における「一的」について-章炯麟訳『社会学』にみる」, 『姫路独協大学外国語学部紀要第1号』.
- 齊藤 毅(1977)『明治のことば』, 講談社.
- 佐藤享(1976)「近世漢語についての一考察—「治療」「医療」をめぐる」, 『国語学』 106.
- 佐藤享(1979)「訳語「病院」の成立—その背景と定着過程」, 『国語学』 118.
- 鈴木修次(1981)『日本漢語と中国漢字文化圏の近代化』, 中央公論社.
- 鈴木修次(1981)『文明のことば』, 広島文化評論出版社.
- 鈴木英夫(1980)「新漢語の造出と享受」, 『国語と国文学』 57-4.
- 高野繁男(1977)「明治初期の翻訳漢語—「論理学」(百科全書所収)による—」, 『人文学研究所報』(神奈川大学) 11.
- 高野繁男(1983)「医学用語における語基と基本漢字『医語類聚』の訳語」, 『人文学研究所報』(神奈川大学) 17.
- 高野繁男(2004)「『哲学字彙』の和製漢語: その語基の生成法・造語法」, 『神奈川大学人文学研究所報』 37, 神奈川大学人文学研究所.
- 槌田満文(1983)『明治大正の新語・流行語』, 角川書店.
- 飛田良文(2002)『明治生まれの日本語』, 淡交社.
- 平林文雄(1983)「国家」「想像」、そして「文脈」—語史研究ノート(二), 『群馬県立女子大学国文学研究(三)』.
- 広田栄太郎(1969)『近代訳語考』, 東京堂出版.
- 松井利彦(1979)「近代漢語の伝播の一面」, 『広島女子大学文学部紀要』 14.
- 宮島達夫(1967)「近代語いの形成」, 『ことばの研究3(国研)』.
- 森岡健二(1969)『近代語の成立 明治期語彙編』, 明治書院.
- 吉田裕清[2004]『翻訳語としての法律用語』, 中央大学出版部.
- 渡辺万蔵(1930)『現行法律語の史的考察』, 万里閣書房.
- 譚汝謙(1977)「近代中日文化關係的鱗爪—日語外來詞的搜集和弁認問題商榷—」, 『香港留日學生會年報 3』.
- 潘允中 (1989)『漢語詞彙史概要』, 上海古籍出版社.
- 史存直 (1989)『漢語詞彙史綱要』,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沈国威 (2008)『近代日中語彙交流史』, 笠間書院.
- 王立達 (1958a)「現代漢語中從日語借來的詞彙」, 『中國語文』 68期.
- 王立達 (1958b)「從構詞法上弁別不了日籍借詞」, 『中國語文』 75期.
- 王力 (1958)『漢語史稿上、中、下』, 北京科學出版社.
- 劉正琰 (1979)「關於編纂漢語外來詞詞典的一些問題」, 『辭書研究』 1979.1.

陳力衛(2011) 近代中日概念的形成及其相互影響, 東亞觀念史集刊第1期, 東亞觀念史集刊編輯委員會 2011.12, pp.149-178.

2. 사전류

『和英語林集成』(初版1867), (2版1872), (三版1886) J.C.ヘボン.

『言海』(1891) 大槻文彦.

『日本大辭典』(1893) 山田美妙, 明法堂.

『明治大正 新語俗語辭典』(1984) 樺島忠夫他編, 東京堂出版.

『昭和語小辭典』(1985) 惣郷正明他編, 大修館書店.

『明治のことば辭典』(1986) 惣郷正明・飛田良文, 東京堂出版.

『新名詞辭典』(1932) 洪超編, 開華書局.

『漢語外來詞詞典』(1984) 劉正琰他編, 上海辭書出版社.

『明治事物起原』(1944) 石井研堂, 日本評論社.

『清議報』(1899~1901) 1~100冊.

『漢語外來語詞典』(1990) 岑麒祥 務印書館.

『英華字典』(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1-4, R.W.Lobschied, Hong Kong Daily Press, 1866~69.

제4장 ‘일본어 투 어휘’의 단어별 조사 자료집

<일 러 두 기>

단어별 조사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였다.

1. 각 단어의 기술 항목은 ①표제어와 ②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③ 전파 경로 및 시기, ④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⑤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등이다.

2. 각 항목별 조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표제어: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원래의 일본어 표기와 발음 방법을 적었다. 일본어 발음의 장음표시는 모음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예)공상(空想) ⇨ 空想(くうそう kuusoo)

(2)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① 한국: 해당 표제어가 조선왕조실록(홈페이지)과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 「21세기세종계획」 한국언론재단 고신문 검색DB, 이한섭 작성「한국근대어코퍼스」 등에 나오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아울러 『17세기국어사전』 및 『한국한자어사전』 등을 참고로 하여 초출 여부를 판단하였다.

②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현대일본어균형코퍼스(<http://nlb.ninjal.ac.jp/>)」와 아오조라문고코퍼스(靑空文庫 Aozora Bunko <http://www.aozora.gr.jp/>), 일본 국립공문서관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홈페이지(<http://www.jacar.go.jp/>) 검색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한섭 작성 「일본어코퍼스」에서 보완하였다. 또 『日本国語大辞典』 제2판(小学館, 2005년) 과 樺島忠夫他編 『明治大正 新語俗語辭典』(東京堂出版, 1984) 惣郷正明・飛田良文편 『明治のことば辭典』(東京堂出版, 1986) 등의 연구 성과도 참조하였다.

③ 중국: 중국에서 발간된 최대의 중국어사전인 『汉语大词典』(汉语大词典出版社出版, 1994)과 黄河清 편 『近现代辞源』(2010)을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潘允中『漢語詞彙史概要』(上海古籍出版社, 1989) 史存直『漢語詞彙史綱要』(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9), 沈国威『近代日中語彙交流史』(笠間書院, 2008) 王

立達「現代漢語中從日語借來的詞彙」(1958) 등의 연구 성과도 참고로 하였다.

(3) 전파 경로 및 시기

한중일 초출 용례와 사용 상황을 바탕으로 전파경로를 추정하였고 전파 시기는 한국어의 초출 용례를 참고로 하였다. 전파시기는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 초, 일제 때, 해방 후로 나누어 시기를 표시하고 일제 때 들어온 말은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하였다.

(4)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① 한국: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판, 2008)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②일본: 松村明 編『大辞林』제3판(三省堂, 2006)과 松村明 編『大辞泉』제2판(小学館, 2012)을 바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日本国語大辞典』 제2판(小学館, 2005년)을 참고로 하였다.

③중국: 『汉语大词典』(汉语大词典出版社出版, 1994)을 바탕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전자판 四庫全書와 관서대 近代中国語コーパス(近代漢語語料庫) 등을 참고로 하였다. 또한 한국어 의미 등은 고려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편 『中韓辭典』(2008)을 참고로 하였다.

(5)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일정 사용 빈도수는 현실적으로 조사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는 한중일 각국의 종합포털 사이트에 검색된 예를 표시하기로 하였다. 표시한 건수는 매일 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100단위로 반올림하여 적었다. 조사한 포털 사이트와 조사일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네이버(<http://www.naver.com/>) 2012년 12월 11일

일본어: 일본 야후(<http://www.yahoo.co.jp/>) 2012년 12월 12일

중국어: 구글(<https://www.google.co.hk/>) 2012년 12월 10일

3. 조사 자료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원 자료의 표기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인쇄상 이유나 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현대 표기로 고친 경우도 있다.

4. 초출 용례는 기본적으로 2012년12월 10일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 이들 용례보다 더 이른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가】

가감승제(加減乗除) ⇨ 加減乗除(かげんじょうじょ kagenjyoojy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各國近事[學校] 都會小 學校鄉村小學校之別在於學科之異其所教其所教之學科備列如左一讀書 二習字 三地理書 楷梯 四日耳曼史記 五加減乗除 六普通地理書 七世界各國史記 八分數術 九比例術 十 級數(1884년3월18일)

▶의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 『17세기국어사전』에 ‘가감(加減)’은 있으나 ‘가감승제’는 없음.

일본 福沢諭吉<西洋事情>(1866-1870)初・一「加減乗除より天文測量の難算に至るまで 成らざるものなし」

▶의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국 『汉语大词典』『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18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말로 소개된 말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아울러 이르는 말. ‘덧셈·뺄셈·곱셈·나눗셈’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에 우리나라와 동일한 의미 용법으로 나와 있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0,080개 일본어:5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건물(假建物) ⇨ 仮建物(かりたてもの karitatemon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市計施行準備協議 京畿道부터 着手 假建物存續空地規定도 討議 十一日부터 開始 기사(1937년6월11일 3면5단). 문세영편『朝鮮語辭典』【가건물】(假建物) 名 임시로 지은 집(1938)

▶의미: 임시로 지은 건물. ※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朝鮮国出張ノ際死亡ノ職工遺族へ御手当金賜方ノ件>仁川領事館建築ノ為メ可為致職工ノ内ニテ伺国事ノ際時仮建物役トシテ仁川へ遣ス(1883)

▶의미: 임시 건물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및 시기

J→K / 1900년 이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임시로 지은 건물. ‘임시 건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大辞泉』에 표제어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1,900개 일본어: 2,350개 중국어: 사용 안함

가계약(假契約) ⇐ 仮契約(かりけいやく karikeiyaku)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雜報[全鉄計畫] 日本人 大田秀三郎 等이 發起호야 韓國起業會社를 組織호고 大韓國內鐵道會社와 合호야 群 山鐵道敷設計畫을 擴張호 次로 兩會社에서 協議호고 假契約書까지 交換호고(1905년5월6일 3면2단)

▶의미: 임시 계약. ※『17세기국어사전』『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田中・中川・伊丹<英和商業新辞彙>(1904) rovisional Contract」仮契約 「〈略〉後日或条件の到達に由り本契約を締結するもの」

▶의미: 임시 계약.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임시 계약’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かりけいやく(仮契約): 正式の契約を結ぶまでの仮の契約(정식계약을 하기 전까지의 임시계약)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로 들어온 일본어이다.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0,000개 일본어: 9,28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교(假橋) ⇐ 仮橋(かりばし karibash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雜報[照請治道] 每年秋季에 郡守가 民役을 課호야 道路를 修改호다호고 今茲其好機를 際호야 此를 利用호니 其改修方法을 勵行호되 道路의 線幅을 廣호고 平坦히호며 河川에 橋梁이 無호는 者는 假橋를 架호거나 渡船을 設호는 通行上不便함이 無호方法을 取호는바(1906년11월14일 2면4단)

▶의미: 임시 다리 ※『17세기국어사전』『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延喜式>五〇・雜「凡山城国泉河樺井渡瀬者、官長率二東大寺工等、毎年 九月上旬 造仮橋、来年三月下旬壊収」(927년)

▶의미: 임시 다리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초 한국어로 들어 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임시로 놓은 다리. ‘임시 다리’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橋ができるまで、そのそばに間に合わせとして架ける橋(다리가 완성될 때까지 그 옆에 임시로 가설한 다리)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4,600개 일본어: 34,7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등기(假登記) ⇨ (かりとうき karitook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土地 일코 懲役言渡] 동인소유재산을보호한다는미명하에 논두말지기를 자기명하로가등기이던(假登記移轉)하야두엇섯난대(1926년1월31일 2면6단)

▶ 의미: 임시로 하는 등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不動産登記法>(1899) 七条「假登記を為した場合に於ては 本登記の順位は假登記の順位に依る」

▶ 의미: 임시 등기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식민지대 이후 우리말에 들어온 말로 1920년대 자료에 보이기 시작한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 ‘임시 등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りとうき(假登記)本登記をするのに必要な要件が完備しない場合に、将来なされる本登記の順位保全のために予備的にされる登記。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1,600개 일본어: 4,89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매장(假埋葬) ⇨ 仮埋葬(かりまいそう karimaiso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若或死後二十四時以内に其下附きを請ふる者が無き時は假埋葬可할事(1898년1월21일)

▶ 의미: 임시 매장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囚人及刑事被告人押送規則>(1897年) 八条「押送途中被押 送者死亡し二十四時間内に遺骸の引取人なきときは<略>仮埋葬を為すべし」

▶ 의미: 임시 매장.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후반 일본어에서 우리말로 들어온 말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시체를 임시로 묻음. ‘임시 매장’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りまいそう(仮埋葬) 正式に埋葬するまでの間, 死体を一時埋めておくこと(정식으로 매장하기 전까지 시체를 일시적으로 매장해 두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960개 일본어: 18,4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봉(假縫) ⇐ 仮縫い/仮縫(かりぬい karinu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별건곤 28호 봄·봄·봄을 마지한 서울의 푸로필> 겨울 오·바에 얼굴을 파묻고 단닐 때에 벌서 洋服店에는 잣빗 락타빛등의 假縫(가리누이)한 春秋服을 닮은 人形들이 심술궂게 서 서는 애꾸준 모뽀들의 가슴을 태워 준다(1930년5월1일)

▶의미: 시침바느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J.C.Hepburn<和英語林集成 初版>(1867) 「KARI-NUI カリヌヒ Temporary sewing, basting」

▶의미: (양복을 만들 때 하는) 시침바느질.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로 1930년대에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시침바느질. ‘시침질’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りぬい(仮縫い/仮縫) 洋服を仕立てるとき, 本縫いにかかる前に仮に一度縫い合わせる。また, 縫い合わせたものを着せ, 体に合わせて直すこと(양복을 만들 때 꿰매기 전에 임시로 한번 꿰매어 맞추어 보는 것. 또는 그렇게 한 것을 입혀보고 몸에 맞추어 고치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4,000개 일본어: 5,93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분수(假分數) ⇐ 仮分数(かぶんすう kabunsu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문세영편『朝鮮語辭典』(1938) 분모가 분자보다 적은 수

▶의미: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그보다 큰 분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数学二用ナル辞ノ英和对訳字書>(1889) <藤沢利喜太郎> 「Improper Fraction 仮分数、帶分数」

▶의미: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그보다 큰 분수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일본어에서 들어온 수학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1.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 몫집에 비하여 머리가 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辭林』 かぶんすう【仮分数】分子が分母に等しいかあるいはそれより大きい分数(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그보다 큰 분수)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270개 일본어: 44,1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불(假拂) ⇨ 仮払い(かりばらい karibar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株式會社大韓天一銀行整理後第一期(光武十年下半年 營業報告 借方資産之部 假拂金 2170(1907년2년15일 3면5단)

▶의미: 봉급 등을 정한 날짜 전에 지불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公文別録・陸軍省衆規淵鑑抜粹・明治元年～明治八年・第六卷・明治四年～明治八年> 定額金之内ヨリ一時仮払ニシテ渡方取計置至急明細書第五局へ可差出候事六年十月二十八日衆規淵鑑(1873)

▶의미: 봉급 등을 정한 날짜 전에 지불함.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 초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과목(科目)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뒤에 명세를 밝히기로 하고 임시로 지불함. 봉급을 정한 날짜 전에 지불함. ‘임시 지급’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かりばらい(仮払い) 最終的な金額がはっきりしない場合, 一時, 概算で金を払っておくこと(최종금액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대략 계산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5,300개 일본어: 2,14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사(假死) ⇨ 仮死(かし ka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假死兒의 救助] 갓나흐며죽은아히살니논법(1915년1월1일 4면5단)

▶의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奥山虎章<医語類纂>(1872)「Asphyxia 仮死」

▶의미: 의식이 없고 호흡이나 맥박이 멈추거나 매우 약하여 보기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

중국 <博物学教科书>(박물학교과서)1906年 .

▶의미: 某些动物遇到敌人时, 假装死的样子, 以免受攻击(일부 벌레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이르는 말).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 이후 우리말로 들어온 일본어이다. 假死는 현대중국어에도 들어가 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있음

일본어: 『大辞林』かし【仮死】意識がなく, 呼吸や脈搏(みやくはく)も止まるか, またはきわめて微弱で, 一見死んだように見える状態(의식이 없고 호흡과 맥박이 멈추었거나 미약하여 얼핏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

중국어: 『汉语大词典』由于溺水 触电 中毒 癫痫 呼吸道堵塞或婴儿初生肺未张开等引起呼吸停止, 心脏跳动微弱, 从外表看已经处于死亡状态者, 在医学上称为假死. 如能及时急救, 仍有救活的希望(물에 빠지거나 감전 중독 간질 따위로 호흡 기관이 막히거나 신생아의 폐가 열리지 않아서 호흡이 멈추고 심장박동이 미약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학적으로 가사라 한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9,200개 일본어: 4,220,000개 중국어: 6,250,000개

가성조달(苛性曹達, 가성소다) ⇨ 苛性ソーダ(かせいソーダ kasei sood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廣告[大英國썬루너못든 各種純소다 製造會社] 各種소다에名目과各其所用處 70를左에説明호노라 大韓 타는소다 日本 苛性曹達 淸國 燒鹼 타는소다는大韓多處에서 已爲取用호얏스며 名은 양지물이라 호고 소다中에는 타는소다가力이第一甚大호게製造호것이니(1899년11월14일 4면1단)

▶의미: 수산화나트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舎密開宗>(1837-47) 内・二・八〇「又煮冷して之を除き、黄に少も晶を結ざるに至れば、其濾は即ち苛性曹達なり」

▶의미: 수산화나트륨의 통칭.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세기 말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 화학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음. 가성 소다(苛性 soda)는 있음

일본어: 『大辞林』かせいソーダ【苛性ソーダ】⇒ 水酸化(すいさんか) ナトリウム(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00개 일본어: 502,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속도(加速度) ⇨ 加速度(かそくど kasokud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電氣大王이라呼호는米國人이되손氏는電信 電話 電燈 留聲器 活動寫眞 等 奇機妙法을發明十九世紀文明發達에多大한加速度를成케한者인디(1909년6월30일 1면5단)

▶의미: 일의 진행에 따라 점점 더해지는 속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野村龍太郎<工学字彙>(1886) 「Acceleration Acceleration of velocity 漸加速。加速度」

▶의미: 가속도.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일의 진행에 따라 점점 더해지는 속도. 또는 그렇게 변하는 속도. 단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속률(速率).

일본어: 『大辞林』 かそくど【加速度】一定時間についての速度変化の割合(일정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의 비율)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3,000개 일본어: 18,3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수금(假受金) ⇨ 仮受金(かりうけきん kariukek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株式會社大韓天一銀行整理後第一期(光武十年下半期 營業報告 借方資産之部 假受金 一九 八六(1907년2년15일 3면5단)

▶의미: 우선 받아 두는 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陸軍省-大日記>正鮮義 陸軍省奉職中佐佐賀之役ニ近衛兵隊ヨリ仮受金額決算取調之義ニ付去ル五月二十六日着京以降滞在仕居少々之貯金(1880년6월~1886년7월)

▶의미: 금액 또는 계정 항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 놓은 돈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 초 우리말로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부기(簿記)에서 처리할 계정이 미정(未定)인 상태로 우선 받아 두

는 돈. ‘임시 받은 돈’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りうけきん【仮受金】金額または勘定科目が確定していない入金(금액 또
 는 계정 항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 놓은 돈)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1,600개 일본어: 61,8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식(假植) ⇨ 仮植(かしょく kasyoku)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북학회월보 제12호 移植> 但 移植에 困難한 樹木類는 秋季에 一次 假植하고 枝梢
 剪定法을 行하얏다가 春季에 至하야 移植하면 活着하는 것이오(1909년5월10일)
 ▶의미: 제자리에 심을 때까지 임시로 딴 곳에 심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
 어사전』에 없음.

일본 徳富健次郎<ハムレット> 枯れてはいけぬと云うて砂の中にシャボテンの芽を仮植えしたり
 したことがある(1906)
 ▶의미: 물을 심기 전에 임시로 땅에 심어두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중국어에도 들어가 있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종자나 모종을 제자리에 심을 때까지 임시로 딴 곳에 심는 일.
 ‘걸 심기’ ‘임시 심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しょく【仮植】 植物を定植するまでの間, 仮に植えておくこと(식물을 심
 기 전에 임시로 땅에 심어두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苗木栽种或出圃前的一种临时保护性措施(종자나 모종을 제자리에
 심을 때까지 임시로 딴 곳에 심는 일)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9,500개 일본어: 6,760개 중국어: 25,700,000개

가정(假定) ⇨ 假定(かてい kate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26호 부록> 其中災結(水旱損等으로爲하야 免稅하는者)를八万結로假
 定하야此를扣除하고(1896년1월20일)
 ▶의미: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임시로 그렇다고 하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
 어사전』에 없음.

일본 末広鉄腸<花間鶯>(1887-88)上・二「政党の真面目(しんめんもく)は此の如きものと假定(カテ
 イ)しますも」

▶의미: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및 시기

J→K / 1890년대에 한국어로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

일본어: 『大辭林』 かり【假定】①事實に關係なく、仮にそうだとすること。想定。仮想(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임시로 그렇다고 하는 것. 상정. 가상)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80,000개 일본어: 15,1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정(家庭) ⇨ 家庭(かてい kate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我即某參議로세 長子某는이전 進士고 次子某는이전 參判인디 我以侍從臣父老職으로 玉圈자가되얏지 有子二人하나 家庭學問으로 守舊論를 主함으로 時色에 不參함야 室如懸磬이로세(1898년9월30일 1면1단)

▶의미: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新聞雜誌-二三號報告>(1871) 一二月「新に教方を創(はじ)め是を家庭に試るに其効の速なる一年の學業一月にして達せり」

▶의미: 집안 집 가족.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일본어: 『大辭林』 かり【家庭】夫婦・親子などの關係にある者が生活をともしする、小さな集團(가정. 부부나 부모자식 등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생활을 함께 하는 작은 집단 또는 생활하는 곳)

중국어: 『汉语大词典』以婚姻和血统关系为基础的社会单位(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83,000개 일본어: 1,190,000,000개 중국어: 908,000,000

가족(家族) ⇨ 家族(かぞく kazo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論說[愛國論] 凡國之起에 未有不起於家族者라 故로 西人政治家之言에 曰國字者는 家族二字之大書也라(1899년3월1일)

▶의미: 가족.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隨筆・胆大小心録>(1808) 六九「外の医士へ転じさせても、相かわらず日々見まふた事じゃ故、病人もよるこぶ、家族もとかくうけがよかったで、

▶의미: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말 우리말로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일본어: 『大辞林』 かぞく【家族】 夫婦とその血縁関係にある者を中心として構成される集団(부부와 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집단)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以血统关系为基础而结成的社会单位, 包括同一血统的几辈人(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40,000개 일본어: 618,000,000개 중국어: 603,000,000개

가주소(假住所) ⇨ 仮住所(かりじゅうしょ karijyusy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第十條 貸與를 受코자 ㅎ는 者 或은 此를 受흔 者 又는 其代理人이 國內에 住所가 無흔 時는 假住所를 定하야 農商工部大臣에게 申告함이 可함(1907년7월26일 1면1단)

▶의미: 임시로 정한 주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刑事訴訟法>(1890) 一八条「訴訟關係人は裁判所所在地に住せざるときは其地に仮住所を定め裁判所に届出づ可し」

▶의미: 임시 거쳐 주소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거짓으로 만든 주소, 임시로 정한 주소

일본어: 『大辞林』 かりじゅうしょ【仮住所】 仮住まいの住所(임시 거쳐 주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60개 일본어: 69,9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집행(假執行) ⇨ 仮執行(かりしっこう karissk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白完赫氏가 新門內居方淳興氏와 畚土相關으로 屢度裁判한다더니 日昨大審院判決에 方氏가 落科호았슴으로 該土地를 假執行호았다더라(1910년7월9일)

▶의미: 임시 집행.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陸海軍軍法會議私訴裁判強制執行法>(法律第67號제 4条) 軍法會議ハ必要ト認ムル命令を仮執行仮差押仮處分爲ス(군법회의는 필요로 할 경우는 가집행 가차압 가처분 명령을 한다 1890)

▶의미: 임시 집행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10년 전후 일본에서 들어 온 법률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함. 또는 그 강제 집행.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인정한다. ‘임시 집행’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りしこウ【仮執行】民事訴訟法上、判決の確定前に仮執行の宣言に基づいてなす強制執行(민사소송법에서 판결확정 전에 가집행 선언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강제 집행)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4,200개 일본어: 7,4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차압(假差押) ⇐ 仮差押え(かりさしおさえ kari-sashiosa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동학회월보 제20 法律學에 關한 概見>⇒強制執行 及 金錢支給을 目的호지 아니한 債權에 關한 強制執行의 如何, 強制執行의 保全 卽 假差押 假處分の 節次 如何, 執行費用 及 保證의 如何 等되느 바오(1909년9월25일)

▶의미: 임시 압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民事訴訟法>(1890) 七四一条「仮差押の申請に付ての裁判は」(가차압 신청에 관한 재판은)

▶의미: 임시 압류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에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가압류’의 전 용어. ‘임시 압류’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かりさしおさえ【仮差押え】債務者の財産を暫定的に差し押さ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裁判上の手続き。(채권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의 한 수속.)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70개 일본어: 813,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처분(假處分) ⇨ 仮処分(かりしょぶん karisyobu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호외> 第三百三十七條 假處分에當^レ야는裁判所^ノ原告의申提^ス目的을達^ス함에必要^ニ處分을定^ム함(,1908년7월17일)

▶의미: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民事訴訟>あげたことによって一般に用いられるようになった法(七五五条「係争物に関する仮処分は現状の変更により当事者一方の権利の実行を為すこと能はず」(1890)

▶의미: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 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임시 처분’으로 순화. 능가정적 처분.

일본어: 『大辞林』 かりしょぶん(仮処分) 訴訟の目的である権利などの保全のために, 裁判所によりなされる暫定的な措置(소송 목적인 어떤 권리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판소로부터 받은 잠정적인 조치)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4,500개 일본어: 60,8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출(家出) ⇨ 家出(いえて ied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本月七日無故家出^ス야行爲不明^ス다더라(1914년6월11일. 4면1단)

▶의미: 집 나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虎明本狂言・石神>「あれにもたびたび申せども、隙をくれませぬほどに、むりにまづ家でをいたひて御さる」(17세기초)

▶의미: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집을 나감.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10년대 전후부터 사용된 일본어이다. 종래 가출(家出)은 단순히 집을 나선다는 의미와 불가에 귀의한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감. ‘집 나감’으로 순화

일본어: 집을 나감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700개 일본어: 15,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가필(加筆) ⇐ 加筆(かひつ kahi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本人이 庸俗無識하고 板刻家券書字上에 加筆之致로 漢城府執留되었사오니 各人도 覽戒하시옵(1905년7월6일 3면2단 광고)

▶의미: 고쳐 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甲州法度之次第>(1554) 四〇条「子之負物、親の方へ不可懸之。但、親借状、加筆者、可有其沙汰」

▶의미: 문장이나 그림을 수정하거나 더 추가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 초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글이나 그림 따위에 붓을 대어 보태거나 지워서 고침. ‘고쳐 씀’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かひつ【加筆】 文章や絵に筆を加えて修正や追加をすること(문장이나 그림을 수정하거나 더 추가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200개 일본어: 24,2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각서(覺書) ⇐ 覚書(おぼえがき oboega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동학회월보 제12호 外報> 倫敦電을 據하즈 奧地利 政府는 十二月 二十四日 所報俄國通牒에 對하야 覺書를 送하야 索스냐야, 헬셀고비나에 奧國皇帝의 主權을 及케 할 事와 노비바살의 撤退는 列國 會議에 附하기 不可한 事를 宣言하고(<1909년1월25일).

▶의미: 각서. 약속 문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芭蕉遺狀>(1694) 「杉風方に前々よりの発句文章の覚書可有之候」

▶의미: 잊지 않기 위한 메모.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 ‘다짐 글’ ‘약속 문서’로

순화. 2.『정치』조약에 덧붙여 해석하거나 보충할 것을 정하고 예외 조건을 붙이거나 자기 나라의 의견 희망 따위를 진술하는 외교 문서.

일본어: 『大辞林』 おぼえがき【覚書】 外交文書のうち、略式でやりとりされる文書(외교문서 중에서 약식으로 처리되는 문서) .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54,000개 일본어: 18,5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각하(却下) ⇨ 却下(きゃっか kyakk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外報[上奏文의 却下]上奏文이宮内大臣을經由하여提出함이아닌故로受納기難하다하여該上奏文을却下하였더라(1906년5월26일 1면5단)

▶의미: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仏和法律字業>(1886) <藤林忠良・加太邦憲>「REJET. Kyakka 却下」.

▶의미: 청원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물리침’으로 순화. 2.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일본어: 『大辞林』 きゃっか【却下】 ①請願などを採り上げずに退けること(청원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②官庁・裁判所に対する行政上・訴訟上の申し立てを退けること(관청이나 재판소에서 신청 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4,400개 일본어: 12,200,000개 중국어: 15,600,000개

간담회(懇談會) ⇨ 懇談会(こんだんかい kondank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雜報[日本維新三十年史] 九月에 開宗教家懇談會헌디 僧有赴會者하니 舉桑門이 非笑而怒罵之리라(1906년12월13일 3면1단)

▶의미: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福沢諭吉<西洋事情>(1866-70) 初・二「昔我輩の英国を去て此国に移住せしときの景況をも述べ、英国人一般の正論を請ひ、或は骨肉の縁を以て懇談し」

▶의미: 대화 모임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일본 사정을 설명하는 신문기사에 용례가 보이기 시작한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대화 모임’ ‘정담회(情談會)’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こんだんかい【懇談会】 打ち解けて話し合う会合(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모임) .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6,300개 일본어: 474,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간접(間接) ⇨ 間接(かんせつ kanse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學部刊本<國民小學讀本> 支那國이 如此히 되는 緣由를 研究하면其間に 遠因과 近因과 또한 直接因과 間接因이 各各 다 잇느니(1895)

▶의미: 바로 대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이나 사물을 통하여 연락되거나 영향이 미치는 관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哲学字彙』(1881) 「Mediate 間接」

▶의미: 간접.

중국 <清议报>(청의보)十九册<国家论> 1899年

▶의미: 通过第三者发生关系的(跟“直接”相对) (중간에 매개가 되어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중국어 間接도 일본어에서 들어간 것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중간에 매개(媒介)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통하여 맺어지는 관계

일본어: 『大辞林』 かんせつ【間接】 ①間に他の物を置いて事を行う，または，行われること. 対象にじかに働きかけないで，他の物を仲立ちとして行うこと(사이에 다른 물건을 놓고 일을 처리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는 일. 대상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다른 물건을 통해서 작용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亦作“間接”(간접)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00,000개 일본어: 28,900,000개 중국어: 159,000,000개

감각(感覺) ⇨ 感覺(かんかく kanka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西遊見聞 第十二編 愛國호는忠誠>自己의子女갓티誨諭호야其良心의感覺으로人의行實

을學호게함이 亦一人間の相與호는好道니(1896)

▶의미: 어떤 자극을 알아차림.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慶応再版英和对訳辞書』(1867) 「Sensation 感覚」

▶의미: 감각기관으로 자극을 인지하는 작용.

중국 <泰西教育史>(서양교육사)篇上第二章 1901年

▶의미: 客观事物的个别特性在人脑中引起的反应(객관사물의 개별특성이 사람의 뇌에서 일으키는 반응)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눈 코 귀 혀 살갓을 통하여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림. 2.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

일본어: 『大辞林』 かんかく【感覚】①目・耳・鼻・皮膚・舌などが身体の内外から受けた刺激を感じ取る働き。また、感じ取った色・音・におい・温度など(눈 코 귀 피부 등의 감각기관으로 자극을 인지하는 작용).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나옴. 接触事物所产生的知觉(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520,000개 일본어: 183,000,000개 중국어: 869,000,000개

감봉(減俸) ⇐ 減俸(げんぽう genp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5호>新任轉任増俸及減俸等排日計算은其月に行호고翌月로부터前項을準호야支給함(1895년4월28일)

▶의미: 봉급 깎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明治二十三年・法律第六十八号・判事懲戒法>(1890) 第四条 減俸ハ一月以上一年以下年俸月割額ノ三分ノ一以内ヲ減ス

▶의미: 봉급 깎기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봉급을 줄임. ‘봉급 깎기’로 순화. 공무원 징계 처분의 하나. 일정 한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일본어: 『大辞林』 げんぽう【減俸】俸給の支給額を減らすこと(봉급 액수를 줄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230개 일본어: 4,25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감사(監査) ⇨ 監査(かんさ kans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5호 度支部分課規程> 監査課 第八條 監査課에서左開各事務를 掌함(1895년 4월16일)

▶의미: 감독하고 검사함. ※『17세기국어사전』에 없음. 『한국한자어사전』에 나오나 용례는 1907년 것임

일본 <軍制綱領>(1875) <陸軍省編>1・1「下士其一、曹長(一等、二等) <略>監査(一等、二等)」

▶의미: 감독하고 검사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감독하고 검사함. ‘지도 검사’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んさ(監査)(業務の執行や会計・経営などを)監督し検査すること(업무집행이나 회계 경영 등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140,000개 일본어: 957,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감수성(感受性) ⇨ 感受性(かんじゅせい kanjyuse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李光洙[今日我韓用文에 對하야] 我國人은、아직도 複雜한 思潮에건들녀본 적이 업슨 緣故인지 感受性이 甚히 鈍하야、무슨 말을 듯든지 別노히 感動됨이 업스며 (1910년7월27일 1면2단)

▶의미: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哲学字彙』(1881) 「Susceptibility 感受性」

▶의미: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중국 『汉语大词典』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1910년대 초에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일본어: 『大辞林』 かんじゅせい【感受性】外界からの刺激を深く感じ取り、心に受けとめる能力(외부 자극을 깊이 느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0,200개 일본어: 7,7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감안(勘案) ⇨ 勘案(かんあん kan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事業의 緩急을 勘案 時局對策에 置重](1938년2월25일 3면2단)

▶의미: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上海領事館建築地所買上代仕払ノ儀伺>清国上海領事館建築之儀永久之費用ヲ勘案シ三菱会社所有地ノ内へ建築之見込ヲ以(1877)

▶의미: 생각할 때 여러 사항을 함께 고려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함. ‘고려’ ‘생각’ ‘참작’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んあん【勘案】いろいろと考え合わせること(생각할 때 여러 사항을 함께 고려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3,400개 일본어: 4,5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갑종(甲種) ⇨ 甲種(こうしゅ koosy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62호 勅令第一百十二號 警務賞與令> 第二條 警務賞與ヲ分亨아特別賞及甲種賞乙種賞의三種으로特別賞金十五元以上一百元以下甲種賞金二元以上十五元以下乙種賞金三十錢以上五元以下(1895년 윤5월12일))

▶의미: 으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明治二十三年・勅令第百二十三号・警察官及消防官服制改正>警察官及消防官服制図例 正帽 常帽 正衣 常衣 袴 短袴 甲種外套 乙種外套 夏衣 夏袴 日覆 肩章 飾帶 総監 副総監 警視 警部長(1890년7월11일)

▶의미: 갑종.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일본어에서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갑 을 병 따위로 차례를 매길 때에 그 첫째 종류. ‘으뜸’ ‘일급’으로 순화. 예전에 징병 검사에서 정하던 신체 등급의 하나. 최상위 등급.

일본어: 『大辞林』 こうしゅ【甲種】甲・乙・丙・丁に分類したときの第一位(갑 을 병 정으로 분류할 때 가장 높은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6,700개 일본어: 3,59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개간(開墾) < 開墾(かいこん kaiko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論說. 夫養民之法이 有十焉하니 四曰墾荒田이니 三南及兩西에 均有閑荒호디 徒以道路不通으로 悉成棄地하니 既有鐵路하야 移民開墾이면以無主之地로 養無業之民이니 何致困苦顛連하야 流爲盜賊哉아(1898년12월16일 1면2단)

▶의미: 거친 땅이나 버려 둔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 ※『17세기 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続日本紀> 養老六年(722) 閏四月乙丑「以備水旱仍委所司差發人夫、開墾膏腴之地良田一百万町」

▶의미: 산과 들을 개척하여 새로운 전답을 만드는 일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일본어에서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거친 땅이나 버려 둔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 ‘일굴’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いこん【開墾】山野を切り開いて新しく田畑にすること(산과 들을 개척하여 새로운 전답을 만드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 거친 땅이나 버려 둔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

<晋书·食货志>: “魏武皇帝又於征伐之中, 分帶甲之士, 隨宜開墾。”明高攀龙<申严宪约责成州县疏>: “境内有荒蕪田土, 宜竭力開墾。”洪深<劫後桃花>六十: “我本来是青岛本地的人, 因为外国人压迫我们, 我们才搬到黑龙江去开垦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8,900개 일본어: 73,600개 중국어: 11,700,000개

개괄(概括) < 概括(がいかつ gaika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廣告[國家學] 本書난 一般國家의 起源性質과 及其興替變遷의 原理原則을 概括陳述하얏스미(1906년6월21일 3면6단)

▶의미: 줄거리를 대강 추려 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哲学字彙』(1881) 「Generalization 概括」

▶의미: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냄

중국 <心理学教科书>(심리학 교과서)1903년

▶의미: 把事物的共同特点归纳在一起; 总括(어떤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만드는 일 총괄)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냄. 어떤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만드는 일.

일본어: 『大辞林』がいねん【概念】諸事物に共通する性質に着目して、それらの事物を一つの概念のもとに統合すること(세상의 물건과 일에 공통되는 성질에 주목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거나 그 개념을 일부류의 전체에 확장하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나옴. 归纳(귀납), 总括(총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3,400개 일본어: 53,000,000개 중국어: 11,700,000개

개념(概念) < 概念(がいねん gaine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雜報[新律廣刊] 張舖淳氏가 法部에 認許하야 法律을 編纂하고 詳細한 注釋과 韓日兩文을 兼刊하야 法律에 概念이 無한 人이라도 一覽瞭然케 하야 日間發賣한다니 訴訟關係될 人民을 爲하야 指南이되깃다더라(1908년7월21일 1면5단)

▶의미: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들에서 귀납하여 일반화한 추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致知啓蒙>(1874) <西周>上・五「神てふ念は吾人如何にも其外形内質を、尽すへき由あられと、唯宇宙の主宰として、万有の元始たるを、知る耳、<略>こは、度量觀(qunativity)に就て、概念(notion)といひ」.

▶의미: 개념. 독일어 Begriff의 번역어.

중국 <泰西教育史> 1901年

▶의미: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하여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 언어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판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나 판단을 성립시키기도 한다.人们对事物本质的认识，逻辑思维的最基本的单元和形式。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사회 과학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들에서 귀납하여 일반화한 추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일본어: 『大辞林』がいねん【概念】①ある事物の概括的で大まかな意味内容(어떤 사물의 개괄적이고 대략적인 의미내용). ②〔英 concept ; ドイツBegriff〕事物が思考によって捉えられたり表現される時の思考内容や表象，またその言語表現(名辞)の意味内容(사물이 사고에 의해 파악되거나 표현될 때의 사고내용이나 표상 또는 그 언어표현의 의미내용)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나옴. 人们对事物本质的认识，逻辑思维的最基本的单元和形式(사람들이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 객관적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와 형식). 1901年<泰西教育史>篇下第八章：诚意，完全，好意，尊法，报偿。1903年<新尔雅·释教育>：从个物抽出其共同之点而生起共同观念者，谓之概念。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3,000개 일본어: 426,000개 중국어: 374,000,000개

개성(個性) ⇐ 個性(こせい kose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이광수<무정> 설혹 개성을 무시하고 만인을 한 모형에 집어넣으려는 구식 교육가의 때를 아주 다 벗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당시 조선에는 유일한 가장 진보하고 열성 있는 교육가였다(1917)

▶의미: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徳富蘆花<思出の記>(1900)三・五「先生は到底融化し難い個性を備へて」

▶의미: 한 개인을 특징짓는 성질이나 성격

중국 <新尔雅·释教育>1903年

▶의미: 一个人的比较固定的特性(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로 들어온 일본어로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일본어: 『大辞林』 こせい【個性】 ある個人を特徴づけている性質・性格。その人固有の特性(한 개인을 특징짓는 성질이나 성격. 그 사람 고유의 특성.) .

중국어: 『汉语大词典』 指个人稳定的心理特征的总和(개인의 안정적인 심리 특징의 총합).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100,000개 일본어: 159,000,000개 중국어: 1,420,000,000개

개소(個所) ⇐ 個所/箇所(かしょ kasy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19편 英吉利의諸大都會> 且其近에奇妙한圓形館과分晩院의建築이相隣하고四個所の裁判衙司는雄偉한結構로儼然히官府의風儀를是擅하는듯河의南岸要地는大學校가占據하니(1896)

▶의미: 여러 곳 가운데 한 곳.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民事訴訟法>(1890)六六一条「競売期日の公告は左の箇所に掲示して之を為す」

▶의미: 그러한 특정한 곳. 개소.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부터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여러 곳 가운데 한 곳. 군데.

일본어: 『大辞林』 かしょ【箇所／個所】 ①限定された部分・場所(한정된 특정부분이나 장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0,600개 일본어: 4,9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개인(個人) ⇨ 個人(こじん kozin)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672호 부록> 第三十二條 郵便物遞送は重量は遞傳夫一個人에게二十五斤으로써定規함이라(1897년6월25일)

▶의미: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有賀長雄 <増補社会進化論> 「箇人の字大極図説の註に見えたれど西洋の意味と相違せり(1887)

▶의미: 개개의 사람. 개인.

중국 <宪法法理要义>(헌법 법리 요의) 上卷 1902年

▶의미: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 一个人(跟“集体”相对)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

일본어: 『大辞林』 こじん【個人】 国家や社会や種々の集団に対して、それを構成している個々の人(국가나 사회 및 각종 단체에 대해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인. 또는 지위나 신분을 별개로 했을 때의 인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58,000개 일본어: 1,170,000,000개 중국어: 3,690,000,000개

개인계(改印届) ⇨ 改印届(かいいんとどけ kaiin-todoke)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雜報[拓社利益配當注意] 第二 受領証에 捺押할 印章은 前日同會社에 提出한 認鑑과 同一한 者를 使用하되 만일 改印한 者이거던 市 區 町 村長의 証明을 得어야 改印届出書에 新印鑑을 添附提出할 事(1909년5월28일 2면5단)

▶의미: 개인 신고.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雇小林栄吉改印届> 改印御鑑 印鑑 私儀 是迄使用致来候印鑑磨滅候ニ付今般前記之印鑑ニ改印仕候間此段御届申候也(1894.3.17)

▶의미: 개인(改印御届書)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일본어에서 들어온 법률 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개인 신고(改印申告). ‘개인 신고’ ‘개인 신고서’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いいん【改印】別の印鑑に変えること。特に、届け出ていた印鑑を変えること(다른 인감으로 바꾸는 일. 특히 등록해 둔 인감을 바꾸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60개 일본어: 36,4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개찰구(改札口) ⇨ 改札口(かいさつぐち kaisatsu-guc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두견성 杜鵑聲>上, 맞춤 요령 소리가 나자 사름은 밀물갓치 밀녀와 기찰구(改札口)로 나가논디(普及書館, 1912)

▶의미: 표 보이는 곳.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島崎藤村<「船」>彼女は例の薄い鼠色のユオトに、同じような色の洋傘<こうもり>を持って、待合室から改札口の方へ山本さんと一緒に歩いた

▶의미: 역에서 승객의 승차권을 검사하는 곳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시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 1012년경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예전에 ‘개표구 01’를 이르던 말. ‘표 보이는 곳’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いさつぐち【改札口】駅で、客の乗車券類を検査する場所(역에서 승객의 표를 검사하는 곳)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100개 일본어: 6,38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개호(介護) ⇨ 介護(かいご kaig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1면> [囚人の 同盟絶食] 不可不罪囚)에게 對하여 비록 病이 發)할지라도 藥을 投)치아니하며 氣가 絶)할지라도 介護)할 必要가 無)할뿐 아니라 오히려 그 病이 發)하고 그 氣가 絶)하도록 惑은 非衛生的)待遇를 하며(1922년7월1일).

▶의미: 고령자나 병든 이를 간병하거나 돌보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簡易生命保険法>(1990)九条「終身保険とは、被保険者が<略>保険約款の定める常時の介護を要する身体障害の状態<略>が保険約款の定める期間継続したことにより保険金の支払をするものをいう」

▶의미: 곁에서 돌보아 줌.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겹에서 돌보아 줌.

일본어: 『大辭林』 かいご【介護】高齢者・病人などを介抱し世話をすること(고령자나 병든 이를 간병하거나 돌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3,000개 일본어: 167,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객관(客觀) ⇐ 客觀(きゃっかん kyakk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신학월보 제2권제6호> 一은 아논 주관(主觀)이오 二는 객관(客觀)이오 三은 령혼이 객관에서 영향(影響)으로 힝혼는 거시며또 혼 아논 객관은 혹 안으로도 잇고밖그으로도 잇스니 이 세가지 원소는 각각에 드러가는 거시며또 모든 각각은 모든 지식의 기초 | (基礎) | 나라(1902년6월)

▶의미: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哲学字彙』初版(1881) object 客觀

▶의미: 특정한 인식작용이나 관심을 넘어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것

중국 <心理学教科书·绪论>(심리학교과서 서론) 1903년

▶의미: 在意识之外, 不依赖主观意识而存在的(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함)

①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함. ②세계나 자연 따위가 주관의 작용과는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함. 주관 작용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정신적·육체적 자아에 대한 공간적 외계. 또는 인식 주관에 대한 인식 내용. 세계나 자연 따위가 주관의 작용과는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

일본어: 『大辭林』 きゃっかん【客觀】特定の認識作用や関心を越えた一般的ないし普遍的なもの。主観から独立して存在するもの(특정한 인식작용이나 관심을 넘어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在意识之外, 不依赖主观意识而存在的(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함)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5,000개 일본어: 9,790,000개 중국어: 199,000,000개

거류(居留) ⇐ 居留(きょりゅう kyory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97호 勅令第三十七號 地方官吏職制>王國에在る外國人及外國人
居留地に關する事項(1896년8월6일)

▶의미: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삶.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삶.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官板バタビヤ新聞>(1862) 「二三箇月の中には必ず比国に外国人の居留す可き家室を營
造る可し」(1861년10월14일)

▶의미: 외국 거류지에 사는 것.

중국 <致秘魯外交部照會>(페루 외교부에 보내는 문서)1909年

▶의미: 일시적으로 머물러 삶. 停留居住.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삶.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삶.

일본어: 『大辞林』 きょりゅう【居留】①一時，ある場所にとどまり住むこと(일시적으로 어느
곳에 머물러 삶) ②外国の居留地に住むこと(외국의 거류지에 사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停留居住(일시적으로 머물러 삶)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34,000개 일본어: 510,000개 중국어: 20,700, 000개

거치(据置) ⇐ 据え置き/据置き/据置(すえおき sueo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독립신문 제4면외보> 거치据置 년한은 十지년인디 十년 간은 다만 그 변리만 주고 본
전은 갑지 아니 흠이라(1899년 9월 20일)

▶의미: 거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整理公債条例>(1886) 第九条「元金は募集の年より五箇年据置其翌年より」

▶의미: (예금 채권 등을) 거치하다.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그대로 둠. 공채(公債) 사채(社債) 따위의 상환 또는 지급을 일정
기간 하지 않는 일.

일본어: 『大辞林』 すえおき【据(え)置き】貯金・債権などを、一定期間払い戻しや償却をしな
いで置くこと(저금 채권 등을 일정기간동안 팔거나 상환하지 않고 놔두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690개 일본어: 2,3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건강(健康) ⇨ 健康(けんこう kenko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10편 巡察의規制> 第二 人民의健康을看護하는事(1896)

▶의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七新葉>(1862) 例言「健康作用は薬剤を健康の人身に用ひて発する所の確然正切の作用を云ひ」

▶의미: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쁜 곳이 없고 튼튼한 것. 건강.

중국 <日本国志>卷三十一, 1890

▶의미: 生理机能正常 没有缺陷和疾病(생리 기능이 정상이고 결함이나 질병이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

일본어: 『大辞林』 けんこう【健康】 体や心がすこやかで、悪いところのないこと(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나쁜 곳이 없는 것) .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谓人体生理机能正常, 没有缺陷(인체의 생리 기능이 정상이고 결함이 없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970,000개 일본어: 1,900,000,000개 중국어: 1,390,000,000개

건물(建物) ⇨ 建物(たてもの tatemon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6호 勅令第八十五號 警務廳官制> 第二課 一 經費豫算及金錢出納에關하는事項 二 需用物品의調度及土地建物에關하는事項(1895년4월29일)

▶의미: 사람이 들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十返舎一九<東海道中膝栗毛>あとの建物で、静御前が持病の疝氣さアおこつたと、金玉ノウつりあげて、うつちぬべいとあげへこげへにさはぎやることよ(1802)

▶의미: 건조물 건축물.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사람이 들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辞林』 たてもの【建物】人が住んだり物を収めたりするために造られたもの(사람이 살거나 물건을 넣어두기 위해 만든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650,000개 일본어: 142,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건초(乾草) < 乾草(ほしくさ hoshikus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16편 梨柰萬壽果(木瓜種類)> 其廐舎의排鋪는每一間に各一匹을寘고其前に飲筒과飼器를寘호디其飼料는燕麥及乾草니廐上樓를從호야(1896)

▶의미: 말린 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蓮集開目抄>我等程の小力の者、須彌山はなぐとも、我等程の無通の者、乾草を負て劫火にはやけずとも(1272年)

▶의미: 건초.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베어서 말린 풀. 주로 사료나 퇴비로 쓴다. ‘마른풀’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ほしくさ【干草／▽乾草】干して乾かした牧草。家畜の飼料にする(말린 목초)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900개 일본어: 98,6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건평(建坪) < 建坪(たてつぼ tatetsub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153호 工事請負入札廣告> 忠清南道懷道郡財務署新築工事 廳舎木造平屋建 壹棟 此建坪約五拾三坪 此入札保證金は各自見積價格の百分五以上(1908년8월 17일)

▶의미: 건물이 차지한 밑바닥의 평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幕末御触書集成 五八>(1855) 十一月四日「此度地震に而、類焼井潰家等相成候面々、屋敷内空地等無之<略>可成丈け建坪取縮空地出来」

▶의미: 건축 면적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건물이 차지한 밑바닥의 평수. 2층 이상 건물에서 각 층의 바닥 넓이를 전부 더한 평수

일본어: 『大辞林』 たてつば【建坪】建築面積を坪単位で表したもの(건축면적을 평 단위로 나타낸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6,700개 일본어: 4,79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건폐율(建蔽率) ⇐ 建蔽率(けんぺいりつ kenpeiri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2면>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建蔽率(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비율)을 각 지방 특성에 맞추어 多元化 하는 한편(1976.2.21)

▶ 의미: 대지 건물 비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本建築学会研究報告>静岡市の建蔽率構造別及用途別面積配分の研究(龜井幸次郎, 1950년5월)

▶ 의미: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 이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 건축용어로, 1970년대 이후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

일본어: 『大辞林』 けんぺいりつ【建蔽率・建坪率】建築面積(建坪)の敷地面積に対する割合(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9,900개 일본어: 9,19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검사역(検査役) ⇐ 検査役(けんさやく kensaya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농상공부고시13호>監査役中에發起人으로서選任된者が有るときは創立總會는特히検査役을選任하여야其者を代하여前項의調査及報告를하게함을得함(1908년10월27일)

▶ 의미: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또는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 감사 기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東京日日新聞>「正副社長、常議員、検査役等の重役に関する事項を議定し」(1888.3.24)

▶ 의미: 검사를 하는 역할이나 그 사람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법률』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또는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 감사 기관.

일본어: 『大辭林』 けんさやく【検査役】 ①検査をする役(검사 하는 사람) ②会社の設立手続き, 総会招集手続きおよび議決方法, 業務および財産状況の調査を行う臨時の監査機関(회사설립의 수속이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 업무 및 재산상황의 조사를 실시하는 임시 감사기관)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240개 일본어: 6,18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검정(檢定) ⇐ 検定(けんてい kente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9호 學部分課規程>第二條 秘書課에서左開하는事務로掌함 一 機密에關하는事項 二 官吏의進退身分에關하는事項 三 大臣官印及部印의管守에關하는事項 四 公立學校職員의進退身分에關하는事項 五 教員의檢定에關하는事項(1895년4월21일)
▶의미: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明治二十三年・勅令第百一号・文部省官制改正>第二条 文部省ニ総務局ヲ置キ通則ニ掲クルモノ、外教科用図書ノ檢定教育上必要ナル図書ノ編纂及外国図書ノ翻譯其他各局ノ所掌ニ属セサル事務ヲ掌ラシム(1890)
▶의미: 기준을 두고 그에 맞는지 아닌지를 검사하여 합격 불합격 등급 가치 등을 정하는 것

중국 <化学实用分析术(화학실용분석술)>第三篇<定量分析法>1902年
▶의미: 検査鑑定(검사 감정)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에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함

일본어: 『大辭林』 けんてい【檢定】 基準を設け, それに合っているかどうかを検査して, 合格・不合格・等級・価値などを定めること(기준을 두고 그에 맞는지 아닌지를 검사하여 합격 불합격 등급 가치 등을 정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検査审定(검사 심사하여 결정하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41,000개 일본어: 11,300,000개 중국어: 19,500,000개

검진(檢診) ⇨ 検診(けんしん kensh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醫師檢獄] 病院醫師 盧尙一 金教珏 兩氏が 監獄署에 往きや 檢診하즉 罪囚가 總計 二百三十七人이라(1898년3월8일 3면1단)

▶의미: 검진. 진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蔵田秀一体格試験の節身体微弱>第百四十六号 秀一儀 去冬十一月中教導医学科生体格試験檢診時劣良身体微弱ニ付入団不相成為間陸軍省ヨリ如何之御沙汰可御達シ有テ何卒何分之御詮議旨仰付為此段何分奉願候也 第二百九号二等軍曹(1878년2월)

▶의미: 병이 들었는지 여부를 알기위해 진찰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건강 상태와 질병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증상이나 상태를 살피는 일.

일본어: 『大辞林』 けんしん【檢診】 病氣にかかっているかどうかを知るために診察すること(병이 들었는지 여부를 알기위해 진찰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9,000개 일본어: 2,13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검침원(檢針員) ⇨ 検針員(けんしんいん kenshin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7면> [韓電에서도 協調] 29일 韓電은 전국각시·도지점근무 검침원(檢針員과 집금원등 一천五백여명에게 斗衡군을 찾는데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히 지시하였다(1963년5월29일)

▶의미: 계량기 조사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高田保<ブラリひょうたん>(1905) 首斬り「電気の検針に来た人をいきなり殴り殺してしまった坊主があった。」

▶의미: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의 사용량을 조사하는 일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 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전기 수도 가스 따위의 사용량을 검사하는 사람. ‘계량기 조사원’ ‘조사원’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けんしん【檢針】 電気・ガス・水道の度量器の針の示す目盛りを調べること(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의 사용량을 조사하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610개 일본어: 155,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게양(揭揚) ⇨ 掲揚(けいよう kei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外報[九龍領有確定] 英國이 本月十七日 九龍에 國旗를 掲揚하고 其借入을 確定하였는디 新借入地에서 此日을 祝日노습아 大祝賀를 行하고 又此地方行政은 村長里正等에게 委任하기로 하고 香港으로서 淸國에 輸入하는 鴉片稅金은 今後로는 香港政廳에서 徵收한다더라(1899년5월1일 3면3단)

▶의미: 기(旗) 따위를 높이 걸거나 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広島県淸國和談結約ニ付祭典式ヲ設御国旗掲揚伺>庶務第五百三十六号 十二月五日 庶務受付 臨時 国旗掲揚伺 ニ淸國 詰問之末応變之 処置ニモ可立至 達ニ付テハ(1874년11월27일)

▶의미: 기(旗) 따위를 높이 걸거나 댄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말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기(旗) 따위를 높이 걸

일본어: 『大辞林』 けいよう【掲揚】 高くかかげること(높이 걸어 두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6,700개 일본어: 1,8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격납(格納) ⇨ 格納(かくのう kakun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일본 岐阜縣 不破郡 玉村 지역 내에 건설할 육군의 大格납고는 28동 중 4동은 준공하고 지금 건축중인데 岐阜縣不破郡玉村地内に建設할陸軍의大格納庫는 廿八棟中四棟은竣工하고目下建築中인디(1914.06.25 2면5단)

▶의미: 넣어 둠.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近衛三兵預備兵器請取方ヲ近衛局ニ指令ス>指令 書面預備兵器之儀ハ現兵人員之數ニ応シ十五分の一相渡候間武庫司ヨリ受取可申事 但格納之儀ハ(1872년11월14일)

▶의미: 넣어 둠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집어서 수납해 둠. ‘넣어 둠’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くのう【格納】入れ納めること(넣어 둠)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으나 의미 다름. 宋代海南按商船大小定税金多寡的名目(송나라 해남에서 상선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다소를 정하는 명목)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500개 일본어: 299,000개 중국어: 5,030,000개

격무(激務) ⇨ 激務(げきむ gekimu)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삼천리 제12권제6호 長安 社會客인 夫君들의 生活을 報告하는 書> 朱耀翰氏 私生活을 犠牲하는 百貨店の 激務와 休日の 家庭(1940년6월1일)

▶의미: 몹시 고된 업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職工と微笑』此の激務に堪える事の出来る女は白痴か、さもなくば異常に体力の大きいもので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ので(1928)

▶의미: 몹시 고된 업무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몹시 고된 업무. ‘고된 일’ ‘힘든 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げきむ【激務／劇務】非常に忙しいとめ(매우 바쁜 업무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810개 일본어: 8,1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격별(格別) ⇨ 格別(かくべつ kakubetsu)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487호 漢城府告諭第二號> 격별(格別)一般人民도亦當深體此旨 各其一身衛生上에格別注意함이可 할지온況近日惡疹이漸次蔓延하야日日死亡(1909년9월29일)

▶의미: 유달리 특별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康頼宝物集>(1179) 下「真如実相も如此一つなれども、満迷には無明性法各別也」

▶의미: 보통과는 다른 것 또는 그런 모양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 각별

일본어: 『大辞林』かくべつ【格別】①普通とは違うこと。特に優れていること。また、そのさま(보통과는 다른 것. 특히 뛰어남. 또는 그런 모양) ②一つ一つに違いがあること(하나하나 각각 차이가 있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犹特别(특별하다)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90개 일본어: 8,150개 중국어: 179,000,000개

격상(格上) ⇨ 格上(かくあげ kakuage)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11면> 韓日纖維會談代表를 格上기로 3次會談서 마지막 折衝(1976년 3월 3일)
▶ 의미: 자격이나 등급 지위 따위의 격이 높아짐. 또는 그것을 높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久生十蘭<奥の海>その年は事務繁多で手繰りがつかず、金十郎が用人並に格上げされて邸廻りをした(1956)
▶ 의미: 자격이나 등급 지위 따위의 격이 높아짐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 이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70년대 신문 자료 등에 용례가 보인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자격이나 등급 지위 따위의 격이 높아짐. 또는 그것을 높임

일본어: 『大辞林』かくあげ【格上】それまでより資格・等級・地位などを高くすること(그 때까지 자격이나 등급 지위를 높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400개 일본어: 12,9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격자문(格子門) ⇨ 格子門(こうしもん kooshimon)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5면 생활/문화> 양평郡 양서面 양수리에서 五개의 지석묘를 발굴, 赤色無文土器半月形石刀 格字文土器 파편등을(1972년 9월 11일)
▶ 의미: 문살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樋口一葉<たけくらべ>(1895) 一二「仮初(かりそめ)の格子門(カウシモン)のぞけば鞍馬の石燈籠に萩の袖垣をしらしう見えて」
▶ 의미: 문살문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보이나 이번 조사에서는 해방 이후 자료만 발견되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문살을 바둑판처럼 가로세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짠 문. ‘문살문’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こうし【格子】細い角材や竹などをたてよこにすき間をあけて組んだもの(가는 각재나 대나무 등으로 가로세로로 간격을 두고 짠 것으로 건축물에 사용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6,700개 일본어: 71,7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격하(格下) ⇨ 格下(かくさげ kakusag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삼천리 제8권 제11호> 朝鮮貯蓄銀行은 홀연 格下되나 그래도 朝鮮人側 銀行보다는 越等하니 伊森頭取 伊森頭取 年俸 만2천원이나 重役賞與 기타를 合하면年收 3만원 程度요 課長級은 年收 5, 6천원 程度라 한다(1936년11월1일).

▶의미: 자격이나 등급 지위 따위의 격이 낮아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取引所用語辞彙>(1917)

▶의미: 상품거래에서 표준품보다 못할 경우에 표준품보다 싸게 가격을 매기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30대에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있음. 자격 등급 지위 따위의 격이 낮아짐. 또는 그것을 낮춤

일본어: 『大辞林』 かくさげ【格下】それまでより資格、等級、地位などを低くすること(지금까지의 자격이나 등급 지위 등을 낮게 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2,200개 일본어: 4,2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견본(見本) ⇨ 見本(みほん miho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11편 偏黨호는氣習>政府는其見本을試考호야其物이果然人世에有益호者면其經綸호主人에게專賣權을始許호고(1896)

▶의미: 전체 상품의 품질이나 상태 따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보이는 물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殿村篠齋宛馬琴書簡>天保七年(1836) 一月六日「去冬、南柯夢は大坂板元河太より見せ本売部、丁子やより差越し候よしにて」

▶의미: 상품 등의 품질이나 효용 등을 보이기 위해 전체 중에서 선택한 일부 상품 또는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있음. 전체 상품의 품질이나 상태 따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보이는 물건. ‘본보기’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みほん【見本】〔見せ本の意〕①商品などの品質や効用などを示すため、生産された全体から抜き出された一部の商品など。また、そのために特に作ったもの。サンプル상품 등의 품질이나 효용 등을 보이기 위해 전체 중에서 선택한 일부 상품 또는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 샘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7,000개 일본어: 757,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견습(見習) ⇨ 見習/見習い(みならい minar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修進英才 雜報(修進英才) 日本留學生李憲珪氏가 慶興義塾에서 普通科를卒業하고다시 警視廳으로 轉就해야 事務를 見習한다니우리는 學徒들이 速히 卒業하고 本國으로 還해야 需用되기를 望호노라(1898년10월11일 3면2단)

▶의미: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익힘 ※『17세기국어사전』에 없음. 『한국한자어사전』4권에 의미 기술은 있으나 용례 없음

일본 <宇津保物語>(10세기말) 俊蔭「さてもこころにくき人の、めづらしくし給ふ所なるを、みならひもせん」

▶의미: 현장에 가서 일을 배우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세기말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있음.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익힘. 또는 그런 일.

일본어: 『大辭林』 みならい【見習(い)】①みならうこと(보고 배우는 것) ②実地について仕事を習うこと。また、そうする人(현장에 가서 일을 배우는 것 또는 배우는 사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0,400개 일본어: 293,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견습기자(見習記者) ⇨ 見習記者(minarai-kish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광 제35호 新聞經營・編輯座談會> 내 생각같아서는 지금도 外勤記者 한명에 見習記者를 2, 3명씩 더 두면 상당한 記事가 나올 줄 압니다. 「특종」을 많이 얻으면 월급을 올

려 주기로 하고(1932년7월3일)

▶의미: 수습기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小熊秀雄略年譜>1922(大正11)年 北海道旭川新聞社に見習記者として入社(翌年の説もある) 文才を認められ、社会部の記者となる

▶의미: 수습기자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수습기자.

일본어: <大辭林>『大辭泉』에 표제어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680개 일본어: 30,1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견적(見積) ⇨ 見積(みつもり mitsumo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47호 外報> 世界諸國에서小麥出産見積高多호미라. 匈牙利農商大臣이本年世界小麥收穫高多에係호야當業者及領事로부터諸報告를蒐集호야公判함今此報告에據호면小麥輸入이諸國에서本年小麥産出高多是七億四千九百万餘物(一物은凡京升七升)이요(1895년8월26일)

▶의미: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따위를 미리 어림잡아 계산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二葉亭四迷<浮雲>(1887-89) 二・九「文三の背長を眼分量に見積りてゐだが」

▶의미: 미리 산출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따위를 미리 어림잡아 계산함. 또는 그런 계산. ‘어림셈’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見積【みつもり】 前もって算出すること。また、その計算(미리 산출하는 것. 또는 그 계산)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97,000개 일본어: 150,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견적서(見積書) ⇨ 見積書(みつもりしょ mitsumorisy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118호 廣告> 忠北清州財務署新築工事 廳舍木製平家建 壹棟
同附屬建物 貳棟 總數約五拾參坪 右入札保證金は各自見積書代價の百分五以上(1908년7
월6일)

▶의미: 추산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陸軍省 公文別録 砲騎歩定員増補及工兵費用ヲ増加ス>御建設可相成尤工兵隊之儀既ニ
編制相成就テハ定額金之儀別冊見積書之通御支給相成候様致度(1875년4월14일)

▶의미: 경비 등을 어림하여 작성한 서류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따위를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적
은 서류. ‘추산서’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みつもりしょ【見積書】経費などの見積もりを記した書類(경비 등을 어림하
여 작성한 서류)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3 800개 일본어: 30 7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견제(牽制) ⇨ 牽制(けんせい kense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若事君之際에 一毫라도 中心에 由치 아니함면是는 不忠이라 稱할지라 然
나 心도 亦有二焉하니 曰公心曰私心이라 夫私心者는 物欲의 牽制함비 되야 毎日 外馳
함즉 中心이라 稱함지못 함짓고 眞個中心인즉 卽公心を 謂함이어늘 近日에 人人이 俱曰
予忠이라(1899년2월.01.1면1단)

▶의미: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公議所日誌.一二・明治二年>(1869) 五月「四方に節度府を設け、兵馬を具へ、藩県を牽
製し」 横山エンタツ<漫才読本>(1936) 早慶戦「打者見送って、ポールカウント、ワン・エ
ンド・ツウあし、二塁ケンセイ!」

▶의미: 적대하는 상대를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
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름. 아군의 공격이 수월하도록 적의 일부를 다른 곳에 묶어
두는 전술적 행동.

일본어: 『大辞林』 けんせい【牽制】①相手を威圧したり監視したりして自由な行動を妨げるこ

と(상대를 위압하거나 감시하거나 하여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 ② 作戰上，自分の都合のよい所へ敵を引きとめること。また，敵の動きを封じること(작전상 자신에게 형편이 좋은 곳에 적을 묶어두는 것. 적의 움직임을 봉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89개 일본어: 250,000개 중국어: 30,200,000개

견출장(見出帳) ⇐ 見出帳(みだしちょう midashi-cho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第四章 商號>第三十條 商號의變更又는未成年者、妻、後見人이나支配人の姓名의變更의登記를施한때는見出帳中更히相當한部에其見出을移す야前의見出의備考欄에第某冊第某張에移す旨意를記載하고其見出을朱抹함이可함(1908년9월23일)

▶의미: 찾아보기 책.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防衛省防衛研究所 陸軍省大日記>其帳簿ノ引縊ヲ受クル裁判所等ニ於テハ搜索ニ困難ナル義可有之仍テ搜索ニ便利ノ為見出帳様ノモノヲ製シ可引縊心得ヲ以テ予ヲ其準備致置ヘキ旨戸長役場ヘ相達スヘシ(1886년12월13일)

▶의미: 책이나 장부 속 사항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목록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음.

일본어: <大辞林>『大辞泉』 표제어 없음에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6,000개 일본어: 32,6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견출지(見出紙) ⇐ 見出紙(みだしがみ mdashi-gam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경향신문 7면> [文教部 細則 마련 國語순화 6百30단어 확정] 순화대상단어는 △일본식 한자어(賣物·持入·仕入 등) △특정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心得사항·見出紙·手入 등) △한문투의 말(無所不知·無識所(1977년4월23일))

▶의미: 책이나 서류 따위에서 분류를 목적으로 붙이는 작은 종이. 흔히 책이나 서류 따위의 가장자리에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붙이고 표시한다. ‘찾아보기 표’로 순화.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防衛省防衛研究所 海軍省公文備考類>[海軍省-公文備考-T1-1-1350(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日課及週課長 職員定員 執務時限及休暇 諸會議(細目ハ見出紙ニアリ) 事務引継及職務代理 行政事務簡捷ニ関スル件(大正元年(1912년))

▶의미: 책이나 서류 따위에서 분류를 목적으로 붙이는 작은 종이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생각되나 이번 조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용례만 발견되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책이나 서류 따위에서 분류를 목적으로 붙이는 작은 종이. 흔히 책이나 서류 따위의 가장자리에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붙이고 표시한다. ‘찾아보기 표’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大辭泉』에 표제어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9,500개 일본어: 53,9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견학(見學) ⇨ 見学(けんがく kenga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151호 [宮廷錄事]> 皇太子殿下下계읍서實地見學次로本月十日午前八時에東京新橋의서發車히사名古屋에一夜留宿히시고(1908년8월13일)

▶의미: 보고 배우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八雲御抄>(1242頃) 六「ただよくよくふるき歌を見学して、さる物から、しりがほに、ふるきうけられぬ詞を好みよむべからず」

▶의미: 실제로 보고 지식을 얻는 것. 봄으로써 배우는 것. 견학.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실지로 보고 그 일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넓힘. ‘보고 배우기’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けんがく【見学】 實際に見て知識を身につけること(실제로 보고 지식을 쌓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7,000개 일본어: 137,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결산(決算) ⇨ 決算(けっさん kess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결산(決算)<대한제국 관보 제201호 法律第十七號 商務會議所規例>第十五條 會議所經費豫算은地方長官을經由히야農商工部大臣에게認可를請히고決算은申報히미可함(1895년11월12일)

▶의미: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함. ※『17세기국어사전』 『한

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和蘭字彙』(1855) 「afreenening 決算」

▶의미: 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과 비교하여 작성한 확정수치.

중국 <游历日本图经>(일본유람도경(图经))卷五 1889年

▶의미: 根据年度预算执行的结果而编制的年度会计报告(일정한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 정리하거나 마무리함. 또는 그런 활동이나 업적)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함. 또는 그렇게 산출한 계산. 일정한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 정리하거나 마무리함. 또는 그런 활동이나 업적

일본어: 『大辞林』 けっさん【決算】①企業などで、一定の時期を画して収益と費用を算定し、その財産状況を明らかにすること(기업 등에서 일정기간마다 수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재산상황을 명백히 하는 것)。②国および地方公共団体の一会計年度における歳入・歳出を、当初の予算と対比して作成される確定的計数(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과 비교하여 작성한 확정수치)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나옴. 亦作“決算”(결산하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72,000개 일본어: 40,000,000개 중국어: 36,400,000개

결석계(缺席届) ⇐ 缺席届(けっせきとどけ kesseki-todok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缺席届을 했어도 十日以内に 出頭하면検査可能 기사(1942년2월28일 2면1단)

▶의미: 결석신고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田舎教師>(1909) <田山花袋>六〇「欠席届さへ出して置くと、二月は俸給が下りるんですから」

▶의미: 결석 기간이나 이유 등을 적어 제출하는 신고서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결석을 하였을 때나 하려고 할 때에 그 사유를 기록한 문서. ‘결석신고서’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大辞泉』에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940개 일본어: 1,53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결손(缺損) ⇐ 欠損(けっそん kesso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西伯利鐵道談] 土沙中에 混交^{혼교} 氷塊^{빙괴}가 몬져 融解^{융해} 處處^{여여}에 間隙^{간격}이 生^생 處^처 枕木^{침목}을 敷^敷 處^처가 傾斜凸凹^{경사부각} 處^처가 非常^{비상}히 缺損^{결손} 又其夏間工事의 部分은 漸次 冬節이 되면激烈^{격렬} 霜柱^{상주}로 由^유 土地가 凍浮^{동부} 竣工^{구공} 工事의 全體가 輒然破壞 修理^{수리} (1899년7월31일 3면2단)

▶의미: 모자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造化妙々奇談>(1879.80) <宮崎柳条>五「内に欠損(ケッソン) 有て此の定調の度を失へる也」

▶의미: 1.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함. 2.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금전상의 손실

중국 <胃腸病普通療法>第一編(위장병 일반 치료법)제 1편) 1922年

▶의미: 整体缺少或失去某个部分(전체가 없거나 어느 부분을 잃다)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말부터 용례가 있는 단어로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함. ‘모자람’으로 순화. 2.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금전상의 손실.

일본어: 『大辞林』 けっそん【欠損】①一部分が欠けてなくなること(일부분이 빠져 없어지는 것) ②決算の結果生ずる損失(결산결과 발생한 손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나오나 의미 다름. 生物器官系统水平上的残疾(생물 기관 계통의 장애)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1,400개 일본어: 2,600개 중국어: 23,200,000개

결식아동(缺食兒童) ⇐ 欠食兒童(けっしょくじどう kessyoku-zido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缺食兒童救濟 나날이 심하여가는 불경기는 세계각국에 비참한 사회상으로 반영되는데(1931년12월10일 5면1단)

▶의미: 끼니를 거르는 아동.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浅草紅団>(1929.30) <川端康成>四二「『欠食兒童(ケッショクジドウ)』だとか、『一家心中』だとか」

▶의미: 가난하거나 식량부족 등으로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없는 아동.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집안이 가난하여 끼니를 거르는 아동. ‘굶는 아이’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けっしょくじどう【欠食児童】 家庭の貧困や食糧不足などのため、満足に食事がとれない児童(집안이 가난하거나 식량부족 등으로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없는 아동)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230개 일본어: 2,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결재(決裁) ⇨ 決裁(けっさい kess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호 各部處務規程通則 第一章 職責> 第十一條 事가數局課에聯帶호는文書는主務局課에서辦理審案을起草호야 聯帶諸局과에合議호미호니若彼此意見이異時는該文書에理由를具호야국大臣又協辦에게決裁를請호미호ム(1895년4월1일)

▶의미: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公文別録・朝鮮事変始末・明治十五年・第五卷・明治十五年>実費ヲ以テ支給相成可然存候御決裁ノ上ハ關係ノ各庁へ御達シ相成度依テ御達相添此段相伺候條至急仰高裁候也(1882년)

▶의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하 등의 제안에 대해 그 일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말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재가(裁可)’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けっさい【決裁】 権限をもった者が部下などの提案の事柄の可否を決めること(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하 등의 제안에 대해 그 일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5,000개 일본어: 1,73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경관(景觀) ⇨ 景觀(けいかん keik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大優勝旗授與式 暮色드러운 城東京城球場에 歴史的感激의 景觀(1934년9월8일 6면3단)

▶의미: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本植物景觀>(1905) <三好学>「続々刊行して我邦国の植物景觀を紹介せんことを希望す」 뜻

▶의미: 자연경관. 독일어 Landshaft 영어 landscape의 번역어] 뜻

중국 1987<新民晚报>(신민석간)1987年 .

▶의미: 指某地区或某种类型的自然景色, 也指人工创造的景色森林景观. 泛指自然景色, 景象(어느 구역이나 어느 자연 경치를 말함. 또한 인공으로 만들어낸 삼림경치도 뜻함.)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2.『지리』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

일본어: 『大辞林』 けいかん【景觀】 ①けしき。ながめ。特に, すぐれたけしき(경치 전망. 특히 뛰어난 경치) ②(ドイツ landschaft)人間の視覚によってとらえられる地表面の認識像(시각으로 인식하는 지표면의 인식상.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나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 泛指自然景色, 景象(자연 경치, 풍경을 뜻함)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56,000개 일본어: 1,990개 중국어: 135,000,000개

경기(競技) ⇐ 競技(きょうぎ kyoog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體育俱樂部趣旨] 玆에 吾人이 興感호바 有호야 國中에 一大體育俱樂部를 設호고 四方의 同志青年을 互相呼邀호야 以其諸般體育에 關호는 遊戲等物로 隨意競技호야 一以其青年의 氣概를 涵養호며 一以其人生의 娛樂을 暢叙호며 一以其上下千百載國民의 腐敗호는 元氣를 挽回振作케함이 此에 優勝호바 有호리오(1906년3월30일 3면2단)
▶의미: 운동경기 스포츠.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今弁慶>(1891) <江見水蔭>二「万雷の出来ぬ事して、此競技(キョウギ)に勝なん物と、見廻す向ふに」

▶의미: 운동경기 스포츠

중국 <论教育当注重训练>(교육은 훈련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1915年

▶의미: 指体育竞赛(스포츠 시합)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일정한 규칙 아래 기량과 기술을 겨룸. 또는 그런 일.

일본어: 『大辞林』 きょうぎ【競技】 運動競技. スポーツ(운동경기 스포츠)

중국어: 『汉语大词典』 技术竞赛; 一般指体育竞赛(기술 시합; 스포츠 시합)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57,000개 일본어: 84,200,000개 중국어: 262,000,000개

경락(競落) ⇨ 競落(きょうらく kyoora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勅令第八十號 官報 第九條 左記境遇에는 債權者 又競落人(買得人)은 典當의 證明을 行한 官廳에 對하여 認證을 求함을 得함이라(1907년1월17일 1면2단)
▶의미: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하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浮世草子・野傾旅葛籠>(1712) 1・1「みすみすまうけのある事ながら、目ふさいで通しぬ。是さへ今はせりおとして、いかないかな何をして一まうけ仕さふなる事はなし」
▶의미: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경매차지’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きょうらく【競落】 競売になったものをせりおとすこと(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400개 일본어: 926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경매(競賣) ⇨ 競売(きょうばい kyoob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內國紀事] 仁川港居留地の 日本商人 租界競賣簿(1883년11월20일)
▶의미: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제일 높게 부른 사람에게 팔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米欧回覽実記>(1877)<久米邦武>1・1四「朝より午前までは、果穀菜蔬の市を開きて競売をなす」
▶의미: 다수의 매수인이 가격을 매겨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구입하는 방식.

중국 <日本国志>卷三十一 1890年
▶의미: 竞相报价, 争取卖出(다투어 가격을 제시하고 팔려고 힘쓰다)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일본인 거류지를 통하여 우리말에 들어온 경제 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

일본어: 『大辞林』 きょうばい【競売】多くの買い手に値段をつけさせ、最も高い値段をつけた人に売る方法(다수의 매수인이 가격을 매겨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구입하는 방식)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利用市场的供求进行集合竞价的买卖, 就为竞卖(시장의 공급 수요에 따라 총액 경매를 하는 장사)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0,100개 일본어: 59,600개 중국어: 568,000개

경상(輕傷) ⇐ 輕傷(けいしょう keisyo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뭇싸 河死傷者)뭇싸 河戰爭의 英國將校 死傷한 者는 將校 三名은 戰死하고 將校 二名은 重傷하고 將校 十一名은 負傷하고 兵卒 六十二名은 戰死하고 三百九十六名은 負傷하고 메슈엔 將軍도 輕傷을 被하고 去月二十日까지는 마웨긴우에는 無事하더라(1899년12월14일 2면4단)

▶의미: 가벼운 상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朝野新聞>(1874) 九月二四日「イネ並に乳母タツへ輕傷を負せ」

▶의미: 가벼운 상처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의 군사용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있음. 조금 다침. 또는 그 상처. ‘

일본어: 『大辞林』 けいしょう【輕傷】けがの程度が軽いこと(다친 정도가 가벼운 상태)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0,000개 일본어: 166,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경시(輕視) ⇐ 輕視(けいし keish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外報[露國軍備] 同港과 聖彼得堡시에 鐵道を 敷設하야 内地의 交通을 自在케 하고 또 日변으로는 西比利亞鐵道を 確成케 하랴면輕視치 못할 港口라더라(1899년 1월12일 3면3단)

▶의미: 무시하다. 가볍게 보다.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小学読本>(1884) <若林虎三郎>四「播種より收穫に至るまでは<略>其の人手を経ること幾許なるを知らず。汝等食する毎に其の勞を思ひ之を輕視すべからず」

▶의미: 가볍게 봄.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말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김. ‘깎봄’ ‘얕봄’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けいし【輕視】重要ではないと考えること。かろんずること(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가볍게 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小看, 不重视(얕보다 홀시하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6,800개 일본어: 1,740,000개 중국어: 28,700,000개

경어(敬語) ⇨ 敬語(けいご keig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兒童相互間敬語使用宣傳(상)] 啓蒙俱樂部建議 또 學童相互間の言語를朝鮮語로서敬語를使用케 할것을當局에建議하며(1921년9월26일 1면5단)

▶의미: 상대를 공경하는 뜻의 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春酒屋漫筆>(1891) <坪内逍遙>政界叢話・116「臣民の敬語(ケイゴ)も方今の様には恭々しからず、今はおしなべて王を呼ぶにはMajesty『陛下』といふが通例なるが」

▶의미: 상대를 공경하는 뜻의 말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상대를 공경하는 뜻의 말. ‘높임말’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けいご【敬語】聞き手や話題にのぼっている人物・事物に対する話し手の敬意を表す言語的表現(듣는 이나 대화 속의 인물 사물에 대한 화자의 경의를 나타내는 언어표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3,000개 일본어: 136,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경쟁(競争) ⇨ 競争(きょうそう kyoos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外報[阿洲鐵道電信] 電信은 南은 단썩니이가 湖썩지 北은 가이로로봇터 가 루트르까지 既通호얏시니 暗黑호 阿非利加가 未久에 黃金阿非利加가 될 터이니 將來世界競争의 活劇場은 唯阿非利加와 亞細亞에 有할 듯(1899년4월26일 4면1단)

▶의미: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興正菩薩行実年譜附録上>弘安二年(1279) 西大寺光明真言衆議事書(鎌倉遺文18・13820) 「男女競争、不可現非威儀。兩年預相奉行、可被配分者也

▶의미: 경쟁. 우열이나 승부를 겨루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말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룸. 생물이 환경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개체나 종과 벌이는 상호 작용.

일본어: 『大辭林』 きょうそう【競争】①同じ目的に向かつて勝ち負けや優劣をきそいあうこと (같은 목적을 향해 승패나 우열을 다투는 것) ②一定の生育圈に共存する個体間または種間に生ずる生育上の相互作用をいう語(일정한 생육권에 공존하는 개체간 또는 종간에 발생하는 생육상의 상호작용을 뜻함)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86,000개 일본어: 48,3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경제(經濟) ⇐ (keiz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各國近事[美國金銀產額] 再閱維爾斯波兒哥會社報單則與該局報單算還不同其計算曰昨年金額價值爲五百八十萬磅銀額價值爲九百六十七萬磅一則多於造幣局報單一則少於同額右見英京經濟雜誌(재차 維爾斯波兒哥會社의 報單을 열람해 보니 이 局의 報單과는 서로 같지 않았다. 여기에서 계산한 것에 의하면작도의 金額價值는 5백80만파운드였고 銀額價值는 9백67만파운드였다고 하였으니 하나는 조폐국 報單보다 많고 하나는 同額보다 적다. 이상은 영국 수도의 經濟雜誌에 나타난 것이다. 1884년1월18일 9면1단)
▶의미: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四河入海>(17C前) 三・三. 三「俗縁未し尽して政にあづかりて、伊霧や皐陶が如にして天下を經濟するぞ」
▶의미: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중국 <申江杂咏·招商局>신강잡영·초상(투자 유치)국1876年
▶의미: 社会物质资料的生产和再生产过程(사회물질자료의 생산과 재생산과정)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로, 외국 신문의 번역문을 통하여 우리말에 소개되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2.돈이나 시간 노력을 적게 들임.

일본어: 『大辭林』 けいざい【經濟】①物資の生産・流通・交換・分配とその消費・蓄積の全過程, およびその中で営まれる社会的諸關係の總体(물자의 생산 유통 교환 분배와 그 소비 축적의 전과정 및 그 속의 사회적 관계의 총체) ②世を治め, 民の生活を安定させること(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③金錢の出入りに関すること(금전이 오

고가는 일) ④費用が少なくてすむこと(비용이 적게 드는 일 절약)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같은 의미로 나와 있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330,000개 일본어: 162,000,000개 중국어: 1,720,000,000개

경찰(警察) ⇐ 警察(けいさつ keisa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 한국** <漢城旬報> 各國近事[白耳義國與合衆國互還犯公罪人條約新成] 近日俄國之虛無黨法國之社會黨英國之變亂黨若不敢逞志於本國則必往他國俄之叛人在法京而反嘲俄廷法之亂匪在英京而多謗法人法俄兩國亦不能如之何至使俄朝有設萬國警察法之議乃昨年事也(요사이 러시아의 虛無黨 프랑스의 社會黨 영국의 變亂黨 등이 本國에서 감히 그 뜻을 펴지 못하게 되었을 적에는 반드시 다른 나라로 갔으므로 러시아의 叛人이 프랑스 수도에서 도리어 러시아 조정을 조롱하고 프랑스의 亂賊이 영국 수도에서 흔히 프랑스 사람을 비방하여도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러시아 조정에서 萬國警察法을 설치하자는 의논을 제기하였으니 이는 작의 일이었다. 1883.11.20 10면)
- ▶의미: 경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 일본** <米欧回覽実記>(1877) <久米邦武>2・29「夫より『ボリス、ユート』に至る。即ち府中警察の裁判所なり」
- ▶의미: 경찰.

- 중국** <日本杂记>(일본잡기)1881年
- ▶의미: “警察”为日语词，大约在19世纪80年代传入中国。国家为维持社会秩序而设置的武装治安力量(경찰은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대략 1980년대 일본에서 중국에 들어왔다. 국가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무장 치안 역량)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한성순보의 가사에 처음 등장하며 1900년대 초부터 일반에 널리 용사되게 되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경계하여 살핌. 2.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조직.
- 일본어: 『大辞林』 けいさつ【警察】警察活動のための行政機関(경찰활동을 위한 행정기관)
- 중국어: 『汉语大词典』 担负国家赋予的安全保卫任务的部队，受中央军事委员会(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조직.)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300,000개 일본어: 420,000,000개 중국어: 429,000,000개

경품(景品) ⇐ 景品(けいひん keih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 한국** <皇城新聞> 小店에서 世上 여러 貴客에게 歲饌드릴 뜻으로(광고). 小店에서 世上 여러

貴客에게 歲饌드릴 뜻으로 陽曆本月二十二日부터 三十一日까지 日貨 三元以上이나 韓貨 七元以上 사진 이혼티 左開한 方法에 依하여 景品으로 贈呈하니 陸續사려 오시기를 伏望함(1903년12월21일 3면2단)

▶의미: 행사나 모임 참석자에게 증정하는 물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風俗画報 275号(1903) 大阪祝日「協賛会の趣向にて福引景品を出すことと決定したりしかば」

▶의미: 경품. 행사나 모임 참석자에게 증정하는 물품. ‘덤 상품’으로 순화.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특정한 기간 동안 많은 상품을 팔고 손님의 호감을 얻기 위해 일정한 액수 이상의 상품을 사는 손님에게 곁들여 주는 물품. 2. 어떤 모임에서 제비를 뽑아 선물로 주는 물품. ‘덤 상품’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けいひん【景品】 福引きなどに当たった者やパチンコなどの遊技の得点者に与える品物(당첨된 사람이나 파친코 등의 득점자에게 주는 물품)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6,600개 일본어: 20,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경합(競合) < 競合(きょうごう kyoog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後場小競合]四十錢先限七十九錢에서八十一錢의사이를小競合하다가七十九錢에止하였더라(1924년12월6일 2면11단)

▶의미: 몇 개의 일이나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 ※『17세기국어사전』 『한국 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民法>(1896) 329条・1 「一般の先取特権が互に競合する場合に於ては」

▶의미: 사법(민법 상법)에서 단일한 사실 또는 요건에 대한 평가나 그 효과가 중복되는 것. 또는 형법에서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죄명에 해당되는 것. 겹치거나 경쟁한다는 뜻의 ‘경합’은 1974의<藁のおとし穴(1974)> <坂上弘>에 나온다.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서로 맞서 겨룸. ‘겨룸’ ‘견쥔’ ‘경쟁’ ‘다툼’으로 순화. 단일한 사실 또는 요건에 대한 평가나 평가의 효력이 중복되는 일. 사법(私法)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은 효력을 가지는 권리가 중복되는 일.

일본어: 『大辞林』 きょうごう【競合】 ①せりあうこと(경쟁하는 것) ②いくつかの事柄や事由

が重なりあっていること(몇 개의 일이나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 ③刑法上, 一個の行為が数個の罪名に触れること(형법에서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것) 法上, 一つの目的物に同じ効力を發揮する權利が併存すること.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7,000개 일본어: 13,1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계단(階段) ⇨ 階段(かいだん kaidan)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外報[楊儒의 病源] 曰 駐俄清公使 楊儒氏가 滿洲問題에 關하여 俄國外部大臣과 論辨中에 楊儒氏가 甚히 外部大臣을 侮蔑하였다니 外部大臣이 激怒하여 家僕을 命하여 楊儒氏를 戶外에 引出함이 楊儒氏가 階段으로서 投落한 비 되어 頭部에 重傷을 負하였다 하였스니 事實이 果然하면 俄清兩國間에 자못 重大한 關係가 생겼다더라 (1901년5월20일 1면1단)

▶의미: 층층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紙上蟹気>(1758) 「彫桁階段」, 内田魯庵<氷冷語>(1899) 「文学者の価値が不相応に降落したは却(かへつ)て他日大に成功すべき槽段(カイダン)である」

▶의미: 높이가 다른 바닥면을 연결하는 단단한 통로

중국 <音乐入门>(음악입문)上編 1926年

▶의미: 事物发展过程中所经历的段落(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階段) 1.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 2. 어떤 일을 이루는 데에 밟아 거쳐야 할 차례나 순서. 3((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의 낱낱의 단을 세는 단위.

일본어: 『大辞林』 かいだん【階段】①高さの異なる所への上り下りのために作った段々の通路(높이가 서로 다른 곳에 오르내리기 위해서 만든 단층이 있는 통로) ②順に一段ずつ進む等級(순서대로 한단씩 나아가는 등급. 출세의 계단 끝까지 오르다)

중국어: 『汉语大词典』 事物发展进程中划分的段落(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020개 일본어: 98,400,000개 중국어: 873,000,000개

계엄령(戒嚴令) ⇨ 戒嚴令(かいげんれい kaigenre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淸國來電 外報 淸國各省에서 戒嚴令을 發布하여 專히 沿海各地軍備를 努力한다 云하였다(1899년3월25일 4면1단)

▶의미: 비상시에 군대에 통치권을 이양하는 명령.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太政官布告第三六号>(1882) 八月五日・一条「戒嚴令は戰時若くは事變に際し兵備を以て全国若くは一地方を替戒するの法とす」

▶의미: 계엄을 선포하는 명령.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대통령이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

일본어: 『大辭林』 かいげんれい【戒嚴令】非常時に軍隊に統治權をゆだねる命令(비상시에 군대에 통치권을 이양하는 명령)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6,100개 일본어: 1,5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계주(繼走) ⇨ 繼走(けいそう keis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關東學生繼走 陸上競技會] 第5回關東學生繼走OB陸上競技會는 二十六午後一時부터東京市外上井 ത്യ렉에서舉行하얏섯든바 決勝戰의成績은다음과갓다 (1932년6월 30일 7면7단)

▶의미: 이어달리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現代新語辭典(1931)「リレーRelay」

▶의미: 이어달리기. 릴레이.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일정한 구간을 나누어 4명이 한 조가 되어 차례로 배턴을 주고받으면서 달리는 육상 경기. 릴레이 경주, 이어달리기

일본어: 『大辭林』 けいそう【繼走】リレー競走(릴레이 경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3,000개 일본어: 10,8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계출(届出) ⇨ 届出(とどけで todoked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國民不可不知法律] 又吾人은 家의 一員이라 戶主, 家族, 夫婦, 親子, 後見人, 被後見人 等の 關係가 有하야 生出, 死亡의 届出, 婚姻, 養子, 相續 等を 必皆法律의 定헌 方式條件에 不從키 不可코 次에난 國家의 一員이라 納稅兵役의 義務, 子弟教育

의 義務, 裁判上證人の 義務 等を 擔負한지라(1903년4월9일 2면1단)

▶의미: 구청이나 학교 및 회사 상사 등에게 신고하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東京日日新聞>(1892) 五月一・二日「雑誌と難も専ら學術、技芸、統計、廣告の類に関するものは出版法により出版し大に届出の手續を省略し」

▶의미: 구청이나 학교 및 회사 상사 등에게 신고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신고

일본어: 『大辭泉』 とどけで【届出】 学校・役所や会社の上役などに届け出ること(학교 관청 회사 등의 상사에게 제출하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760개 일본어: 35,5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고가교(高架橋) ⇐ 高架橋(こうかきょう kookak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3면>[十數哩의 海峽에 大鐵橋架設計劃] 同計劃에 依하면鐵橋는 全長七哩로서 其中 六哩을 鋼鐵로하고 中央一哩만은 混凝土의 高架橋로하여 船舶의 航行을自由롭게 하는 동시에(1936년3월21일)

▶의미: 구름다리.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B-南洋-16(所蔵館: 外務省外交史料館)> [九、土木建築事業] 「マニラ」市ニ於ケル主ナル土木建築事業ハ「ケソン」橋及道路ノ新設、「イスパニア」及「サンタメサ」道路ノ改修、鉄道交叉点ノ高架橋、「マニラ」北港ノ改修工事、「デウエー・ボレヴァード」ノ延長工事(1942年)

▶의미: 구름다리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교통의 편의나 관광을 위하여 높게 놓은 다리. ‘구름다리’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こうかきょう【高架橋】 線路や道路をまたいで高い所にかけた橋(도로나 노선 위로 높은 곳에 걸쳐 놓은 다리)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090개 일본어: 2,23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고객(顧客) ⇐ 顧客(こきゃく kokya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切勿見失廣告. 南大門倉內와 梨峴朝布에도 出賣호오니 顧客便宜로 最近處에서 買得호시옵(1901년10월12일 3면3단)

▶의미: 단골로 오는 손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松原岩五郎<最暗黒之東京>(1893) 一二「其顧客として朝夕出入する人々は」

▶의미: 상점 등의 단골손님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2.단골로 오는 손님.

일본어: 『大辞林』 こきゃく【顧客】(商店などの) お得意客(상점 등의 단골손님)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34,000개 일본어: 16,6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고막(鼓膜) ⇐ 鼓膜(こまく koma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잡지 少年 第1年第1卷> 소리가 無常時로 귀의 鼓膜을 따리난지라(新文館, 1908년11일)<毎日申報> 鼓膜을 破裂케 한 前 巡查의 處刑 그러나 그 순사는 도망하였다(1921년9월10일 3면8단)

▶의미: 고막.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解体新書>(1774) 二「鼓、耳巖之底膜也、其膜謂之鼓膜」

▶의미: 고막. 네덜란드어 Trommel vlies의 번역어.

중국 <格物质学·Glossary>1901年

▶의미: 外听道和中耳之间的薄膜, 椭圆形(청각기관의 한 가지. 귓구멍 안쪽에 있는 갓 모양의 둥글고 얇은 막)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귓구멍 안쪽에 있는 막.

일본어: 『大辞林』 こまく【鼓膜】 耳孔の奥にあって外耳と中耳との境にある, 厚さ0.1ミリメートルの卵円形の薄い膜。音波を受けて振動し, これを鼓膜に付着した耳小骨によって内耳に伝える(귓속 깊이 있으며 외이와 중이 사이에 있다. 0.1mm 두께의 계란형태의 얇은 막. 음파에 진동하여 고막이 부착된 이소골을 통해 내이로 전해진다)

중국어: 『汉语大词典』 外耳与中耳之间的薄膜。内表面与听小骨相连, 外界的音波使鼓膜震

動, 借听小骨传入内耳(청각기관의 한 가지. 귓구멍 안쪽에 있는 갓 모양의 둥글고 얇은 막. 외이와 중이의 경계를 이루며 공기의 진동에 따라 이 막이 울리어 소리를 내이쪽으로 전하여 듣게 함)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700개 일본어: 136,000개 중국어: 4,350,000개

고미(苦味) ⇐ 苦味(くみ kumi / にがみ nigam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총독부<조선어사전> 귤(橘)나무 『名』「植」芸香科에 屬한 常綠樹니 莖은 高가 十餘이요 葉은 單身葉으로 互生하며 花는 綠色의 萼과 白色의 五花瓣과 多數의 雄蕊 及 一體의 雌蕊를 有하고 花梗을 具하니 果實은 黃色扁球狀의 漿果니 酸味와 苦味를 帶함(1920).

▶의미: 쓴맛.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内田魯庵<破垣>四「茶席に清風苦味を一喫して(1901)

▶의미: 쓴 맛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한국어에 들어온 말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쓴맛

일본어: 『大辞林』 くみ【苦味】 にがみ。にがいあじ(쓴맛)

중국어: 『汉语大词典』 苦的味道(쓴맛)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2,000개 일본어: 12,200,000개 중국어: 17,300,000개

고아원(孤兒院) ⇐ 孤兒院(こじいん kojiin)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16편> 衣服飲食及宮室의制度 第三 孤兒院이니幼穉의男女가父母와親戚의撫養를者가無히며世傳하는祖業도不存하야貧乏無依하는者를救恤하는處所니其教誨하는條目과出院하는年紀는幼兒院의規模와同一한者라(1896)

▶의미: 고아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横山源之助<日本の下層社会>(1899) 1・14「孤兒院としては大阪孤兒院あり、大阪育兒院あり、愛育社あり、棄兒養育館あり」

▶의미: 고아원.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말 우리말에 들어 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고아를 거두어 기르는 사회사업 기관.

일본어: 『大辞林』 こじいん【孤児院】 身寄りのない児童を収容して養育した社会事業の施設
(의지할 곳이 없는 아동을 수용하여 양육하는 사회사업 시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36,000개 일본어: 3,11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고장(故障) ⇐ 故障(こしょう kosho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388호 内部令第一號>第八條 病으로不得執務한지六十日을過한者와
私事の故障을依하야不爲執務한지二十日을過한者는 月俸을日計하야其半額을減할事(1906
년2월28일)

▶의미: 기구나 기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기능상의 장애. ※『17세기국어사
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文徳実録>齊衡三年(856) 五月丙寅「可奉造固状を奏給へり。而国家事繁く故障多し
て、今までに、怠たり」

▶의미: 세상사를 방해하는 상황 장애 방해.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기구나 기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기능상의 장애. 사
람의 몸에 생긴 탈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辞林』 こしょう【故障】 機械や身体などに不調が生じて、円滑に働かなくなること
(기계나 몸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指机械、仪表等发生的不能顺利运转的情况(기계나 설비 따위의 기능
에 이상이 생기는 일)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420,000개 일본어: 48,900,000개 중국어: 248,000,000개

고지(告知) ⇐ 告知(こくち kokuch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호 收入條規>第二 隨時收入으로徵收命令或納額告知를發하는者는該
徵稅命令或納告知書의日子에屬하는年度의歲入으로함(1895년4월5일)

▶의미: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延喜式>(927) 18・式部「右印署訖告 知本司。令附考帳。仍即給与。隨身為驗」

▶의미: 관청 등이 연락사항을 알리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 2.소송법에서 법원이 결정 사항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 ‘알림’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こくち【告知】一定の意思,または事実を通知すること(의견이나 사실을 통지하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90,000개 일본어: 1,1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고참(古參) ⇐ 古参(こさん kos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2면5단> [古參大將會合]支那의長期抵抗에對應할帝國의對支那方策이決定되었
슴으로(1938년1월16일)

▶의미: 오래전부터 한 직위나 직장 따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葡辞書』(1603) Cosanno(コサンノ) シュ

▶의미: 고참병(古參兵).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말이다. 1930년대에 용례가 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오래전부터 한 직위나 직장 따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일본어: 『大辞林』 さん【古参】古くからある職や仕事についていること。また,その人(오
래 전부터 어떤 직업이나 일을 해온 것이나 그런 사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9,700개 일본어: 6,12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고체(固體) ⇐ 固体(こたい kot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寶鑑 附錄彙集 이권> 류테(流體) 고테(固體) 기테상(氣體狀)과 수소(水素)와 산소(酸素)
등 원형이 아모리 만흐나 고샤흐고 테질은 조물 중에 7장 완전치 못흐고 7장 순일치
못흐야 무수히 논홀 만흐고 7장 일양 동형이며 제 운동흐는 힘력에 7장 한덩이 잇스니
만물 중에 공변된 법측에 속흐야 순종흐느니라(경향신문, 1906-1910)

▶의미: 고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小学化学書>(1874) <文部省>一・一回「吾が踏む所の土は固体にして地面に流るる所の

水は液体而して地球を囲む所の大気は気体なり」

▶의미: 고체

중국 <新尔雅·释化>1903年

▶의미: 일정한 체적과 형태가 있고 재질이 비교적 단단한 물체. 来自日语的词。有一定体积和一定形状，质地比较硬的物体。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일정한 모양과 부피가 있으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물질의 상태

일본어: 『大辞林』 こたい【固体】物質の三態の一。定まった形と体積をもつもの(물질의 3가지 상태의 한 가지. 정해진 형태와 체적을 가진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有一定体积、形状和硬度的物体(일정한 체적 형태와 경도가 있는 물체)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8,300개 일본어: 2,450,000개 중국어: 89,200,000개

곡선미(曲線美) ⇐ 曲線美(きょくせんび kyokusenb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22호 個性과 藝術> 그러나 다만 快感의 對象일 따름인 曲線美는, 아즉 藝術領內에 들어오지 못하며, 그 模作은 오즉 商品에 不過하야, 商人이나 鑑定者로 하야금 眞贋의 別을 析出케 하지 안는가. 그러면眞正한 藝術的 内容이 될만한 藝術美와 快樂的表現인 快美의 分岐點은 那邊에 在한가(1922년4월1일)

▶의미: 곡선에 나타나는 아름다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永井荷風<あめりか物語>(1908) 夏の海「その曲線美の著しい腰」

▶의미: 곡선의 아름다움. 특히 여성의 곡선미.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곡선에 나타나는 아름다움. 또는 곡선으로 표현되는 아름다움

일본어: 『大辞林』 きょくせんび【曲線美】①曲線によって構成された美(곡선으로 구성된 아름다움) ②女性の肉体のふくよかな線の美しさ(여성의 신체 곡선의 아름다움)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美学上以曲线比直线柔和, 而且富于变化, 因称人们对于曲线所产生的美感为曲线美(미학에서 곡선이 직선보다 부드럽고 변화가 다양하여 곡선이 나타내는 미감을 각선미라고 한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1,200개 일본어: 1,650,000개 중국어: 14,600,000개

곤로(焔爐) ⇨ 焔爐(こんろ konr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알콜焔爐가 爆發 家屋兩棟을 燒失]【釜山】二十일오후六시반경부산대
신정一九七 경남도지방과토정방언(大新町慶南道地方課土井芳彦)의집에서 불이일어나동가
외 이웃집一동二호를전소하고七시경진화하였는데 원인은 토방의안해가『알코 | 르』곤로에
다 찬을만들다가 실화한것이라는데 손해는약二千수百원이라한다(1932년6월23일 7면7단)
▶의미: 난방 장치의 하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酒落本・南閩雜話>(1773) 馴染の体「こんろへすみをつゐておゐて、いって媒や」.

▶의미: 쇠나 흙으로 만든 이동이 가능한 작은 화로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난방 장치의 하나. 나무 석탄 석유 가스 따위의 연료를 때거나 전
기를 이용하여 열을 내어 방 안의 온도를 올리는 기구이다. ≒스토브.

일본어: 『大辞林』 こんろ【焔炉】①土製・金属製の、持ち運びのできる小型の炉。炊事用。木
炭・ガス・電気など、用いる熱源に応じて構造が異なる(흙이나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운
반할 수 있는 소형가마. 취사용. 목탄 가스 전기 등 사용하는 열원에 따라 구조가 다르
다) ② 特に、七輪(특히 풍로를 말함)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7개 일본어: 533,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곤색(紺色) ⇨ 紺色(こんいろ konir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호외 宮内府本府及禮式院禮服規則>第十三條 上衣地質은深黑紺羅紗니
制式은燕尾服과同一히되上襟及袖口에는黑紺色羽緞四寸을付飾히며前面左右에金制李花鈕
扣三个式이오(1906년2월28일)
▶의미: 감청색.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菅家文草 卷第七一第十二>金泥字書、青紺色紙、譬如有名星宿麗晴天以(900)

▶의미: 보라색을 띤 진한 청색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감색, 짙은 청색에 적색 빛깔이 풍기는 색, 어두운 남색

일본어: 『大辞泉』 こんいろ【紺色】紫がかった濃い青。濃い藍色(보라색을 띤 진한 청색, 짙
은 남색.)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5,000개 일본어: 167,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근성(根性) ⇐ 根性(こんじょう konj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조선인을 侮辱하는 근성, 미국인의 足蹴事件] 표리가 부동한 미국 사람의 용서할 수 없는 가증한 변명(1920년8월21일)

▶의미: 타고 난 근본적인 사고방식.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가마쿠라 초기]<真如觀>(鎌倉初)「但し根性(ユンジャウ)の勝劣に随ふに」(12C 전기)

▶의미: 타고난 성질. 대부분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을 가리킨다.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있으며 「곤쵸」처럼 일본어 발음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

일본어: 『大辭林』こんじょう【根性】①生まれつきの性質。根本的な考え方(타고 난 근본적인 사고방식)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5,400개 일본어: 449,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골조(骨組) ⇐ 骨組(ほねぐみ honegum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별건곤 제23호 展望車>船體는 骨組와 被覆이 모다 輕合金 鋁판으로 되었고 이 合金의 9割4分이 알미늄이요 여기다 銅5分5厘 내지 3分5厘 망강 5厘 내지 8厘 마그네슘 5厘를 加한 것으로 그 比重도 鐵과 銅의 3분의 1 밖에 안이 된다(1929년9월27일)

▶의미: 건물 따위의 뼈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葡辭書』(1603) Fonegumino(ホネグミノ) タクマシイ ヒト

▶의미: 신체의 뼈 구조. 진신의 골격.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건물 따위의 뼈대. 건물 뼈대의 짜임새.

일본어: 『大辭林』ほねぐみ【骨組み・骨組】体の骨の構造。骨格(몸의 뼈 구조. 골격)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250개 일본어: 2,3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공간(空間) ⇄ 空間(くうかん kuuk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菜果會社, 雜報 地契衙門副總裁 閔泳璇氏가 農商工部に 請願하되 仁川港 柵岾一隅空間地에 菜果會社를 設立하깃다 한 故로 依願認許하얏더라(1903년7월9일 3면1단)

▶의미: 빈 곳.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西國立志編><1870,中村正直訳>10・5「一には工事、或は職務の空間(〈注〉テアキ) 欠乏なること、二には疾病、三には身故なり」

▶의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비어있는 장소. 또는 사방팔방의 무한대 넓이.

중국 <新尔雅·释格致>1903年

▶의미: 물질이 존재하는 하나의 객관 형식.物质存在的一种客观形式.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아무것도 없는 빈 곳.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일본어: 『大辞林』 くうかん【空間】物がなく、あいているところ(물건이 없고 비어있는 곳)

중국어: 『汉语大词典』 物质存在的一种客观形式, 由长度、宽度、高度表现出来(물질이 존재하는 객관 형식.길이 넓이 높이로 표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50,000개 일본어: 436,000,000개 중국어: 2,540,000,000개

공급(供給) ⇄ 供給(きょうきゅう kyooky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2편 世界의海>又各種草木의種子도回旋하는水の波濤를隨하여此地로브터彼地에移하며人生의日用하는材木도此水の流勢를因하여供給하기도하는니(1896)

▶의미: 물품 따위를 제공함. ※『17세기국어사전』에 표제어 있으나 현대적 의미와 다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小学読本>(1874) <榊原・那珂・稻垣>四「昼は我が食の半を遣り、夜は我が臥床に寝させて供給しおきたれども」

▶의미: 물건을 제공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함. 2.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 또는 그 제공된 상품의 양.

일본어: 『大辞林』 きょうきゅう【供給】①必要に応じて, 物を与えること(필요에 따라 물건을 주는 것) ②販売・交換のために, 商品を市場に出すこと(판매와 교환을 위해서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以物资、钱财等给人而供其所需(물자,재물등을 주어 필요에 공급하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610,000개 일본어: 12,400,000개 중국어: 128,000,000개

공란(空欄) ⇐ 空欄(くうらん kuur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妻는 夫의 姓에 從함 ◆ 條文插入으로 ◆ 民事令改正에 伴한 戶籍事務取扱關係 謄本下附時는 妻姓을 空欄으로 其他는 自由申請 기사(1926년6월23일 1면1단)
▶의미: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은 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百鬼園隨筆>(1933) <内田百閒>地獄の門。二「そのところは空欄に願ひませう」
▶의미: 글자가 쓰여 있지 않은 칸. 공란.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책 서류 공책 따위의 지면에 글자 없이 비워 둔 칸이나 줄. ‘빈 칸’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くうらん【空欄】何も記入してない欄。空白の欄(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은 칸. 공백의 칸)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900개 일본어: 157,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공람(供覽) ⇐ 供覽(きょうらん kyoor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84호 彙報 ○官廳事項>清國北京戶部衙門은各省(各地方)으로納付 光緒二十一年東北邊防經費未納額及歷年經費의未納銀兩을開列 ㅎ야皇帝에게供覽 ㅎ고또速히上納 ㅎ미可 ㅎ을事로各省에通報 ㅎ더라(1896년3월27일)
▶의미: 여러 사람이 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内閣 公文別録>[諸兵飾隊式魯国親王供覽]諸兵飾隊式魯国親供覽 来ル二十日魯国親王供覽ノ為メ諸兵飾隊行軍式被仰付候ニ付同日第十日比谷操練場へ行幸被為遊候間(1868년-1875년)

▶의미: 돌려 봄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의 행정 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여러 사람이 봄. ‘돌려 봄’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きょうらん【供覧】 多くの人に見せるようにすること(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950개 일본어: 15,6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공산주의(共産主義) ⇨ 共產主義(きょうさんしゅぎ kyoosanshug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濟州島財務通信 어떤 마을에는 마을이 소유한 전포(채소밭)가 있어서 마을 주민이 공동경작하여 소위 공산주의를 실행하는 곳도 있다. 某村에는 村有의 田圃가 有하야 村民이 共同耕作하야 所謂共產主義를 實行하는 處도 有하나라(1906년5월28일 1면4단)

▶의미: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 입각한 사상.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仏和法律字彙』(1886) <藤林忠良・加太邦憲>「communisme. kyosan.syugi 共產主義」

▶의미: 공산주의.

중국 <生計學說沿革小史>(생계학 학설 연혁 소사)1902年. 人類最理想의 社會制度(인류의 제일 이상적인 사회제도)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의 사상관련 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하여 체계화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 입각한 사상. 2.공산주의자들이 계급 지배의 도구라고 여기는 국가가 철폐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실현된 사회 경제 체제.

일본어: 『大辭林』 きょうさんしゅぎ【共產主義】 財産の私有を否定し,すべての財産を共有することによって,平等な理想社会をつくろうという思想(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유함으로써 평등한 이상사회를 만들려는 사상)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马克思、恩格斯所创立的共产主义学说,亦即无产阶级的整个思想体系(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하여 체계화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 입각한 사상)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4,300개 일본어: 830,000개 약38,800,000개

공상(空想) ⇨ 空想(くうそう kuus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학부편<국민소학독본 제16과>歲月과 潮水는 스름을 기다리지 아니호거날 悠悠히 消日
호야 一生을 空過호면엇지 浩嘆치 아니리오 故로 汝等은 今日에 不學호는 來日이 잇스
며 今年에 不學호는 來年이 잇다 호는 空想을 니지 말지어다(1895)
▶의미: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어 봄. ※『17세기
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当世商人気質>(1886) <饗庭篁村>五・一「空想といふものの貴といのは幾らか實地に似
寄りて立派な普請をする下図のやうなものなればこそなれ」
▶의미: 공상. 비현실적인 것이나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것.

중국 <영화사전>1866.1869<英华字典>1866.1869年
▶의미: 凭空设想(근거 없이 상상하다)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어
봄. 또는 그런 생각.

일본어: 『大辞林』 くうそう【空想】①現実にはありそうにもないことをあれこれ頭の中で想像
すること(현실에는 있을 리 없는 일을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不切实际的想法; 幻想(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
을 막연히 그리어 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92,000개 일본어: 3,910,000개 중국어: 28,400,000개

공석(空席) ⇨ 空席(くうせき kuuse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35호 五月 一日은 엇더한 날인가>이 大戰이 끝나자마자 露西亞에는 勞農共和
國이 建設되고 獨逸의 玉座도 奧洪國의 帝位도 空席이 되고 革命의 形勢가 全世界를
支配하게 되매 無産階級の 運動은 다시금 復活하야 「메-데-」의 勞働紀念祭도 亦是 復
活되었다(1923년5월1일)
▶의미: 빈 자리. ※『17세기국어사전』표제어 있으나 현대어와 의미 다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仏国風俗問答>(1901) <池辺義象>珈琲店のありさま其の雑事「夕方より夜にかけては、
巴里市数万軒の珈琲店、数億万の椅子、殆んど空席なし」
▶의미: 빈 좌석.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빈자리

일본어: 『大辞林』くうせき【空席】①人がいない席(사람이 없는 좌석. 빈 좌석) ②欠員のあ
る地位(결원이 있는 지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7,500개 일본어: 12,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공소(公訴) ⇐ 公訴(こうそ koos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5호 法部令第二號> 第七條 檢察官官吏의不正不當所爲가有호를發見
호는時에證據를集收호야官吏懲戒處分을求호고又公訴를提起호미可함(1895년4월16일)

▶의미: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17세기국어
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改正増補 和英語林集成』(1886) 「KOSO ユウソ 控訴」

▶의미: 第一審裁判所の下した判決に不服のある者が、その判決の当否の審査を上級の裁
判所に対して求める不服申立方法(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하는 자가 그 판결이 적
절한지 상급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청구)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 온 일본의 법률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일본어: 『大辞林』こうそ【公訴】刑事事件について、検察官が裁判所に起訴状を提出して裁判
を求めること(형사 사건에서 검찰관이 법원에 기소장을 내어 재판을 청구함)

중국어: 『汉语大词典』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820개 일본어: 434,000,000개 중국어: 175,000,000개

공시(公示) ⇐ 公示(こうじ kooj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英國國會 衆議院에서 외무차관 申羅瓘氏가 지방문제에 관한 외교공문
을 公示하겠다고 찬술했다.衆議院에서 外務次官 申羅瓘氏가 支那問題에 關하는 大
部青冊(外交公文)을 公示하길노라 述하며(1899년3월3일)

▶의미: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東京曙新聞> 明治11年(1878) 11月28日「此頃大蔵省より公示せられたる報告は左の通り」

▶의미: 공공기관이 일반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발표하는 것. 또는 그 발표한 것.

중국 <日本国志>1890年

▶의미: 公开宣示, 让公众了解并征求意见(공개적으로 표명하여 대중에게 알리고 의견을 묻다)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공공 기관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알림’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こうじ【公示】公の機関が広く一般に知らせること(공공기관이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指政府机关或团体下达的指示、通告等(정부 기관 혹은 단체에서 지시 통고등을 하달하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20,000개 일본어: 121,000개 중국어: 88,900,000개

공식(公式) ⇐ 公式(こうしき kooshi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0호 勅令第七十八號 陸軍服裝規則> 第五條 禮裝은 大抵左開호는 着用함 一 宮内에서陪食호는時. 一 禮節로上官에對見호는時. 一 夜會와其餘公式宴會에臨호는時(1895년4월11일)

▶의미: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인 방식.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工学字彙>(1886) <野村龍太郎>「Formula 公式」

▶의미: 공식(수학용어)

중국 <代数学·自序>1859年

▶의미: 用数学符号表示几个量之间关系的式子(수자 기호로 여러 수량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식)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인 방식.

일본어: 『大辞林』 こうしき【公式】 おおやけに決められている方式や形式。またそれによって物事を行うこと(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나 형식 또는 그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41,000개 일본어: 627,000,000개 중국어: 649,000,000개

공업(工業) ⇨ 工業(こうぎょう koog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제5호> 泰西農學校 嘗思農者天下之大本天下豈有不農而能爲天下者哉彼西洋諸國雖以貿易工業推爲今日之急務然至其農業亦未嘗蔑如也(일찌기 생각해 보건대 농업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천하에 어찌 농업이 없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저 서양의 모든 나라는 아무리 무역과 工業으로써 오늘날의 急務를 삼고 있지만 농업에도 무관심한 적이 없다. 1883년12월9일 14면)

▶의미: 물건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葡辞書』(1603) 「Coguio(コウギョウ) <訳>大工、箱師のような手を使う職人」

▶의미: 손재주로 정교하게 물건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목수 등의 직공.

중국 <日本地理兵要>卷一 1884年

▶의미: 利用自然资源生产成产品的 生产事业(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사업)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한성순보 등에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원료를 인력이나 기계력으로 가공하여 유용한 물자를 만드는 산업.

일본어: 『大辞林』 こうぎょう【工業】原料を加工し,種々の製品を生産する産業(원료를 가공하여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중국어: 『汉语大词典』.采掘自然物质资源和对工业品原料及农产品原料进行加工的社会生产部门(자연 물질 자원을 발굴하고 공업품 원료와 농산품 원료를 가공하는 사회 생산 부문)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320,000개 일본어: 221,000,000개 중국어: 1,050,000,000개

공원(公園) ⇨ 公園(こうえん kooe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6편 政府의職分>人民의教育은國家의大本이라政府의務行 홀者니聞흔바를舉히야略記하건디國中의大都會마다書籍庫를設히며本草園을寔히고博物館을建히며公園을開하느는等事라(1895)

▶의미: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航西日記><渋沢栄一>慶応三年(1867) 四月一・二日「ボアデブロンギユは都下遊憩の最大なる公園にて」

▶의미: 시가지 등에 만들어진 공공시설인 공원이나 유원지

중국 <漫游随录>(공원수록)1871年

▶의미: 公园释日本词。供公众游览休息的园林(대중이 유람 휴식을 하는 원림.)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한국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공원은 중국어에도 들어가 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

일본어: 『大辞泉』 こうえん【公園】①市街地などに設けられた公共施設としての庭園や遊園地(시가지 등에 만들어진 공공시설인 공원이나 유원지) ② 国立公園など、自然保護その他を目的として定めた地域(국립공원 등처럼 자연보호와 기타 목적으로 정해진 지역)

중국어: 『汉语大词典』 供群众游乐、休息以及进行文娛体育活动的公共园林(대중이 놀고 휴식하며 문 오 체 활동을 진행하는 공공 원림)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730,000개 일본어: 333,000,000개 중국어: 400,000,000개

공임(工賃) ⇐ 工賃(こうちん kooch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日本九州實業團顧問鹿子木曜之進氏. 且京都人口를 三十萬人이라 云々其無恒産者를 十分의 一三萬人으로 假定하고 此三萬人에게 工藝를 教授해야써 有恒産者를 成하면每一日 一人에 工賃金 十錢式 收得할지니(1899.07.17 1면2단)

▶의미: 물품의 생산과 가공에 들어간 노동에 대해서 지불하는 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風俗画報 170号>(1898)流行門「本年は桐柁を始め表、鼻緒等の原料及び工賃の直上げに依り」

▶의미: 생산 가공 등의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수고비. 공임.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직공들이 품을 판 대가. ‘품삿’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こうちん【工賃】 物品の生産・加工に要した労働に対して支払う金銭。手間賃(물품의 생산과 가공에 들어간 노동에 대해서 지불하는 돈)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800,000개 일본어: 147,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공장(工場) ⇐ 工場(こうじょう koojyoo)/こうば(koob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周報> 論學政第三 私議. 器械工藝는 학과가 모두 13門인데 아래와 같다. 수학·物質強弱論·手操工具論·機巧工具論·發動機論·重學·畫學·製造所用器械論·工場用圖·職工經濟

論・修身學・簿記學・實地講習(1886년2월15일 7~9면)

▶의미: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改正増補 和英語林集成』(1886) 「Kojo コウチャウ 工場」

▶의미: 물건을 제조 가공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와 기구를 갖추고 노동자가 작업하는 곳. 또는 그 건물

중국 <工商业尺牍偶存·致黄陂谢知事为经理包销事>(공상업 척독우존·경영총판일에 관해 황파사 지사에게 드리는 서신) 1919년

▶의미: 수공업자가 생산하는 장소. 手工业者生产の场所.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외국의 교육제도를 소개하는 한성주보 기사에 처음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

일본어: 『大辞林』 こうじょう【工場】物を製造・加工・修理するため、必要な機械・器具を備えて労働者が作業に従う所。また、その建物(물건을 제조 가공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와 기구를 갖추고 노동자가 작업하는 곳. 또는 그 건물)

중국어: 『汉语大词典』现代工厂中的一级组织，通常由若干车间组成(현대 공장 중에서 일급조직 작업장으로 구성)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800,000개 일본어: 147,000,000개 중국어: 154,000,000개

공제(控除) ⇐ 控除(こうじょ koojy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26호 부록 建陽元年度歳出豫算説明書> 由來租稅輸納經費는該稅額中の의서控除하는法人데來年度에는輸納之法을釐正하고出納計算을判明케할터이니本款을新設함(1896년1월20일)

▶의미: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通俗赤繩奇縁>(1716) 二・四回「先本錢を扣除(コウヂョ〈注〉ヒイテトリ)し、毎日利息を積躰(つみあつ)め」(1716년)

▶의미: 금전이나 수량 등을 제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의 재정관련 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뺨’ ‘뺨’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こうじょ【控除】金銭・数量などを差し引くこと(금전이나 수량 등을 제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4,800개 일본어: 72,8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공중(公衆) ⇨ 公衆(こうしゅう kooshuu)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日本地租例 第4條 公立學校地·鄉村의 神祠地·惡水路·溜池·提塘·井溝·公衆이 이용하는 도로 등은 반드시 地租를 免하는데 이를 免租地라 한다. 第四條若公立學校地若鄉村神祠地若用惡水路若溜池若提塘若井溝及公衆所用之道路則必免地租名免租地(1884년9월29일 21면1단)

▶의미: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西国立志編>(1870) <中村正直訳>11・16「ペスタローヂ<略>有名なる学校の師にして公衆惣体の學識を開かんことに心を用ひし人なり」

▶의미: 사회일반의 사람들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되기 시작한 일본어이다. 한성순보 등에 그 예가 보인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こうしゅう【公衆】①社会一般の人々(사회일반의 사람들) ②社会学で、一時的に集合した「群集」に対して、分散的に存在し、メディアを通じて世論を担う人々(사회학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한 군중에 비해 흩어져 존재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

중국어: 『汉语大词典』犹大家，大众(대중)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0,000개 일본어: 1,830,000개 중국어: 214,000,000개

공증(公証) ⇨ 公証(こうしょう koosho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호외 民刑訴訟規則> 第二百五條 最高價의入札人을落札人으로定함이可함但典當의公証이有한不動産에當한入札의最高價가典當債權及執行費用을報償기不足할時는落札人을定치아니하고其不動産에對한強制執行을解除함이可함(1908년7월17일)

▶의미: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仙和法律字彙』(1886) <藤林忠良・加太邦憲>「NOTARIE. Oosho no 公証ノ」

▶의미: 공무원의 권한으로 특정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공증.

중국 <日本国志>1890年

▶의미: 公证机构依照法定程序对民事法律行为, 有法律意义的事实和文书的真实性, 合法性予以证明的活动(공증기관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 법률 행위 법률 의미의 사실과 문서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활동)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법률 관련 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따위이다.

일본어: 『大辞林』 こうしょう【公証】特定の事実または法律関係の存否をおおやけに証明する行為。各種の登記や証明書の発行など(특정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행위. 각종 등기나 증명서 발생 등등)

중국어: 『汉语大词典』 公证是公证机构根据自然人、或者其他组织的申请, 依照法定程序对、有法律意义的事实和文书的真实性、合法性予以证明的活动(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160개 일본어: 2,510,000개 중국어: 27,600,000개

공차(空車) ⇐ 空車(くうしゃ kuu sha)/からぐるま(karagurum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人力車營業管理概則 雜報 第三條 二 駐車場外에서 乘客을 待ᄃᆞ거나 又는 路上에서 空車를 携輓ᄃᆞ야 彷徨貯立함이 不可함이라(1906년11월23일 3면3단)

▶의미: 빈 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能因本枕>(10C) 五四・月夜にむな車の「月夜にむな車のありきたる」

▶의미: 사람을 태우지 않거나 타지 않은 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교통 관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돈을 내지 않고 거저 타는 차. 사람이나 짐을 싣지 않은 비어 있는 차. ‘빈 차’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むなぐるま【空車】人の乗っていない車(사람이 타지 않은 차)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810개 일본어: 2,43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공화(共和) ⇐ 共和(きょうわ kyoow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各國近事[西班牙國內亂] 소위 王黨이란 君主體制를 골자로 하므로 장차 몰락을 보게 되었는데 이는 현재 共和政府가 처음 주장한 主義였다.所謂王黨即立論君主故

將殄滅現今之共和政府起見也(1883년10년31일 8면1단)

▶의미: 공화 제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福沢諭吉<文明論之概略>(1875) 一・三「政府の体裁は立君にても共和にても其名を間はずして其实を取る可し」

▶의미: 공화제(共和制)와 같다.

중국 <日本杂事诗>(일본 잡일시)卷一 1879年

▶의미: 공화제. 共和制.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한국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을 함. 두 사람 이상이 공동 화합하여 정무(政務)를 시행하는 일. 공화 제도.

일본어: 『大辞林』 きょうわ【共和】複数の者がなかく共同して事をなすこと(복수의 사람이 사이좋게 공동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 箕作省吾(みづくりしろうご)が「坤輿図識」(1845年)執筆の際に、大槻磐溪(おおつきばんけい)が「史記」の例を挙げ、オランダ語のrepublik の訳語として教えたものといわれる)(미츠클리 쇼고(箕作省吾)가 1845에 「坤輿図識」를 집필할 때 오츠키 반케이(大槻磐溪)가 사기(史記)의 예를 들어 네덜란드어 republik의 번역어라고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 共和制(공화제)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39,000개 일본어: 29,200,000개 중국어: 34,100,000개

과도기(過渡期) ⇄ 過渡期(かとき kato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佛教復活論 二. 過渡期の 佛教狀況 文예] 三國은高句麗百濟新羅를指稱함이오이다(1919년8월4일 1면3단)

▶의미: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거나 바뀌어 가는 도중의 시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妻>(1908)<田山花袋>二「所謂過渡期で、今迄の思想に徴が生えて」

▶의미: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사이의 시기. 과도기.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 온 일본어로서, 1910년대 후반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거나 바뀌어 가는 도중의 시기.

일본어: 『大辞林』 かとき【過渡期】 ある状態から新しい状態へ移り変わっていく途中の時期 (어떤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변해가는 도중의 시기)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9,800개 일본어: 2,4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과로사(過勞死) ⇨ 過勞死(かろうし karoo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매일경제 1991년12월13일>[직장인 겨냥 책 출간 러시] 「직장인을 위한 건강학」은 30-50대 샐러리맨의 過勞死를 집중 분석해 직장인들의 건강관리 유지법을 소개하고 있다(10면1단)

▶의미: 업무 등의 과중한 정신적 부담이 원인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일본 국어대사전>에 표제어는 있으나 초출 용례 없음.

▶의미: 업무 등의 과중한 정신적 부담이 원인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 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90년대 이후 우리말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음

일본어: 『大辭林』 かろうし【過勞死】業務上などの過重な精神的・肉体的負担が原因となって急死すること(업무 등의 과중한 정신적 부담이 원인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9,500개 일본어: 1,39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과세(課稅) ⇨ 課稅(かぜい kaze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과세(課稅)<대한제국 관보 제4호 ○收入條規>第十四條 財産을指定호야賦課호는租稅에納稅者가其課稅財産의在호는邑에居住치아닌則納稅事務를辦理게호를爲호야適當호代人을定호야各邑長官에게告報호미可호(1895년4월5일)

▶의미: 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仙和法律字彙』(1886) <藤林忠郎・加太邦憲>「TAXE Sosho.nyuhi.hyo Kazei Sozei 訴訟入費表、課稅、租稅」

▶의미: 조세를 할당하는 것. 할당된 조세.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재정 관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세금 매김’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ぜい【課税】税を割り当てること。また、その税(세금을 매기는 것. 또는 그 세금.)

중국어: 『汉语大词典』賦稅(부세)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78,000개 일본어: 485,000개 중국어: 5,740,000개

과잉(過剩) ⇐ 過剩(かじょう kajyo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38호 内部官吏旅費支給處分>第五條 歸京後三日内に概算先給を領收함과否함에從ふ別紙第三號四號五號式様の區別に依りて請求書或過剩金返還書を作らば別紙第六號式様の計算書添附し奏任官以上은協辦의認印을受ける(1896년2월 3일)

▶의미: 일정 수량 이상으로 여분이 있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福沢諭吉<文明論之概略>(1875) 二・四「肺臓に於て血中過剩の炭素と親和して又これを吐出すに由るものなれば」

▶의미: 일정 수량 이상으로 여분이 있는 것. 과잉.

중국 <诊断学>(진단학)1919年 ② <货币学>(화폐학)1924年

▶의미: (수량이) 필요한 한도를 크게 지나치다. 과잉되다. 数量超过限度, 剩余过多.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아 남음. ‘지나침’ ‘초과02’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じょう【過剩】適当な分量や程度を超えていること(적당한 분량이나 정도를 넘은 것)。多すぎる(너무 많거나 그 상태)

중국어: 『汉语大词典』数量远远超过限度, 剩余太多(수량이) 필요한 한도를 크게 지나치다. 과잉되다)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7,700개 일본어: 43,100,000개 중국어: 48,300,000개

과학(科學) ⇐ 科学(かがく kagaku)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김교제<과학소설 비행선(飛行船)>(1912)

▶의미: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哲学字彙』(1881) 「Science 理学、科学」

▶의미: (英 science의 번역어) 과학.

중국 <自由书>(자유서)1899年

▶의미: 有矣自然, 社会, 思维等的客观规律的分科的知识体系(자연 과학, 일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그 원리를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학문)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일본에서 science의 번역어로 성립된 것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일본어: 『大辞林』 かがく【科学】自然や社会など世界の特定領域に関する法則的認識を目指す合理的知識の体系または探究の営み。実験や観察に基づく経験的実証性と論理的推論に基づく体系的整合性をその特徴とする(자연이나 사회 등 세계의 특정영역에 대한 법칙적 인식을 목표로 하는 합리적 지식체계 또는 탐구활동)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反映自然、社会、思维等的客观规律的分科知识体系(자연 과학, 일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그 원리를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학문)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70,000개 일본어: 99,900,000개 중국어: 1,200,000,000개

관념(觀念) ⇐ 觀念(かんねん kanne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관념(觀念)<皇城新聞> 黑龍江吉林及盛京等地에 駐防하는 各將軍이 山東山西其他에 人口過多함을 苦히녀이어 民口를 移殖해야써 一面은 富源을 開發하고 一面은 邊防에 備할 良計를 數次奏上함이 淸國政府는 一種固陋의 觀念을 有해야 滿洲는 祖先發祥의 地로서 宗室及旗人等の 根地라하여 斷然히 他人種의 侵入을 許치안키로하고 往在己丑年에 嚴히 布令하여 滿洲를 封鎖해야스니(1900년8월22일 1면2단)

▶의미: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性靈集 四>(835頃)請奉為国家修法表「親授 灌頂 誦持觀念」

▶의미: (불교용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로 일체를 관찰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중국 <清议报>第十八册<国家论>1899年

▶의미: 思想意识(사상 의식)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초 우리말에 도입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2.현실에 의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 3.마음을 가라앉혀 부처나 진리를 관찰하고 생각함. 4.사고(思考)의 대상이 되는 의식의 내용 심적 형상(心的形象)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辞林』 かんねん【觀念】①物事について抱く考えや意識(사물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 ②あきらめること。覚悟すること(포기하는 것, 각오를 굳히는 것) ③〔哲〕〔idea〕主観としての人間の意識内容。思考の対象となる心的形象。表象。(〔哲〕〔idea〕인간의 주관으로서 의식내용, 사고의 대상이 되는 심적 형상, 표상)

중국어: 『汉语大词典』 思想意识(사상 의식)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33,000개 일본어: 32,900,000개 중국어: 245,000,000개

관능(官能) ⇐ 官能(かんのう kan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신학월보 제2권제12호> 관능官能Sense(1902년12월) <개벽 제15호 近代文藝(二)> 그리하고 肉體的으로나, 官能的으로 刺戟을 바드면바듬에 딸아 종래의 刺戟으로는 滿足하지 못하고 새로운 刺戟을 求하는 結果 肉體는 전혀, 無神經的 現象을 現出하게 되며, 다만 神經만이 敏銳하게 되어 나중에는 官能的 生活만이 그들을 支配하게 됩니다(1921년9월1일).

▶의미: 육체적 쾌감 특히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작용.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西説医範提綱>(1805) 「其中より全身諸物の名及び官能の綱領を述べ」

▶의미: 동물 감각기관의 활동(호흡작용 등등).

중국 <新尔雅·释生理>1903年

▶의미: 생물체 기관의 생리기능.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오늘날 사용하는 ‘육체적 쾌감 특히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작용’의 이미는 1920년 이후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관의 기능. 이에는 폐의 호흡 작용 눈의 시력 따위가 있다. 오관(五官) 및 감각 기관의 작용. 육체적 쾌감 특히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작용.

일본어: 『大辞林』 かのう【官能】 感覚器官を通して得られる快さ。特に, 性的な感覚にいう (감각기관을 통해 얻어진 쾌락. 특히 성적인 감각을 말함)

중국어: 『汉语大词典』 生物器官的功能(생물 기관의 기능)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61,000개 일본어: 5,090,000개 중국어: 15,900,000개

관보(官報) ⇐ 官報(かんぼう kanp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제1호> 旬報序 是以我朝廷開局設官廣譯外報并載內事頒示國中派分列國名曰旬報以之廣聞見辨衆惑裨商利中西之官報申報郵便交詢其義一也(그러므로 우리 朝廷에서도 開局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外報를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內事까지 기재하여 國中에 알리는 동시에 列國에까지 頒布하기로 하고 이름을 『旬報』라 하여 聞見을 넓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풀어주고 商利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니 중국·서양의 官報·申報를 우편으로 교신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이다 1883.10.31,1면1단)

▶의미: 정부가 일반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실어 발행하는 기관지. ※『17세기국어사

전』에 없음. 『한국한자어사전』에 고종(高宗) 31(1894) 년의 기사 언급

일본 『慶応再版英和对訳辞書』(1867) 「Message 便り(口上ニテモ又書状ニテモ)、官報」

▶의미: 정부가 국민에게 공시하는 사항을 편집해서 매일 발행하는 문서.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나라에 소개된 말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관보가 발행된 것은 1894년6월21일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정부가 일반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실어 발행하는 기관지.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전보.

일본어: 『大辞林』 かんぽう【官報】 ①法令・条約・予算・告示・国会事項・人事・叙任などを, 国が一般国民に知らせるために独立行政法人国立印刷局から発行する日刊機関紙(법령조약 예산 고지 국회사항 인사 서임 등을 국가가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독립행정법인국립인쇄국이 발행하는 일간기관지) ②官公庁・官公吏が打つ公用の電報(관공서 등이 쓰는 공용 전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犹邸报(관보)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14,000개 일본어: 2,300,000개 중국어: 127,000,000개

관세(関税) ⇐ 関税(かんぜい kanze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관세(関税)<독립신문 제4면외국통신> 일본 신기향) 일본서 원리 기향장 외에 특별히 수출 수입 하는 항구를 칙령으로 지정 하고 새 관세법을 실시 하였는디 그 항구 슈효는 二十二처라 각기 지명은 좌와 같더라(1899년8월2일)

▶의미: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久米邦武<米欧回覧実記>(1877) 五・九三「輸出品には関税なし、但其製造、及び仕出しにつきて課税あり」

▶의미: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관세.

중국 <东西洋考每月统记传>(동서양 고매월 통계전)道光丁酉年二月<榜葛喇省略>(1835年

▶의미: 해관이 출입국 상품에 징수하는 관세.海関对进出口商品所征收的税(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

일본어: 『大辞林』 かんぜい【関税】 貨物が国境を通過する際課せられる税。輸入税と輸出税が

あるが、現在日本には輸入税しかない。税収入を目的とする財政関税、国内の産業の保護を目的とする保護関税などがある(화물이 국경을 통과할 때 내야하는 세금. 수입세와 수출세가 있으며 현재 일본에는 수입세만 있다. 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 등이 있다)

중국어: 『汉语大词典』 指商品在经过一国时,由政府设置的海关向进出口国所征收的(출입국 상품이 해관을 통과할 때 해관이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1,100개 일본어: 9,410,000개 중국어:21,200,000개

관절염(關節炎) ⇨ 關節炎(かんせつえん kansetsue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광 제10호 整形外科의 이야기>關節의 병으로는 關節의 脫臼, 關節炎 가튼 것인데 脫臼된 것을 整復하며 強直(뻣뻣)된 關節을 운동케 한다던지가 다 本科에 속하는 것인데 이에 두 가지 緊要한 병이 있습니다(1927년2월1일)
▶의미: 관절에 생기는 염증.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陸満普大日記 明治40年>右明治三十九年四月十日清国盛京省鉄嶺ニ於テ右結核性足關節炎庶右下腿結核性骨髓炎ニ罹リ(1907년1월28일)
▶의미: 관절염.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일본에서 들어온 의학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관절에 생기는 염증.

일본어: 『大辞林』 かんせつえん【關節炎】 關節の炎症。關節部の腫れや疼痛 (관절의 염증. 관절부분이 붓거나 아픈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关节发炎的病(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병)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8,000개 일본어: 3,070,000개 중국어: 47,100,000개

광장(廣場) ⇨ 広場(ひろば hirob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광장(廣場) <皇城新聞> 雜報[博覽會記] 演藝園에는 一週日에 三次式 我國妓生及三牌와 日本妓生이 各一日式 歌舞를 秩奏한다디 伊日에는 三牌康津과 蓮心과 歌客 李順書가 雜歌를 迭蕩히 흥미 觀客이 此處로 來集하야 廣場이 彌滿하고(未完)(1907년9월6일 3면1단)
▶의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葡辞書』(1603)「Firobaye(ヒロバエ) デッケタ ヒト」

▶의미: 넓은 장소. 또는 시가지 내에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일정한 넓은 장소.

중국 <西游笔略>(서유필략 卷上) 1860年

▶의미: 面积广阔的场地, 特指城市中的广阔场地(너른 빈터 도시 속 너른 빈터를 말함)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 여러 사람이 뜻을 같이하여 만나거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辞林』 ひろば【広場】人などが多く集まれるように広くなっている公共の場所(사람 등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진 공공장소)

중국어: 『汉语大词典』 今特指城市中的广阔场地。如: 天安门广场、人民广场(도시 속 너른 빈터. 예를 들면천안문 광장 인민 광장)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690,000개 일본어: 59,100,000개 중국어: 990,000,000개

괘도(掛圖) ⇐ 掛軸(かけじく kakezi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普通校用掛圖出版 기사(1913년11월26일 2면3단)<개벽 제33호 修業料低減決議에 對한 批判>이과실험기계, 화학약품, 동식물표본, 생리학의 모형, 괘도, 백묵, 洋紙 등의 가격 하락은 고사하고 反히 전보다 2,3할이 激騰하여 잇슴을 엇지 하랴?(1923년3월1일)

▶의미: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림이나 지도 등을 걸 수 있도록 만든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病床六尺>(1902) <正岡子規> 八四「鳴雪翁より贈られたるは柴又の帝釈天の掛図である」

▶의미: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림이나 지도 등을 걸 수 있도록 만든 것. 괘도.

중국 <日本学校图论>1903年

▶의미: 挂起来看的大幅地图, 图表或图画(걸어놓고 보는 학습용의 그림이나 지도)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벽에 걸어 놓고 보는 학습용 그림이나 지도. ‘걸그림’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かけじく【掛軸】書画を軸物に表装し、床の間・壁などに掛けて飾りとするもの(서화를 족자로 만들어 거실이나 벽 등에 걸어서 장식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挂起来看的大幅地图, 图表或图画(걸어놓고 보는 학습용의 그림이나 지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68개 일본어: 315개 중국어: 12,600,000개

교과서(教科書) ⇨ 教科書(きょうかしょ kyookasy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학부편<新訂尋常小學 序> 茲에 日本人 補佐員 高見龜와 麻川松次郎으로 더부러 小學의 教科書를 編輯할시 天下 萬國의 文法과 時務의 適用한 者를 依樣하야 或 物象으로 譬喩하며 或 畫圖로 形容하야 國文을 尙用함은 여러 兒孩들을 위선 씨닷기 쉽고조 흠이 오(1896년)

▶의미: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ダビット・モルレー申報>(1873) 「一は欧洲諸般の学科を以て日本ノ教科書を編成するに在り」

▶의미: 교과용 도서 교과서.

중국 <日本国志>卷三十三 1890年

▶의미: 按照教学大纲编写的为学生上课和复习 用的书(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쓰는 책)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일본어에서 우리말에 들어온 말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 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辞林』 きょうかしょ【教科書】 学校教育などで，教科の主要な教材として編纂され，学習に用いられる図書(학교교육 등에서 교과의 주요 교재로 쓰기위해 편찬하여 학습에 사용하는 도서. 교과용도서)

중국어: 『汉语大词典.根据教学大纲的要求，专门为学生上课和复习而编写的书(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28,000개 일본어: 680,000개 중국어: 61,200,000개

교양(敎養) ⇨ 教養(きょうよう kyooo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12편 愛國하느니忠誠> 乃今日의長老가舊日孩嬰의時에其敎養의受함이有道함을由하야成就하느니實效를著하느니敎養의關係는甚히遼遠하야數句話로摸粧하기不能하거니와一言으로蔽하건디父母되느니者가知識에豊足한然後에孩嬰의撫育하느니規模를覺홀디니(1896)

▶의미: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17세기국어사전』에 없음. 『한국한자어사전』 2권에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일본 <西国立志編>(1870) <中村正直訳>七・四「男子二十一人、女子五人あり、故にその子を敎養する事備らず」

▶의미: 가르쳐 기르는 것. 교육.

중국 <중국 교육 사전>1928<中国教育辞典>1928年

▶의미: 一般文化和品德的修养(사회 생활 및 문화적 활동을 통해 형성하는 문화와 품위)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가르치어 기름.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일본어: 『大辞林』 きょうよう【教養】 ①おしえそだてること(가르쳐 기르는 것) ②社会人として必要な広い文化的な知識。また、それによって養われた品位(사회인으로서 필요한 폭넓은 문화적인 지식 또는 그에 의해 길러진 품위) ③(英 culture:ドイツ Bildung)単なる知識ではなく、人間がその素質を精神的・全人的に開化・発展させるために、学び養われる学問や芸術など(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이 그 수질을 정신적 전인적으로 개화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 배워서 기르는 학문이나 예술 등등)

중국어: 『汉语大词典』 指文化品德的修养(문화 품위의 수양)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92,000개 일본어: 1,190,000개 중국어: 62,200,000개

교원(教員) ⇐ 教員(きょういん kyooi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周報> 大學 學區 集錄. 大學區長與監督官并掌上中兩等學校如初等學校由州長掌之以監督官副之上自教員之黜陟以至生徒之賞罰皆任州長(대학구장은 監督官과 함께 上中の兩等學校를 관장하고 初等學校는 州長이 관장하고 監督官이 그를 도우며 教員들의 黜陟으로부터 생도들의 賞罰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州長이 임의대로 한다. 1886년8월16일 15면) <대한제국 관보 제15호 漢城師範學校管制> 第十條 教員은附屬小學校兒童의教育을掌함(1895년4월16일)

▶의미: 학교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17세기국어사전』에 없음. 『한국한자어사전』구한국관보 제3546호(1906년8월31일) 기사 나옴.

일본 <太政官第214号>(1872) 8月2日・四六章(法令全書)「小学教員は男女の差別なし」

▶의미: 학교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교수 조교수 교사 등의 총칭.

중국 <东槎闻见录>(동차견문록)1887年

▶의미: 教学工作人員(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이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辞林』 きょういん【教員】 学校で直接教育に従事する職員の総称(학교에서 직접 교육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리키는 총칭)

중국어: 『汉语大词典』教师, 学校中担任教学工作的人员(교사 학교에서 교학을 담당하는 사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22,000개 일본어: 1,190,000개 중국어: 40,500,000개

교통(交通) ⇨ 交通(こうつう koots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20편 西班牙의諸大都會>又此港과佛蘭西馬細逸府의間에毎日定期郵船을相航하야百貨의運輸交通이便易하니是를由하야其貿易하느景況이日進홈이라(1896년)

▶의미: 자동차·기차·배·비행기 따위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続日本紀>(729) 二月戊寅「上毛野朝臣宿奈麻呂等七人、坐与長屋王 交通並処流」

▶의미: 사람이나 탈것이 길을 오가는 것.

중국 <日本武学兵队纪略>(일본무학군대요fir)1899年

▶의미: 各种运输和邮电事业的总称(각종 운송과 체신 사업의 총칭)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자동차·기차·배·비행기 따위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

일본어: 『大辞林』 こうつう【交通】人や乗り物が一定の道筋を通って行き来すること(사람이나 탈것이 일정한 길로 오가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各种运输手段和邮电通信的总称(각종 운송과 체신 사업의 총칭)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1,600,000개 일본어: 7,810,000개 중국어: 1,690,000,000개

교향곡(交響曲) ⇨ 交響曲(こうきょうきょく kookyookyo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별건곤 제1호> 베도뻘의 第三 심폰니는 일반으로 영웅교향곡의 일홈으로써 알게 되엿다(1926년11월1일)

▶의미: 관현악을 위하여 작곡한 소나타 형식의 규모가 큰 곡.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海軍省公文備考類「海軍省公文備考類」>指揮 軍楽長 内藤清五 第一部管弦楽 一、交響曲 第三九作品五四三変ホ長調モーツアルト作曲

▶의미: 관현악을 위한 대규모 악곡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관현악을 위하여 작곡한 소나타 형식의 규모가 큰 곡.

일본어: 『大辞林』 こうきょうきょく【交響曲】一八世紀の中頃に成立した, 管弦樂のための大規模な楽曲(18세기 중엽에 성립된 관현악을 위한 대규모 악곡)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84,000개 일본어: 19,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구근(球根) < 球根(きゅうこん kyuuko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商標法施行細則> 第四十七類 穀菜類、種子、果物、穀粉、澱粉及其製品 米、麥、粟、黍、稗、豆、藎、乾瓢、球根、麴種「모야시」、베긴꾸, 싸우짜아、「이」스도、싸우짜아、麥粉、葛粉、麪類、湯葉、蒟蒻、凍豆腐、凍蒟蒻等(1909년11월 20일)

▶의미: 원예에서 땅속에 있는 식물체의 일부가 커져서 양분을 저장하는 것을 말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博物図教授法>(1876) <安倍為任>—「球根(キウコン)とは水仙或は蕃紅花(サフラン)等の如く根に球(まり)の生ずる種類の総名なり」

▶의미: 양분을 저장하여 구형이나 덩어리 형태가 된 땅속 부분(뿌리 줄기 잎)의 총칭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에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알뿌리. ‘알뿌리’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きゅうこん【球根】園芸上, 地下にある植物体の一部(根・茎・葉)が芋状に肥大し, 養分を蓄えたものをいう(원예에서 땅속에 있는 식물체의 일부(뿌리 줄기 잎)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9,600개 일본어: 29,6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구독(購讀) < 購読(こうどく koodo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5호 勅令第九十六號>閣令第六號 官報購讀에關하는件을左갓티定함 開國五百四年五月十六日內閣總理大臣朴定陽 閣令第六號(1895년5월22일)

▶의미: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구입하여 읽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郵便報知新聞>(1876) 七月二四日「新聞購読で借金 神風樓の番頭」

▶의미: 신문이나 잡지 또는 책 등을 사서 읽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구입하여 읽음. ‘사 읽음’ ‘사서 읽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こうどく【購読】書籍や新聞・雑誌などを買って読むこと(독서나 신문 등을 사서 읽는 행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6,200개 일본어: 197,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구락부(俱樂部) ⇨ 倶楽部(クラブ kurab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매일신보 3면밀스 문데> 일본 동지기자 구락부에서는 간밤에 모여서 한국에 디흔 문데를 의론헸엿논디 밀스 스건은 한일협약을 멸시흠이오 한국 황데씨서 그 책임을 당흐 신지라(1904년8월16일)

▶의미: 영어 club의 일본식 음역어이다.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朝日新聞>(1886) 四月二八日「曾て横浜にクラブを創設せし以来、其大に利益あることを悟り、東京の紳士は鹿鳴館を以て東京クラブとなしたりしは」

▶의미: 공통의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정치성이나 오락성 등을 가진 단체.

중국 <清议报>(청의보)五十七册<论经营闽浙>(복건 절강성 경영을 논함)1900年

▶의미: 进行社会, 文化, 艺术, 娱乐等活动的团体或场所(사회 문화 예술 오락등 활동을 하는 단체나 장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영어 club의 음역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클럽의 음역어. 일본식 음역어이다.

일본어: 『大辞泉』 クラブ【club】政治・社交・文芸・スポーツ・娯楽などで、共通の目的を持つ人々によって組織された会(정치 사교 문예 스포츠 오락 등에서 공통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

중국어: 『汉语大词典』 英语club的音译, 意即“总会”。社会政治、文艺、娱乐团体名称或社会团体的活动场所。现多指社会团体所设的娱乐场所(영어 club의 음역어. 사회 문화 예술 오락등 활동을 하는 단체나 장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2,000개 일본어: 22,900,000개 중국어: 301,000,000개

구배(勾配) ⇨ 勾配(こうばい koob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562호 慶尙南道令第六號>三 屠室의地盤은石或은厚板張으로 ㅎ고汚

水溜に通溝를設히되適當한勾配를付할事(1909년12월23일)<毎日申報> 京釜改良工事.
勾配를 百十分一로 改修 線路變更과 停車場廢設 기사(1915년2월26일 2면3단)

▶의미: 비탈. 오르막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葡辞書』(1603) 「Cobai(コウバイ) <訳>雨水が流れるように屋根につけてある傾斜」

▶의미: 수평면에 대한 경사.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들어온 건설 관련 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비탈’ ‘오르막’으로 순화. 기울기

일본어: 『大辞林』 こうばい【勾配】傾斜面の傾きの程度。また、斜面(경사면의 기울기 정도. 사면)

중국어: 『汉语大词典』표제어가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200개 일본어: 6,050,000개 중국어: 7,650,000개

구보(驅歩) ⇨ 驅歩(くほ kuh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이광수<무정> 형식은 지금 광충교로 지나가는 동대문행 전차를 잡아탈 양으로 구보로 종각을 향하여 뛰었다. 그러나 전차는 찌구덩 하고 소리를 내며 종각 모퉁이를 돌아 두어 사람을 내려놓고 달아난다(1917)

▶의미: 달리어 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일본 국어대사전>에 표제어 있으나 초출 용례 없음.

▶의미: 말이 달리는 속도가 대단히 빠른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달리어 감. 또는 그런 걸음걸이. ‘달리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くほ【驅歩】馬の速駆け(말의 빠른 걸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2,700개 일본어: 2,8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구상서(口上書) ⇨ 口上書(こうじょうがき kojyoooga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東支鐵道에 關하여 露國의 長文覺書 카라한氏 太田大使에 手交 口上書內容 기사(1933년4월20일 1면2단)

▶의미: 외교 문서 형식의 하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公文別録・諸建白書・明治三年～明治六年・第一巻・明治三年～明治六年>口上書 嚴暑之ニ候処先以皇上益御嫌 御巡幸被在恐悅至極奉拝賀候次ニ各明公弥御盛隆御勉務弥重奉恐歡候緒下官知邦儀弱年ヨリ忠孝ノ二道ニ心カヲ勤勞シ英名ヲ顯シテ地球上ノ大龜鑑トナラムコトヲ志願ス(1870년-1873년)

▶의미: 구두로 말하는 것을 문서로 기록한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외교 문서 형식의 하나. 상대국과의 문제 또는 상대국과 협의한 사항을 제기할 때 말로 직접 하지 않고 기록한 문서로 제시한다.

일본어: 『大辭林』 こうじょうがき【口上書き】 口で述べたことを文章に記したもの(말한 내용을 문서로 적은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610개 일본어: 895,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구인(拘引) ⇨ 拘引(こういん kooi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倫敦同日發 電報(倫敦同日發)트렛후수 事件에 對하야 拘引 佛國陸軍大佐亨利 民난 獄中에서 剃刀로 咽喉를 刺하야 自殺하였다더라(1898년9월16일 4면1단)

▶의미: 사람을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外務省記録 3門>本邦漁船天祐丸密獵嫌疑ノ為メ露国警備艦ニ捕拿セラレ乗組員等浦潮港ニ拘引一件(明治34年(1901)～明治37年(1902))

▶의미: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 사람 눈을 끄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사람을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감. 법원이 신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증인 따위를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

일본어: 『大辭泉』 こういん【拘引】 1.人を捕らえて無理に連れていくこと(사람을 잡아 억지로 끌고 오는 것) 2. 裁判所が被告人・被疑者・証人などを強制的に一定の場所に引致し留め置く裁判およびその執行(재판소가 피고인 피의인 증인 등을 강제로 일정 장소에 있게끔 하는 재판이나 그 집행)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400개 일본어: 6,950개 중국어: 239,000개

구입(購入) ⇐ 購入(こうにゅう kony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호외 學部分課規程> 四 圖書의購入保存官吏에關하는事項(1895년4월19일)

▶의미: 물건을 사들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御署名原本・明治十九年・勅令第三十一号・海軍兵器製造所官制>第一条 海軍兵器製造所ハ砲銃水雷彈丸其他ノ兵器及属具ヲ製造修理シ及兵器購入ニ関スル事務ヲ掌ル(1886년4월22일)

▶의미: 사들이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을 사들임. ‘사들이기’ ‘사들임’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こうにゅう【購入】 買入れること(사들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970,000개 일본어: 1,4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구조(構造) ⇐ 構造(こうぞう kooz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호외> 第十四條 地質課에서는左開하는事務를掌함 一 地質並地層構造의調査及鑛床의驗定에關하는事項(1895년4월19일)

▶의미: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古事談>(1212) 六・石田殿事「撰 勝地 所 構造 之別庄也」

▶의미: 각종 재료로 조립해 만드는 것.

중국 <东游丛录·学校图表>(동유총록·학교도표)1902年

▶의미: 各个组成部分的安排, 组织和相互关系(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일개)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일개. 구조물. 탁상 섬유상 따위와 같은 광물의 형태. 집합과 거기에서 정하여진 연산이나 집합과 거기에서 정해진 관계 등 집합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집합론적 대상으로써 얻어진 것.

일본어: 『大辞林』 こうぞう【構造】 ①全体を形づくっている種々の材料による各部分の組み合わせ(전체 형태를 이루는 각종 재료에 의한 각 부분의 결합) ②さまざまな要素が相互に関連し合って作り上げている総体。また、各要素の相互関係(다양한 요소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 총체. 각 요소의 상호관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820,000개 일본어: 174,000,000개 중국어: 214,000,000개

구좌(口座) ⇐ 口座(こうざ kooz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郵便振替貯金規則> 第二條 郵便振替貯金は左の處理を爲す爲め
一 加入者又は其他の者로서現金又は所定の証券に依り納入を指定加入者の口座に受入
事(1909년12월11일)

▶의미: 예금 계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자료. 御署名原本・大正十四年・条約第一四号・郵便為替ニ関スル約定>
第三章為替ノ払渡 第十条払渡 第十一条払渡最高額 第十二条郵便振替口座ヘノ登記(大正
1925년9월26일)

▶의미: 예금구좌와 이체구좌의 약어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금융관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예금 계좌. ‘계좌’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こうざ【口座】 ①簿記で、資産・負債・資本の増減、損益の発生などを項目別に記入する所(부기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손익 등 발생 등을 항목별로 기입하는 곳) ②「預金口座」「振替口座」の略(예금구좌와 이체구좌의 약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51,000개 일본어: 3,7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국세(國稅) ⇐ 国税(こくぜい kokuze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호외 度支部令第四號 金庫事務處理順序>第四條 歲入徵收官이國稅
又는其他收入을徵收하랴할時는第一號書式의納入告知書에納入의姓名納入金額主管廳名歲入
科目年度及番號等を記入하야此를納入에게交付하미可함(1905년6월30일)

▶의미: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救貧金は国税県税を偏用す可らざるを論ず>(1876) <矢野龍溪>「救貧金を国税に取るとは全国一般に賦課せし税金を以て各地の貧民を扶助するを云ふ」

▶의미: 국세. 나라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재정 관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

일본어: 『大辭林』 こくぜい【国税】国が国民に賦課し、徴収する租税(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

중국어: 『汉语大词典』国家征收的租税(국가가 징수하는 조세)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27,000개 일본어: 4,850,000개 중국어: 45,500,000개

국채(國債) ⇨ 国債(こくさい kokus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英國군사가 이집트에 駐屯하다 前日埃及政府擬欲振舉內政擴張軍務而經費至多不能自辦故得外債於英佛兩國目的是兩國政府各派遣會計監督官於埃及政府初稱督償國債稍致干涉政然(전번에 이집트 정부가 內政을 振作하고 軍務를 확장하려 하였으나 그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自力으로 마련할 수 없으므로 영국·프랑스에서 外債를 얻어 사용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두 나라 정부가 각기 會計監督官을 이집트 정부에 파견 처음에는 國債 償還을 감독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다가 점차 內政을 간섭하기에 이른 것이다. 1883년11월10일 8면)

▶의미: 나랏빚. 『한국한자어사전』에 1905년 용례 있음. ※『17세기국어사전』에 없음.

일본 <太政官日誌> 明治二年(1869) 五月二四日「国債私鑄之害、上下之困迫此極に至り」

▶의미: 국가가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부담하는 금전채무

중국 <遐迩贯珍>(하이관진) 第十一号 1855年11月

▶의미: 國家所欠的債務(국가의 채무)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재정 관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나라가 지고 있는 빚. ‘나랏빚’으로 순화.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 .

일본어: 『大辭林』 こくさい【国債】国が資金の不足をまかなうために負う金銭債務(국가가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부담하는 금전채무)

중국어: 『汉语大词典』.国家欠的债(국가의 채무)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2,500개 일본어: 12,900,000개 중국어: 56,200,000개

굴삭기(掘削機) ⇨ 掘削機(くっさくき kussku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매일경제 2면>[國産化促進品目] △製紙用回轉실린더 △製紙用건조기 △풀파 △碎木機 △鑿岩機 △載炭機 △掘削機 △콘크리트커터 △불도저 △트랙터 쇼벨△오펜세트 印刷機(1968년11월8일)

▶의미: 굴착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陸軍省大日記 岩盤掘鑿機操作援助者派遣の件>陸軍省受領 陸支密受第五〇九五号 岩盤掘削機操作援助者派遣ノ件(1939년5월19일)

<風俗画報 233호>(1901)「甲は即ち挿下せる掘鑿器を井中より上下し、或は動静せしむるものにして」

▶의미: 굴삭기.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말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일제 때는 굴착기(掘鑿機)로 불리었으나 일본에서 단어가 굴삭기(掘削機)로 변함에 따라 해방 후 우리말에서도 굴삭기로 쓰이게 되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굴착기(掘鑿機)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거나, 파낸 것을 처리하는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굴삭기. 토사, 암석 따위를 채굴하는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辭林』 くさくき【掘削機】土砂を掘り取る土木機械の総称(토사를 파내는 토목 기계의 총칭)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290개 일본어: 901,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결석재판(闕席裁判) ⇨ 欠席裁判(けっせきさいばん kessekisaib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1면>[佛國의 聯盟提訴] 베네슈외相佛國外交陣이 多數集合 하엿으므로 히틀러總統 은 相當 히 嚴酷한 闕席裁判 을 받게 될 것은 거의確實 하게 보인다(1935년4월 16일).

▶의미: 결석 판결을 행하는 재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花間鶯>(1887) <末広鉄腸>下. 10「武田は闕席裁判(ケッセキサイパン)で五年の輕禁錮」

▶의미: 결석(欠席) 재판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결석 판결을 행하는 재판. ‘결석 재판’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けっせきさいばん【欠席裁判】欠席判決に同じ(결석재판과 같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600개 일본어: 987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귀납(歸納) < 歸納(きのう kin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大朝鮮獨立協會會報 제2호 p2> 天下 法學 各派에 諸說이 從_하야 生_힘이니 歸納法에 依_하야 攷究_하는 學派와 演繹法에 依_하야 攷究_하는 學派의 二種이 有_하고(1896년12월15일)

▶의미: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西周<百學連環>(1870) <總論 「其改革の法たる如何となれば、induction(〈注〉歸納の法)なるあり。此の歸納の法を知るを要せんには、先づ以前のdeduction(〈注〉演繹の法)なるものを知らざるべからず

▶의미: 개개의 특수한 사실이나 명제의 모임에서 공통되는 성질이나 관계를 끌어내 일반적인 명제나 법칙을 이끌어 내는 것

중국 <大東合邦新義>(대동합방신의)1898年

▶의미: 由一系列具体的事实概括出一般原理(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내는 일)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의 철학용어이다. 일본유학생들이 유입시킨 용어로 생각된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일본어: 『大辞林』きのう【歸納】個々の特殊な事実や命題の集まりからそこに共通する性質や關係を取り出し，一般的な命題や法則を導き出すこと(개개의 특수한 사실이나 명제의 모임에서 공통되는 성질이나 관계를 끌어내 일반적인 명제나 법칙을 이끌어 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있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1,700개 일본어: 4,710,000개 중국어: 99,200,000개

극광(極光) < 極光(きょっこう kyokk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外報[北極光의 出現] 諾威國크리스차야, 瑞典國스톡푸름及露都彼得堡等地에北極光이出現되야壯觀을로_하앗다더라(1909년10년2월 1면4단)

▶의미: 오로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小林花眠<新しき用語の泉>(1921) 「極光(キョウクウ) オーロラにおなじい」

▶의미: 오로라.

중국 <新尔雅·释地>1903年

▶의미: 地球南北两极附近地区出现的光辉(지구 남북극 부근 지방에서 나타나는 발광현상)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표준국어대사전』 오로라(aurora). ‘오로라’로 순화

일본어:『大辞林』 きょっこう【極光】⇒ オーロラ(오로라)

중국어:『汉语大词典』 在地球高纬度地区出现的一种强光(지구 고위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강한 빛)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4,500개 일본어: 5,720,000개 중국어: 24,100,000개

근거리(近距離) ⇨ 近距離(きんきょり kinkyo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近接市外電話 通話料도 低減 近距離隣接市外地間の通賃料는市内通貨の一通貨十錢임(1926년8월27일 1면7단)

▶의미: 가까운 거리.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遠西觀象図説>(1823)中・地球「地球貞に次るときは、太陽に近し。其間を近距離と云ひ、地より太陽を望みては最卑と云ふ」

▶의미: 가까운 거리.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에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표준국어대사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짧은 거리. ‘가까운 거리’로 순화

일본어:『大辞林』 きんきょり【近距離】 近い距離(가까운 거리)

중국어:『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0,500개 일본어: 12,3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금반(今般) ⇨ 今般(こんぱん konp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81호 廣告> 今般法官候補生五十名을募集할터이니入學志望者는左記之事項을보고本月十日限에本所事務室로來히야稟請書를呈히미可함(1895년6월5일)

▶의미: 이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明德記>(1392.93) 上「其上近年は宇屋、蓮池やうの物に毎事を仰付られ、今般の御大事をも人しれず仰合らるるうへは、不肖の身を以て愚意を申に及ず」

▶의미: 이번.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이번.: 곧 돌아오거나 이제 막 지나간 차례.

일본어: 『大辭林』 こんぱん【今般】このたび(이번)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100개 일본어: 22,3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금비(金肥) ⇐ 金肥(きんぴ kinp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金肥의 생산소비 기사(1917년2월17일 2면3단)<개벽 제10호>8, 9년 전 朝鮮米生産收穫高는 1千萬石에 불과하더니 최근에 至하야는 1千5百餘萬石에 달하야 약 4割이나 增收되었다. 그 원인은 경지정리, 種子의 개량, 金肥의 사용증가일 것은 물론이다(1921년4월1일).

▶의미: 화학 비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正増補新らしい言葉の字引>(1919) <服部嘉香・植郎路郎>追加「金肥 人造肥料のこと。過磷酸石灰・硫モニア・石灰・窒素等の如く化学工業的に製造せられるもの。之に対し天然肥料<略>のことを手間肥といふ」

▶의미: 사서 쓰는 비료. 화학비료나 그 외의 인조비료를 말한다.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10년대 후반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름. ‘화학 비료’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きんぴ【金肥】(堆肥・糞尿(ふんによ)などの自給肥料に対して)代金を支払って購入する肥料。工場で生産される化学肥料など(퇴비나 분뇨로 만드는 자급(自給)비료와 달리 구입하는 비료. 공장에서 생산되는 화학비료 등을 말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6,300개 일본어: 81,2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금주(今週) ⇐ 今週(こんしゅう konsy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광고> 今週金曜日下午二時 陰六月初十日 本會第二回通常會를 大東文友會內에 開호오니 在京同道人士는 暨日參會하시옵 湖南學會總務 姜曄 告白(1907년7월17일 3면5단)

▶의미: 이번 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俳諧師>(1908)<高浜虚子>五「高知県人会、今週(コンシウ) 金曜午後三時より、吉村方にて」

▶의미: 이번 주.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이번 주일. ‘이번 주’로 순화. ≡금주일

일본어: 『大辞林』 こんしゅう【今週】この週(이번 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70,000개 일본어: 149,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금형(金型) ⇐ 金型(かながた kanagat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5면경제 기사> [工業常識 合成樹脂의 製法과 用途(中)] 加壓加熱하면根狀의 積層品이 製造되며 또 右를 適當히 큰 것에다가 감어서 金型에 너히 加壓加熱하면棒狀 管狀의 製品이 된다(1938년7월14일)

▶의미: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防衛省防衛研究所 海軍省公文備考類>昨今ニ到テ「ヘチメ」保社ニ於テモ愈二十一时魚雷ノ制式ヲ定メ該魚雷ニ對スル金型(「カネガタ」)ヲ作リツヘアリ其寸御左ノ如シ(1909년10월22일-11월4일)

▶의미: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

일본어: 『大辞林』 かながた【金型】金属で作った型の総称(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의 총칭)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다이캐스트용 주조용 플라스틱 형성용 등이 있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3,700개 일본어: 8,6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금회(今回) ⇐ 今回(こんかい konk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平和會議에 日本意向 露國國際平和會에 列國意向概要는 前号에 記했거니와 日本政府意向은아즉 確定치못했거니와 外交當局者の 意向은 今回提案을 贊成하

난디 露國이 世界人道를 爲히며 平和를 爲히며 又博愛를 爲히야(1898년9월27일 4면)

▶의미: 이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幸田露伴<露団々>(1889) 三「今回(コンクワイ)の事件も、同氏自らは少も奇怪と認むることなく」

▶의미: 이번.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이번. 곧 돌아오거나 이제 막 지나간 차례.

일본어: 『大辭林』 こんかい【今回】①今行われている, この回(지금 하고 있는 이번 회) ② 今度(이번)

중국어: 『汉语大词典』 这次; 此回(이번)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810개 일본어: 41,500,000개 중국어: 663,000,000개

급사(給仕) ⇄ 給仕(きゅうじ kyuuz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229호 内部令第六號> 第二條 巡查雇員及看護婦給仕使令職工工夫其他常傭人이旅行할時는 内外國의區別에應히야別表에依히야旅費를支給함(1908년11월16일)

▶의미: 사환. ※『17세기국어사전』에 없음. 『한국한자어사전』에 표제어 있으나 의미가 다름

일본 <公文録・明治十二年・第六十九卷・明治十二年八月・内務省一>給仕小使用手当之儀ニ付上申 諸官員月手当之儀ハ最前経伺之上支給方取計候処内地ニ於テ採用致シ候(1879년5월26일)

▶의미: 원래는 사무실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잡무를 보던 사람.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부리는 사람. ‘사동(使童)’ ‘사환(使喚)’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きゅうじ【給仕】もと, 事務所・役所などで雑用をした人(원래는 사무실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잡무를 보던 사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500개 일본어: 16,2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급여(給與) < 給与(きゅうよ kyuuuy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164호 隆熙二年九月官報摘要目錄>內部令第五號 巡查給與令巡查月俸 第四千百七(1908년8월31일)

▶의미: 관공서나 회사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市制及町村制>(1887년) 七八条「七十五条に定むる給与に関して異議あるときは」

▶의미: 금품을 주는 것. 또는 그 금품. 급료. 특히 관공서나 회사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돈이나 물품 따위를 줌'의 의미는 과거 한중일에 모두 있었던 전통적인 의미이나 '공무원이나 회사원의 급료나 상여 등의 근무에 대한 대가의 총칭'의 의미는 일본에서 1880년대 이후 생겨난 것이다. 오늘날 우리말에서 '봉급'이나 '월급'의 의미로 사용하는 '급여'는 1900년 초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돈이나 물품 따위를 줌. 또는 그 돈이나 물품.

일본어: 『大辞林』 きゅうよ【給与】①公務員や会社員の給料や賞与など, 勤務に対する対価の総称。税法上は, 俸給・給料・賃金・歳費・賞与及びこれらの性質を有するものをいう(공무원이나 회사원의 급료나 상여 등의 근무에 대한 대가의 총칭. 세법에서는 봉급 급료 세비 상여 및 이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함.)

중국어: 『汉语大词典』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13,000개 일본어: 3,130,000개 중국어: 339,000,000개

기라성(綺羅星) < 綺羅星(きらぼし kirabo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淸后의 寶物流落 先頃 倫敦市長夜會時에 英國及各國 貴紳 淑女가 綺羅星과 如히 相集은 中에 衆目を 惹은 一英國貴女가 有하야 其頸飾이 燦然射目함이 皆無不仰示터니 在席하얏던 淸國公使가 最初부터 其頸飾을 凝視하고(1903년3월11일 3면2단)

▶의미: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이라는 뜻으로 신분이 높거나 권력이나 명예 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車屋本謡曲・鉢木>(1545頃) 「のぼり集まるつはもの、きらほしのごとく祇候せり」

▶의미: 밤하늘에 반짝이는 많은 별. 또는 밝은 것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있는 것을 비유하는 데에도 사용한다.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이라는 뜻으로 신분이 높거나 권력이나 명예 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빛나는 별’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きらぼし【綺羅星】(綺羅, 星)の如し」という言い方から, 誤ってできた語) 立派な人が連なり並んでいることをいう語(‘기라(綺羅)라는 비단이 별처럼 빛난다’는 말이 잘못 전해진 것. 훌륭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많이 모인 것을 뜻하는 말)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9 600개 일본어: 21,5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기상(起床) ⇨ 起床(きしょう kis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夢中述事 滄浪之水清兮어든 濯我纓이오 滄浪之水濁兮어든 濯我之足이라
히니 名利之方便을 此外에 何求오 히거늘 余聞之 不勝憤鬱히야 方欲大叱타가 起床喇叭
一聲에 翻身而起하니 但看戟月이 射人이라(1899년3월1일 3면2단)

▶의미: 잠자리에서 일어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永井荷風<断腸亭日乗>(1933) 12月10日「晴また陰。正午起床」

▶의미: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起牀) 잠자리에서 일어남. ㄴ키침03

일본어: 『大辞林』 きしょう【起床】寢床からおきだすこと(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일어나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7,000개 일본어: 34,700개 중국어: 144,000,000개

기업(企業) ⇨ 企業(きぎょう kig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京義鐵道 法國人이 特許를 得은 京義鐵道敷設權은 來七月부터 起工을 契約인디 法國人은 其準備를 不爲히고 今此敷設權을 日本에 賣渡히기로 云인디 日本資本家及企業家가 此를 應諾히면 廉價로 買得을 것이오 其鐵道特許權도 渡與히깃고 去月三十一日에 發電히얏다더라(1899년6월15일 3면1단)

▶의미: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東京日日新聞> 明治一五年(1882) 9月13日「曩に佩文韻府并に資治通鑑の予約出版を企業せし

に」<英和外交商業字彙(1900)>篠野乙次郎「Enterprise 起業, 事業」

▶의미: 이윤을 위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조직체 또는 그 활동.

중국 <중국 국회 제도 사의>1910<中国国会制度私议>1910年

▶의미: 从事生产, 运输, 贸易等经济活动的部门(생산 운송 무역등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부문)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일본어: 『大辞林』 きぎょう【企業】 営利の目的で継続的・計画的に同種の経済行為を行う組織体(영리목적으로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경제행위를 하는 조직체)

중국어: 『汉语大词典』从事生产、运输、贸易等经济活动的部门(생산 운송 무역등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부문) ”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900,000개 일본어: 584,000,000개 중국어: 1,440,000,000개

기입(記入) ⇐ 記入(きにゅう kiny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内部令第二十六號 官報 第四條(중략) 船長과 船内人은 誰某를 勿論하고 檢疫官吏의 尋問에 對하야 應答할지오 所定한 式樣紙에 事項을 記入하고 其氏名을 記한 明告書에 調印差出할지오(1899년10월2일 1면3단)

▶의미: 써넣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久米邦武<米欧回覧実記>(1877) 例言「若夫れ各使節、私を以て遊觀せしは、緊要国に益あることにあらざれば、一々に記入せず」

▶의미: 써넣음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첨이나 문서 따위에 적어 넣음. ‘써넣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きにゅう【記入】 (所定の箇所に指定された事項を) 書き入れること(정해진 양식에 지정된 사항을) 써 넣는 것 「姓名を-する」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51,000개 일본어: 168,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기중(忌中) ⇐ 忌中(きちゅう kity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40호 행랑자식> 그러나 눈 딱 감고 드러가라 하닛가 문간에다가 忌中이라 써 부치고 문을 다더 바렸다. 『忌中』사람이 죽었구나 하고서 생각하니 고 몇 분 동안에 자기마음이 긴장되었든 것은 풀려진다(1923년10월1일)

▶의미: 상중.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海人藻芥>(1420) 「忌中三十五日以前。籠僧他所へ出べからず。又他所の人も内へ入べからず。於門前令対面也」

▶의미: 상중(喪中)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상중(喪中)

일본어: 『大辭林』 きちゅう【忌中】 近親者の喪に服し、忌み慎んでいる期間(가까운 인척관계의 상에 참석하고 삼가는 기간. 보통 사후 49일간을 말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3,900개 일본어: 25,5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기중기(起重機) ⇨ 起重機(きじゅうき kijyuu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外報[旅順口大築工事] 起重機及軍港載物船을 作할 事(1899년12월25일 2면 3단)

▶의미: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아래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久米邦武<米欧回覽実記>(1877) 二・二七「鶴頸秤の起重器は<略>西洋にて凡(およそ) 港頭、船廠、工場、砦口等、総て重荷を積卸しする場所には、此器械を設けざるなし」

▶의미: 크레인.

중국 <日本新政考>卷一 1888年

▶의미: 能提起或移动重物用的机器(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기계)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아래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 ‘들 기계’ ‘들 틀’로 순화. ≡크레인01(crane)

일본어: 『大辭林』 きじゅうき【起重機】 크레인

중국어: 『汉语大词典』取物从取物地把物品提起, 然后水平移动到指定地点降下物品, 接着进行反向运动, 使取物装置返回原位, 以便进行下一次循环(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로 그 동력의 장치와 형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550개 일본어: 6,840개 중국어: 19,800,000개

기증(寄贈) ⇐ 寄贈(きぞう kiz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284호 勅令第四十七號 大韓赤十字社規則> 第七條 本社維持資는左와如함이라 一 帝室의恩賜金

二 篤志家の寄贈 三 本社業務에서生호는特別收入金(1905년10월31일)

▶의미: 선물이나 기념으로 남에게 물품을 거저 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東京朝日新聞>明治三八年(1905) 四月一日「又同会に対する内地同情者の寄贈金額は数千円に上り」

▶의미: 증여. 증정.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선물이나 기념으로 남에게 물품을 거저 줌.

일본어: 『大辞林』 きぞう【寄贈】(主として学校などの公共性の高いところに)品物を贈ること ((주로 학교 등의 공공성이 높은 곳에)물품을 주는 것. 증정)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0,900개 일본어: 86,2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기포(氣泡) ⇐ 気泡(きほう kih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동학회월보 제18호 化學(續)>琉璃器의 盛入호는 水中에 其 端을 入호야 直立호는 後에 水素들 充호는 琉璃鍾으로써 其 素燒筒을 覆호면忽然히 水中에 在호는 管端에서 氣泡가 逃出호는니(1909년7월25일)

▶의미: 거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文部省<小学化学書>(1874) 2・33回「次に塩化水素酸を加ふれば白聖の周に忽ち気泡を發するを見るべし」

▶의미: 거품.

중국 <诊断学(진단학)>1919年

▶의미: 气体在固体, 液体的内部或表面形成的球状或半球状体(기체가 액체나 고체 속에 들어가 거품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있는 것)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액체나 고체 속에 기체가 들어가 거품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있는 것. ‘거품’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きほう【気泡】液体や固体中の空気のあわ(액체나 고체 속의 공기방울)

중국어: 『汉语大词典』 기체가 액체나 고체 속에 들어가 거품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있는것. 气体在液体、固体的内部或表面形成的球状或半球状体。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1,300개 일본어: 5,170,000개 중국어: 39,900,000개

기합(氣合) ⇨ 気合(きあい ki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壬戌學院 爲한 力藝會開催] 力藝及氣合術實演會를 개최하여 그날의 수입으로 동원의 일부 비용에라도 충당코자 예의 연습 중이라 한다(1934년11월13일 6면7단)

▶의미: 기합.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木田独歩<園遊会>(1902)三「禅僧の教を奉じ猛虎の気合(キアヒ)で、ウンと取って来ました」 夏目漱石<明暗>(1916)一八三「もし津田が室に入ってきた時、彼の気合(キアヒ)を抜いて、間の合はない時分に、わざと縁側の隅から顔を出したものが」

▶의미: 어떤 일에 정신을 집중할 때의 기세. 또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함성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특별한 힘을 내기 위한 정신과 힘의 집중. 또는 그런 집중을 위해 내는 소리. ‘기 넣기’로 순화. 군대나 학교 따위의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잘못된 사람을 단련한다는 뜻에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얼차려’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きあい【気合】あることに精神を集中してかかるときの気持ちの勢い。また、それを表すかけ声(어떤 일에 정신을 집중할 때의 기세. 또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함성)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5,000개 일본어: 51,400,000개 중국어: 143,000,000개

【나】

낙서(落書) ⇨ 落書き/落書(らくがき rakuga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별건곤 제15호 世界大誘惑 밤에 피는 꽃>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누구나 거리를 지나다가 대변이 급할 때에는 공동 변소 가티 緊한 것이 업스나 대변을 다 보고 나면변소 벽

에 낙서하기와 나와서는 더럽다고 뒤도 안 도라보고 다러나는 그 格으로 조선 여학생들은 제가 아습고 궁할 때는 제법 사랑을 곳 잘하는 체하다가 조금 解窮이 되면공동 변소가티 박대하여 버린단 말이다(1928년8월1일)

▶의미: 글자 그림 따위를 장난으로 아무 데나 함부로 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文明本ヲ節用集>(室町中)「無住方叢林落書(ラクショ らくガキ)也或作無頭方也」

▶의미: 문 벽 등 써서는 안 되는 곳에 장난으로 글이나 그림을 쓰는 것. 또는 그 쓴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말로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글을 베낄 때에 잘못하여 글자를 빠뜨리고 씀. 글자 그림 따위를 장난으로 아무 데나 함부로 씀. 또는 그 글자나 그림. ‘장난 글씨’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らくがき(落書き) 書くべきでないところに文字や絵などをいたずら書きすること。また、その書いたもの(써서는 안되는 곳에 글씨나 그림을 쓰는 것. 또는 써 놓은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53,000개 일본어: 1,88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난조(亂調) ⇐ 乱調(らんちょう ranch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33호 産業組合經營의 基礎觀念을 論함> 그러나 소組合의 저축은 직접으로 그 지방 산업발달에 運轉하는 고로 此가 조합원의 출자도 되고 저금도 되어 타지방의 금리가 오르던지 물가가 亂調가 되던지 그 영향은 맞지 아니할 터이다(1923년3월1일)

▶의미: 상에서 벗어나거나 조화를 잃은 상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浄瑠璃・吉野都女楠>(1710頃か) かしぢの御幸「神楽堂の大太鼓、らん調(デウ)に打ち立給はば」 藤村作・千葉勉<現代語大辞典(1932)「らんちょう 乱調 株式用語。相場騰落の定まりないこと。乱高下。乱調子」

▶의미: 가락이나 곡조 등이 흔들리는 것.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상황.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정상에서 벗어나거나 조화를 잃은 상태. ‘엉망’ ‘흐트러짐’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らんちょう【乱調】調子の乱れること(상태나 기세가 나빠지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6,200개 일본어: 9,87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남벌(濫伐) ⇨ 濫伐／乱伐(らんぱつ ranba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043호 内部訓令第一七三號> 且此法施行節目은主務局長으로 하여금
通牒이有케 할지니此를監督하는事에對하여는本使는另加注意하여救恤의趣旨를貫徹케 할지
며森林濫伐하는弊害가無하도록惕念함이爲宜事(1908년4월9일)

▶의미: 나무를 함부로 베어 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志賀重昂<日本風景論>(1894) 七「或は森林を濫伐し」

▶의미: 함부로 베어 냄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나무를 함부로 베어 냄. ‘마구 베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らんぱつ【乱伐・濫伐】 山林の木を無計画に伐り倒すこと(산림의 나무를
막 베어 쓰러뜨리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570개 일본어: 229,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납기(納期) ⇨ 納期(のうき noo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호 收入條規>第一 納期の一定 收入은其納期末日に屬하는年度の歳
入으로 하되但毎年十月以後의納期에係하는地稅는其翌年度稅入으로함(1895년4월5일)

▶의미: 내는 날.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金井之恭<東巡録>(1876) 四・奏対「蓋し、納期數回に涉り、最も其の便を得ればなり」.

▶의미: 납입 기한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시기나 기한. ‘내는 날’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のうき【納期】 金や注文品などを納める時期・期日。また、納入の期限(돈
이나 주문품 등을 납부하거나 납품하는 기간이나 기일. 납입 기한)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24,000개 일본어: 152,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납득(納得) ⇐ 納得(なっとく natto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별건곤 제29호 스타린을 中心으로> 彼가 『트로츠키-』와 『지노비에브』와 『부하-린』 등을 放逐하고 극복한 것은 彼の 정책을 露西亞 대중에게 납득시킨데 잇는 것이다(1930년 6월 1일)

▶의미: 이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落書露顯>(1413)「此の仁の事は、歌と連哥とのけぢめをはやよく納得して侍なり」 뜻2. →のうとく(納得)

▶의미: 납득.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말로,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 ‘이해’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なっとく【納得】他人の考え・行為を理解し, もっともだと認めること(타인의 생각이나 행위를 이해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88,000개 일본어: 722,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납입(納入) ⇐ 納入(のうにゅう noony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學員募集廣告] 本舍에 願入人員은 束修金 二元과 每朔月謝金 一元을 納入 糝 事(1905년5월31일 3면3단)

▶의미: 납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宮賢夫<金>(1926)「追証の納入(ナフニフ)ばかりでなく」

▶의미: [1926] 물품이나 돈을 내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것. ‘납부’ ‘냄’ ‘치름’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のうにゅう【納入】品物や金を納めること(물품이나 돈을 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64,000개 일본어: 16,600개 중국어: 179,000,000개

낭만(浪漫) ⇨ 浪漫(ろうまん room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批評에 對한 吾人の 見解(2)] 十八世紀末에歐米思想界에는一種의浪漫主義가勃興되자批評이라함에도此等影響이有하얏슴(1921년1월3일 1면6단)

▶의미: 실현성이 적고 매우 정서적이며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심리 상태. ※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夏目漱石<三四郎>(1908) もう少し 普通の人間らしく歩くがいい。まるで浪漫的アイロニーだ」三四郎にはこの洋語の意味がよく分らなかった。

▶의미: roman의 음차(音借)

중국 <欧游心影录节录>(유럽 여행 심영록 초록)1919年

▶의미: 富有诗意, 充滿幻想(시정적이고 환상으로 충만되다)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말로,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실현성이 적고 매우 정서적이며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심리 상태. 또는 그런 심리 상태로 인한 감미로운 분위기

일본어: 『大辞林』 ろうまん【浪漫】「ロマン」に同じ(로망)

중국어: 『汉语大词典』[英romantic]富有诗意, 充滿幻想(시정적이고 환상으로 충만되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2,100개 일본어: 62,900,000개 중국어: 515,000,000개

내막(内幕) ⇨ 内幕(ないまく naima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梁啓超氏談話 ◎日本大阪毎日新聞記者が須磨에寓居하는梁啓超氏를再次訪問하였는데(중략) 一步를進히야清廷内幕을窺하건表面은安靜하나內容은實로大暗闘를行하며其結果는世人이想像치못함바이나今後二個月을經히여야知得기能하며(1908년12월2일 2면1단)

▶의미: 속사정.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黒岩涙香訳<巖窟王>(1901) 四・二三五「段倉銀行の大約(おほよそ)の内幕(ナイマク)は読者の知る通りである」

▶의미: 내부 사정

중국 <致王献唐函>(왕헌당에게 보내는 편지)1930年5月15日

▶의미: 不为外界所了解的内部情况(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의 속 내용)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의 속 내용. ‘속사정’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ないまく【内幕】うちわの事情。うちまく(내부 사정)

중국어: 『汉语大词典』 内部实际情况(내부 실제 상황)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0,200개 일본어: 10,500,000개 중국어: 136,000,000개

내사(內査) ⇨ 内査(ないさ naisa)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별건곤 제65호 엉터리 장사 裡面 暴露記> 축하광고비라 하는 명목 아래에서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하여 다수한 금액을 편취하는 사실이 비밀비재 함으로 부내 본정서(本町署)에서는 그자들의 행동을 내사하고 있던 중 작 19일에는 곡박형사부장(谷迫刑事部長)이 부내 삼각정에서 자칭 무슨 기사라고 하는 문양비(文良備) 또 상공시보(商工時報) 기사라는 누구 한 명을 검거한 후 엄중 취조를 거듭하던 중인대(1933년 7월 1일)

▶ 의미: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몰래 조사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外務省外交史料館 外務省記録 支那留日学生ノ行動ニ関スル件> 今回ノ支那騒擾事件ニ関シ管下在留支那留学生ノ言動ニ付内査スルニ及記ノ通ニ有之候条及報告候也(1919년 5월 16일 6월 14일)

▶ 의미: 드러나지 않게 조사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몰래 조사함. 일정한 조직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함

일본어: 『大辞林』 『大辞泉』에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3,700개 일본어: 232,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내역(內譯) ⇨ 内訳(うちわけ uchiwake)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度支部令第四號 金庫事務處理順序] 第十四條 金庫는 左開帳簿를 設함이 可함 一 現金受撥簿 二 歲入內譯簿 三 歲出內譯簿(1905년 6월 30일 2면 1단)

▶ 의미: 명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久米邦武<米欧回覧実記>(1877) 一・二「平均数の内訳は、北部にては五万五百五十弗(ドル)にてなり」

▶ 의미: 금전과 물품 총액에 대한 명세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 명세(明細)'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うちわけ【内訳】金銭・物品の総高に対して,その内容を項目ごとに分けたもの(금전이나 물품의 총액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놓은 것. 명세)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8,600개 일본어: 82,9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내용(内容) ⇐ 内容(ないよう nai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伊藤政策] 本月三日에 發刊한 萬朝新報를 據한 則伊藤侯爵이 多大한 抱負로써 渡韓하라하난디 其對韓政策이 何如한지 世人이 熱心으로 其内容を 知코져하되 (1904년8월16일 3면2단)

▶의미: 사물의 속내를 이루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中江兆民<一年有半>(1901)―「但其内容を為す所の人物は、大勲位を首とし他総務連中に至る迄、無氣力、無志概の人々なるを以て」

▶의미: 내용물. 문장이나 이야기 등에서 표현되는 사항.

중국 <新爾雅·释教育>1903年

▶의미: 事物内部包含的实质或存在的情况(사물 내부에 포함된 실질이나 존재하는 상황)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그 릇이나 포장 따위의 안에 든 것. 사물의 속내를 이루는 것. 말글 그림 연출 따위의 모든 표현 매체 속에 들어 있는 것. 또는 그런 것들로 전하고자 하는 것.

일본어: 『大辭林』ないよう【内容】①入れ物などの中に含まれているもの(용기 등에 숨겨져 있는 것) ②一定の形式をとって形をなすものの中を満たして,そのものを成り立たせている事柄(일정 형식으로 형태가 있는 것의 속을 채우고 그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 ③事物を成り立たせる実質や素材(사물을 이루는 실질이나 소재)

중국어: 『汉语大词典』事物内部所含的实质或意义(사물 내부에 포함된 실질이나 존재하는 상황)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4,000개 일본어: 381,000,000개 중국어: 2,000,000,000개

내주(來週) ⇐ 来週(らいしゅう raisy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1면정치면>[貴, 衆兩院의 一大政戰은 來週]【東京電】連日に 亘한 野黨의 猛襲에 應戰해야 與黨은 二十六日 兩稅移讓案을 上程시키었으나 質問未了로 散會되었으므로(1929년1월29일)

▶의미: 다음 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坪内逍遙<内地雜居未来之夢>(1886) 「來週(ライシウ)の土曜日を以て、同刻同所にて開會すといへり」

▶의미: 내주. 다음주.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내주(來週) 이 주의 바로 다음 주. ‘다음 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らいしゅう【來週】この次の週(다음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6,000개 일본어: 97,5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내포(內包) ⇐ 内包(ないほう naih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現代新語釋義>(1922) 내포(內包) 개념의 속성. 외연의 반대

▶의미: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致知啓蒙><西周>(1874) 「之を言はの外延 [extenshion]と名け<略>之を言はの内包 [comprehension]と名く」

▶의미: 개념에 포함되는 의미나 내용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하는 여러 사물이 공통으로 지니는 필연적 성질의 전체.

일본어: 『大辭林』 ないほう【内包】①内部にもつこと(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 ②【論】ある概念において、その適用される事物(外延)が共通に有する性質(어떤 개념에 대해 적용되는 사물이 공유하는 성질. 개념에 포함되는 의미나 내용)

중국어: 『汉语大词典』即内涵(내포)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44,000개 일본어: 73,200,000개 중국어: 9,540,000개

토관(土管) ⇐ 土管(どかん dok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本事務所난 左와 如하게 營業方針을 定하여 事業을 擴張함 — 龍山堂峴에 煉瓦工場을 新設하고 日本에서 熟練한 技師와 職工을 雇入하여 煉瓦와 土管製造販賣를 爲함(1903년9월22일 3면3단)

▶의미: 점토를 구워서 만든 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風俗画報.一五号>(1890) 本館及び各館「第十二類のセメント、煉瓦石、瓦、土管、人造石等製造の機械或は其雛形、絵図」

▶의미: 점토를 구워서 만든 관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1900년도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토관’보다는 일본어 발음의 변형 ‘노깡’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토관(土管)

일본어: 『大辞林』 土管【土管】粘土を焼いてつくった管。素焼きと釉(うわぐすり)を施したものがあ、排水管・煙突などに用いる(점토를 구워서 만든 관. 유약을 사용한 것이 있으며 배수관이나 연통 등에 사용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00개 일본어: 59,5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노동(勞働) ⇨ 労働(ろうどう rood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독립신문 제4권 제221호 2면> 쇼년 시디와 장년시디를 지나고 쇠년 시디에 향 하는 신테에 적당한 로동이 극히 좃커니와 어느 사람이던지 극히 힘들여 과히 슈고 함은 신테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이며 적당한 운동이라도 미일 일명헌 규모를 요구 하나니(1889년9월 27일)

▶의미: 몸을 움직여 일을 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養生訓>(1713) 「身体は日を少づつ労働すべし。久しく安坐すべからず」 [1921]<新しき用語の泉(1912)> <小林花眠> 「労働(ロードー) 經濟的貨物の生産に用ひられる心力及び体力の秩序的活動の総称である」

▶의미: 몸을 사용하여 일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2.몸을 움직여 일을 함.

일본어: 『大辞林』 ろうどう【労働】①からだを使って働くこと。特に賃金や報酬を得るために

働くこと。また，一般に働くこと(몸을 써서 일하는 것. 특히 임금이나 보수를 위해 일하는 것. 일반적인 의미로 일하는 것) ②人間が道具や機械などの手段を利用して労働の対象となる天然資源や原材料に働きかけ，生活に必要な財貨を生み出す活動(인간이 도구나 기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노동의 대상이 되는 천연자원이나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

중국어: 『汉语大词典』今多指创造物质财富和精神财富的活动(물질 재부와 정신 재부를 창조하는 활동)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50,000개 일본어: 14,500,000개 중국어: 629,000,000개

노동조합(勞働組合) ⇨ 労働組合(ろうどうくみあい roodoo-kumi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매일신보 3면 활민회 활인> 부산항에 활민 로동조합사를 설립함은 이미 게지헛거니와 그 항구에서 로동하는 사릅중예 병들어 구원할 사릅이 업는 자를 그 조합사에서 극력 치료헛여 구제헛 사릅이 이천여 명에 달헛지라(1910년1월9일)
▶의미: 노동조합.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本の下層社会>(1899) <横山源之助>日本の社会運動・三・一「物価暴騰の一事実加はりて同盟罷工行はれたり、労働組合は組織せられたり」
▶의미: 노조.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지위 향상을 위해서 만든 단체.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노동 조건의 개선(改善) 및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

일본어: 『大辞林』 ろうどうくみあい【労働組合】労働者がその労働条件の維持・改善，また経済的・社会的地位の向上を主たる目的として自主的に組織する団体(노동자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96,000개 일본어: 901,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노임(勞賃) ⇨ 労賃(ろうちん rooch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38호 平北의 産業，農·工·商·畜·林·鑛>工業界 또한 그러치 別道理가 잇으라. 他道에 比하야 原料도 풍부하고 勞賃도 低廉하다 할 수 이스나 本來 資本이 乏하고 技術이 不及하니 奈何오(1923년8월1일)
▶의미: 노동 임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貧乏物語>(1916) <河上肇>七・三「併し一九〇三年には私の労賃は二十イ五志六片でした」

▶의미: 노임. 노동에 대한 보수로 받는 임금.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노동 임금’을 줄여 이르는 말. ‘품삔’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노동에 대한 임금. ろうちん【労賃】労働に対する賃金.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0,200개 일본어: 243,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노점(露店) ⇨ 露店(ろてん rote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第31課 商業의 高手>(朝鮮總督府) 二童子가 有^히야 各^히 路店을 市場에 設^히고(1913년3월)

▶의미: 거리 가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読売新聞>明治18年(1885) 二月七日「近ごろ銀座通りなどへは、尋常の家屋の如き大げさの建物を持ち出して露店を張るものが有るにつき」

▶의미: 사찰의 경내나 도로 등에 판이나 천 등을 깔고 그 위에 물품을 늘어놓고 장사하는 가게.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장사하는 곳. ‘거리 가게’ ‘길 가게’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ろてん【露店】道端や寺社の境内で、ござなどの上に品物を並べて売る店(길가나 사찰 경내에서 돛자리에 상품을 늘어놓고 파는 가게)

중국어: 『汉语大词典』在涼棚里开的小店(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장사하는 곳)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2,300개 일본어: 4,930,000개 중국어: 6,790,000개

노조(勞組) ⇨ 労組(ろうくみ rookum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各支分局通信欄: 木浦勞組 성립 기사(1920년5월18일 4면2단)

▶의미: 노동조합의 약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夏目漱石<坑夫>(1908)飯場頭というのは一つの飯場を預かる坑夫の隊長で、この長屋の組合にはいる坑夫は、万事この人の了簡しだいでもなる。だからはなはだ勢力がある。

▶의미: 労働組合의 약어인 労組(ろうくみ)를 일본어 음독으로 읽은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노동조합

일본어: 『大辞林』 ろうそ【労組】「労働組合」の略)(노동조합의 약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32,000개 일본어: 9 1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논지(論旨) ⇨ 論旨(ろんし ron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32호 内部令第七號 巡檢採用規則> 第九條 巡檢의奉職호는年齒호는滿五十年으로써爲限호는 但五十年未滿이라도老衰호는며若病弱으로職務에堪當치못호는者로認호는는時호는 諭旨호는야辭職게호는디或諭旨에應지안호는는者가有호는거든直其職務을罷免호는(1895년8월8일)

▶의미: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 .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新聞雜誌.一八号>明治四年(1871) 10月「其論旨は所謂兵者凶器也戰者逆徳也の意を主張し」

▶의미: 의논의 요지. 의논의 주제.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

일본어: 『大辞林』 ろんし【論旨】議論の筋道(토론의 조리) 議論の主旨(토론의 중심이 되는 내용)

중국어: 『汉语大词典』议论的旨趣(의논의 취지)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1,000개 일본어: 1,040,000개 중국어: 22,500,000개

능률(能率) ⇨ 能率(のうりつ noori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3호 勞働은 生命이오, 思想은 光明이다> 사람이 귀하다함은 노동의 능률이 多

함으로써이다 中에도 청년이 最貴하다함은 그 능률이 최고조임을 의미함이다 고로 노동을 무시함은 자기의 신성을 自汚함이다(1920년8월25일)

▶의미: 일정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비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物理学術語 和英仏独対訳字書』(1888) 〈山口銳之助〉「Noritsu. Moment〈略〉能率」服部嘉香・植郎路郎『新らしい言葉の字引』(1919) 「能率 Efficiency(英) の訳。一定の時間内に仕事の結果を能ふかぎり、有効に發揮する割合。〈略〉最近各方面にこの語が用ひられる」

▶의미: 물리학에서 모멘트 회전능률. 일정시간에 가능한 업무 비율. 능률.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 무렵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일정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비율. 모멘트.

일본어: 『大辞林』 のうりつ【能率】①一定の時間内にすることのできる仕事の割合(일정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비율) ②【物】モーメント(모멘트와 같은 뜻)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0 100개 일본어: 8 31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다】

단말기(端末機) ⇐ 端末機(たんまつき tanmatsu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매일경제 3면> 端末機 보급이 늘어나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1979년8월2일)

▶의미: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장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葡辞書』(1603) Tanmat(タンマツ)。ハジメト、スエ」

▶의미: 발단과 결말. 시작과 끝.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 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의 컴퓨터 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장치. 단말 장치. 터미널

일본어: 『大辞林』 たんまつき【端末機】端末装置に同じ(단말장치와 같은 의미)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90,000개 일본어: 1,69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단자(團子) ⇄ 団子(たんご tang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大觀共進會 觀月과 見團子 來 23일의 土曜日は 陰曆9月 15日 前夜月に 相當함으로 協贊者에서는 此日を 觀月日로 定하고 當夜の 入場者中 先着者 一千名에 限하여 月見團子を 響應한다더라(1914년12월5일)

▶의미: 경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米沢本沙石集>(1283) 五本・八『せなかの上くぼみたるゆへにたにといふくは、団子もくぼみたり』

▶의미: 경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오늘날 ‘단자(團子)’로는 쓰이지 않으나 일본식 발음 ‘당고’는 쓰는 사람도 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음.

일본어: 『大辞林』 たんご【団子】①穀類の粉をこねてまるめ、蒸したり、ゆでたりした食品。あん・きなこなどをつけて食べる(곡물가루를 둥글게 반죽하여 찌거나 삶아낸 식품. 단팥이나 콩가루 등을 묻혀서 먹는다) ②ごちやごちやとひとかたまりになっているさまをいう語(어수선한 상태로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 상태를 말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用米或粉等做成的球形食品(쌀가루 밀가루 등으로 둥글둥글하게 빚은 식품)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8,100개 일본어: 15,200개 중국어: 9,750,000개

단지(團地) ⇄ 団地(だんち danc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3면>[쌀增産競勵會 入賞者들 決定] △개인「다수확상」(多收穫賞)을전북沃溝군 大野면의 李鍾九씨(反收 다섯섬, 두말)가 받았으며 △단지(團地)수확상은 전북東津수리조합(反收넉섬(1959년5월7일)

▶의미: 같은 성격의 건물이나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입지시키기 위해서 개발 된 토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土地収用法>(1915)三条・三〇「日本住宅公団が<略>賃貸し、又は譲渡する目的で行う五十戸以上の一団地の住宅経営」

▶의미: 단지. 같은 성격의 건물이나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입지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토지. 주택단지 등등.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 이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같은 성격의 건물이나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입지시키기 위해서 개발 된 토지.

일본어: 『大辞林』 だんち【団地】 一か所にまとめて建設するために計画的に開発した住宅や工場。住宅団地・流通団地・工業団地など。特に住宅団地をいう(한 곳에 모아서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한 주택이나 공장. 주택단지 유통단지 공업단지 등등. 특히 주택 단지를 말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57,000개 일본어: 73,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단행본(單行本) ⇨ 單行本(たんこうぼん tankoobo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2면1단> [洪水以後의 出版界] 單行本發行이 쓴처 한참 팔이든 소설시과집이 왜 안이 나오나 이제는 少年雜誌全盛時代(1928년1월30일)

▶의미: 한 번의 발행으로 출판이 완료된 책.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久米邦武<米欧回覧実記>(1877) 例言「世に單行本多けれども、大抵編中の記実は、精数を詳査すべきもの少く」

▶의미: 단독으로 한권으로 발행하는 책.

중국 <本馆印行四库全书概况>(본관간행 사고전서 개황)1933年

▶의미: 从报刊上或从成套成部的书里抽出来单独印行的著作(지속적으로 발행되는 잡지 따위와 달리 한 번의 발행으로 출판이 완료된 책)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잡지 따위와 달리 한 번의 발행으로 출판이 완료된 책.

일본어: 『大辞林』 たんこうぼん【單行本】 雑誌・全集・叢書などに対して、単独に一冊として刊行される本(잡지 전집 총서 등에 대해서 단독으로 한권으로 발행하는 책)

중국어: 『汉语大词典』. 单独印行的书籍(단독 출판된 서적)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89,000개 일본어: 1,750,000개 중국어: 15,300,000

담합(談合) ⇨ 談合(だんごう dang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4면4단> 談合事件 判決 平壤談合事件으로 一時 土木建築界 의 耳目을 聳動

캐하던 横山光次 以下 7名에 對한 業務妨害詐欺事件은(1915년7월2일)

▶의미: 짬짜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長秋記>大治五年(1180) 四月二九日「院召次二人下給。御障子間可召仕也。依昨日談也」

▶의미: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 ‘짬짜미’로 순화.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

일본어: 『大辭林』 だんごう【談合】①話し合うこと(이야기를 나누는 것) 話し合い(이야기 함)
②競争入札の際に、複数の入札参加者が前もって相談し、入札価格や落札者などを協定しておくこと(경쟁입찰을 할 때 복수의 입찰참가자들이 미리 상담하여 입찰가격이나 낙찰자를 정해두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8,200개 일본어: 4,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답신(答申) ⇨ 答申(とうしん toosh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11호 法律第十七號 商務會議所規例> 第三條 會議所の事務權限은 左와如함 一商業이旺盛하느方法이나衰退하느를救하느方案을議決하느事 一商業의利害得失에關하느意見을官廳에具申하느事 一商業에關하느官廳諮問에答申하느事(1895년11월12일)

▶의미: 자문 기관이 행정 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郵便報知新聞>(1892) 五月五日「寧ろ制服を廃止する方然らんとの旨を答申"したる趣にて」

▶의미: 상사의 질문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 또는 자문기관이 행정기관에 의견을 말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의 행정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상부나 상사의 물음에 대하여 의견이나 사실을 진술하여 보고함. 또는 그런 보고. 자문 기관이 행정 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함. 또는 그런 진술. ‘대답’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とうしん【答申】 上級の官庁や上役の問いに対して意見を申し述べること (상급관청이나 상사의 문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100개 일본어: 42,6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대결(對決) ⇨ 対決(たいけつ taike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支那情勢: 山東解決은 華義後 日本政府의 對決決定 기사(1921년10월31일 2면1단)

▶의미: 맞서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雜俳・柳多留.四(1769)「乳母同士たいけつになる柿一つ」

▶의미: 양자가 상대해서 어느 쪽이 옳은 지를 명백하게 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20년경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양자(兩者)가 맞서서 우열이나 승패를 가림. ‘겨루기’ ‘맞서기’로 순화.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를 마주 불러 놓고 심판하는 일.

일본어: 『大辞林』 たいけつ【対決】①両者が相對して決着をつけること(양자가 상대하여 판가름을 내는 것). 「兩雄が-する」②対審に同じ(대심에 해당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5,000개 일본어: 87,9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대금(代金) ⇨ 代金(だいきん daik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831호 勅令第四十三號 臨時郵遞規則> 第九條 臨時郵遞區域內에서 逐朔賣下る는 郵票代金은 算定表에 區別懸錄하야 每於 月終에 所管 郵遞司로 送付하야 區別賣上케 함이可함이라(1897년12월28일)

▶의미: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浮世草子・日本永代蔵>(1688) 六・二「鯛の事売牧の代金(ダイキン) 売兩式歩づつ、しかも尾かしらにて売尺二三寸の中鯛なり」

▶의미: 물품을 구입하는 이가 파는 이에게 지불하는 돈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 ‘값’ ‘돈’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だいきん【代金】 品物の買い手が売り手に支払う金(물품을 구입하는 이가

파는 이에게 지불하는 돈)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570,000개 일본어: 1,3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대금업(貸金業) ⇨ 貸し金業(かしきんぎょう kashiking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총독부조선어사전』(1920) 돈취리(取利)하다 貸金業으로 殖利하는 稱(돈장사하다).

▶의미: 돈놀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陸軍省大日記> 今省局ニ於テ印刷別紙海外各地在留本邦人職業別表@業
為御参考茲ニ進候也 海外各地在留本邦 明治四十年十二月末 官公吏 外国用聘 教師 学生
実業練習生 中略 質商及貸金業 呉服太物業(1909년2월16일)

▶의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직종. 금융업.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일. ‘돈놀이’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かしきんぎょう【貸金業】 事業者や消費者に融資を行う専門業(대금업(貸金業))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880개 일본어: 12,7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대다수(大多數) ⇨ 大多数(だいたすう daitas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98호 外報> 茲美國上院에서는非常히熱心으로「규바」嶋反徒와同情함
을表함야其獨立을承認함게決定함고西班牙政府에其聽許함기를勸告함며又下院에서도別로
爭論이無함고大多數로承認함기를議決함앗더라(1896년4월13일)

▶의미: 대부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社会百面相官>(1902) <内田魯庵>増税・下「到頭大多数を以て協議会の議決を破って十月説を確定した」

▶의미: 전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거의 모두 다. ‘대부분’으로 순화. 대단히 많은 수.

일본어: 『大辞林』 だいたすう【大多数】あるまとまりのうちの大部分の数(어떤 그룹이나 문체
있는 것 중의 대부분의 수)

중국어: 『汉语大词典』超过半数很多的数量(절반을 초과하는 많은 수량)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95,000개 일본어: 26,200,000개 중국어: 597,000,000개

대리(代理) ⇨ 代理(だいに dair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호 勅令第61號 公使館領事館費用令>第十二條 代理者는其事務傳受
日로부터 代理中別表第一號及第二號에依히야代理에當히는本俸을給히는니但當該主任官
이到任히면其到達日로限함(1895년4월1일)

▶의미: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広益字典>(1874) <湯浅忠良>「代理 ダイリ カハリノトリアツカヒヤク」

▶의미: 다른 사람을 대신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는 것.

중국 <广东省土话字汇>(광둥성 지역 방언 사전)1828年

▶의미: 暂时代人担任某些职责(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또는 그런 사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이후 우리말에 소개 도입된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또는 그런 사람.

일본어: 『大辞林』 だいに【代理】①その人に代わって物事を処理すること(사람을 대신하여 일
등을 처리하는 것) ②【法】ある人が，本人のためであることを示して，第三者と法律行為
をなすこと(어떤 사람이 본인을 위한 일하는 것을 제시하고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暂时代任某项职务(잠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410,000개 일본어: 707,000,000개 중국어: 1,040,000,000개

대미(大尾) ⇨ 大尾(たいび taib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광 제33호 獨逸의 危機와 國粹社會勞動黨> 아울러 『히틀러』一派로 인하여 獨逸國
民은 『카이젤』 皇帝 失政時代 以上の 困辱을 당할지도 未知인 것이다. 平和의 壞亂者
는 『파씨스트』들이며 아울러 『파씨스트』運動인 것이다(大尾)(1932년5월1일).

▶의미: 맨 끝.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雑俳・柳多留.五九>(1812) 「鎌倉の案内石が大尾也」

▶의미: 맨 끝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30년대에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일의 맨 마지막. ‘맨 끝’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たいび【大尾】 終わり(끝) おしまい(완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94,000개 일본어: 165,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대부(貸付) ⇨ 貸付(かしつけ kashitsuk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貨幣整理로 生ᄃᆞ는 經濟上變態에 對ᄃ야 金額을 貸付ᄃᆞᆫ은 如何ᄃᆞ 方面에서 貸與ᄃᆞ던지 卽財政顧問의 所管이거ᄃᆞ 其名을 皇室에 稱托ᄃᆞ고 借得ᄃᆞ면非但 該件이라(1905년9월11일 2면4단)

▶의미: 기한이나 이자 수수료 등을 정해서 금품을 빌려주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牧民金鑑.一二・御貸附金・寛政五年>(1793) 一二月「都而御貸附取扱候御代官えは、利金歩合被下候に付」

▶의미: 기한이나 이자 수수료 등을 정해서 금품을 빌려주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주로 은행 따위의 금융 기관에서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줌. ‘끼기’ ‘돈 끼기’ ‘빌림’으로 순화. 돌려 받기로 하고 어떤 물건을 남에게 빌려 주어 사용과 수익을 허락함.

일본어: 『大辞林』 かしつけ【貸付】 貸し付けること(빌려 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6,800개 일본어: 5,28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대절(貸切) ⇨ 貸し切り/貸切り (かしきり kashiki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동경전보: 關釜 1等船 貸切 鐵道院에서ᄃᆞ 下關釜山間에 運航ᄃᆞᆫ 一等船室 貸切取扱을 來 五月一日부터 實施ᄃᆞ다더라(1912년4월18일 2면1단)

▶의미: 전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滑稽本・浮世風呂>(1809) 前・下「もしもし、二階は貸切(カシキリ)でござります。どうぞ下に被成(なすっ)て下さりまし」

▶의미: 전세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만 빌려 주어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하는 일. ‘전세(專貰)’로 순화.

일본어: 『大辭泉』 かしきり【貸(し)切り】かし切ること(빌리는 것)。また、貸し切ったもの(또는 빌린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0,000개 일본어: 135,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대체(代替) ⇨ 代替(だいたい daita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法律<前號續> 官報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히거나 罪囚를 看守히거나 其他 把守하느 者를 私自代替하느 者나 被代하느 者는 并히 笞四十에 處함이라 (1905년6월24일 1면1단)

▶ 의미: 대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學生と教養>(1936) <鈴木利貞編> 學生時代の回顧<東畑精一> 三「何事も生れると同時に定まてゐる封建時代は、多くの機の可能性、機の代替性に乏しかったが」

▶ 의미: >다른 것으로 대신 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다른 것으로 대신함. ‘바꿈’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だいたい【代替】ほかのもので代えること(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取代(대체)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510,000개 일본어: 1,980,000개 중국어: 192,000,000개

대출(貸出) ⇨ 貸し出し/貸出し(かしだし kashidash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알라스가 鐵道の 計畫] 費用槩算이 二億弗이나 이의 法國銀行及美國에서 資本貸出을 承諾하얏슨 則 美國政府의 許可가 有하면곳 着手될 形便인디 專히 法美人 共同事業이라 하얏더라(1901년9월17일 2면4단)

▶ 의미: 빌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社会百面相>(1902)<内田魯庵> 虚業家尺数則・七「〇〇保險会社には昨今遊金有之候て貸

出に氣迷ひ居候筈」

▶의미: 금전 또는 책 등의 물품 등을 빌려 주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주거나 빌림. ‘빌림’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かしだし【貸し出し・貸出し】 金銭・物品などをほかに貸し出すこと (금전이나 물품 등을 다른 이에게 빌려주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7,900개 일본어: 24,1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대폭(大幅) ⇨ 大幅(おおはば oohab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광 제17호 不況一題> 물가가 떨어질 때에는 다른 공업품보다 월등히 대폭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금년에는 前記諸 원인으로부터 오는 불경기 때문으로(1931년1월1일)

▶의미: 대폭.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樋口一葉>二(1895)「今度負けたら長吉の立端(たちば)は無いと無茶にくやしがって大幅(オホハバ)の肩をゆすりぬ」

▶의미: 폭이 넓은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큰 폭이나 범위. 씩 많이. ‘넓게’ ‘많이’ ‘크게’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おおはば【大幅】 普通より幅の広い(보통보다 폭이 넓은 것) ②数量や規模などの変動の差が大きい(수량이나 규격 등의 변동 폭이 큰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20,000개 일본어: 6,7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대합실(待合室) ⇨ 待合室(まちあいしつ machiaishi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靑館下層物品陳列]新建築 靑年會館下層에는 商業人에게 賞給 する物品을 陳列 せしめ 該館附屬으로 待合室과 洋料理店을 新設 する 該館事務員의 食料品을 支供 する だ더라 (1908년12월10일 2면5단)

▶의미: 기다리는 방.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枢密院會議文書>[四十四 天機伺ノ際顧問官待合室ノ件]十二月八日秘受三六第九号 丙第六〇二号 従来貴院参集日顧問官天機伺候ノ際内大臣秘書官室ニ於テ待合相成居候処場所狭隘ニ付自今参集定日ニハ元帥會議室及同次室ヲ控所ニ設備致置可申候間各顧問官、夫々御通知相成度此段及御通牒候也 明治三十六年十二月八日 宮内省内事課長心得 近藤久敬 枢密院書記官 御中(1903년12월8일)

▶의미: 역이나 병원 등에서 시간이나 순서를 기다리는 방.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공공시설에서 손님이 기다리며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한 곳. ‘기다림 방’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まちあいしつ【待合室】 駅や病院などで、列車や診察を待つための部屋. 待合(역이나 병원 등에서 열차나 진찰을 기다리는 방)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7,400개 일본어: 2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대형(大型) < 大型(おおがた oogat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德國海軍의 發達] 日俄戰爭後 千九百六年에 更히 製艦條例를 改正하야 其製造期限을 減縮하며 又大型艦을 新製造하기로 決定하고(1907년12월9일 1면4단)

▶의미: 큰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評判記・色道大鏡>(1678) 九「墨は大形にても小形にても、なりのかはりはありとも、只すぐれたる斗(ばかり)にてよし」 <二代目古今亭今輔>(1890)「此品(これ)は薩摩で御座います。大形(オホガタ)で彼(あれ)が着ますと、誠に能(よく) 似合ひまして」

▶의미: 크기가 큰 것. 같은 종류 중에서 큰 것.

중국 <养猪学>(양돈학)第二章1930年

▶의미: 形状或规模大的(규격이나 규모가 큼)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같은 종류의 사물 가운데 큰 규격이나 규모. ‘큰’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おおがた【大型】 物事の内容・規模、また、人物などが他のものより大きいこと(사물이나 일의 내용이나 규모 또는 인물이 다른 것보다 큰 것) また、そのさま(또는 그런 모양)

중국어: 『汉语大词典』形状或规模大的(규격이나 규모가 크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330,000개 일본어: 801,000,000개 중국어: 1,230,000,000개

도금(鍍金) ⇨ 鍍金(と きん tok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13편 泰西學術의來歷>避霹靂法 鍍金銀法 摸本法 裁縫器械 農作器械 化學器械 窮理學器械 天文學器械 飲食除毒法此는 其大槩를 指出함이라(1896)

▶의미: 주로 금속을 대상으로 표면에 다른 금속으로 얇은 막을 입히는 것. ※『17세기 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御署名原本・明治二十年・勅令第二十二号・陸軍將校馬具制改正>勅令第二十二号 陸軍將校馬具制 頭絡 將官及相当官 佐官及相当官 尉官及相当官 革 但固有色 鉄 但將官及相当官ハ鍍金佐尉官及相当官ハ鍍尼結兒 金色金物全徑縦八分横一寸二分五厘桜花徑縦三分五厘横四分五厘額革ノ兩端ニ各一個ヲ附ス(1887년5월23일)

▶의미: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으로 얇은 막을 입히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금속이나 비금속의 겉에 금이나 은 따위의 금속을 얇게 입히는 일.

일본어: 『大辞林』 と きん【鍍金】めっきすること(도금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在别的金属或器物表面涂附上一层薄金(금속이나 비금속의 겉에 금이나 은 따위의 금속을 얇게 입히는 것)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2,900개 일본어: 274,000개 중국어: 31,200,000개

도난(盜難) ⇨ 盜難(とうなん toon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勅令第十三號 勳章條例(續)] 第十四條 水火災及盜難等に 由호야 年金證書를 紛失할 時는 其事實를 該地方廳에 具報호야 表勳院에 轉報호야 證書新製호기를 請求할 事(1900년5월5일 1면1단)

▶의미: 도둑맞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撰集抄>(1250頃) 七・一五「玄辨三蔵渡天のそのかみ、海賊のたうなんにあひ給へる時」

▶의미: <금품을 도둑맞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도둑을 맞는 재난. ‘도둑맞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とうなん【盜難】金や物を盗まれること(돈이나 물건을 도둑맞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2,000개 일본어: 6,52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도료(塗料) ⇨ 塗料(とりょう tor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第三類 [塗料] 漆、假漆、油漆、澁、靴墨、靴油、防鏽料、防水料等(1908년9월19일)

▶의미: 칠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外務省記録>[1 . 宋重政朝鮮貿易上ニ於ケル負債額処分ノ件ノ3 朝鮮国公私貿易品渡方渋滞之分凡取調書ノ13 朝鮮国負債償却差引書]一蒔絵衣桁一脚 一家入七寸鏡二十面 一同八寸鏡四面 一黒塗文庫一 一黒塗料紙一 一黒塗台附中硯匣一組 一金屏風二双 一紋紙三千八百枚(1872년11월)

▶의미: 물체 표면의 보호 미장(美裝) 절연 등을 위해서 도포하는 유동성 물질의 총칭.

중국 <工业常识>(공업상식)1913年

▶의미: 塗在物体表面, 能使物体美观或保护物体防止侵蚀的物质(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

일본어: 『大辞林』 とりょう【塗料】 物体の表面に塗って着色し, また保護するためのもの(물체 표면에 칠해서 색을 입히는 것 또는 보호하기 위한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塗在物体表面, 使其美观或防蚀的物质(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01,000개 일본어: 134,000개 중국어: 245,000,000개

도안(圖案) ⇨ 図案(ずあん zu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列國軍器發達] 美國은 世界の 各種 戰鬪艦 三隻의 攻撃力을 抗敵할 新炸이나이도 巡洋艦의 圖案을 調製하고(1899년5월5일 3면3단)

▶의미: 도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松原岩五郎<最暗黒之東京>(1893) 四「決して彼の古昔の名匠大家等が経営せし図案(ツァン)に異なるなければなり」

▶의미: 장식을 위해 그린 문양이나 무늬

중국 <日本学校图论>(일본학교도론)1903年

▶의미: 有装饰意味的花纹或图形(장식 의미가 있는 무늬나 도형)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미술 작품을 만들 때의 형상 모양 색채 배치 조명 따위에 관하여 생각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그림으로 설계하여 나타낸 것.

일본어: 『大辞林』 ずあん【図案】①ある物を製作するための下絵として、それを図にかきあらわすこと(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며 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디자인)

②装飾的に描かれた模様や柄(장식을 위해 그린 문양이나 무늬)

중국어: 『汉语大词典』有装饰意味的花纹或图形(장식 의미가 있는 무늬나 도형)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00,000개 일본어: 24,500,000개 중국어: 204,000,000개

독농가(篤農家) ⇨ 篤農家(とくのうか tokunook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東拓農事視察預定] 東洋拓殖會社에서는 今回組織하는 日本農事視察員을 既爲撰定하였으므로 來二拾八日에 京城에 召集하여 大橋參事와 三浦技手二人이 領率하고 三十日에 出發할 豫定이라난디 其人名數는 如左하니 住郡別 任名 姓名 全北礪山郡 地方委員 金溶煥 金堤郡 篤農家 鄭鎮尙(1910년4월27일 1면5단)

▶의미: 모범 농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公文雜纂 明治43年>[東洋拓殖會社主催日本篤農家朝鮮視察ニ関シ同社理事林市蔵ヨリ 具報ノ件]拓朝受 明治四十三年十月二十六日 第三四号 東洋拓殖會社主催日本篤農家朝鮮視察ニ関シ別紙ノ通報告ニ接シ候ニ付爲御参考高覽ニ供シ候(1910년10월25일)

▶의미: 농업관계자로 그 분야의 연구 및 장려에 열심인 사람.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 무렵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농사를 열심히 짓는 착실한 사람. 또는 그런 집. ‘모범 농가’ ‘모범 농부’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とくのうか【篤農家】熱心で、研究心に富んだ農業家(열성이 있고 연구에 열심인 농업가)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760개 일본어: 68,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두개골(頭蓋骨) ⇨ 頭蓋骨(ずがいこつ zugaiko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기호흥학회월보 제6호 動物學> 骨格은 四肢內及四肢와 中軸을 連絡한 者이니 此를

分亨야 頭骨과 脊椎骨로 亨고 頭骨을 又 分亨야 頭蓋骨과 顔面骨로 亨니(1909년1월25일)

▶의미: 두개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岩川友太郎<生物学語彙>(1884) 「Cranium 頭骨、髑髏、頭蓋骨」

▶의미: 머리뼈를 구성하는 다수의 뼈를 총칭하는 말.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머리뼈. ‘머리뼈’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とうがいこつ【頭蓋骨】頭蓋を構成する骨の総称(두개를 형성하는 뼈를 총칭하는 말) 사람의 경우에 후두골 척형골 측두골 두정골 전두골 사골 하비갑개 누골 비골 서하골 상악골 구개골 협골 하악골 설골의 15종 23개가 있다. 두골.

중국어: 『汉语大词典』即顶骨(두정골)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9,500개 일본어: 3,780,000개 중국어: 7,970,000개

【마】

마대(麻袋) ⇐ 麻袋(あさぶくろ asabukur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羅南麻袋高騰과 包裝用呷市勢] 一兩年來麻袋가高騰인새문에當地方의 穀物包裝은(1926.11.14,2면5단)

▶의미: 마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文書>[出納寮へ糧米囊代価ノ儀往復]明治九年一月十日 出納寮へ回答案 先般御寮へ御引渡申候麻袋払下ケノ儀三井組願出候ニ付御打合ノ趣致知知候(1874년-1875년)

▶의미: 굵고 거친 삼실로 짠 커다란 자루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굵고 거친 삼실로 짠 커다란 자루.

일본어:<日本國語大辭典>黄麻布製の袋(황마포로 만든 포대)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08개 일본어: 6,52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마법병(魔法瓶) ⇐ 魔法瓶(まほうびん mahoob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최동록편<현대신어석의>마법병(魔法瓶)액체 등 물질이 영구히 그 온도를 보존하도록 제작한 병, 여행, 등산 시에 자못 중요한 보물이 되는 병이다(1922) <개벽 제41호 세 번이나 본 共進會>「인제는 올라부텃네 그려」「또 무에 잇든가」「마호병두 잇구 단장두 잇구 가방도 잇드군」(1923년11월1일)
▶의미: 보온병.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外務省記録>[魔法瓶=関スル調査] 外務省通商局御中 怡林洋行林十次郎 謹皇本月十六日付漢口領事館ヨリ魔法瓶=関スル御報告ヲ辱ウシ御礼申上(1916년)
▶의미: 속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보온 보냉용 용기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로 들어온 일본어로 ‘마법병(魔法瓶)’으로도 쓰였으나 나중에는 ‘마호병’처럼 ‘魔法’을 일본어 발음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은 ‘보온병’으로 순화되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 따위를 넣어서 보온이나 보냉이 가능하게 만든 병. ≒마법병.
일본어: 『大辞林』 まほうびん【魔法瓶】 中に入れた物質の温度を長時間保てるようにした瓶 (속에 넣은 물질의 온도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병)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390개 일본어: 91,7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만화(漫畫) ⇨ 漫画(まんが mang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삽화: 開城에서 櫟村漫畫(1913년11월14일 1면3단)
▶의미: 만화.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四時交加>寺田寅彦<自画像>(1902)「或は其の点に行くと却って日本画の似顔とか或は漫画の力リカチュアの方が見込がありさうに思はれた」
▶의미: 영어 caricature의 번역어로 특히 사회비평이나 풍자를 주로 한 단순 경묘한 그림.

중국 <音乐与文学的握手>(음악과 문학의 악수)1926年
▶의미: 用简单而夸张的手法画的讽刺画(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대화를 삽입하여 나타낸다. ≒만필화.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을 과장하여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비판하는 그림.
일본어: 『大辞林』 まんが【漫画】 大胆に省略・誇張して描き, 笑いを誘いながら風刺や批評を

こめた絵(대담하게 생략 또는 과장하여 그려 웃도록 만들면서 풍자나 비평을 담은 그림. 커리커처)

중국어: 『汉语大词典』以简单而夸张的手法描绘生活或时事的图画(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7,000개 일본어: 268,000개 중국어: 612,000,000개

만개(滿開) ⇨ 満開(まんかい manka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學部編<國語讀本>卷四 [第7課 運動會] 運動場 周圍에 會集한 觀光人의 머리는 春花가 滿開함과 恰似하더라(1902년2월)

▶의미: 활짝 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若林虎三郎<小学讀本>(1884) 三「久々御無沙汰に打過ぎ恐入候。扨庭前の桃花時今満開に付、一枝差上候」

▶의미: 꽃이 활짝 핀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만발 활짝 펴

일본어: 『大辞林』まんかい【満開】十分に開くこと。特に、花が十分に開くこと(충분히 열리는 것. 특히 꽃이 완전히 피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75,000개 일본어: 81,1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말소(抹消) ⇨ 抹消(まっしょう massyo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138호 備考>五 假證明하는境遇에는「證明함」上에「假」字를冠함但日後에本細則第三條末項에依하야本證明을行하는境遇에는「假」字를抹消하야此에認印하고「證明함」下에假字를抹消한旨及其年月日을記하야官印을捺함(1908년7월29일)

▶의미: 지우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久米邦武<米欧回覽実記>(1877) 一・一三「書状を集めて、多人案を挟み整頓し、種類を分ち、巻紙を抹消し」

▶의미: 문자 등을 덧칠해서 지우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지움’ ‘지워 없앴’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まっしょう【抹消】 消し除くこと(삭제하는 것)。字句や記載事項をぬりつぶすなどして消してしまうこと(글자나 기재사항을 검은색으로 칠하는 등으로 지워버리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0,400개 일본어: 9,7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망년회(忘年會) ⇨ 忘年会(ぼうねんかい boonenk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독립신문>외보 [밍아망년회] 일본 동경 밍아(盲啞)학교에서 공부 하는 판슈와 병어리들이 금년 十二月에 망년회(忘年會)를 홀터인디 기시에 일본 동궁 덴하씩서 구경 하실터이라더라(1899년11월1일)

▶의미: 망년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隨筆・古今物忘れ(1772)「うき一年を忘れはくらばやとてぞ、忘年会(パウネンクハイ)はすなりといふ」

▶의미: 한 해의 고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연말에 개최하는 연회.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연말에 한 해를 보내며 그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자는 뜻으로 베푸는 모임. ‘송모임’ ‘송년회’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ぼうねんかい【忘年会】 その年の苦勞を忘れるために年末に催す宴会(그 해의 고생을 잊고자 연말에 개최하는 연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9,600개 일본어: 936,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도(賣渡) ⇨ 売り渡し/売渡し(うりわたし uriwata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權歸農部 雜報] 日前에 警務廳에서 各典當舖와 各廬에 賣渡하ᄂᆞᆫ 等件을 陰曆三月二十五日로 爲始하야 各其 空冊을 限一百張하고 飾하야 該近交番所에 交納하면該冊面에 本廳印을 當捺還下하리니(1899년5월4일 3면2단)

▶의미: 팔아넘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御触書寛保集成.三四>(1672) 三月「貨物売渡之儀、毎歳七月五日まで」 [1952]<農地法>(1952) 六二条「前条の規定による土地等の売渡は」

▶의미: 법률에서 매매형식으로 대가를 받고 어떤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팔아넘김’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うりわたし【売り渡し・売渡し】売り渡すこと(팔아넘기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표제어는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10,000개 일본어: 4,670,000개 중국어: 37,200,000개

매립(埋立) ⇨ 埋め立て/埋立て(うめたて umetat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膠州灣近況] 德國은 膠州灣占領以來로 土木의 役을 盛起하야 海岸一帶의 沮泥한 地를 埋立하야 陸地를 作한 者 | 十의 六七이니 道路溝渠는 既成하야 街衢에 家屋을 巍然히 建造하야 人의 眼目을 驚게 하며 電燈도 設置하얏느다(1899년9월1일 3면3단)

▶의미: 메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御府内備考>(1829) 三八「千川上水跡<略>其後埋立被仰付候」

▶의미: 메우는 것. 또는 그렇게 한 토지.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따위로 채움. ‘메움’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うめたて【埋め立て】埋め立てること(메우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2,200개 일본어: 3,9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물(賣物) ⇨ 売り物/売物(うりもの urimon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權歸農部] 日前에 警務廳에서 各典當舖와 各廬에 賣渡하느 等件을 陰曆三月二十五日로 爲始하야 各其 空冊을 限一百張하고 飾하야 該近交番所에 交納하면該冊面に 本廳印을 當捺還下하리니 嗣後賣物을 此冊에 必記하되 該賣人의 居住 姓名과 參証誰某와 年月日時를 註明하얏다가 査究를 及하거던 賣贓에 連累가 無게 하라 하얏더니(1899년5월4일 3면2단)

▶의미: 파는 물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宇治拾遺>(1221頃) 三・一「同類など具して、うり物などもたせて」

▶의미: 판매할 대상이 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팔려고 내놓은 물건. ‘팔 것’ ‘팔 물건’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うりもの【売り物・売物】 売りに出した品物(팔려고 내놓은 물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980,000개 일본어: 41,8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상(賣上) ⇐ 売上げ(うりあげ uriag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廢棄한 麻鞋也] 右는 多少를 不計하고 龍山印刷局으로 持來賣上함 一賣上代金은 本局으로 來問함(1906년6월14일 3면6단)

▶의미: 매상.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坂名垣魯文<西洋道中膝栗毛(1870) 11・下「帰国の上で売場(ウリアゲ)の相場できめやせう」

▶의미: 물품 등을 팔아서 얻은 돈. 또는 그 금액. 매상금.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상품을 파는 일. ‘판매’ ‘팔기’로 순화. 2. 판매액

일본어: 『大辭林』 うりあげ【売上げ】 一定期間に品物を売って得た代金の総額(일정 기간에 물품을 팔아서 얻은 대금의 총액)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60,000개 일본어: 72,2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상(買上) ⇐ 買上げ(かいあげ kaiag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독립신문 2면3단> 한성 일조보에 물 흥기를 각 공서관 중에 더욱 미술 장식 美術粧飾 軒것은 불국 공서관인대 리용익씨의 운동으로 궁정에 미상買上 하야 리궁離宮에 補充 하기로 軒다는 물이 잇다는데 그 값은 十萬원이고 이외에 토디난 대가代價 업시 쥬기로 軒다고 하얏더라(1899년11월29일)

▶의미: 사들이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染崎延房<近世紀聞>(1875) 八・三「天朝の御用にて人買上(カヒア)げに出張せりとて」

▶의미: 사들이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정부나 관공서 따위에서 민간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임. ‘사기’ ‘사들이기’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かいあげ【買上げ】 ①官公庁などが, 民間から物を買上げること(관공서 등이 민간에서 구매하는 것) ②相手が買ってくれることを敬っていう語(상대방이 구입해 준 것을 높여 말하는 말)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730개 일본어: 10,7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상고(賣上高) ⇐ 売上高(うりあげだか uriagedak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共進會賣上高] 李王家御賣上高가 第一回八百九十四圓八十三,第二會가四百千八圓七十五錢이라더라(1915년11월18일 2면5단)

▶의미: 매상고.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坂名垣魯文<西洋道中膝栗毛>(1870) 11・下「いずれ日本へ帰って、売揚高(ウリアゲダカ)でしっかり債(つぐの)ひを出すとして」

▶의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총액.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판매액. ‘판매액’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うりあげだか【売上高】 ある期間に品物を売って得た代金の総額(일정 기간에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의 총액)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7,100개 일본어: 312,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상금(賣上金) ⇐ 売上金(うりあげきん uriagek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野菜賣上金を 國防費로 獻納 寧越小學生의 熱誠](1937년8월3일 5면8단)

▶의미: 매상 금액.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天寵><森鷗外>「現金と云ふものは行商の売上金(ウリアゲキン)から五分の配当を受けるより外にはなく」

▶의미: 물품 등을 팔아서 얻은 돈. 그 금액.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 무렵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판매액. ‘판매액’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うりあげきん【売上金】品物売って得た代金. また, その一定期間内の総額(물품을 팔아서 얻은 대금. 또는 그 일정기간 내의 총액)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89개 일본어: 141,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수(買受) ⇨ 買受け/買受(かいうけ kaiuk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牛莊俄國政廳의 課稅告示] 客年十一月廿三日 同廳의 布告를 據하든 同地의 住民이 其債權證書及土地家屋의 買受證書를 政廳에 持來하야 檢閱을 受하야 同官吏의 鑑定하 價格의 三分에 相當하 稅金을 徵收하되 만일 財産證券의 全部 或 一部를 隱蔽不告申하든 者는 其財産權을 無効로 宣告하고 且其財産을 沒收하기로 定하얏더라 (1901년1년5월 2면4단)

▶의미: 매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杉山平助<商品としての文学>(1931) 『『竹取物語』の中には、火鼠のかはごろも買受けの追加金として、金五十両請求の文句があり』

▶의미: 사들이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 초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을 사서 넘겨받음

일본어: 『大辞林』 かいうけ【買受け】買い受けること(사들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80,000개 일본어: 217,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입(買入) ⇨ 買入れ/買入(かいいれ kaiir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周報> [歲計豫算及國債現額] 이제 該國의 각종 국채를 갖추고 열거하여 보이겠다.
 이는 작12월19일 俄國의 商工業雜誌에 게재되었던 내용이다. 1876: 魯國債 5백18만9천
 10프랑 1881: 甲號鐵道公債 8천7백41만프랑 1881: 富公債 3천2백58만프랑 1882: 勤農公
 債 4백만프랑 銃類買入公債 5백12만2천6백프랑(1887년3월28일 11~12면)
 ▶의미: 사들이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浄瑠璃・心中万年草>(1710) 中「此秋のかひ入にべにの花の様な小判(ばん)二百五十
 両、さきへあづけてをかれた」
 ▶의미: 사들이는 것. 또는 사들인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품 따위를 사들임. ‘사기’ ‘사들이기’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かいいれ【買入れ】 買入れること(사들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8,000개 일본어: 949,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장(賣場) ⇨ 売り場/売場(うりば uriba)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삼천리 제6권 제5호 結婚市場을 차저서> 하로에도 수백 수천명의 압해 얼굴을 내어놓
 는 장사이기 그 수천 수백명 속에 색시 구하는 당상군자(堂上君子)가 석기어 있다가 어
 느 매장(賣場) 몇호 『우리꼬』에 마음이 쏠뒀다 하면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결국 그 녀
 성과 각가워져서 내종에는 천도교 그림판이나 공회당에서 워-당 마-치에 마추어 결혼식
 장에 서는 두 젊은 신랑 신부가 되는 모양이다(1934년5월1일)
 ▶의미: 파는 곳.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羅葡日辭書>(1595) 「Oenopolium<略>サカヤ、サケノ vriba(ウリバ)
 ▶의미: 상품이나 표 등을 판매하는 일정한 장소. 상품을 파는데 딱 좋은 기회.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에 용례가 보인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을 파는 장소. ‘판매장’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うりば【売り場・売場】 ①商品などを売る場所(상품 등을 파는 장소) 중국
 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2,000개 일본어: 8,95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절(賣切) ⇨ 売り切れ/売切れ/売切(うりきれ urikir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倫敦에서도 即日賣切] 十三日賣出된日本新公債가에賣切된는와如き거니와
(1924년2월17일 2면1단)

▶의미: 다 팔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石川天崖<東京学>(1909) 二五「少し遅く行けば売り切れと云ふことになる」

▶의미: [1909]전부 팔리고 없는 것. 남김없이 전부 파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상인이 팔다가 남더라도 반품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한데 몰아서 사는 일. 『고려대한국어사전』물건이 다 팔리고 없음.

일본어: 『大辞林』 うりきれ【売り切れ・売切れ】 売り切れること(다 팔리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90개 일본어: 2,6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점(買占) ⇨ 買占め(かいしめ kaishim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法律] △第四百五十四條 賜牌를 蒙有호얏거나 買占호 文券이 有호거나 衆所共知로 禁養호 지 年久호 有主山에 入葬호 者는 笞五十에 處호미라(1905년8월11일 1면1단)

▶의미: 사재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財政經濟史料 三[經濟・商業・米商]・享保六年(1721) 閏七月二五日「米買之儀者先規より停止之事

▶의미: 상품이나 주식을 한 사람이 사 모으는 것. 전부 사 모으는 것.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한 상품을 사 모으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폭리를 얻기 위하여 물건을 몰아서 사들임. ‘사재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かいしめ【買占め】 買い占めること(몽땅 사들이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9,000개 일본어: 5,8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점(賣店) ⇨ 売店(ばいてん baite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 한국** <개벽 제17호 하믈레트> 「亂醉을 했다」던가, 「테니스를 하다가 싸움을 했다」던지 또는 「어떠한 賣店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던가... 라고 하는 것은 賣淫女の 집말일세... 그런 말을 꼭 할 터이지. 어때 그만하면 알겠지(1921년11월1일)
▶의미: 판매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 일본** <綠簑談><須藤南翠>前・二「兩人は足を転じて館内に入り、先づ号を追て売店を見るに」
▶의미: 물건을 파는 가게. 특히 역이나 극장 등의 시설 안에 있는 가게.

-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기관이나 단체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작은 상점. ‘가게’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ばいてん【売店】物を売る店。特に、駅・病院・学校・劇場・公園などに設けられた小さな店(물건을 파는 가게. 특히 역 병원 학교 극장 공원 등에 있는 작은 가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04,000개 일본어: 33,2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매주(買主) ⇨ 買主(かいぬし kainu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 한국** <皇城新聞> [漢府告示] 漢城府에서 各坊曲에 告示호얏스되 家契를 板刻으로 准行함은 卽防奸호는 要務라 家屋買賣之際에 錢與文券을 左授右捧호며 設或家契를 典當호얏더라 도 買賣할 때에는 賣主가 家券을 推覓호야 越價之場에 卽付買主호야 推券할 訟이 無케 호며(1900년12월1일 2면2단)
▶의미: 사는 사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 일본** <相良氏法度>(1493)二三条「かひ地は、かひ主うり主半分つついたすへき事」
▶의미: 물건 등을 사는 사람. 매입자. 법률적으로는 매매계약을 맺고 금 전을 지불한 후 재산권 이전을 받는 사람.

-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을 사는 사람. 구매자
일본어: 『大辞泉』. かいぬし【買主】売買で買うほうの人(장사에서 사는 쪽 사람)
중국어: 『汉语大词典』 货物或房产等的购买者(화물 혹은 건물 등의 구매자)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610개 일본어: 3,240,000개 중국어: 25,100,000개

매출(賣出) ⇨ 売出し/売出(うりだし urida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251호 [廣告 農工債券發行公告]> 發行方法及處所 債券發行은賣出方法에依^レ야何農工銀行に屬^ス債券이라도左記各農工銀行本支店及出張所에서現金引換에領收証을交付함(1908년12월12일)

▶의미: 판매.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浮世草子・日本永代蔵>(1688) 二・三「思ひ入の棉(もめん)を調へ<略>手水鉢のもとにて売出(ウリダ)しけるに」

▶의미: 물품을 팔기 시작하다. 발매하다.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을 내다 파는 일. ‘판매’ ‘팔기’로 순화. 일반 대중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한 유가 증권을 매도(賣渡)하거나 매수(買受)하기 위한 청약을 하도록 권유하는 일

일본어: 『大辞林』 うりだし【売出し】①売り始めること(팔기 시작하는 것)。②特定の日や期間に、特に宣伝して安く売ったり、景品をつけたりして売ること(특정한 날이나 기간에 특히 선전하고 싸게 팔거나 경품을 걸거나 하면서 판매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1,000개 일본어: 32,9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맥고모자(麥藁帽子) ⇨ 麥藁帽子(むぎわらぼうし mugiwara-boo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廣西叛亂의 猖獗]又臺灣에 渡^ル야 日軍과 交戦^ス事 | 有^ル고 又恒常裝飾^ス^ル 麥藁帽子를 戴^フ며 肩에 赤色紐을 掛^ケ야 肥馬를 乘^ル다^ハ앗스니 果然^シ면匪徒의 首領은 黑旗軍의 驍將劉永福이나 或其股肱인듯^シ지라(1902년6월3일 1면2단)

▶의미: 밀짚모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郵便報知新聞.明治一六年>(1883) 七月一三日「上布の単衣、黒絹の羽織、博多の帯、麦藁帽子に金時計と形を扮へ」

▶의미: 밀짚이나 보릿짚을 꼬아서 만든 끈으로 짜서 만든 모자.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맥고로 만든 모자. 개화기에 젊은 남자들이 주로 썼다. ‘밀짚모자’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むぎわらぼうし【麦藁帽子】 麦稈真田(ばつかんさなだ) で作った夏用の帽子 (밀짚을 납작하게 꼬아 만든 끈으로 만든 여름용 모자)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560개 일본어: 13,4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면식(面識) ⇨ 面識(めんしき menshi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日俄開戰論] 生醉 將校等은 面識도 無 日本人을 向하야 街上에서 放言하야 君等과 千戈相見할 事 | 不遠하다고 意氣揚揚하니 如何히 此回事件이 俄人の 腦髓를 刺激하느니 察할만하며(1900년6월5일 1면2단)

▶의미: 안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殿村篠斎宛馬琴書簡.天保二年>(1931) 八月二六日「右発秘之事、面識の蔵書家兩三人に たづね候へども

▶의미: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것.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얼굴을 서로 알 정도의 관계. ‘안면’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めんしき【面識】 お互に顔を見知っていること(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것) 顔見知りであること(아는 사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250개 일본어: 4,51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면적(面積) ⇨ 面積(めんせき mense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日本 内國近事] 面積 三十步爲一畝 十畝爲一段 十段爲一丁 查爲方曲尺六尺爲一步田園山宅俱一制(1884년1월8일 3면1단)

▶의미: 넓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舶用機械学独案内>(1881) <馬場新八・吉田貞一>前・二章「安全の面積(メンセキ) は一名馬力に付凡こそ二分の一平方インチなり」

▶의미: 면(面)이 2차원 공간에서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 평면또는 곡면상의 넓이

중국 <理发器撮要>(이발기 요점)1610年

▶의미: 平面或物体表面의大小(평면혹은 물체 표면의 크기)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면이 이차원의 공간을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 ‘넓이’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めんせき【面積】一定の面の広さ(일정한 면의 넓이) 面の一部あるいは全体の広さ(면의 일부 또는 전체의 넓이)

중국어: 『汉语大词典』平面或物体表面的大小(평면혹은 물체 표면의 크기)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10,000개 일본어: 151,000,000개 중국어: 659,000,000개

멸실(滅失) ⇨ 滅失(めっしつ messhi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勅令第卅四號 官報] 第十五條 出納官吏가 災變과 其他不得已한 事故를 因하여 其保管하는 現金或物品을 滅失毀損한 境遇에는 其保管上避치못한 事實을 度支部에 証明하고 責任解除의 審判을 受치아니면其負擔한 責을 免함을 不得함이라(1906년8월2일 1면3단)

▶의미: 없어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言字考節用集>(1717) 九「滅失メッシッ」<民事訴訟法>(1890) 777条「盜取せられ又は紛失若くは滅失したる手形其他商法に無効と為し得べきことを定めたる証書の」

▶의미: 없어지는 것. 법률에서 물품이나 가옥 등이 경제적인 효용을 잃을 정도로 파괴되거나 없어지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멸망하여 사라짐. ‘없어짐’으로 순화. 2.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또는 그런 일

일본어: 『大辞林』 めっしつ【滅失】①ほろびてなくなること(망해서 없어지는 것) ②火事・地震・取り壊しなど外的な力により、建物がなくなること。また、消滅したり所在がわからなくなって物がなくなってしまうこと(화재나 지진 또는 철거 등의 외부 힘으로 건물이 없어지는 것. 또는 없어지거나 소재를 모르게 되어 물건이 없어지고 마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0,700개 일본어: 27,2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명기(明記) ⇨ 明記(めいき mei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白河左岸의 俄國居留地]右揭示에 明記하되 指定한 區域內에 土地를 有한者는 七月十六日까지 地券을 出하야 檢査를 受하라 하얏는디 李鴻章氏가 天津道臺될

陳某에게 命令 ㅎ되 俄國官吏와 함식 地券檢査를 行 ㅎ라 ㅎ앗더라(1901년8월12일 1면1단)

▶의미: 분명히 기록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人倫訓蒙図彙>(1690)「神道者<略>天武天皇の皇子一品舍人親王日本記を製作あり。此中神代の二卷本朝の明記(メイキ)たり」

▶의미: 명백하게 적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분명히 밝히어 적음. ‘분명히 기록함’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めいさ【明記】はつきりと書くこと(명확하게 쓰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29,000개 일본어: 2,07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명년(明年) ⇨ 明年(みょうねん myoonen/あくとし akuruto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利不可獨]前判書金宗漢氏가(중략) 各道要浦에 私私貿穀과 日商貿穀은다 防塞 ㅎ고다만 該會社에서만 都貿 ㅎ야 汪底에 積置 ㅎ앗다가 明年六七月에 利益을 較計 ㅎ야 放賣 ㅎ다니(1898년9월8일 2면)

▶의미: 다음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易林本節用集>(1597)「明年メイネン」

▶의미: 이듬해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올해의 다음. ‘내(來年)’ ‘다음 해’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あくとし【明くる年】次の年(다음해)

중국어: 『汉语大词典』次年(내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3,000개 일본어: 3,840개 중국어: 280,000,000개

명도(明渡) ⇨ 明け渡し/明渡(あけわたし akewata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68호> 여자는 乞食物竊取로 양심에 병이 걸녀 자살하고 金起田군은 一舉에 1男1女를 得하고 車相瓚군은 朔月稅 未拂로 집주인에게 家屋明渡訴訟을 당하고 朴達成

군은 녀편네 改造問題로 두통을 앓는다고. 참 不一한 세상이로군(1926년4월1일)

▶의미: 넘겨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俠八嚙臍<酒落本・新吾左出放題盲牛>(1781) 「名高へといっちゃア、日蓮の正筆か、正宗の刀か、回向院の明渡(アケワタ)しか、高田の新富士だぞ」

▶의미: 토지 가옥 성 등을 내어준다. 토지나 가옥 또는 선박 등의 점유자가 점유를 그만두고 다른 이에게 인도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로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에 용례가 나타난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 ‘내어 줌’ ‘내줌’ ‘넘겨줌’ ‘비워 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あけわたし【明け渡し】 土地・建物・部屋などを，立ち退いて他人に委ねること(토지 건물 방 등을 퇴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52,000개 일본어: 41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명소(名所) ⇐ 名所(めいしょ meishy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18편 桑港> 佑社蘭公園은都會南方의名所라動物及植物의園을區別하고且博物館及藏書室은皆宏大히排鋪로卓偉히美觀이오(1896)

▶의미: 이름난 곳.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浮世草子・好色一代男>(1682)八・三「八文字屋に行きて、ある者千人でも呼と申せど、紋日の事なれば名所(メイショ)は一人もなし」

▶의미: 경치가 좋기로 소문난 곳. 경승지. 또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거나 옛 시가에서 나오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경치나 고적 산물 따위로 널리 알려진 곳. 이름난 곳'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めいしょ【名所】 景色や古跡などで有名な地, 名勝(뛰어난 경치나 고적 등으로 유명한 곳. 명승지)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51,000개 일본어: 33,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명찰(名札) ⇐ 名札(なふだ nahud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삼천리 제11권제7호 莫斯科에 있는 名將 奈巴翁 遺跡> 42번지의 某 하숙집에 朝鮮人 조사로 드러 갔다가 그 도중, 五軒長室의 *등에 「早稻田鶴卷町 62번지 李殷宗」의 名札이 부터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옷득 섰다(1939년 6월1일)

▶의미: 이름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浮世草子・好色一代男>(1682) 六・三「女にきらせたる黒髪八十三迄は名札(ナフダ)を 読(よみ)ぬ」

▶의미: 이름을 적은 표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로 들어온 말로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성명 소속 등을 적어서 달고 다니는 형겅 또는 종이나 나무쪽을 이르는 말. ‘이름표’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なふだ【名札】 名前を記した札(명찰. 이름을 적은 표)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100개 일본어: 71,6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모직(毛織) ⇨ 毛織(けおり keo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內國近事[日本官報의 朝鮮貿易經緯表] 毛織糸組糸類 143圓50錢(1884년5월 15일 6면)

▶의미: 털실로 짠 피륙.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唐通事会所日録一・寛文八年>(1668) 九月一八日「此方より書付差上候物者、へんから 糸小黃糸<略>毛織之類さらさ」

▶의미: 털실로 짠 것. 모직물. 면화로 만든 직물.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털실로 짠 피륙.

일본어: 『大辞林』 けおり【毛織】 1. 毛糸で織ること.また、その織物(털실로 짠 것. 또는 그 직물) ○木綿をけば立たせて織ること.また、その織物(목면을 부풀려 짜는 것. 또는 그 직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8,600개 일본어: 1,1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모포(毛布) ⇨ 毛布(もうふ mooh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海關稅則] 毛布洋名弗拉涅爾不論純雜(毛布.洋名 弗拉涅爾(blanket 담요)로
純雜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1883년12월20일 4면)

▶의미: 담요.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枕山詩鈔.三編>(1867) 下・書事次元日韻「王正不見冠裳美、毛布家家製二窄衣」, 落合直
文<ことばの泉>(1899) 「まうふ(名) 毛布.毛織りの布.ふらんけっと、羅紗などの類」

▶의미: 두꺼운 모직물. 담요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털 따위로 짜서 깔거나 덮을 수 있도록 만든 요. ‘담요’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もうふ【毛布】羊毛などで厚く織ったあと、起毛などの処理をした毛織物。ブランケット, ケット(양모 등으로 두껍게 짠 후에 털이 일어나도록 처리한 모직물. 담요)

중국어: 『汉语大词典』用兽毛织成的布(짐승의 털로 만든 천)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0,800개 일본어: 11,700개 중국어: 25,600,000개

물가고(物價高) ⇨ 物價高(ぶっかだか bukkadak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매일신보>[貨幣落物價高]露貨幣가暴落하고物價는騰貴하였다더라(1914년8월7일 2면2
단)

▶의미: 높은 물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公文別録 三重県ノ部新聞紙>新聞紙ノ状況 新聞紙ハ本年新聞紙条例改正
以来大ニ其数ヲ減シ現ニ存スルモノハ伊勢新聞物価帖ノ二種アルノミ伊勢新聞ハ時軍ヲ論
スルモ過激ノ説ヲ載セス物価帖ハ唯諸品ノ物価高低ヲ報告スルニ止マル(1883년)

▶의미: 물건 가격이 높은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물건 값의 높이. 물가가 오르는 일. 또는 높이 오른 물가. 높은 물
가

일본어: 『大辭林』ぶっかだか【物價高】物の値段の高いこと(물건 값이 비싼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900개 일본어: 6,81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미불(未拂) ⇨ 未払(みはらい mihar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837호> 未拂配当金 二、三九八、九七(1907년8월6일)

▶의미: 미지급.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陸軍省大日記 西南戦役>4月3日 第11連隊雇看病卒1名3月分日給未払の件 梯軍医補より(1877년4월3일)

▶의미: 아직 지불이 끝나지 않은 상태.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미지불. ‘미지급’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みはらい【未払い】 まだ支払っていないこと(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300개 일본어: 15,2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밀담(密談) ⇨ 密談(みつだん mitsud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外報[日相密議] 本月十일에 松方藏相과 井上伯과 伊藤侯와 青木外相 等이 山縣總理를 其官邸에 往訪하야 移時하도록 密談하였더라(1899년3월27일 3면3단)

▶의미: 비밀 이야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中右記.嘉承二年>(1107) 正月二四日「関白殿於殿上令着御前座給、右衛門督密談云」

▶의미: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몰래 이야기 하는 것. 또는 그 비밀상담.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남몰래 이야기함. 또는 그렇게 하는 이야기. ‘비밀 이야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みつだん【密談】 人に知られぬようにひそかに話をする事.秘密の会談(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몰래 하는 이야기)

중국어: 『汉语大词典』 秘密地谈话(은밀하게 대화를 나눔)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9,300개 일본어: 9,730개 중국어: 3,940,000개

【바】

반도(半島) ⇨ 半島(はんとう hant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大統領答辭] 余熟知貴國疆土之美海還三面形成半島百姓所有土產工藝亦蓋知之(나는 귀국의 아름다운 강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3面이 바다에 둘러싸여 半島를 이루고 있고 백성들과 土産·工藝에 대해서도 다 압니다(1883년12월29일 1면1단)
▶의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訂正増訳采覧異言>(1801)二「和蘭語に法児弗・厄乙蘭土(ハルフ・エイランド)と云これ半島と云る義にして三面海に臨み一面大陸に連るの地を称するの言なり」
▶의미: 바다를 향해서 좁고 길게 뻗어 있는 육지. 작은 것은 곶 등으로 불린다

중국 <外国史略>(외국역사 요약)1843年
▶의미: 三面临水一面连接大陆的陆地(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좁다랗게 돌출한 육지를 말한다. ≡반섬

일본어: 『大辞林』 はんとう【半島】 海に向かって細長く突き出た陸地.小規模のものは岬・崎・鼻などと呼ぶ(바다를 향해서 가늘고 길게 튀어 나온 육지. 규모가 작은 것은 곶 또는 갑이라 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 三面临水、一面连接大陆的陆地(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400,000개 일본어: 50,200,000개 중국어: 96,900,000개

발매(發賣) ⇨ 発売(はつばい hatsub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통상장정] 第二十四款 在朝鮮近海所壤船隻之船具及船上所用物件發賣者免其進口稅(조선국 근해에서 파손된 船隻의 船材·船具 및 배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發賣할 경우에는 入港稅를 면제한다(1883년12월9일 7면1단)
▶의미: 팔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中村正直訳<西国立志編>(1870) 三・三「支那日本製に愈(まさ)れる磁器を盛んに四方に発売(<注>ウリダス)しければ」
▶의미: 물품을 팔기 시작하는 것. 발매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상품이나 증권 따위를 내어 팔. 또는 그것을 팔기 시작함. 팔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はつばい【発売】売り出すこと(팔기 시작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出售(물건을 내어서 팔기 시작함)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72,000개 일본어: 250,000,000개 중국어: 13,600,000개

방사(放飼) ⇨ 放し飼い/放飼(はなしがい hanashig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租借協約](六) 森林會社가 牛馬 其他 家畜을 租借地域外에 放飼치 勿暵事(1903년8월1일 2면3단)

▶의미: 놓아기르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葡辞書』(1603) 「Fanaxigaini(ハナシガイニ) スル」, <滑稽本・浮世風呂>

▶의미: 소나 말 같은 가축을 묶어 두거나 좁은 곳에 가두지 않고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기르는 것. 방목.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가축을 가두거나 매어 두지 않고 놓아서 기름. ‘놓아기르기’ ‘방목’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はなしがい【放し飼い】 家畜をつないだり, 狭く柵で囲ったりしないで, 広い場所で自由にさせたまま飼うこと. はなちがい(가축을 묶어놓거나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키움)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500개 일본어: 106,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만회(挽回) ⇨ 挽回(ばんかい bank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835호> 今에政府를命하야學校를増設하고人材를養成하야衰頹하運을挽回하고中興의業을建立코져하노니爾臣民等은朕의此意를體하야毋勿怠忽하라(1904년5월 25일)

▶의미: 회복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蛾眉鴉臭策>(1415頃) 芳草堂住浄妙「挽回少林春色.五葉一花」

▶의미: 잃어버렸던 것이나 늦어지고 있던 것을 되찾는 것. 회복.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挽回) 바로잡아 회복함

일본어: 『大辞林』 ばんかい【挽回】 失ったものを取りかえすこと.もとへもどすこと(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扭转(되돌리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1개 일본어: 6,420,000개 중국어: 43,800,000개

방화(邦畫) ⇨ 邦画(ほうが hoog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映画와 演藝]海軍記念日을 앞두고 邦畫各社の 國策映畫 海軍省의 全面的 後援(1941년4월20일 4면5단)

▶의미: 국산 영화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正岡子規<画>(1900) 「僕は日本画崇拜者で西洋画排斥者であった.其頃為山君と邦画洋画 優劣論をやったが」

▶의미: 일본화.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로 들어온 말로 194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자기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국산 영화’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ほうが【邦画】 ①日本の絵画(일본화) ②日本の映画(일본 영화) .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800개 일본어: 789,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백묵(白墨) ⇨ 白墨(はくぼく hakubo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學部刊<國民小學讀本 第二十九課 氣息 一> 炭酸石灰는 漆板에 쓰는 白墨과 긋트니라 空氣 中에 酸素와 炭酸瓦斯가 잇스니 酸素는 命門의 火를 燃하고 炭酸은 그 火를 滅하는 거시니(1895)

▶의미: 분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野村龍太郎<工学字彙>(1886) 「Chalk . 白墨.白堊.灰土」, 新保磐吹<日本讀本>(1887)四 「蛤、あさり、親等の殻も亦焼きて胡粉となし、或白墨となす」

▶분필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분필.

일본어: 『大辭泉』はくぼく【白墨】白亜や焼き石膏(せっこう)の粉末を水で練って棒状に固めたもの.白色であるが、顔料を加えた赤・黄色などもある.黒板などに書くのに使用.チョーク(석회나 불에 구운 석고 가루를 반죽하여 봉 형태로 만든 것. 백색이나 안료를 추가해 만든 적색 황색 등도 있다. 칠판에 쓰는데 사용. 초크)

중국어: 『汉语大词典』墨的一种(먹의 일종)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280개 일본어: 29,200개 중국어: 1,140,000개

벽지(壁紙) ⇨ 壁紙(かべがみ kabegam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意匠法施行細則 明治三十二年農商務省令第十四號> 第二十類 紙及他類에屬치아니하紙製品 紋紙、擬革紙、襖紙、壁紙、表紙、色紙、短冊、紙箋、書簡筒等(1908년9월19일)

▶의미: 벽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村田文夫・山田貢一郎訳<西洋家作雛形>(1872) 三・一〇「壁紙を以て、諸室の土塗したる壁の全面を都合よく張るべき事」

▶의미: 벽 표면의 보강이나 장식을 위해서 벽에 붙이는 종이.

중국 <兔和猫>(토끼와 고양이)1922年

▶의미: 贴在房子内牆上做装饰用的纸(집안의 벽에 바르는 종이)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벽에 바르는 종이

일본어: 『大辭林』かべがみ【壁紙】保護と装飾とをかねて、室内の壁に貼りつける紙(보호와 장식을 겸해서 실내 벽에 도배하는 종이).

중국어: 『汉语大词典』以纸为基材，经特殊加工处理，用于墙面或天花板的装饰材料(종이를 재료로 하여 특수 가공 처리후 벽이나 천장에 붙이는 장식재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24,000개 일본어: 61,800,000개 중국어: 206,000,000개

변사(變死) ⇨ 変死(へんし hen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7호 勅令第八十五號 警務廳官制> 五 無籍無賴의徒及變死傷其他公共安寧에關한事項(1895년5월1일)

▶의미: 뜻밖의 사고로 죽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禁令考.別卷・棠蔭秘鑑>(1847) 「変死之ものを内証にて葬候寺院御仕置事」, 教部省達第
二四号-明治六年(1873) 七月七日(法令全書)

▶의미: 뜻밖의 재난으로 죽는 것. 사고로 죽거나 살해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뜻밖의 사고로 죽음. ‘횡사(橫死)’로 순화. 자살(自殺)

일본어: 『大辞林』 へんし【変死】 普通でない状態での死(평범하지 않은 죽음)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2,400개 일본어: 2,450,000개 중국어: 511,000,000개

별책(別冊) ⇨ 別冊(べっさつ bessa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7호 度支部令第二號>各部大臣이設備함이가歲出豫算簿歲出簿及出給
命令官이設備함이出給命令簿의式樣並設備準則을支出條規第二十九條에依함이別冊과갓티
定함(1895년5월13일)

▶의미: 따로 엮어 만든 책.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染崎延房<近世紀聞>(1875) 12・2「別冊(ベッサツ) 二本次郎和蘭陀留学中苦学致し候海
律書」

▶의미: 서적의 본체와는 별도로 첨부된 책. 현재는 잡지 등의 임시 또는 부록으로 본지
와는 별도로 제본한 것을 말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따로 엮어 만든 책. ‘달림 책’으로 순화. ≡별권(別卷).

일본어: 『大辞林』 ベッサツ【別冊】 書物の付録として別にとじた冊子.また,雑誌などで,定期
的に刊行される本誌とは別に臨時につくったもの(책이나 잡지 등의 부록으로 따로 붙여놓
은 책자. 또는 잡지 등에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인쇄물 외에 임시로 만든 것. 부록 하
계. 특집호.)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0,200개 일본어: 117,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보합(保合) ⇨ 保合(もちあい mochii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8면기사>[期米 大幅 往來] 少量煎退가잇서 光買로 二回五十錢이엇스나 高價買가警戒되어保合勢로五十九錢에止하였다(1932년11월16일)

▶의미: 시세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모습.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東京日日新聞(1886) 11月13日「相場も大阪と共に焦附き頓(と)んと動かず保合(タモチアヒ)は何れに放つべきや

▶의미: 시세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모습.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말로, 1930년대 무렵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세.

일본어: 『大辞林』 取引市場で、相場が動かないか、小幅な動きにとどまっている状態(거래 시장에서 시세가 변하지 않거나 소폭 변화에 머문 상태)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100개 일본어: 16,2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복지(服地) ⇨ 服地(ふくじ fukuj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367호 宮内府官制改正件> [宮内府官制改正件]第二十四條中叅書官下二字를一字로改正하고第二十六條中調査課를刪去하고同條中主事下十字를七字로改正하고第四十一條中管理하고兼하고야服地織造事を十三字及同條中織造課를刪去하고(1906년2월 3일)

▶의미: 양복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夏目漱石<趣味の遺伝>(1906) 一「服地の色は槌めて」

▶의미: 양복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양복지

일본어: 『大辞林』 ふくじ【服地】洋服にする布地(양복을 만드는 천. 양복감)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790개 일본어: 7,68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부도(不渡) ⇨ 不渡り/不渡(ふわたり fuwata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不渡手形振出者の 制裁]京城의組合銀行으로組織한銀行集會의金曜會 는八日定例會議席上에서不渡手形에對한制裁를勸事全會一致로決意하였다(1918년11월11일 2면4단)

▶의미: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内田魯庵<社会百面相>(1902)虚業家尺数則 四「交換所にて不渡(フワタリ)と宣言されしわけならず」

▶의미: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지불을 거절당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

일본어: 『大辞林』 ふわたり【不渡り】 手形や小切手が、その支払い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また、その手形・小切手(수표나 어음을 돈으로 바꿀 수 없게 된 상태. 또는 그런 수표나 어음을 내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4,000개 일본어: 1,0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부지(敷地) ⇨ 敷地(しきち shikic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166호 度支部分課規程中改正件> 第三條 建築課에서左開事務를掌함 一 建築工事의計劃及設計에關한事項 二 建築工事의施行及監督에關한事項 三 敷地測量에關한事項(1908년9월2일)

▶의미: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栄花物語>(1028頃) 日蔭のかづら「大宮のしきちぞいとど栄えぬる八重のくみがき造り重ねて」

▶의미: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 제방 등으로 쓰기 위한 일정 구역의 토지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 ‘대지’ ‘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しきち【敷地】 建物を建てたり, 道路・堤防などの施設を設けるための土地
(건물을 짓거나 도로 또는 제방 등의 시설을 만들기 위한 토지)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20,000개 일본어: 1,5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분비선(分泌腺) ⇨ 分泌腺(ぶんびつせん bunpitsusen)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學藝通信[犯罪의 大要素는 内分泌腺이 機能異常] 人間이 罪를 犯하는 것은 그 사람의 内分泌腺의 機能異常이 非當히 한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을 證明하야(1937년 4월 23일 1면 1단)

▶ 의미: 분비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松本駒次郎訳<動物小学>(1881) 下・多節動物「各囊無数の小孔を開き腹内の一種の分泌腺より粘液を受け之を小孔より出す。即ち糸なり」

▶ 의미: 동물에서 분비작용을 하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형성한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분비샘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ぶんびつせん【分泌腺】 内分泌または外分泌を行う器官(내분비 또는 위분비를 담당하는 기관)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250개 일본어: 9,22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분배(分配) ⇨ 分配(ぶんばい bunpa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독립신문> [비상수건] 대한에 주차흔 일본 립시 디리 공스 일치씨가 六月 四일에 히국 정부에 보고 ㅎ기를 한국 정부에서 싱삼 압슈押收 ㅎ 것과 황해도에서 방곡 ㅎ 등스에 대 ㅎ야 손히 비상금 밧아 분비分配 ㅎ엿다 ㅎ엿논디 돈이 三千三百三十三원 三十三전 二리라 ㅎ엿더라(1899년 6월 30일 4면 1단)

▶ 의미: 분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令義解> 篠野乙次郎<英和外交商業字業>(1900) 「Distribution 分配、配当」

▶ 의미: 경제학에서 토지소유자에게는 임대료 자본가에게는 이자 및 이윤 노동자에게는 임금이라는 식으로 생산 활동에 참가한 개개인에게 생산물의 가치액이 귀속 또는 얻는 과정.

중국 <游历日本视察兵制学制日记>(본관간행 사고전서 개황) 1899년

▶의미: ①按一定的标准或规定分(일정한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 나뉜다) ②经济学上指社会再生产过程的一个环节(사회 재생산과정의 한 부분)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分配) 배분(配分). 생산 과정에 참여한 개개인이 생산물을 사회적 법칙에 따라서 나누는 일.

일본어: 『大辞林』 ふんぱい【分配】 ①いくつかに分けて配ること(몇 개로 나누어 주는 것) 配分(배분) ② 生産物あるいはそれを販売して得た代金を,生産要素の提供者の間で分けること(생산물 또는 그 생산물을 판매해 얻은 대금을 생산요소 제공자들이 나누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按一定标准分给(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주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100개 일본어: 217,000,000개 중국어: 297,000,000개

불소(弗素) ⇨ 弗素(ふっそ fuss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태극학보 제19호 海의 談> 其他 小量の 雜多한 物이 含有한데 今日까지 種種한 方法으로 海水 中에서 發見한 元素가 三十二種에 達한니 金, 銀, 銅, 鐵, 鉛, 亞鉛, 硅素, 弗素, 硼素, 沃素, 砒素, 硫黃磷, 酸素, 水素, 炭素, 臭素 等 其他 種種한 元素라(1908년3월24일)

▶의미: 불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桜井錠二・高松豊吉<稿本化学語彙>(1900) 「Fluorine Fluor n 弗素」

▶의미: 할로젠원소 중 하나 원소기호 F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화학』플루오르

일본어: 『大辞林』 ふっそ【弗素】 <fluorine>ハロゲン族元素の一.刺激臭をもつ淡黄緑色の気体(할로젠족의 하나. 자극성 냄새가 나는 담황색 기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600개 일본어: 224,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불입(拂入) ⇨ 払い込み(はらいこみ haraikom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令達銀行] 度支部에서 晉州光州農工銀行長에게 令達되 該銀行株式中政府에 係한 株式을 買得코져한 者가 有할 境遇에는 當時拂入한 價格으로 此를 擔任케 하고 該擔任株數에 相當한 政府納入金額은 此를 政府貸下金에 替加하야 増加하며 前項

과 如 境 遇 에 는 其 時 마 다 其 株 數 及 擔 任 人 名 을 大 臣 에 게 報 知 라 햐 였 다(1906년 8월 15일 2면 3단)

▶ 의미: 납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公文別録・朝鮮事變始末・明治十七年・第四卷・明治十七年>[外務省稟候朝鮮政府ヨリ 払入ノ補填金大蔵省預金局ヘ利付預金ニ取計ノ件]親展会第五九号 今般朝鮮政府ヨリ我政府、可払入填補金ノ内初度二万五千円ノ高此節受取尚殘額之義ハ追ニ受領可致筈ニハ候得共完納不相成候テハ(1887)

▶ 의미: 납부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일본에서는 ‘払い込’로 표기함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돈을 내는 것. ‘납부’ ‘냄’ ‘치름’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金を払い込むこと(돈을 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0,500개 일본어: 17,2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불하(拂下) ⇨ 払下(はらいさげ haraisage)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各國近事 [奧國政府一歲出入豫算表議案說明] 國債經費加一百一十五萬四千四百十弗者是因一千八百八十三年募集之公債利子爲八十六萬六千零三十五弗且由一千八百六十年發行之抽籤公債拂下金增六萬七千九百零二弗(國債경비는 1백15만4천4백10弗이 증가했는데 이는 1883도에 모집한 공채 이자가 86만6천35弗이며 또 1860에 발행한 국채의 抽籤公債拂下金 6만7천9백2弗이 증가한 액수이다, 1884년 6월 4일 19면)

▶ 의미: 팔아 버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大蔵省第四九>(1871) 九月一三日(法令全書)「最初寄附の節百姓を放し貢税作徳共一切附与有之分は都て御払下の上」

▶ 의미: 팔아 버림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매각’ ‘팔아 버림’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はらいさげ【払下】払い下げること(불하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900개 일본어: 26,7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비목(費目) ⇨ 費目(ひもく himo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26호 부록 歲出經常部 外部所管> 一 圖書購買費以下各費目に若干
割引を加ふ 第二項 官立小學校費 一 紙筆墨費以下各費目は前項之例로準む야割引を加
ふ(1896년1월20일)

▶의미: 비용 명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読売新聞>(1891) 11月13日「容易に承認を得べき費目(ヒモク)に対しては」

▶의미: 지출하는 비용 명목.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일이나 살림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의 용도를 목적에 따라 나
는 항목. ‘비용’ ‘명세’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ひもく【費目】支出する費用の経理科目上の名目(지출 비용의 경리과목상의
명목. 비목별로 전표를 정리하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500개 일본어: 9,24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비상식(非常識) ⇨ 非常識(ひじょうしき hijyooshi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37호 各種 新聞雜誌에 對한 批判> 몇해前인지 黃錫禹氏 對 玄哲氏 批評戰은
讀者로하여곰 嘔逆을 재촉케 하던 非常識的이었스며 또 近來에 와서는 月灘氏 對 金億
氏 批評戰도 先者보다는 越等한 点이 잇스나(1923년7월1일)

▶의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夏目漱石<吾輩は猫である>(1905) 八「逆上は<略>常識のあるものに、非常識を与へる者で
ある」

▶의미: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모르거나 당연히 따라야 할 사회규범을 어기거나
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고려대 한국어사전』 상식이 전혀 없음

일본어: 『大辞林』 ひじょうしき【非常識】常識がないこと. 常識にはずれること. また, そのさ
ま(상식이 아닌 것.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그러한 모양. 적인 발언)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2,600개 일본어: 2,18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빙점(氷點) ⇨ 氷點(ひょうてん hyooten)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天氣豫報] 北風 又는 西風이 吹하고 處處에 風力이 强하며 殆히 晴天이오 氣溫은 中部에서 顯著히 下降하야 京城은 冰点下八度六(華氏零度以下十六度)의 低度를 示하니라(1907년12월1일 2면6단)

▶의미: 물이 어는 온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氣海觀瀾広義>(1851) 10・溫「驗溫管を改正すと難も、氷点・沸湯点を定めざるが故に 宜しからず」

▶의미: 1기압에서 물이 얼거나 녹는 온도.

중국 <中西闻见录>(중서견문록)1873년

▶의미: 水凝固时的温度(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이 어는 점

일본어: 『大辞林』 ひょうてん【氷点】 ①一気圧のもとで、空気で飽和した水と氷が平衡状態にある時の温度.すなわち、水が凍る温度. 摂氏0度(1기압에서 공기로 포화된 물과 얼음이 평형상태일 때 온도. 즉 물이 어는 온도. 섭씨 0도) ②物体の凍りはじめる温度.凝固点(물체가 얼기 시작하는 온도. 응고점)

중국어: 『汉语大词典』 液态水转变成固态冰时的温度(액체물이 고체 얼음으로 변하는 온도)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350개 일본어: 567,000개 중국어: 60,700,000개

【사】

사료(飼料) ⇨ 飼料(しりょう shiryo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勅令第二號] 第四經費表(一隊年額)俸給給料 二萬一千七百九十二元六十錢 將官服裝費 三百元 下士以下被服費 七千一百十元 飯米費 七千四百八元八十錢 副食品費 六千三百元 溫突柴費 六百元 消耗費 二百四十元 補續費 六百元 馬飼料 二百八十八元 (1899년1월19일 1면3단)

▶의미: 가축에게 주는 먹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隨筆・文會雜記>(1782) 三・下「牧士の馬は平生荷馬にもする、飼料は草なり」

▶의미: 가축에게 주는 먹이

중국 <理科通証. 動物篇. 牛>(이과 통증. 동물편. 소) 1909年

▶의미: 喂家畜或家禽的食物(가축에게 주는 먹을거리)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가축에게 주는 먹을거리. ‘먹이’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しりょう【飼料】家畜に与えるえさ(가축에게 주는 먹이)

중국어: 『汉语大词典』 喂家畜或家禽的食物(가축에게 주는 먹을거리)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0,000개 일본어: 15,300,000개 중국어: 84,500,000개

사서함(私書函) ⇐ 私書函(ししょばこ shisyobak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164호 度支部告示第十號>[內閣告示第八號] 郵便私書函使用規則에關
하여統監府令第三十三號를左갓치揭布함(1908년8월31일)

▶의미: 개인 보관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各省決算報告書>[第二部 歳入ノ一 通信省]雖切手封皮帶紙等ノ売下代及私書函料約束
郵便税外国郵便物通送料差金等ノ各目ニテ金八万三千七百七十二円四錢四厘減少セシニ由
ル(1890년6월5일)

▶의미: 개인 물건 보관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군대 학교 따위에서 병사나 학생들이 제각기 물품을 넣어 둘 수
있게 만든 곳. ‘개인 물건 보관함’ ‘개인 보관함’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郵便局に、局長の承認を受けて設ける、受取人専用の郵便物受取箱(우체국
에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 만든 수취인 전용 우편물 상자)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7,800개 일본어: 29,8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사양(仕様) ⇐ 仕様(しょう shi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建築入札廣告] 入札을 希望하는 者는 本月十九日로 自 亥야 二十二日까지
木課에 來 亥야 設計圖와 仕様書를 熟覽하고 同月二十三日午前十一時에 入札書와 入札
保證金を 持來 亥야 即時同課에서 開札할 事 此契約은 本部會計課長朴熙陽 이가 擔任할
事(1906년8월17일 3면6단)

▶의미: 설명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史記抄>一九・貨殖列伝「たのしうなるに定た業はないぞ.只しやうによるぞ」

▶의미: 세상일을 행하는 방법. 행동의 수단. 사양서(仕様書)의 약어.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설계 구조. '설명' '설명서' '품목'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しょう【仕様】①やりかた.方法・手段(하는 방법 수단) ② 仕様書(사양서)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47,000개 일본어: 268,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사양서(仕様書) ⇨ 仕様書(しょうがき shiyooogaki)/しょうしょ shiyooosh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시기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122호 忠北淸州財務署新築工事> 右ヲ入札ヒ請貧希望者ニ本所ニ來
ヒヤ入札心得書契約書案仕様書、圖面、及現場等ヲ熟覽ヒ後七月二十二日上午十一時ニ限
ヒヤ本所ニ入札ヒ且即時開札ヒ此契約ニ建築所長荒井賢太郎イガ担任ヒ(1908년7월10
일)

▶의미: 방법 등을 설명한 문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幸田露伴<風流微塵蔵>(1893) 蹄鉄・四「事体最初に説へる時仕様書(シヤウガキ)でも渡
してある其に背いて製作へたとでもいふなら成程私が悪いかわらねど、仕様書の別段委し
いものもなし」

▶의미: 방법 등을 설명한 문장. 매뉴얼. 기계나 건축 등 복잡한 설계를 요구하는 주문품
의 내용이나 도면을 담은 서류.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설명서

일본어: 『大辭林』しょうしょ【仕様書】①やり方や、その順序を記した文書(하는 방법이나 그
순서를 기록한 문서) ②建築・機械などで、注文品の内容や図などを書いた書類(건축이나
기계 등에서 주문서 내용이나 그림 등이 담긴 서류)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310개 일본어: 8,93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사입(仕入) ⇨ 仕入れ/仕入(しいれ shiir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삼천리 제6권제8호 十錢 均一店の 有利와 經營>그러면사입(仕入)은 어딴서 할가 함을 근심하는가 그것은 대판이나 동경지에는 그러한 상담에 응할 유력한 전문 상점이 있는 줄은 한 두 해 장사하여 본 이는 다 알겠기 더 길게 쓰지 않습니다(1934년8월1일)
▶의미: 구입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雜俳・勝句寄>(1730) 「愛相は仕入の外の一円手」
▶의미: 판매하기 위한 상품 또는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나 저장품 등을 사 놓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에 용례가 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음.

일본어: 『大辭林』 しゐれ【仕入れ】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원료 등을 사들이는 것) ②しこむこと. 訓練すること(가르치는 것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훈련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100개 일본어: 55,1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삭도(索道) ⇨ 索道(さくど sakud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運炭架空索道]工費二萬五千圓의豫算으로 右架空索道敷設에着手함야十二月二十九日に 竣工함야(1918년1월13일 2면7단)
▶의미: 가공 삭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自動車交通法>(1931) 三一条「一般の道路<略>鉄道・軌道・索道等を造設」
▶의미: 공중에 걸친 강철제 로프 등에 운반기를 매달아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가공 삭도. ‘하늘 찾길’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さくどう【索道】 空中に架設した鋼索に運搬器を取りつけ、人や荷物を運搬する装置.ロープ.ウェー(공중에 가설한 강철케이블에 운반기를 매달아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장치. 로프웨이)

중국어: 『汉语大词典』 用钢索牵引的一种架空的通道(강철선에 매달아 사람이나 물건따위를 나르는 장치)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5,300개 일본어: 10,800,000개 중국어: 15,400,000개

산적(山積) ⇨ 山積(さんせき sanse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學部刊<國民小學讀本 亞米利加 獨立 二>그 씨 맞춤 亂後를 當하야 民力이 彫弊하며 國債가 山積하고 盜賊은 各處에 蜂起하며 外國은 ?을 엿보니 참 國步 | 艱難한 지라 (1895)

▶의미: 산처럼 높이 쌓인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小林多喜二<蟹工船>(1929) 甲板に山積みになって、ゴソゴソ爪で床をならしてゐた」

▶의미: 산처럼 높이 쌓인 것. 해결해야 할 문제나 일이 많이 쌓인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이나 일이 산더미같이 쌓임.

일본어: 『大辞林』 せき【山積】 山のように高く積み重なっていること.物・仕事や課題がたくさんたまること(산처럼 높이 쌓여 있는 모양. 물건 일 과제가 많이 밀려 있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堆积如山(산처럼 쌓였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5,300개 일본어: 2,020,000개 중국어: 4 000,000개

삼면기사(三面記事) ⇨ 三面記事(さんめんきじ sanmenkij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21호 驚異와 悲哀에서>저희들의 作品은 마치 新聞의 三面記事와 가티 단지 사소한 茶飯事を 描寫함으로써 가장 現實에 徹한 듯이 말한다(1922년3월1일)

▶의미: 신문의 사회면기사.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民新聞. 明治三六年>(1903) 四月三日「富樫万次郎、菊池悟郎の諸氏政治經濟と所謂三面記事に任じ」

▶의미: (신문지가 4페이지였던 때에 3번째 페이지가 사회면이었던 데에서)신문의 사회면기사.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에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예전에 신문의 발행 면수가 사 면이었을 때에 신문의 삼 면에 게재된 기사라는 뜻으로 사회 기사를 이르던 말. ‘도막 기사’ ‘사회 기사’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さんめんきじ【三面記事】 新聞の社会面の記事.雜事件の報道記事(신문의 사회면기사. 잡다한 사건에 대한 보도기사)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120개 일본어: 426,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잔교(棧橋) ⇨ 棧橋(sanba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英國海軍部에서 特히(테부온폴트)造船所技師 트리유 氏를 派遣하여 親히 威海衛港을 視察하라는 訓令을 右氏에게 傳하얏는디 만일 同港이 海軍根據地에 適當할 것 같하면곳 棧橋를 架設하고 繫船所와 炭庫를 修築하며 海軍營을 改築할 터인디 此에 關한 費用은 今年度預算中에서 請求하라 혼다더라(1899년2월20일 3면3단)

▶의미: 배를 묶어 두고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洒落本・遊子方言>(1770) 発端「そんなら、山本のさん橋へつけろ、西周<五国対照兵語字書>(1881) 「Viaduc 棧橋」

▶의미: 배를 묶어 두고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육지에서 물위로 튀어 나오게 만든 다리. 계곡 등을 건너기 위해서 만든 다리.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棧橋)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높이 걸쳐 놓은 다리. 부두에서 선박에 닿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을 통하여 화물을 싣거나 부리고 선객이 오르내린다.

일본어: 『大辞林』さんばし【棧橋】船を横づけにして、人の乗降りや貨物の積みおろしなどができるように、岸から水上に突き出して造った構築物(배를 대어 사람이나 짐을 내릴 수 있도록 기슭에서 물가로 내어 지은 건축물)

중국어: 『汉语大词典』火车站、港口或厂矿的一种建筑物(부두에서 선박에 닿을수 있도록 해 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개 일본어: 315,000개 중국어: 13,300,000개

삽목(挿木) ⇨ 挿木(sashi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기호흥학회월보 제9호 植物界의 略說>其 工夫로 繁殖호는 通行方法은 五種이 有호니 一曰 播種이오 二曰 接木이오 三曰 壓條오 四曰 挿木이오 五曰 根分이니라(1909년4월 25일)

▶의미: 꺾꽂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季・春><狂歌・吾吟我集>(1649) 二「つくとししさし木の花のちりぬるは箱根うつ木の釘はなれかも」

▶의미: 과일나무나 꽃나무 등의 가지나 줄기를 잘라서 밑부분을 흙이나 모래에 꽂아서

뿌리가 나오도록 하여 새 나무를 얻는 것. 또는 그 방법.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꺾꽂이. ‘꺾꽂이’로 순화

일본어: <盆栽用語集> 繁殖法の一種. 植物体の一部(枝・葉・根)を土などに挿して発根させ、独立した新しい個体を作ること(번식법의 하나. 식물체의 일부를 흙 등에 꽂은 후에 뿌리가 나오면 독립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법)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9,900개 일본어: 279,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상신(上申) ⇨ 上申(じょうしん jyooshin)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22호 勅令第二號> 四 疾病으로卒業이目的이無한者第十八條 前兩條에關한者가有한時는 校長이其事由를查明한야軍部大臣에게上申한야軍部大臣이裁定處分함(1896년1월15일)

▶ 의미: 여쭙.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東寺百舌文書>(1394) 二月一〇日・二十一口方評定引付(大日本古文書三・一)「百姓等之名田等既上申之由」

▶ 의미: 상관이나 지배자 등에게 의견이나 상황 등을 올리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함. ‘알림’ ‘여쭙’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じょうしん【上申】意見を上の者に申し述べること(의견을 윗사람에게 말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400개 일본어: 165,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상회(上廻) ⇨ 上廻(うわまわる uwamawaru)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空前의 弗低로 紐育株混亂 對英爲替도 上廻 紐育九日發】九日の紐育株式市長混亂은近來稀有의事實로論敦爲替는論敦時間午前十時五十分(紐育時間午前五時五十分)五弗을突破하야尙히續騰한다는報로紐育의英爲替는始價보다 五弗을上廻하야其後最終

은五弗十二仙假量이다(1933년11월12일 8면1단)

▶의미: 어떤 기준보다 웃둡.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大島秀雄<最新現代語辞典>(1933) 「ウワマワル 上廻る 相場が標準的相場より高いこと」, <経済実相報告書>(1947) 二「機械工業部門が、鉄鋼部門をはるかに上まわる生産回復を示した」

▶의미: 시세가 표준적인 시세보다 높게 되는 것. 어떤 수량이나 기준 이상이 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기준보다 웃둡

일본어: 『大辞林』 うわまわる【上回る】 ある基準数量を超える. 予定量以上になる(어떤 기준수량을 넘는 것. 예정 수량 이상인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760개 일본어: 3,54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색소(色素) ⇐ 色素(しきそ shikis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유학학회학보 제3호 貴要食物의 概論> 何他葡萄糖, 色素, 鹽類及瓦斯를 含하며 其 卵白의 成分은 主成分된 卵白質外에 少量의「꾸로뿌린」粘液質〔아루쓰모세〕軟脂及油脂요 其他葡萄糖鹽類를 含有하니라(1907년5월25일)

▶의미: 물체의 색깔이 나타나도록 해 주는 성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新精眼科全書>(1867) 一「色素の多少に由て各人異別あり<略>色素多き黒眼に在ては光線を多く吸収され、反射すること鮮く其色緑なり」

▶의미: 물체에 색을 발현해주는 물질

중국 <新尔雅.释生理>(신이아.석생리)1903年

▶의미: 使机体具有各种不同颜色的物质(물체의 색깔이 나타나도록 해 주는 성분)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체의 색깔이 나타나도록 해 주는 성분.

일본어: 『大辞林』 しきそ【色素】 物体に色を与えている物質の総称(물체에 색을 발현해주는 물질의 총칭)

중국어: 『汉语大词典』 使有机体具有各种不同颜色的物质(물체의 색깔이 나타나도록 해 주는 성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46,000개 일본어: 53,600,000개 중국어: 74,300,000개

생과자(生菓子) ⇨ 生菓子(なまがし namaga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광 제33호 두訓示> 반자지의 족으만 문이가 밥그릇도 되어 보이고 쟁반 만한 호떡도 되어 보인다. 나글나글한 생과자(生菓子)도 되어 보이고 쫘득쫘득한 식팡 토막도 되어 보였다(1932년 5월1일)

▶의미: 생과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隨筆>(茶道古典全集所収) 槐記.享保一六年(1731)二月二七日「薄茶、生菓子等御持参」
葉山嘉樹<海に生くる人々>(1926) 三二「外国人がクリスマスに食べるやうなパイや、その他種々な生菓子が」

▶의미: 마른 과자와 비교하여 쓰는 말. 주로 단팥을 사용한 과자. 크림 등을 사용하여 수분이 많은 서양과자.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생과자(生菓子) :물기가 조금 있도록 무르게 만든 과자.

일본어: 『大辭林』 なまがし【生菓子】 ①水分を多く含んだ、主に餡(あん)類を用いた菓子(엿을 주재료로 한 일본전통과자. 떡과자 찐과자 만쥬 양갱 등의 종류. 수분함량이 높아 오래 두기는 어렵다) ②生クリーム・果物などを用いた洋菓子(크림 과일 젤리 등을 사용한 수분이 많은 양과자. 슈크림 등)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60개 일본어: 1,31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생맥주(生麥酒) ⇨ 生ビール/生麥酒(なまビール nama-biir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삼천리 제12권제3호 哈爾濱과 麥酒會社>金씨의 호의로 생맥주 한 잔식을 시음 겸 축배 삼아 들 때는 滿洲도 북변 松花江畔에 朝鮮 사람의 손으로 비진 맥주가 잇는 것을 한없이 힘답게 느끼면서 무위무능한 朝鮮 내지 자본가들에게 눈발기술로 한잔식 권하고만 싶었습니다(1940년3월1일)

▶의미: 생맥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都新聞>明治三六年(1903)三月二八日「我妻橋向ふ札幌麦酒株式会社構内の旧佐竹庭園内へ、欧米風のビールガーデンを設け、花季を利用して本日より開店し、生ビールを発売する由にて」

▶의미: (ビール는 네덜란드어 bier) 양조 후에 가열살균을 하지 않은 맥주. 생맥주.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말로, 194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생맥주(生麥酒) :살균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양조한 그대로의 맥주.

일본어: 『大辞林』 なまビール【生ビール】 醸造したままで, 加熱殺菌をしないビール(생맥주. 양조한 직후로 가열살균을 하지 않은 맥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40개 일본어: 1,03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생방송(生放送) ⇨ 生放送(なまほうそう namahoos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4면>[女流의 一日] 擔當時間に 録音が 아니고 直接 演士가 放送하는 것을"生放送(생방송)"이라고 말하고 있다(1955년4월30일)

▶의미: 현장 방송.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尾崎一雄<もぐら横丁>(1951) 九「録音でなく、生(ナマ)放送だ」

▶의미: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에서 스튜디오 또는 현장에서 직접 동시에 방송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 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5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미리 녹음하거나 녹화한 것을 재생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송. '현장 방송'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なまほうそう【生放送】 録音・録画したものではなく, 番組の進行状態がそのまま同時に放送されること. また, その放送(녹음이나 녹화한 것이 아니라 방송진행 상태가 그대로 동시에 방송되는 것. 또는 그 방송)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18,000개 일본어: 61,9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생약(生藥) ⇨ 生藥(きぐすり kigusu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第十五條 請願人은左의類別에依하야商標를使用코즈 商品을指定함이可함 第一類 化學品、藥劑及藥料補助品(중약) 丸藥、膏藥、散藥、錠藥、煉藥、生藥、藥油、石灰、硫黃、礦水、麝香、打粉、食鹽、艾、防腐劑、防臭劑、驅虫劑、繃帶、綿紗、綿散絲、脫脂綿、海綿等(1908년9월19일)

▶의미: 식물·동물·광물·미생물 및 그 대사 생성물을 그대로 쓰거나 성질을 바꾸지 아니할 정도로 절단·파쇄·건조·추출하여 가공·조제한 약.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代術語辞典>(1931) 「生薬(セウヤク) 天然殊に植物界より採集する薬品で甚しく人工を加へないもの」

▶의미: [1931] 식물의 뿌리 줄기 과실 씨 또는 소뿔 사향 웅담 등등의 재료를 그대로 또는 약간 손을 더해서 사용하는 의약품.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식물성의 초재(草材). 식물·동물·광물·미생물 및 그 대사 생성물을 그대로 쓰거나 성질을 바꾸지 아니할 정도로 절단·파쇄·건조·추출하여 가공·조제한 약.

일본어: 『大辞林』 しょうやく【生薬】植物・動物・鉱物などを, そのままで,あるいは性質を変えない程度に切断・破碎・乾燥するなどの簡単な加工・調製をして, 薬用に供するもの(식물 동물 광물을 그대로 또는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로 절단 파쇄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가공 및 조제하여 약용으로 제공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简单加工而未精制的药物(간단하게 가공한 약물. 즉 천연 약재)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8,800개 일본어: 229,000개 중국어: 1,810,000개

석녀(石女) ⇐ 石女(せきじょ sekijo/うまずめ umazum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이상<종생기>내 꾸준한 노력도 일조일석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대체 정희라는 가련한 ‘석녀(石女)’가 제 어떤 재간으로 그런 음흉한 내 간계를 요만큼까지 간파했다는 것이다(1937)

▶의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愚管抄>四・後三条「その御むすめ北政所にておはしましけれど、つひにむまずめにて、御子のいでござりければ」, <羅葡日辞書>(1595) 「Sterilis<略>ミナラザルユト、またはvmazume(ウマズメ)」

▶의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성욕이나 성적 흥분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

일본어: 『大辞林』 せきじょ【石女】子を生めない女. うまずめ(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

중국어: 『汉语大词典』阴道生理构造不完全的女人(선천적으로 질의 생리 구조가 완전하지 않은 여자)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5,600개 일본어: 2,310,000개 중국어: 1,580,000개

선반(旋盤) ⇐ 旋盤(せんばん senb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京城職業紹介所に 旋盤工多數依頼] 평양모제조소(平壤某製造所)에서는 경성 부직업 소개소를 통하여 선반공(旋盤工) 다수를모집한다는데 자격은모통학교졸업생으로 三十五세미만의 남자로서(1937년9월5일 4면4단)

▶의미: 각종 금속 소재를 회전 운동을 시켜서 갈거나 파내거나 도려내는 데 쓰는 공작 기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工学字彙>(Lathe 旋盤)

▶의미: 가장 일반적인 공작기계중 하나.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 이후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각종 금속 소재를 회전 운동을 시켜서 갈거나 파내거나 도려내는 데 쓰는 공작기계. ‘갈이판’ ‘돌이판’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せんばん【旋盤】工作機械の一. 工作物を回転させ, 往復台上に固定した刃を前後左右に動かしてこれに当てて切削するもの(공작기계의 하나. 공작물을 회전시켜 양복운동을 하는 대 위의 날을 전후좌우로 움직여 공작물에 대어 절삭하는 기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0,000개 일본어: 3,48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선불(先拂) ⇐ 先払い(さきばらい sakibar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今에 京城紙商等이 本商業이 發達] 遠地に 在る 物主가 委托販賣를 要하는 時는 該物價値에 對하여 半額 以上까지는 先拂함을 得함(1908년8월16일 3면1단)

▶의미: 선지급.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外務省外交史料館 外務省記録>[帝国大学理科大学ニ於テ物理学科研究上必要ノ尺度瑞西国器械製造人へ注文ノ件 明治二十五年八月]右注文ノ尺度製造人ヨリ該局へ差出候上ハ可然速ニ取調之上運賃先払ヲ以テ該学へ向ケ回送ノ儀在仏国本邦公使ヨリ該局へ依頼相成度候条可然公使へ御示達有之度此段及御照会候也(1892년-1896년)

▶의미: 먼저 냄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일이 끝나기 전이나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을 치름. ‘선지급’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さきばらい【先払い】①品物の受け渡しより前に金を払うこと(물품을 건네주기 전에 돈을 주는 것) ② 運送料・郵便料などを受け取り先が払うこと.向こう払い.着払い(운송료나 우송비 등을 받는 쪽이 지불하는 것. 착불)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9,800개 일본어: 13,4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선적(船積) ⇨ 船積(ふなづみ funazum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사모아 島와 德國] 西部太平洋의사모아 島난 英米德三國이 共同保護國으로 成立호얏더니 近頃에 德人の 專橫함이 主權까지 犯호야 同島政府의 政務에 干涉호야 郵遞總監職에잇던 英國人을 排斥호고 自己國人으로 代立하야 英米人이 多額金을 納하고 同政府에 得獲호얏던 船積特權을 蹂躪호난디 忌憚이업스며 二年以内に 同島를併有호깃드고 英米人을 對호야 公言한다더라(1898년9월19일 3면3단)

▶의미: 배에 화물을 실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俳譜・句兄弟>(1694) 中「冬偏をとへばあたたかな体く桂花>舟積を状にしらする油樽

▶의미: 선박에 화물을 싣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배에 짐을 실음.

일본어: 『大辞林』 ふなづみ【船積み】 船に貨物を積むこと(배에 화물을 싣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700개 일본어: 247,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선착장(船着場) ⇨ 船着場(ふなつきば funatsukib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3면2단> [沿海航路條約] 第六條 日本國船舶所有者는 船着場에서 倉庫를 建築하기 爲하야 土地를 借用함을 得흠 又는 韓國海關의 認許를 受하야 沿岸에서 埠頭를 築造함을 得흠(1905년8월24일)

▶의미: 나루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夏目漱石<幻影の盾>(1905) 「城の東の船付場(フナッキバ)へ廻して、あの金色の髪の主を乗せやう」

▶의미: 배 대는 곳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배가 와서 닿는 곳. ‘나루’ ‘나루터’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つきば【船着き場】船が発着したり, 停泊したりする所. 船着き(배가 발착 또는 정박하는 장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1,100개 일본어: 1,32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선취(先取) ⇐ 先取(さきどり sakidori/せんしゅ sensh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4면1단> [伊太利와로헤타] 俄國은 近來에 阿非利加의 東岸에 로헤타라하는
자할 得하여 紅海에서 優勝한 地位를 占하였는디 右로헤타는 아비시니아 王메넬릭의 保
護領이라 伊太利는 아비시니아와 締結한 最緊條約으로 同港에 先取權이 有하다(1898년
9월29일)

▶의미: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건을 가지거나 일을 하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
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談義本・養漢裸百貫>(1796) 三「多の客の撰取見取(よりどりみどり) 枕かけの先取(サキ
トリ)、のき代の後取(のちどり)」

▶의미: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건을 가지거나 일을 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남보다 먼저 가짐. ‘먼저 얻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さきどり【先取り】①他人より先に物事をする事(타인보다 먼저 하는 것)
②事後に受け取るべきものを事前に受け取る事(사후에 받아야 하는 것을 사전에 받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3,000개 일본어: 4,1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선하증권(船荷證券) ⇐ 船荷證券(ふなにしょうけん funani-shooke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동학회월보 제18호 法律學에 關한 概見(續)> 海商에 講究한 事項은 船舶의 性質
并 種類 如何(중략) 物品運送 契約의 終了 如何, 船荷證券의 如何, 旅客運送 契約의
性質 如何, 旅客運送 契約의 效力 如何, 旅各運送 契約의 終了 如何, 海損의 如何, 共

同海損의 如何, 船舶 衝突의 境遇 如何, 海上保險 如何, 船舶 債權者의 權利 如何 等項目되느 바 | 라(1909년7월25일)

▶의미: 선하증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商法(明治三二年) (1899)六四六条「船荷証券其他積荷の価格を評定するに足るべき書類

▶의미: 화물을 배에 실은 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선화 증권. ‘뱃짐 증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B/L. ふなにしょうけん【船荷証券】海上の物品運送契約において, 運送人が運送品の受け取りまたは船積みを証し, 指定港において証券の正当所持人に引き渡すことを約する有価証券(화물 해상운송 계약에서 운송인이 운송품의 수취 또는 배에 선적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항구에서 정당한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480개 일본어: 23,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세공(細工) ⇨ 細工(さいく sai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實業學校令施行規則> 工業에屬す學校의實業에關す科目은用材、用具、測量、製圖、繪畫、機織、染色、製紙、化學製造、分析、造家、家具、髹漆、陶磁器、採礦冶金、鑄工、鍛工、板金細工、竹細工、工業 經濟及其他事項에서選擇하고又는便宜分合하야此를定함이可함(1909년7월9일)

▶의미: 잔손을 많이 들여 정밀하게 만들.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栄花物語>(1028) 御裳着「昔賀陽親王(かやのみこ)といひし人こそ、さいくはいみじかりけれ」,<今昔>(1120頃か) 二八・五「此の為盛の朝臣は、極たる細工の風流有る者の」,<浄瑠璃・都の富士>(1695頃)四「老母いたはる世のたつき夫婦勝若諸共に、さいくの者と品くたり」

▶의미: 목공 조각 등 손재주로 정밀한 물건을 만드는 것. 또는 그 물건.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잔손을 많이 들여 정밀하게 만들. 또는 그런 수공(手工). ‘공예’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さいく【細工】手先を巧みに使ってこまかな物を作ること.また, 作られた物

(손으로 정교하게 작은 물건을 만드는 것. 또는 만들어진 물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8,300개 일본어: 15,2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세대(世帯) ⇐ 世帯(せたい set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71호 朝鮮人の 人口統計> 그리고 右表에 의하면明治 43년말의 朝鮮人の 戸口는 世帯數로 55만9천4백95 人口數로 4백49만7백60이 増加하였다(1926년7월1일)
▶의미: 가구.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葡辞書』(1603) 「Xetai(セタイ) ヲスル・〈訳〉家を治め、きりもりする」
▶의미: 일가를 이루어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가구

일본어: 『大辞林』 せたい【世帯】① 住居・生計を同じくしている者の集団(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집단) ②一家を構えて、独立の生計を営むこと(한 집안을 꾸려서 독립생활을 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96,000개 일본어: 30,6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세대주(世帯主) ⇐ 世帯主(せたいぬし setainu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1면12단> [各國國勢 調査申告制 거위全部가 自計制] 國세조사사항의 신고 방법은 自計制와 他計制의 두 가지가 있고 世帯主 또는 살림관리자를 신고의무자로 하여 이 사람으로 하여금 弼입신고케하는 제도를 自計制라 하고(1930년9월7일)
▶의미: 가구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本市に於ける朝鮮人の生活概況(大阪市「社会部報告」所収)>(1929) 二「世帯主八一人中にその九・九%に相当する女子の世帯主があつて」
▶의미: 세대의 중심이 되는 사람.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 이후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가구주. 일정한 집단이나 분야의 사업과 살림을 책임지고 맡아 하

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辞林』 せたいぬし【世帯主】世帯の中心となる人. 世帯の長. 所帯主(한 세대의 중심이 되는 사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570개 일본어: 12,4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소매(小賣) ⇨ 小売り/小売(こうり kour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137호 法律第二十號>第二條 左開의債權에原因한訴訟은三年을經過한時に此를受理치아니함 一 傭人給料 二 生産者都賣商人及小賣商人이賣却한産物並商品の代價(1908년7월28일)

▶의미: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팔.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梅津政景日記>(1612) 三月一四日「只今の者は米の小売望人無之付て」

▶의미: 도매점에서 들여온 물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 또는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국 <游历日本图经>(일본유람도경)1889년

▶의미: 做小买卖(소규모로 판매하다)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팔. ‘산매(散賣)’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こうり【小売】消費者に対して、直接商品を販売すること(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2,000개 일본어: 141,000,000개 중국어: 512,000,000개

소사(小使) ⇨ 小使(こづかい kozuka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10호 社會現象概觀> 나는 일전 어느 일본인의 경영하는 沐浴湯에서 그 湯主되는 젊은 부인이 5, 6歲가량되는 자기의 어린 자식의 상말하는 말을 듣고 朝鮮人小使를 불러 責하는 말이 「네가 상말을 하지 안하트먼저 애는 결코 상말을 배울 곳이 없다」고 責하는 말을 듣고 나는 甚히 탄복하였나이다(1921년4월1일)

▶의미: 학교 회사 관청 등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夏目漱石<坊っちゃん>小使におぶさって帰って来た時、おやじが大きな目をして二階ぐら

いから飛び降りて腰を抜かすやつがあるかと言ったから、この次は抜かさずに飛んで見せますと答えた(1906)

▶의미: 학교 회사 관청 등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 용무원(用務員).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관청이나 회사 학교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사동’ ‘사환’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こづかい【小使い】用務員の旧称(용무원의 옛 이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6,000개 일본어: 1,480,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소절수(小切手) ⇐ 小切手(こぎって kogitt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612호> 第四章 小切手 第三十条 小切手에는左开事項을记载하고 振出人이此에記名捺印함을要함이라(1906년11월16일)

▶의미: 수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富田鉄之助』上>「是れ小切手支払に臨み、其手形面の金高有無を屢々元簿に照合せざらんが為めなり」

▶의미: 은행에 당좌예금 구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행하여 일정금액 의 지불을 은행에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오늘날은 쓰이지 않고 ‘수표’로 순화되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수표

일본어: 『大辭林』こぎって【小切手】一定の金額を支払うことを銀行に委託する有価証券(일정금액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은행에 위탁하는 유가증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47개 일본어: 2,3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소포(小包) ⇐ 小包(こづつみ kozutsum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독립신문 잡보> [면검 면세] 외부에서 룡상공부에 조회하기를 일관 조회 니에 쇼포 우물(小包郵物)은 해관에서 검수 하논것을 면하고 세 밧논것을 면하논것은 각국에 통행

흔는 전례라 하였으나(1899년6월19일 3면3단)

▶의미: 소포.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御署名原本・明治二十三年・法律第八十二号・小包郵便ニテ外国へ輸出スル物品関税免除> 朕小包郵便ヲ以テ外国へ輸出スル物品関税免除ノ件ヲ裁可シ茲ニ之ヲ公布セシム(1890년9월12일)

▶의미: 소포우편물(小包郵便物)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조그맣게 포장한 물건. 소포 우편. 소포 우편물.

일본어: 『大辞林』 こづつみ【小包】小包郵便物(ゆうびんぶつ)の略(소포우편물의 약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1,700개 일본어: 34,1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소하물(小荷物) ⇐ 小荷物(こにもつ konimo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乗客及貨物數] 仁山停車場에서 本月上旬에 乗車人員은 一千六人、降車人員은 一千四百四十四人、入場人員은 二百四十七人이고 發送한 小荷物は 七萬三千五百六十五斤(1908년7월15일 1면4단)

▶의미: 수하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逋信省編<逋信史要>(1898) 三・一・四「小荷物に關しては特に制限を設けずと雖も」

▶의미: 철도에서 주로 승객열차로 신속히 운송되는 작고 가벼운 짐. 철도소화물.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수하물

일본어: 『大辞林』 こにもつ【小荷物】①小さい荷物(작은 짐) ②鉄道便で送る, 小さくて軽い荷物(철도편으로 보내는 작고 가벼운 화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920개 일본어: 1,3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소형(小型) ⇐ 小型(こがた kogat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列國艦艇의 進歩(三)] 然則巡洋艦中으로 小型을 特製하든바가 更히 二等巡

洋艦으로 轉進한 今日에 尙히 大型으로 進하면偵察任務에는 不便함이 甚할터인 故로 專門家等은 排水量은 此에 限하고 速力만 高大케하기로 研究中이라더라(1910년6월7일 1면1단)

▶의미: 크기가 작은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宇津保>(970頃) 吹上上「これは鑄物師の所.男ども集り、踏輪(ただら) 踏み、物のこかた 鑄などす」

▶의미: 크기가 작은 것. 같은 종류 중에서 작은 것.

중국 <养猪学>(양돈학)1930年

▶의미: 形状或规模小的(형태나 규모가 작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같은 종류의 사물 가운데 작은 규격이나 규모.

일본어: 『大辞泉』 こがた【小型】 同類のものの中で型が小さいこと.また、そのものや、そのさま(같은 종류 중에서도 작은 것. 또는 그 물건이나 그런 상태)

중국어: 『汉语大词典』 形状或规模小(형태나 규모가 작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10,000개 일본어: 54,800,000개 중국어: 305,000,000개

송달(送達) ⇐ 送達(そうたつ soota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病於忠愛] 黃海道長淵郡居林元錫氏가 獨立協會와 萬民共同會의 忠愛目的으로 民國事을 爲하야 風餐露宿함을 聞하고 補助金四元을 持來하다가 中路得病하야 不能送達키로 專人하야 該銀을 寄하엿다하니 林氏의 忠君愛國함은 使人感涕홀만하더라 (1898년12월16일 3면2단)

▶의미: 보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織田純一郎訳<花柳春話>(1878) 五一「彼の書の送達せしや否を試んと欲し」,<民事訴訟法>(1890) 一三六条「送達は裁判所書記職權を以て之を為さしむ」

▶의미: 보내어 전달하는 것. 특히 소송관련 서류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당사자와 특정 관계자에게 보내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편지 서류 물품 따위를 보내어 줌. ‘띄움’ ‘보냄’으로 순화.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

일본어: 『大辞林』 そうたつ【送達】 ①送って、相手方に届けること(보내어 상대방이 받도록 하는 것) ②訴訟上の書類の内容を了知させるため、裁判所が当事者や利害関係者に、書類を交付あるいは送付すること(소송 서류상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재판소가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거나 송부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法律用語. 司法機關依一定方式將訴訟文件(如傳票、判決書等)送交訴訟參與人(법률 용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보내는 일)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4,100개 일본어: 3,170,000개 중국어: 65,700,000개

승부(勝負) ⇐ 勝負(しょうぶ syoobu)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9편 敎育호는制度> 戰時를臨호야其勢가均호며力이敵호야도其勝負는器械가決호는니然호故로器械의不利호國은百萬의兵이雖有호야도器械精利호者의一萬軍을抗敵호기不能호니(1896)

▶의미: 승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経国集>(827) 二〇・白猪広成対策文・策問「利用礼楽、己有前聞 未決勝負 庶詳其別」

▶의미: 이기고 지는 것. 승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이김과 짐

일본어: 『大辞林』 しょうぶ【勝負】 ①勝つことと負けること. 勝ち負け. 勝敗(이기는 것과 지는 것. 승패) ②勝ち負けを決めること(승패를 결정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指爭輸贏(승부를 다투고 우열을 가림)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4,900개 일본어: 127,000,000개 중국어: 43,000,000개

수당(手當) ⇐ 手当て/手当(てあて teate)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호외 勅令第一百五十五號>第二條 學資金及旅次手當金은別表의金額內에서派遣의留連費用을酌量호야軍部大臣이 定함(1895년8월15일)<독립신문 제2면[칙령 데 십일호]> 데 십삼호는 학도를 삼과 三課로 난우되 일과 一課 이과 二課는 속성과에 덩호고 삼과 三課는 졸업과에 덩 호야 피복 被服과 식료 食料를 다 관비 官費로 주고 삼과에 덩호 학도는 졸업 한을 오에 덩 호고 슈당금 手當金を 명 브터 미삭에 이원식 주되(1898년6월21일 2면2단)

▶의미: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文書 清国へ派出ノ官員へ航海旅費金等下渡伺>[清国へ派出ノ官員へ航海旅費金等下渡伺]勸業寮官員一名清國へ派遣ニ付航海旅費 其外御手當金御下ヶ渡之儀伺

金參百貳拾八円七拾四錢 一 洋銀弗 右ハ勸業中屬南部陳儀清國へ派遣被命候ニ付航海旅費其外御手當先例ニ準シ(1875년5월23일)

▶의미: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임금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 ‘덤샀’ ‘품샀’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てあて【手当て】 基本の賃金のほかに諸費用として支払われる金(기본 임금 이외에 여러 비용으로 지불하는 돈)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84,000개 일본어: 120,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령(受領) < 受領(じゅりょう jyur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西署盤石坊巡洞에 私立小學校를 設히고 學徒는 自十歲로 二十歲々지 募入할 터이니 願學人은 陽曆二月五일로 趁期하야 許入狀을 受領하시오(1899년1월30일 4면 3단)

▶의미: 받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仮名草子・小さかづき>(1672)一・一「兩鳥ともに其けいづを申あげらるくし。其よろしき方につきて、梅花をしゆれうせさせ侍るべしといへば」

▶의미: 받음. 돈이나 금품을 받음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임. ‘받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じゅりょう【受領】 うけおさめること(받아 두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9,300개 일본어: 8,990,000개 중국어: 약4,960,000 개

수리(受理) < 受理(じゅり jyu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독립신문 제3면1단 잡보> 현릉 훈식 데물 일코 히 셔원 김중혁이가 즈하 판비헌 일을 경무청에서 칙령을 받드려 증판 기형 히갯는디 히범을 법부로 넘기거늘 법부에서 말 히기를 경무청으로 증판 기형 히라 히섯신즉 법부에서는 가히 슈리受理치 못 히갯노라 하고 히범을 도로 경무청으로 보니엿다더라(1899년4월19일)

▶의미: 받아들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權記.寛弘八年>(1011) 四月二七日「至宇転任 受理之者不可嫌浄」

▶의미: 받아서 처리하는 것. 받아서 심사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 ‘받아들임’ ‘받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じゅり【受理】書類・届け・願い事などを受けつけること(서류 제출 청원 등을 받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受诉状, 进行审理(장을 접수하여 심사하고 처리하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37,000개 일본어: 93,300,000개 중국어: 131,000,000개

수반(首班) ⇨ 首班(しゅはん shuh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獨立協會再疏] 裁判長申箕善과 首班判事李寅祐가 未曾賣劔指使리도 如此大獄의 如此緊證을 苟能審慎監禁하야 晝宵戒飭이면 刃從何來며 刺從何致릿가(1898년 10월 10일 1면1단)

▶의미: 수석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内閣官制>(1889) 二条「内閣總理大臣は各大臣の首班として機務を奏宣し」

▶의미: 수석. 특히 내각에서 수석인 사람. 내각총리대신.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반열(班列) 가운데 으뜸가는 자리.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우두머리’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しゅはん【首班】第一位の席次.特に内閣の總理大(첫 번째 지위. 특히 내각의 총리)

중국어: 『汉语大词典』犹首席(수석)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6,200개 일본어: 1,280,000개 중국어: 1,790,000개

수배(手配) ⇨ 手配(てはい teh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광 제28호 新聞界에 대한 不平과 要望> 나) 用語를 될 수 잇는 대로 일반 우리에게 그 意味가 통하도록 使用할 것. 예하면『모라토리움』, 『웁서버』, 手配, 差支, 役割... 등등의 文字를 오직 한글과 한문만 아는 사람으로도 容易하게 알아보도록 定用할 것(1931년

12월1일)

▶의미: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망을 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岩崎茂実<日誌字解>(1869)「手配 テハイ 人ヲクパル」

▶의미: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일을 갈라 맡아서 하게 함.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망을 펴.

일본어: 『大辭林』 てはい【受配】犯人・容疑者を逮捕するため、指令を發して所要人員の配置その他の活動をすること(범인이나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지령을 발하고 소용인원을 배치하거나 다른 활동을 함)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48개 일본어: 92,9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부(受付) ⇨ 受付(うけつけ uketsuk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議院法改正] 日本政府에서 今次 議會期에는 議院法改正案을 提出할 터이라는데 그 要領을 聞흔즉 如左하더라....(중략).....旅費는 廢止하고 氣車 氣船의 乘票를 受付할 事(1899년2월20일 4면1단)

▶의미: 접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戶籍法>(1898) 二八条「届出又は申請の受附の年月日」, 斎藤緑雨<置矩煒>(1890) 上「寄留届に、受附(ウケツケ)の印貰ふ」

▶의미: 건물이나 회장 등의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아 이름과 용건을 듣고 중간에서 연락을 하거나 그 외의 다른 일을 처리하는 곳.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음.

일본어: 『大辭林』 うけつけ【受付】①申し込みや願書などを受け付けること(신청이나 원서 등을 접수하는 것) ②用件を受け継いだり, 取り次いだりする場所. また, その係の人(용건을 이어받거나 전달해 주는 장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00개 일본어: 8,38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속(手續) ⇨ 手続き/手続(てつづき tetsuzu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5호 法部令第二號>第十七條 檢事는被告事件이有罪否? 否를思ふ는時
에는公訴의手續을 否可 否ニ又其被告事件이無罪 否거나或罪되지만거나或告訴發을受理
否可치아니 否로아는時에는公訴手續을 否可치아니함(1895년4월16일)

▶의미: 일을 진행하는 순서나 방법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一定の目的を達するために経過すべき処置。また、それに従って実行すること。木村曙
<婦女の鑑>(1889) 一三「旅費其他旅行券は残らず手続き致し置候へば」

▶의미: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조치

중국 <新尔雅. 释政>1903年

▶의미: 办理的程序(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나 단계)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나 단계. ‘순서’ ‘절차’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てつづき【手続き・手続】① 物事を行う順序・方法.手順(일을 하는 순서 방법. 수순) ②書類を整えたり, 料金を払いこんだりする, 事務上の処置(서류를 갖추거나 요금을 내거나 하는 서류상의 처치)

중국어: 『汉语大词典』 办事的程序(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나 단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2,000개 일본어: 22,800,000개 중국어: 442,000,000개

수순(手順) ⇨ 手順(てじゅん tejyu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白六四를 嚴酷히 封殺手順 白의 作戰上難關解消 黑六五 바의 三은 穩健한
政治가트나 白의 右上偶補强的策動에 忒러진 凡手의 感이 不無한즉마의 二로 強硬히바
더서 參考圖 『黑마의一白 바의三 黑바의 四 白 사의 二 黑아의 三 白마의 三黑다의二
白 마의 四 黑 마의 五 黑라의 二 白바의 五 黑사의 四 白 다의 五 黑라의 二 白나의
二 黑아의 二』와가터(1937년8월19일 6면5단)

▶의미: 순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和英語林集成 初版』(1867) 「TE-JUN テジュン 手順」

▶의미: 일을 하는 순서.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순서. 정하여진 기준에서 말하는 전후 좌우 상하 따위의 차례 관계.

일본어: 『大辞林』 てじゅん【手順】物事をする順序.段取り(일을 진행하는 순서와 방법)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51,000개 일본어: 45,7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인(手引) ⇨ 手引(てびき tebik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全校運動盛況] 五月二十七日에 全州公立普通學校에서 春期運動會를 鎮北亭에 設行하였는디 當日 應參生徒는 九十二人이오 運動科程은 徒步競走 二人三脚 盲目手引 高低毬送 字拾 變步 旗送競爭 射丸 四足競走 一人一脚 高飛廣飛 計筭競走 來賓競走 綱引 合 十五科程을 甲乙丙三隊로 各各 施行하고(1907년6월1일 1면4단)

▶의미: 길잡이 하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葡辞書』(1603) 「Tefiqi(テヒキ) <訳>盲人を案内する者」

▶의미: 안내. 인도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나 오늘날은 사용되지 않는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음.

일본어: 『大辞林』 てびき【手引き】①(手を引いて)力添えをしたり,導いたりすること.また,その人.導き.案内((손을 끌어) 힘을 보태주거나 인도하거나 하는 것. 또는 그런 사람. 안내)
② 初心者を教え導くこと.手ほどき.また,そのための書物など(초심자를 가르키고 인도하는 것. 또는 그를 위한 서적 등.)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91개 일본어: 1,74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입(手入) ⇨ 手入れ/手入(ていれ teire)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勅令第四號軍部官制] 第十六條 兵器課는 左의 事務를 掌함兵器 彈藥器具 材料裝具의 修理 新調 購買 交換 貯藏及保存과 并檢査手入에 關한 事項(1907년9월16일 1면2단)

▶의미: 손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浮世草子・珍術嬰粟散国>(1775) 三・三「御やくそのすぢも立、しゃくやくもいからせず、ことをおさめる手入あれば、御心やすかるべし」

▶의미: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살피고 챙기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나 오늘날은 사용되지 않는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음.

일본어: 『大辭林』 ていれ【手入れ】 よい状態に保つために、整えたりつくろったりして、手を掛けること(좋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전돈하거나 수선하는 등 수고를 들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07,000개 일본어: 8,8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입고(輸入高) ⇐ 輸入高(ゆにゅうだか yunyudak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義州에서 滿州炭 輸入高] 昨年中新義稅關支署를通關호야朝鮮內輸入된石炭數量을聞은즉二十四萬八千噸이滿洲로브터輸入供給되얏더라(1916년7월8일 2면9단)
▶의미: 수입고.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국립공문서관 기록> [御署名原本・明治二十五年・勅令第百六号・造幣規則中改正]第三条 輸入ノ金銀地金ハ左ノ高以上ニ非サレハ受取ラサルヘシ但一口ノ輸入高巨額ニシテ工程ニ超過シ第十条期日ニ代リ貨幣ヲ払渡シ得サルトキハ(1892년11월29일)
▶의미: 수입액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음.

일본어: 『大辭林』에 표제어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49,000개 일본어: 116,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입선(輸入先) ⇐ 輸入先(yunyuusa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4면>[慶北金肥生産消費] 이에 生産不足으로 輸入超過額이 二十五萬三千百五十五圓인데 此의 輸入先은 日本과 滿洲이며 生産額으로 보아도 其中 大部分은 日人側の 生産이니(1923년8월29일)
▶의미: 수입하는 곳.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外務省外交史料館 外務省記録「外務省記録」>[英国製金巾ノ直接及清国上海ヲ經テ本邦へ輸入シタル量数価額等(三年平均) 農商務省へ問合ノ件 明治二十四年]英国製金巾ニシ

テ本邦内地ノ需用ト供スル為メ同国ヨリ直接ニ輸入スルモノト香港在上海ノ英商又ハ清商ノ手ヲ經テ輸入先モノトノ区外及ヒ其数量価額トモ暴迫之處(1891년)

▶의미: 수입하는 곳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 없음.

일본어: 『大辭林』에 표제어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720개 일본어: 77,4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제품(手製品) ⇨ 手製品(てせいひん teseih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每日申報> [덩다라올으는김장갑 暴騰은 奸商輩手製品] 지난十日 쌀의 공정가격이 올은뒤로 지금까지 九,一八가격의 제한을 받지안코잇든물건 | 레를 들면야채와갓흔 것은 쌀갑을 송내내여 하로밤 사이에 몇할식 폭등하야 대중의 생활을 위염하고있다(1939년11월13일 2면1단)

▶의미: 손으로 만든 물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陸軍省大日記類」三、還送戰用蹄鐵中器機製品ハ所要ノ手入ヲ施シ戰用品トシテ保管シ手製品竝蹄釘ハ常用ニ繰下ケ使用スヘシ(1927년12월)

▶의미: 손으로 만든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손으로 만든 물건. ‘손치’로 순화. ≡수제(手製)

일본어: 『大辭林』에 표제어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05,000개 일본어: 86,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지(樹脂) ⇨ 樹脂(じゅし jyu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學部刊本<國民小學讀本 第十八과 蜂房>或 蜜을 貯蓄호야 겨을 糧食을 準備호고 工蜂이 蜂房을 짓는 겨술 보면그 邊을 附着호기에 樹脂를 쓰고 그 材料는 蠟을 쓰며 그 일호를 보면整然不亂호고 其中에 三隊工蜂이 잇서(1895)

▶의미: 나뭇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隨筆・折たく柴の記>(1716頃) 中「柿木のわかき時に<略>字を画しぬれば、その長じぬるにしたがひて、樹脂の内凝りて」

▶의미: 나무껍질에 상처가 날 때 분비되는 점착성 액체가 굳은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나뭇진. ‘나뭇진’으로 순화. 천연수지와 합성수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辭林>じゅし【樹脂】 ①アカマツやカラマツなどの樹木から分泌される粘度の高い液体(적송이나 낙엽송 등의 수목에서 분비되는 점도가 높은 액체) ②天然樹脂と合成樹脂との総称(천연수지와 합성수지의 총칭)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14,000개 일본어: 50,7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출고(輸出高) ⇐ 輸出高(ゆしゅつだか yusyutudak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大邱通信: 穀物 輸出高] 慶山驛은 穀物輸出이 京釜沿線에서 仁同倭館을 除하고 第一指를 屈하는 場所이라 慶山, 慈仁, 河陽永川, 新寧等 五郡의 全境과, 淸道, 慶州一部에 其所産하는 穀物を 純全히 此에서 貿易하는데 毎年輸出하는 額이 平均五十萬 叭以上에 達한다하며 現時의 價額は 玄米一叭에 八圓二三十錢으로하니 前月に 較하면 一圓以上の 減率에 至하고 尙히 逐日低落하는 模様이라더라(1912년8월29일 1면3단)

▶의미: 수출액.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東京日日新聞>「此表に依れば本年の輸出高は僅に輸入に超過し難も」(1893년11월29일)

▶의미: 수출품 대금의 총액.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얻은 금액. ‘수출량’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에 표제어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270개 일본어: 32,3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취(受取) ⇐ 受取り/受取(うけとり uketo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叙任及辭令] 囑托하기 陰曆七月二十日 所親人金鍾和를 達着하야 同月二十五六日 間에 來訪하기를 要하얏더니 二十六日 金鍾和가 果爲來訪하기로 金鴻陸에게 受取한 藥을 出給하고 囑託호디 此藥을 進御茶에 調進하면 一千元銀으로 酬勞하리라 하얏다(1898년10월14일 2면2단)

▶의미: 받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民事訴訟法(明治23年) (1890) 七三一条「此強制執行は債權者又はその代理人が受取の爲め出頭したるときに限り之を爲すことを得」

▶의미: 받음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받아서 가짐. ‘받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うけとり【受取り】 うけとること(받음)

중국어: 『汉语大词典』 접수하다; 수령하다. 接受 領取(접수, 수령)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3,600개 일본어: 66,300,000개 중국어: 20,100,000개

수취인(受取人) ⇐ 受取人(うけとりにん uketorin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宜矯電郵未傳之弊] 京鄉間送受電信이 每因住所姓名之不分明하야 滯而不傳者 | 不一以足하니 電信要送時에 受取人之住所姓名을 詳記함이 自是例也어늘(1901년8월2일 2면1단)

▶의미: 받는 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渋沢栄一<立会略則>(1871)爲替会社「多数の爲替を取組し時は其宛る所の出張会社へ急郵便を以て報知し、受取人到着の節日限通本金渡し方取計ひ」

▶의미: 서류 물건 등을 받는 사람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서류나 물건을 받는 사람. ‘받는 이’로 순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도록 어음이나 수표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

일본어: 『大辭林』 うけとりにん【受取人】 郵便物・金品・書類などを受け取るべき人(우편물 금품 서류 등을 받아야 할 사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8,000개 일본어: 8,1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타(手打) ⇨ 手打ち/手打(てうち teuc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26면 생활/문화>[쓴맛 단맛 KOREA] 3일에는 아마추어 골퍼 제이슨이 1박2일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손으로 면발을 뽑는 수타(手打) 자장면 만들기에 도전한다(1997년6월3일)

▶의미: 손으로 만듦.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歌舞伎・吉田兼好鹿菴筆>(1699) 二「此中百性共が新そばのこをくれた、手うちをいたしてしんぜふと」

▶의미: 손으로 직접 만듦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 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90년대 이후 쓰인 말로,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늘 ‘수타면’ ‘수타국수’ ‘수타자장면’처럼 조어 성분으로 사용된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없음

일본어: 『大辞泉』 てうち【手打ち】 そば・うどんなどを、機械を使わないで手で打って作ること(국수나 우동 등을 기계가 아닌 손으로 만드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200개 일본어: 3,2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수하물(手荷物) ⇨ 手荷物(てにもつ tenimo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日本巡遊會計劃豫定] 一會員의 旅裝은 韓裝과 洋裝을 不問히되 簡略을 務從하고 暮春을 適際히야 遊覽에 最可한 時節이니 普通春期行裝으로하고 手荷物は 瀛車瀛船의 制限에 過한 運賃은 自辦으로함 會員은 特別한 待遇를 受할 時가 多히니 禮裝一件을 携帶함이 必要함(1908년4월3일 1면5단)

▶의미: 손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坪内逍遥<内地雜居未来之夢>(1886)七「おのれはちと計の手荷物(テニモツ)あるのみ.さる大なる行李としてはなし」

▶의미: 여객이 여행에 필요한 소지품으로서 휴대하는 물품.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손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짐. ‘손짐’으로 순화. 기차 편에 손쉽게 부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짐.

일본어: 『大辞林』 てにもつ【手荷物】①手で持ち運ぶ荷物(에 들고 운반하는 짐) ② 旅客が手
回り品として持ち運ぶ荷物(여객이 가까이 두고 쓰는 소지품)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90,000개 일본어: 975,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순번(順番) ⇨ 順番(じゅんばん jyunb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第七條 電話開通の順序に加入請願登記の順番に依る(1908년9월
30일)

▶의미: 차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文明本節用集>(室町中)「巡番ジュンパン」

▶의미: 순서. 윤번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차례대로 돌아가는 번. 또는 그런 순서. ‘차례’로 순화. 순서대로
매겨지는 번호.

일본어: 『大辞林』 じゅんばん【順番】 ある配列にしたがって、次々にその事に当たること。ま
た、その配列(어떤 배열에 따라 차례차례로 그 일을 맡게 하는 것. 또는 그러한 배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8,600개 일본어: 46,6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승강장(昇降場) ⇨ 昇降場(しょうこうじょう shookooj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청춘 제1호> 昇降場에는 電燈이 낮갓히 밝고(1914년10월3일)

▶의미: 타는 곳.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국립공문서관 陸軍省大日記類>[10月1日 宮内省書記官 太政官新築等落成に伴う車寄
昇降場所変更の通知]一第千六百四十号 太政官新築並当省増築中御事寄昇降以要今般事業
落来ニ付来ル五日ル後新築当関ヨリ致昇降候条為後四得此段及御通致候也 十月一日 宮内
省書記官 各省宛(1878년10월1일)

▶의미: 타는 곳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플랫폼(platform)의 옛 일본어로, 오늘날
일본에서는 ‘昇降場’을 ‘しょうこうじょう’로 음독하기보다 ‘プラットフォーム’과 같이

영어 원음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정거장이나 정류소에서 차를 타고 내리는 곳. ‘타는 곳’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에 표제어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2,800개 일본어: 1,3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승차권(乗車券) ⇨ 乗車券(じょうしゃけん jyoosyake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329호 法律第六號 私設鐵道條例>第十七條 鐵道事務에關하야往復
하는官吏는無賃으로乘車케하되其官吏에게는便乘或常乘車券을交付할事(1905년12월21일)
▶의미: 승차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국립공문서관 陸軍省大日記>[台湾]第一号 台湾守備歩兵第五連隊交代帰還員打狗出帆
ノ件 第二号 江口歩兵少尉外一名結婚願ノ件 第三号 乗車券等配付方ノ件(1896년)
▶의미: 차표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차표

일본어: 『大辞林』じょうしゃけん【乗車券】鉄道やバスに乗るための切符(철도나 버스를 타러
면 필요한 표)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000개 일본어: 684,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승환(乗換) ⇨ 乗換え/乗換(のりかえ norika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山陽線海陸案内] 山陽鐵道는 日本의 中央部와 九州及四國間을 聯繫되
는 主要의 幹線이고 (중략) 其中 上下各一輪車는 東京新橋과 馬關間을 直通하야 七百餘哩
間一の 乗換을 要하지 아니하야 特히 馬關에서 釜山來往의 連絡船의 接續이 있고 右에
關하야 온것 至便한 法을 設하얏스니 船車彼此의 連絡은 安全便利라(1905년11월3일 1
면4단) <개벽 제21호 세계일주, 산 넘고 물 건너(3)>夫人끼서는 금빛한 빠스케트에 샌드
위치와 케익과 果物を 가득하게 장만하야 주셨다. 우리는 電車を 타고서 한참 나가다가
乗換도 두어번 한 後에 턱 내려서는 거기가 金門公園이라고 일너졌다(1922년3월1일)
▶의미: 갈아타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국립공문서관 防衛省防衛研究所 海軍省公文備考類>[28年5月17日 電報 威海丸故障
の件] 電報 五月十七日午後四時三十分旅順發 十八日午前六時着 大本營 旅順 征清大總

督 威海丸出帆ニ臨ミ故障出来タルヲ以テ横浜丸ニ乗換ヘ明十八日当地ヲ出帆ス(明治28年5月17日)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으며 어순을 도치시킨 ‘환승(煥乘)’이 사용된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목적지에 가기 위하여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으로 바꾸어 타는 일. ‘갈아타기’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のりかえ【乗換え】 別の乗り物に乗りかえること(다른 탈것에 옮겨 타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80개 일본어: 11,6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시계(時計) ⇨ 時計(とけい toke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內國近事[日本官報의 朝鮮貿易經緯表] 內國近事○금 양력 1월 29일 國內 수출입 상품의 價格 . 置時計와 掛時計類 26圓60錢(1884년5월15일)

▶의미: 시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浮世草子・日本永代蔵>(1688)五・一「昼夜の枕にひびく時計(トケイ)の細工仕掛置しに

▶의미: 시계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시간을 재거나 시각을 나타내는 기계나 장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辭泉』 とけい【時計】 時刻を知り、また時間を計るのに使う器機。(시간을 보기 위해서 또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시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钟表(시계)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57,000개 일본어: 233,000,000개 중국어: 12,000,000개

시말서(始末書) ⇨ 始末書(しまつしよ shimatsusy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7호 民刑訴訟에關한規程> 條 檢事는死刑을除한外에上訴期間이經過한後에公判罰의執行을命하여야此에立會함이可함又裁判所書記는其執行始末書를作함이可함(1895년5월1일)

▶의미: 경위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形法附則>(1881) 三条「死刑の執行畢りたるときは書記其始作り」

▶의미: 법률에서 사건의 일부 시종을 기재하여 위에 올리는 서면.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 ‘경위서’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しまつしよ【始末書】 事故を起こした者が, その報告や謝罪のために, その間の事情を記して提出する文書. 始末書き(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보고나 사죄를 위해서 그 동안의 사정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문서)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0,600개 일본어: 1,31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시사(示唆) ⇨ 示唆(しさ shis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한흥학보 제2호 現代 靑年은 如何한 目標로 前進할가> 國家英雄으로 標的物을 作定함은 畢竟 個人個人の 嗜好에 由하야 決코 外部로 左左右右의 魔柄을 能執히지 못하느
或時 示唆의 效果는 奏하니 若專是飽暖에만 穩棲하느 類輩는 「朽木不可彫也」 | 라(1909년4월20일)

▶의미: 암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국립공문서관 陸軍省大日記類>[5 より旅費支給方之義伺] 旅費支給方之義ニ付伺 本年達乙第九拾七号を以臨時出張仮規則御発令示唆達乙第百三拾号公布征討ニ関不関ヲ不問旅行スル者(1877년10월)

▶의미: 어떤 것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줌. ‘귀뜸’ ‘암시’ ‘일러 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しさ【示唆】 それとなく物事を示し教えること(자연스럽게 어떤 것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犹启示(계시하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58,000개 일본어: 16,800,000개 중국어: 21,800,000개

시합(試合) ⇨ 試合(しあい shi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擊劔供覽의 準備] 警視廳巡查等은 來十五日午後一時부터 德壽宮內庭에서 擊劔會를 設히고 勇壯한 試合을 行하야 太皇帝陛下의 御覽에 供하기로 準備中이라더다 (1910년1월14일 2면1단)

▶의미: 겨루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葡辞書』(1603) 「Xiaiuo(シアイヲ) スル<訳>ある人が他の人と劔の試合をする」

▶의미: 겨루는 것. 무예 경기 등에서 기술의 우수함을 경쟁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운동이나 그 밖의 경기 따위에서 서로 재주를 부려 승부를 겨루는 일. ‘겨루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しあい【試合】 スポーツ・武術などの技を比べ合い勝敗を競うこと(스포츠나 무술 등 기술을 겨루어 승패를 다투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190,000개 일본어: 134,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식부(植付) ⇨ 植え付け/植付(うえつけ uetsuk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177호 彙報 勸業模範場(水原)>本場水稻의植付는 六月二十日에始하야 七月四日에終하야此間に三回の降雨가有하야雨量이七十二耗二를量함(1908년9월15일)

▶의미: 심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俳譜・夢太句集>(1769) 夏「植つけの田づら見て来る団扇(うちは)哉」

▶의미: 식물의 묘목을 옮겨 심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으며 식부면적(植付面積)처럼 복합어의 구성 요소로 쓰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나무나 풀을 심음. ‘심기’로 순화. 모내기.

일본어: 『大辞林』 うえつけ【植え付け・植付け】 苗や苗木を植えること(모종이나 묘목을 심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220개 일본어: 668,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식비(食費) ⇨ 食費(しょくひ syoku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勅令第六十一號 公使館領事館費用令> 第二十二條 官船或官傭船으로旅行하는者가食費를要치아니하는時는前條日費의半額을給함(1895년3월26일)

▶의미: 밥값.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外務省記録>[工部省]製造所之通学罷在候处此程一時退宿ニ付其寄宿中食費等償還之儀本人より申入候处不及其儀旨御答之趣ニ付其俣引取候由(1881년5월14일-9월3일)

▶의미: 식사를 하기 위한 비용, 경비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먹는 데 드는 돈. 식대. ‘밥값’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しょくひ【食費】 食事にかかる費用(식사에 드는 비용)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800개 일본어: 8,82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식상(食傷) ⇨ 食傷(しょくしょう syokus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53호 붉은 쥐(未定稿)>현대인(現代人)의 모든 재앙(災殃)은, 이 문명병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모도들 식상(食傷)했다. 단단히 식상했다. 그러타, 포식(飽食) 폭식(暴食)한 여독(餘毒)으로 가는 곳마다 식상한 사람의 얼굴이 우물우물하다(1924년11월1일)

▶의미: 싫증 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雑俳・柳多留-九六>(1827)「郡廓の里にすむ摸喰しょふし」

▶의미: 같은 음식을 먹어서 질리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같은 음식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물리거나 질림. ‘싫증 남’으로 순화. 음식에 의하여 비위가 상하는 병증

일본어: 『大辞林』 しょくしょう【食傷】 ①同じ物を食べ続けたり, 同じ事が続いてあきること (같은 것을 계속 먹거나 같은 일이 계속되어 질리는 것) ②食あたり(식중독)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1,000개 일본어: 1,580,000개 중국어: 1,980,000개

신립(申立) ⇨ 申立(もうしたて mooshitat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 한국** <皇城新聞> [트란스발 事와 英國經濟]英國政府와 트란스발 政府는 互相異議를 申立하고 且戰爭準備를 不怠하니 今에 戰端이 實開할지도 測키 難하다 故야 倫敦의 金貨價値가 騰貴하고 英蘭銀行은 美國에 金塊輸出을 防止하고 且正金을 吸收하기에 盡力하는데 但 英國自由黨은 非戰主義를 唱하더라(1899년9월27일)
- ▶의미: 신청. 아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 일본** 渡部温訳<伊蘇普物語(1873)七七「そのとき席上において種々の献策ありて、夫々詮議を遂げられたれど」,<民事訴訟法>(1926) 三六条「除斥の原因あるときは裁判所は申立に因り又は職権を以て除斥の裁判を為す」
- ▶의미: 내세워서 말하는 것. 강조해서 말하는 것.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재판소에 일정한 주장을 포함한 특정 소송 행위 등을 요구하는 것.

-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개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사 표시를 함. 또는 그런 일. ‘신청’ ‘아림’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もうしたて【申し立て・申立て】 ①申し立てること(주장하는 것) ② 裁判所や行政機関に対して、一定の行為を求める意思表示(재판소나 행정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770개 일본어: 18,3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실인(實印) ⇨ 実印(じついん jitsu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131호 第五號書式> 四 納付 竝際 實印을 携帶 해야 本證을 提出 하고 其月 日 量目、根數、賠償金 還付 根數의 記入을 受 함이 可 함(1908년7월21일)
- ▶의미: 도장.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 일본** <東京日日新聞>(1882.3.25)「実印を狼(みだ)りに他人に預け、又預るはにて」
- ▶의미: 중요한 서류를 압인해서 책임을 지는 인감

-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인감 증명을 내어서 관청에서 인정한 인감도장.

일본어: 『大辞林』 じついん【実印】 あらかじめ居住地の市区町村長に登録し、必要に応じて印

鑑証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個人の印章(미리 거주지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필요할 때 인
감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인감)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06,000개 일본어: 2,1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십팔번(十八番) ⇨ 十八番(じゅうはちばん jyuhachiban/おはこ ohak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2면사회면>[世界の 尖端가는 大韓의 美容秘訣] 어째든 金嬢은 이와같은 美
容의 秘訣으로써 世界를 놀라게 해놓고 落選되자 遠路에 일부로 가지고 갔던 音盤을 틀어
놓고서 또 한번 得意의 十八番춤을 추고선 拍手喝采를 받았다니(1955년7월29일)

▶의미: 단골 장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人情本・春色江戸紫>(1864頃) 三・一四回「例の十八番を言ってりやア<略>唯余所(よ
そ)の咄にして仕舞ひまはアナ」

▶의미: 사람의 가장 특기인 것. 특기인 예능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일본의 유명한 가부키 집안에 전하여 오
던 18번의 인기 연주 목록에서 온 말이다. ‘단골 노래’ ‘단골 장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じゅうはちばん【十八番】 最も得意とする芸。いちばん得意な事柄。おはこ
(가장 잘하는 재주. 가장 자신 있는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9,000개 일본어: 3,72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씨명(氏名) ⇨ 氏名(しめい shime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內部令第二十六號]所定한 式樣紙에 事項을 記入하고 其氏名을 記한 明告
書에 調印差出할지오(1899년10월2일 1면3단)

▶의미: 성명.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刑法>(1880)二三一条「官署に対し文書又は言語を以て其属な籍身分氏名年齢職業を詐称
したる者」

▶의미: 씨족과 이름 뜻, 성과 이름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성과 이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성명(姓名)’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しめい【氏名】氏と名(성과 이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6,100개 일본어: 49,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아】

압수(押收) ⇨ 押收(おうしゅう oosy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독립신문 잡보> [비상스건]비상 스건) 대한에 주차흔 일본 림시 디리 공스 일치씨가 六월 四일에 히국 정부에 보고 헝기를 한국 정부에서 싱삼 압수押收 혼 것과 황해도에서 방곡 혼 등스에 대 햏야 손히 비상금 밧아 분비分配 햏엿다 햏엿논디 돈이 三千三百三十三원 三十三전 二리라 햏엿더라(1899년6월30일 4면1단)

▶의미: 압수. 압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木下尚江<火の柱>(1904) 序に代ふ「警吏は令状を携へて平民社を叩けり、厳達して日く『嗚呼(ああ) 増税』の一文、社会の秩序を壊乱するものあり依て之を押収(アフシウ)すと」

▶의미: 재판소나 수사기관 등이 증거물 혹은 몰수한 물건을 점유 확보해둔 처분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 ‘거둬 감’으로 순화.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음.

일본어: 『大辞林』 おうしゅう【押収】 裁判所や捜査機関が証拠物や没収すべき物を占有・確保すること(재판소나 조사기관이 증거물이나 몰수해야 할 물건을 점유하거나 확보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3,400개 일본어: 25,7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애자(碍子) ⇨ 碍子(がいし gai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商標法施行細則>第十八類 理化學、醫術、測定、寫眞、教育用 의器械器具、蓄音機、眼鏡、算數器類及其各部 電信機、電話機、電氣開閉器、電池、試驗管、外科用器械、度量衡器、感光膜、製圖器、體操用器具、望遠鏡、顯微鏡、被覆電線、電氣絶縁用碍子、電氣器械器具用炭素等(1909년11월20일)

▶의미: 절연체 도구.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逋信省編<逋信史要(1898)> 二・四・八「電信線に用ふる碍子は電信創業の際には概ね外国製のものにして」

▶의미: 송배전용의 전선을 지지하기 위한 도자기제나 합성수지제의 절연기구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전선을 철탑 또는 전봇대의 어깨쇠에 고정시키고 절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지물. 사기, 유리, 합성수지 따위로 만든다.

일본어: 『大辞泉』がいし【碍子】電線を支持し絶縁するために、電柱や鉄塔に取り付ける絶縁体の器具(전선을 지탱하고 절연하기 위해서 전주나 송전탑에 설치하는 절연체 도구)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300개 일본어: 488,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야도(夜盜) ⇨ 夜盜(やとう yat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삼천리 제8권제1호 三百萬名 사는 上海 最近의 모양은 엇더한가>今年 7월 1개월간 범죄사건을 조사한 바, 犯罪, 1,393件 檢舉한 數 1,272名 살인 3件 살인미수 2件 자살 41건 過失致死 1건 誘조事件 3건 持兇器強盜 27 夜盜 25건 家宅侵入 29건(1936년1월1일)

▶의미: 도둑.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文明本節用集>(室町中)「夜盜ヤタウ盜賊義」

▶의미: 밤이 되면훔치는 일을 하는 것. 혹은 그런 사람. 밤의 도적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밤을 타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 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 ‘도둑’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やとう【夜盜】夜,物を盗むこと.また,その人(밤에 물건을 훔치는 것. 또는 그런 사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41,000개 일본어: 5,0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야맹증(夜盲症) ⇨ 夜盲症(やもうしょう yamoos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광 제22호 最新科學의 發達>비타민A. 야맹증, 眼乾燥症은 비타민 A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병이다. 그밖에 비타민A가 부족하면일반으로 신체의 발육이 불완전하고 기생충이 잘 생기며 담석, 신석, 방광석이 생기기 쉽다한다(1931년6월1일)

▶의미: 어두운 것에서는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증상.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現代術語辞典>(1931)「夜盲症 光神が減るために生ずる病」

▶의미: 밝은 데서는 시력이 좋지만 어두운 것에서는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상태

중국 <増广英字指南>卷四(영문 지식 넓히기 입문서) 1879年

▶의미: 一种病。症状是在夜间光线弱的地方视力很差(일종의 병. 밤에는 사물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증상)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망막에 있는 간상체의 능력이 감퇴하여 밤에는 사물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증상. ‘밤소경’ ‘밤소경병’으로 순화. ㄴ야맹(夜盲).

일본어: 『大辞林』 やもうしょう【夜盲症】 網膜にある桿状体の働きが低下したため, 薄暗くなると物が見えにくくなる状態。(망막에 있는 간상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증상)

중국어: 『汉语大词典』 眼病名。俗称“雀瞽”，又称“雀盲”。因缺乏维生素A而使视网膜上的视紫质减少所引起(눈 병의 일종. 후천적으로는 비타민 A의 결핍으로 일어난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200개 일본어: 1,870,000개 중국어: 2,740,000개

약속(約束) ⇨ 約束(やくそく yakuso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學部刊本<國民小學讀本 第八課 書籍> 一日은 그 三子를 불너 갓가히 안치고 일으기를 汝等 中에 自今으로 三個月 동안에 人事 中에 最善한 일을 行하는 者ㅣ 잇시면이 櫃를 주리라 約束을 ㅎ앗더니 一日은 그 長子ㅣ 老人을 對하야 曰(1895)

▶의미: 속.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聖德太子伝暦>(917頃か) 下・孝徳天皇元年「成二婚姻之眠や相通謀し事。以為二内扶.約束已訖」

▶의미: 어떤 사물에 대하여 미리 정해놓고 앞으로 그것을 변하게 하지 않겠다고 서로 맹세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둬.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ㄴ권약.

일본어: 『大辞林』【約束】① 当事者の間で決めること。また、その決めたこと(당사자 간에 결정하는 것. 또는 그렇게 정한 사항) ② ある社会・組織などで、あらかじめ決められていること(어떤 사회나 조직에서 미리 결정되어 있는 사항. 규칙. 룰)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73,000개 일본어: 103,000,000개 중국어: 98,000,000개

양도(讓渡) ⇨ 讓渡(じょうと jyoot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法律第三號 鑛業法> 第二十條 鑛産稅는前年條를每年三月中에捧納함이可함但鑛業權의消滅若讓渡는境遇에는即納함이可함이라(1906년7월12일)

▶의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徴古雜抄.元久二年>(1205)三月一八日・僧定西讓狀「讓与、家地事<略>右件家地者、僧定西之相伝私領、而今依レ為二年来夫妻 永遠所し讓二渡陸常殿一也者」

▶의미: 권리 재산 법률상의 지위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넘겨주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じょうと【讓渡】權利・財産・法律上の地位などを他人に譲り渡すこと(권리 재산 법률상 지위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는 있으나 의미 다름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76,000개 일본어: 1,640,000개 중국어: 11,500,000개

양생(養生) ⇨ 養生(ようじょう yoojyo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3편 邦國의權利> 人이知識이無호면則遠慮가必無호고遠慮가無호면則目前의慾을遂호야其惡行의不至호는배가無호니養生호는法을不知호며節用호는意를不知호며(1896)

▶의미: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건강관리를 잘하여 오래 살기를 꾀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明衡往来>(11C 中か) 下本「一思二李老止足之誠二尋二松子養生之術.而未レ及二懸車之年齡一」,<玉葉治承五年>

▶의미: 몸을 잘 보호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건강관리를 잘하여 오래 살기를 꾀함. ≡ 섭생(攝生)·섭양(攝養)·양수(養壽). 병의 조리를 잘하여 회복을 꾀함.

일본어: 『大辞林』 ようじょう【養生】① 健康を保つこと. 摂生(건강을 유지하는 것. 섭생) ② 病氣やけががなおるようにつとめること(병이 들거나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摄养身心使长寿(몸을 잘 보양하여 장수하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0,700개 일본어: 64,000,000개 중국어: 280,000,000개

양식(樣式) ⇐ 様式(ようしき yooshi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20편 佛蘭西의諸大都會 巴里> 盖佛蘭西國中綾羅錦繡美麗奢豪의風流諸品
과各種新製하는樣式이此地를從히야多出히니府下居民이皆殷富하다謂히더라(1896)

▶의미: 서식.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中村正直訳<西国立志>(1870)五・二七その剖開して聚貯せし様式 二万の大数に至れ, 竹
山道雄<砂の上にて>

▶의미: 형태나 모습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 ‘서식’으로 순화. 포맷 ○오랜 시간이 지나
면서 자연히 정하여진 방식.

일본어: 『大辞林』 ようしき【様式】①かたちや様子. 同類のものの中に共通の, 一定の形式・
やり方(형태나 상황. 같은 종류 간에 공통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 ② 芸術作品・建築
物などで, ある時代・民族, また流派などの中にみられる, 特徴的・類型的な表現形式(예
술작품이나 건축물 등에서 어떤 시대 민족 또는 유파 등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나 형태
적 표현형식)

중국어: 『汉语大词典』 形式(형식)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02,000개 일본어: 14,700,000개 중국어: 113,000,000개

양자(陽子) ⇐ 陽子(ようし yoo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4면> [放射能에 對하여] 그런데 原子核은 陽電子를 띤 陽子와 電氣를 띤
있지 않은 中性子が 結合해서 되어있다(1955년2월11일)

▶의미: 양성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武田泰淳<媒花>(1952) 三「そこには宇宙線の胎内を物凄いスピードでグルグルと廻転す

る、陽子や電子やニュートロンの如く」

▶의미: 원자핵을 구성하는 소립자의 일종.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 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양성자. ‘양성자’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ようし【陽子】素粒子の一。質量数一の水素の原子核。記号 p(소립자의 하나. 질량수1인 수소의 원자핵. 기호p)

중국어: 『汉语大词典』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4,000개 일본어: 26,400,000개 중국어: 7,290,000개

양체(兩替) ⇨ 兩替(りょうがえ ryooga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每日申報> [兩替店에 강도 돈을 빼앗고도망히] 안동현 시장통구덩목삼번디『安東懸市市長通 九丁目三蕃地 지나인놏밭구논 가가에서 십일오후 팔시경에 주인마곡림『馬曲林』이가 장부를 계산으논중에 삼명의 지나인이 들어와서 돈을밧구어달나흠으로 돈을 셰이라 혼 지음에 셰명의지나인은 류혈포들디어디이고 협박후후 현금약일믹필십원을 강탈하야가지고 어두운속으로 몸을감추어 지나시 가방면으로 다라났논디 이급보들접흔 안동경무서에 서논 비상소집을흐고 범인을 추적하앗스나 맞침니종적을 찾지못하앗더라 『안동현시보』 (1920년1월19일 3면7단)

▶의미: 환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多聞院日記>(1592) 八月三〇日「兩替・金借兩方乳決して」,<浮世草子・西鶴織留>(1694) 二・一「彼目貫を兩がへして、買掛のかたへすこしづつ渡して」

▶의미: 금은과 동전 등을 다른 종류의 화폐로 바꿔주는 것. 혹은 그런 사람이나 가업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 없음.

일본어: 『大辭林』 りょうがえ【兩替】ある種の貨幣を他の種の貨幣と取り替えること(어떤 종류의 화폐를 다른 종류의 화폐로 바꾸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83개 일본어: 19,5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어분(魚粉) ⇨ 魚粉(ぎょふん gyohu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咸北鱸粕으로 調味料製造 販路는 廣汎할 듯] [羅南]清津依藤清人氏は 얼마
前부터 研究하던바 鱸粕으로 食料魚粉을 製造하여 지난 二十五日に 道當局에 製造許可
手續을 完了하고 營業을 開始하리라는데 그 販路는 日本内地中國을 主로할 豫定이요
用途는 各 料理에 調味料로 가장 有望視된다(1932년5월30일 3면6단)
▶의미: 생선가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開高健<青い月曜日>(1965.67) 二・海へいく「ドラム磯、魚粉の紙袋など、さまざまな物
が高い天井までギッシリとつまって」
▶의미: 어류를 건조시켜서 만든 분말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생선가루. ‘생선가루’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ぎょふん【魚粉】⇒ フィッシュミール(어분. 피쉬밀)

중국어: 『汉语大词典』 鱼类粉状加工品(물고기를 찌거나 말리어 가루로 뿜은 가공품)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J→K / 일제 때

한국어: 8,130개 일본어: 1,130,000개 중국어: 8,420,000개

어획고(漁獲高) ⇨ 漁獲高(ぎょかくだか gyokakudak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新水産稅則] 四月一日부터始々라는 韓日兩國水産稅則은 目下統監의承認을得
히려고周旋中인데其稅率은免許漁業에對하여漁獲高의百分、許可漁業届出漁業에對하여는
年額十五圓以上五十圓以下라더라(1909년2월6일 1면6단)
▶의미: 어획량.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報知新聞>(1904) 四月九日「樺太に於ける<略>昨三十六年度の漁獲高は<略>本邦人漁獲
分十一万三千六百三十九石八斗三合(此價格百十九万二千四百四円六十二錢)」
▶의미: 어획물의 양 혹은 그것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 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한 수량. 또는 그 가격의 총량. ‘어획량’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에 표제어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92개 일본어: 2 61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언도(言渡) ⇨ 言渡し/言渡(いいわたし iiwata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협회회보 제2호 官吏의 民事責任> 同法 第十四條에 曰「被告人이 無罪라는 言渡를 受へん 時에도 判檢事 書記의게 對へん 要償의 訴를 不得へ고(1908년5월25일)

▶의미: 선고.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ロドリゲス日本大文典官>(1604) 「シタジタノモノニカタウユウテライタ、または iyvataita(イイワタイタ)

▶의미: 명령 결정한 처분 등을 보고하다. 선고하다.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선고

일본어: 『大辭林』 いいわたし【言渡し】 言い渡すこと(선고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29,000개 일본어: 38,8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연돌(煙突) ⇐ 煙突(えんとつ ento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學部刊本<國民小學讀本 第三十課 氣息 二> 불이 燃へん 잇슬 찌는 미양 酸素를 多量히 要へん 如此히 酸素를 取へん 卼 불이지어 니는 것시 곳 炭酸瓦斯 | 나라 불이 지어니는 炭酸瓦斯는 煙과 긋치 煙突로 싸져 나가게 へ되 스름이 지어니는 炭酸瓦斯는 그 房 中으로 드리게 되느니라(1895년)

▶의미: 굴뚝.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久米邦武<米欧回覽実記>(1877) 一・三「此岸に二字の大癖舎(ながや)あり、煉火石をもつて築ける場屋にて、高大なる煙突を起す」

▶의미: 연기를 공중에 배출시키는 연료의 연통소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통풍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煙突) 불이 따라 들어가거나 지나는 길. 굴뚝.

일본어: 『大辭泉』 えんとつ【煙突】 1. 燃料を燃焼させるための通風の役をし、その際に発生する煤煙(ばいえん)を空中に排出するための筒状の設備。けむ出し(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한 공기를 공급하고 발생하는 매연을 공기 중에 배출하기 위한 관 형태의 설비)

중국어: 『汉语大词典』.亦作“烟突”(굴뚝)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15개 일본어: 235,000개 중국어: 16,400,000개

여비(旅費) ⇨ 旅費(りょひ ryo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8편 第六 國家의防備하는事> 領事를派寅하기는人民의商利를保護함이니其往來하는旅費와公用하는祿俸은國中의公本된賦稅로以하는者는其道가實狀全局에關係함이有하고又省費되는緣故가存함이라(1896)

▶의미: 여행에 필요한 비용.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読本・春雨物語>(1808) 奨贈・下「物あらばくはせよ、旅費あらば置いてゆけ」

▶의미: 여행에 필요한 비용.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여행에 드는 비용. ‘노자(路資)’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りょひ【旅費】旅行の費用(여행 비용)

중국어: 『汉语大词典』旅行或旅居所需的费用(여행이나 숙박하기 위한 비용)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6,900개 일본어: 5,280,000개 중국어: 11,700,000개

역할(役割) ⇨ 役割(やくわり yakuwa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39호 클라르테運動의 世界化>서루 관련해서 일러나는 모든 종류의 사건과 흔히 하는 말의 위대한 抗議者의 공연하게 詰問하는 그 倣岸한 부정의 사이에는 참된 접촉점이 없다. 단순히 도덕가 비슷하게 출연하는 약구와리(役割)는 부정적이다(1923년9월1일). <개벽 제65호 轉換期の 世界>지금에는 오히려 一個年 2억 푸트의 수출에 달한다 하는 바 계획 중에 있는 農業 電氣化의 실현이 不遠에 되면문득 米國을 능가하여 大農産國으로 무산 계급 혁명의 兵站部가 되야, 식량 공급의 역할을 引受하게 될 줄로 믿는다(1926년 1월1일)

▶의미: 구실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浄瑠璃・夏祭浪花鑑>(1745) —「きのふの役割(ヤクワリ) 憐(おのれ) 酔(ゑふ) て覚へぬな」

▶의미: 연극 등에서 각각의 역할을 나누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은 바 직책이나 임무. ‘구실’ ‘소임’ ‘할일’로 순화. 역(役)

일본어: 『大辞林』 やくわり【役割】 ①役目をそれぞれの人に割り当てること。また、割り当てられた役目(역할을 각자에게 할당하는 것 또는 할당된 소임) ②集団内の地位に応じて期待され、またその地位にあるものによって学習される行動様式. 社会的役割(집단내의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또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배우게 되는 행동양식. 사회적 역할)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27,000개 일본어: 53,9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연면적(延面積) ⇨ 延べ面積/延面積(のべめんせき nobemense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2면>[新裝한 京城驛] 널분 마당에서 수발제(修發祭)를 지내고 십사일 오후 한시부터 다섯시까지는 덩거당내부를 일반 사람에게 공개를 한답니다 건물의 연면적(延面積)은 일만칠천이백륙십구평방 "메돌"인데 본관 디게 면적(地階面積)만이(1925년10월8)
▶의미: 총면적.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의미: 건물의 각 층의 면적의 총합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 '총면적'으로 순화. ≒ 연건축면적.

일본어: 『大辞林』 のべめんせき【延べ面積】 建物各階の床面積を合計した面積(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82,000개 일본어: 935,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연와(煉瓦) ⇨ 煉瓦(れんが reng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234호 軍部令第三號 工事都給及物品購買規程>第四條 議政府令第三號第一條第四特殊의物質又는特別使用에係함을因하여生産 三 鎔解爐用의耐火煉瓦及坩堝가製造場所에有限한者(1905년9월2일)
▶의미: 벽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村田文夫・山田貢一郎訳<西洋家作雛形>(1872) 一・三「鑄形造の壁を築くべき基礎は、石又は煉化にて築き上げること」

▶의미: 벽돌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하여 틀에 박아서 600~1,100℃에 구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려 틀에 박아 낸 네모진 건축 재료. ‘벽돌’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れんが【煉瓦】粘土に砂・石灰などを加え，型に入れて窯で焼き固めたもの (점토에 모래나 석회 등을 더해 반죽한 후에 틀로 모양을 만들고 가마에서 구워낸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130개 일본어: 1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연인원(延人員) ⇨ 延べ人員/延人員(のべじんいん nobejin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九月一日爲始 清津의 築港工事 朝鮮勞働者使用 延人員八十萬名] 其使用比例는 朝鮮人十人에대하여 支那人一人으로使用決定이며一日支那人使用最多의境遇는七十人으로本年九月一日부터 大正二十一年三月三十一日까지에延人員八萬人을使用한다 하니朝鮮人の使用延人員은此其間に八十萬人에模樣이라더라(1926년8월25일 2면7단)

▶의미: 총 인원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逋信省編<逋信史要>(1898) 三・一・三「各年度に於て発売せし 定期乗車券及其乗車延人員は左の如し」

▶의미: 일에 사용된 인원. 가령 하루 동안 쓰였다고 한다면 그 일수를 인원으로 환산한 총 인원수.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 ‘총인원’으로 순화. ≡ 연인수·연인원수.

일본어: 『大辞林』 のべじんいん【延べ人員】何人かの人で何日かかかる仕事を，仮に1日で仕上げたものとして換算した総人数(몇 명의 사람이 며칠 걸리는 일을 가정하여 환산한 총인원수)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270개 일본어: 50,3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연착(延着) ⇨ 延着(えんちゃく encha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협회회보 제2호 官吏의 民事責任> 郵便 管理人の 怠慢을 因하여 郵便物 發送의

方向을 誤흡으로 延着을 致한 所爲와 電信 取扱者が 電文을 誤寫한 所爲와 土木技師가 技術上 規則을 遵守치 안이한 疎虞로 因하여 橋梁이 墜落하여(1908년5월25일)

▶의미: 시각보다 늦게 도착하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島崎金次郎宛大田南畝書簡-享和元年>(1801)七月中旬か「六月廿八日附之御状<略>漸十五日に延着」

▶의미: 예정의 기한 시각보다 늦게 도착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 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정하여진 시간보다 늦게 도착함. ‘늦도착’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えんちゃく【延着】 予定の期日や時刻より遅れて着くこと(예정한 기일이나 시각보다 늦게 도착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810개 일본어: 1,0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염료(染料) ⇐ 染料(せんりょう senr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日本官報의 朝鮮貿易經緯表] 其他染料와 彩料類 44998圖(1884.05.15)

▶의미: 염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久米邦武<米欧回覽実記>(1877) 二・二九「親和とは染料を布糸に染入らしむることにて」

▶의미: 섬유 등을 염색하는 색소가 되는 물질

중국 <职方外记>(직방외기)1623年

▶의미: 옷감 따위에 빛깔을 들이는 물질.能附着在纤维和其他材料上的有色物质.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옷감 따위에 빛깔을 들이는 물질. ‘물감’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сенりょう【染料】 色をもつ有機化合物で、水や有機溶媒に溶かして、繊維製品や皮革・紙などを染色する物質(색이 있는 유기화합물로 물이나 유기용매에 녹여서 섬유제품이나 피혁 종이 등을 염색하는 물질)

중국어: 『汉语大词典』 直接或经媒染剂作用而能附着在各种纤维和其它材料上的有色物质(직접이나 매염제의 작용으로 각종 섬유나 옷감따위에 부착되어 빛깔이 드는 물질)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520,000개 일본어: 26,000,000개 중국어: 38,000,000개

엽기적(獵奇的) ⇐ 獵奇的(りょうきてき ryookite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광 제39호 映畫時評, 「上海特急과」24時間> 中國은 資本主義 諸國에서 볼 것 같으면 가장 좋은 그리고 地球上에 남은 唯一의 被X取對象物이며 藝術製作의 世界도 또한 그 社會思想의 動向을 反映시키어 未知의 世界에 대한 獵奇的興味에서 오늘날까지 몇개의 中國的(?) 映畫를 製作하여 왔다(1932년11월1일)

▶의미: 엽기적. 괴기적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藤村作・千葉勉<現代語大辞典>(1932) りょうきてき獵奇的奇態や変った事を好みあさること

▶의미: 기이. 이상함을 일부러 찾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일이나 사물에 흥미를 느끼는. 또는 그런 것. '괴기적'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りょうきてき【獵奇的】怪奇・異常なものをあさり求めるさま(기괴하거나 이상한 것을 찾거나 추구하는 상태)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6,500개 일본어: 1,9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엽서(葉書) ⇨ 葉書(はがき haga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276호 外報 奧地利郵遞及電信統計라> 配送郵遞物の總數は八億四千三百十萬箇(前年七億五千八百十萬箇)に達し、此内書狀は五億二千三百三十萬、一億五千七百九十万、イオ印刷物及印札は八千二百九十万、イオ(1896년3월18일)

▶의미: 엽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郵便報知新聞>(1883) 二月八日「同地近在乙部村に寓する樋口禰門といふ名前にて藤三郎方へ左の端書が達したり」

▶의미: 우편엽서의 약어. 제2종 우편에 사용하는 일정규격 양식의 통신용지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엽서

일본어: 『大辞林』 はがき【葉書】 ①「郵便葉書」の略(우편엽서의 약어) ② 紙片などに書いた覚え書きや書類(종이쪽지에 쓴 메모나 서류)

중국어: 『汉语大词典』표제어는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0,700개 일본어: 5,020,000개 중국어: 145,000개

엽연초(葉煙草) ⇐ 葉煙草(はたばこ hatabak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日本明治三十二年度豫算概表] 文部新事業費要求에 應^へ 事^じ에 對^{たい}하^や 歲入^{さいにゅう}의 酒造稅增加、所得稅增加、葉煙草專賣、市街宅地稅增加賣藥稅等の 決定^{けつてい} 外^{ほか}에 陸軍繼續費二千三百萬圓과 電信擴張改良製鐵所費四百七十餘萬圓은 公債를 募集^{ぼしふく}하^ん다더라 (1898년10월4일 3면3단)

▶의미: 잎담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狂歌・銀葉夷歌集>(1679) 九「葉たはこを給はりたりし御礼は貴面のきざみ申すべくそろ」

▶의미: 채취해서 건조시킨 잎으로 된 담배.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잎사귀를 자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린 담배. ‘잎담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はタバコ【葉タバコ】收穫して乾燥を終えたタバコの葉。刻んでいない，葉のままのタバコ(수집해서 건조시킨 담뱃잎. 잘게 썰지 않은 잎 그대로 담배)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6,800개 일본어: 1,9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정치망(定置網) ⇐ 定置網(ていぢあみ teichiam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3면>[城津水产品 検査가 激増] 전년 동기에 일만팔천사백八十四개에 비교해 보면一만二백 八十四개의 증가로 二백七의 증수를 보았는데 증가를 본원인은 함북一월에 의한 풍어와 장치망(定置網)의 증설과 가격의 폭등에 의한 것이라는데(1935년1월20일)

▶의미: 정치망. 자리그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中野好夫<本拝見-稚内>(1957)「海岸近くに定置網(テイチアミ)というやつで坐して待っていれば」

▶의미: 어구 중 하나로 주요부가 그물로 구성되어 있는 망어구.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定置網)자리그물.

일본어: 『大辞林』 ていちあみ【定置網】一定の海域に数日間ないし数か月間敷設しておく網漁具(일정 해역에 며칠간이나 몇 개월 동안 설치해 두는 그물 어구)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06개 일본어: 196,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양갱(洋羹) ⇨ 洋羹(ようかん yook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濱口首相容態 大内에서 洋羹下賜【東京電】 우에서는首相病氣를致慰하옵시고
고자今後當分間『습』을下賜하옵실터이라고十八日분부가기웁쌌다(1930년11월20일 1면7단)
▶의미: 양갱.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御伽草子・酒茶論(古典文庫所収)>(室町末)「まんぢう、やうかん<略>かがせんべいに、
わらびもち」
▶의미: 녹나무의 일종 중국의 양고기의 뜨거운 국을 원재료로 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음.

일본어: 『大辞泉』 ようかん【羊羹】1. 棹物(さおももの)の和菓子の一(봉 형태인 일본 전통과자의 하나)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개 일본어: 45,2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용달(用達) ⇨ 用達(ようたつ yoota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360호> 請願의要旨는請願人은壬申年中(開國五百年)重建所에用達한
木材代金の支撥을請求함에在함지라(1909년4월26일)
▶의미: 상품이나 물건 따위를 전문적으로 배달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公文別録>[日清貿易其他資本貸下金融途否塞ノ廉処分方ノ件]物品輸送販売等ノ取扱ハ旧勸商局用達広業商会ニ命シ実施致シ爾後当省旧商務局管理ニ歸シ要スルニ
(1882년-1883년)
▶의미: 관청이나 회사 등에 상품을 납품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 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상품이나 물건 따위를 전문적으로 배달함. 또는 그런 일. ‘심부름’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ようたつ【用達】 官庁・会社などに商品を納めることまた、それをしている商人(관청이나 회사 등에 상품을 납품하는 것. 또는 그 일을 하는 상인)。また、それをしている商人。御用達(ごようたし)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700개 일본어: 13,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운임(運賃) ⇨ 運賃(うんちん unch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8편 第一 政府支用々々事>政府の大權을假借하고其人으로하여금家室의累와衣服의憂에心慮를費하면雖淺近한設譬나一駄의運賃을給하고十駄의運輸를求함과同하니 (1896년)

▶의미: 운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三代実録-貞觀一八年>(876) 三月九日「六国一年所し漕二運対馬嶋年粧穀二千餅.運賃并雜用析穀穎三万四千五十束」

▶의미: 운송요금. 화물이나 여객 등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하는 보수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운반이나 운수 따위의 보수로 받거나 주는 돈. ‘짐삿’ ‘차삿’으로 순화. ≒운송료, 운송비, 운송임.

일본어: 『大辞林』 うんちん【運賃】 人が乗り物に乗るとき、あるいは貨物輸送を依頼するときに払う費用。特に、交通機関・タクシーなどでは輸送距離に応じた料金をいう(탈 것을 이용할 때나 화물수송을 의뢰할 때에 지불하는 비용. 교통기관이나 택시 등은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지불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7,000개 일본어: 18,2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운전수(運轉手) ⇨ 運轉手(うんてんしゅ untensy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叙任及辭令> 任關稅局運轉手叙判任官一等 稻葉長喜(1908년3월5일)

▶의미: 운전기사.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문서>御署名原本・明治二十九年・法律第六十八号・船舶職員法制定西洋

形船舶長運転手機関手免状規則及明治十三年第二十八号布告(海軍非職准士官以上依頼ニ
応シ西洋形船舶ノ乗組員ト為ル者ニ関スル件) 廃止(1880)

▶의미: 교통기관의 운전제 종사하는 사람.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운전사'를 낚잡아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辭林』 うんてんしゅ【運転手】 電車・自動車などの運転をする人(전철이나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6,100개 일본어: 2,6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원금(元金) ⇨ 元金(がんきん gank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10편 貨幣의大本> 政府가元金の貯蓄に無き고紙幣の發行이太過き야人民이
不信き故로其價가日로低下き는勢를催き야紙四十枚金一을換き기도不能き境에至き더니
其後良法으로漸濟き야今日の富盛き基業을立홈이라(1896)

▶의미: 본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中村正直訳<西国立志編>(1870)七・四「四年の後に元金を出すもの、二十人集まりて、一
会社立たり」,幸田露伴<二宮尊徳翁>(1891)「家事不如意にして借財も一千兩の余に及び元
金(グワンキン)は元より利金さへ償ふこと難く」

▶의미: 상업 등의 자본금. 금전대출의 경우 그 이자를 뺀 직접 대출의 대상이 된 금액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본전

일본어: <大辭林>がんきん【元金】 ① 利子を含まない,直接貸し借りした金額(이자를 포함하
지 않은 직접 빌리거나 빌려준 금액) ② 事業などを始めるのに必要な金.準備金.もと
きん.もとで(사업 등을 시작할 때 필요한 돈. 준비금)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66,000개 일본어: 63,3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원망(願望) ⇨ 願望(がんぼう ganb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日本從軍記者의 條例] 從軍을 願望한 者난 三箇年以上을 新聞社員으로

其實務に從事する者에만 爲限할 事(1904년2월20일 3면2단)

▶의미: 소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報恩録>(1474) 上. 三〇「能孔老家を尽て其の橋を渡る様にと願望也」

▶의미: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원하고 바람. 또는 그런 것. ‘바람’ ‘소원’으로 순화. 정신분석학에서 마음속의 긴장을 해소하려 함. 또는 그런 경향.

일본어: 『大辞林』 がんぼう【願望】 ① ねがいのぞむこと。 がんもう(원하고 바라는 것) ② 精神分析で、主に意識されていない欲望のこと(신분석에서 주로 의식되지 않는 욕망을 말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 希望将来能达到某种目的的想法(장래에 어떤 목적에 달성하기를 원하고 바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75,000개 일본어: 48,100,000개 중국어: 152,000,000개

원족(遠足) ⇨ 遠足(えんそく enso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매일신보 2면잡보> [학도의 원족회] 양정 의숙에서 작일에 슈원 농림 모범장 근처로 가서 원족회를 거행히엿다더라(1909년4월17일)

▶의미: 소풍.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滑稽本・続膝栗毛>(1810.22) 二・下「今日遠足(エンソク) どもいたして、だりがてい所を見こみをつて」, <風俗画報-一七四号>(1898) 詞林「えんそくの運動会の紀行さへはしりかきにもする女学生」

▶의미: 걸어서 먼 곳까지 가는 것. 학교에서 교육활동으로 교외에 나가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오늘날은 ‘소풍’으로 순화되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소풍

일본어: 『大辞林』 えんそく【遠足】 学校の特別活動で、見学や運動・レクリエーションなどのために、歩くことを主にして遠くへ行くこと(학교 특별활동에서 견학이나 운동 레크리에이션을 위해서 주로 걸어서 먼 곳에 가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比较远的徒步旅行(먼 곳에 도보 여행)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840개 일본어: 15,200,000개 중국어: 6,400,000개

월부(月賦) ⇨ 月賦(げっふ gepp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별건곤 제24호 五錢한푼 銅錢서푼> 귀신듯는데 떡이약을 하고는 견데어도 中國놈에게 돈을 보이고 아니주고는 못견덴다. 더구나 月賦가 녀달이나 밀넛스니까 두달 것은 주어야지. 30圓(1929년12월1일)

▶의미: 월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禁令考-後集・第二・卷一六・安永四年>(1775) 一 二月「貸金出入濟方年賦月賦裁許之事<略>印形有之書付有之分は、年賦月賦之裁許之積り」

▶의미: 대금 등의 금액을 일시불로 하지 않고 월마다 나누어서 지불하는 방법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에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 값이나 빚 따위의 일정한 금액을 다달이 나누어 내는 일. 또는 그 돈. ‘달빚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げっふ【月賦】月賦払い(월부)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960개 일본어: 394,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위안부(慰安婦) ⇨ 慰安婦(いあんふ ianhf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2면>[假警衛被逮] 공무 여행증 등을 위조하고 경위(警衛) 계급장 등을 패용한 후 권총을 휴대하고 충남경찰국부속실에 근무한다고 사칭하여 시내 범일동(凡一洞) 일대에서 많은 위안부(慰安婦)들을 꼬여 정교관계를 맺고(1953년7월7일)

▶의미: 전쟁 때 군대에서 남자들을 성적(性的)으로 위안하기 위하여 동원된 여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徳川夢声<夢声戦争日記>(1942) 11月2日「大柄な日本女が二人、浴衣を着て吾食を見物に来た。何所か山の手辺の奥さんみたいに落ちついている。例の慰安婦という人たちであろう」

▶의미: 제2차세계대전중에 전장에서 장병위안이라는 명목으로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많았다. 종군위안부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말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추정된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주로 전쟁 때 군대에서 남자들을 성적(性的)으로 위안하기 위하여 동원된 여자.

일본어: 『大辞林』 いあんふ【慰安婦】 日中戦争や太平洋戦争中, 朝鮮などアジアから集められ, 戦地で日本軍将兵の性の相手となることを強要された女性たち. 従軍慰安婦(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 중에 조선 등의 아시아 각국에서 데려와 전쟁터에서 일본군 장병의 성적욕구의 상대가 되도록 강요된 여성들. 종군위안부)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18,000개 일본어: 15,9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위촉(委嘱) ⇐ 委嘱(いしよく isyoku)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11호 開國五百四年十一月十二日>第十三條 經費를納期에不納하는者が有る其徴收를地方收稅官吏에게委嘱함을得함(1895년11월12일)

▶의미: 위촉. 맡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御署名原本> 大正三年・勅令第十八号・行政庁ヲシテ委嘱ニ依リ恩賜財団濟生会ノ事務ヲ施行セシムル件(1914년)

▶의미: 특정의 임무를 사람에게 부탁하여 맡기는 것. 위탁.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 ‘맡김’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いしよく【委嘱】 特定の仕事や研究を部外の人に頼みまかせること(특정한 일이나 연구를 외부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부탁하다 맡기다. 托付(부탁함) 嘱托(맡김)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5,400개 일본어: 529,000개 중국어: 9,970,000개

유산(硫酸) ⇐ 硫酸(りゅうさん ryuusan)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商標法施行細則> 第五十六類 肥料 干鰯、鯪粕、油粕、肉粉、骨粉、血粉、糠、磷酸肥料、調合肥料、硫酸安母尼亞等(1909년11월20일)

▶의미: 황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遠西医方名物考補遺>(1834) 七「硫酸を剖解すれば分れて硫黄と酸素の二物となる」

▶의미: 무기산의 일종. 화학식 H₂SO₄. 무색의 점착력이 있는 무거운 액체.

중국 <游历日本图经余记>(일본유람도경여분)1889년

▶의미: 一种无机化合物(일종의 무기 화합물)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 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표준국어대사전』 황산

일본어: 『大辞林』 りゅうさん【硫酸】 無色無臭の粘りけのある不揮発性の液体。化学式 H_2SO_4 (무색무취의 점성이 있는 불활성 액체. 화학식 H_2SO_4)

중국어:『汉语大词典』是一种无色无味油状液体(무색무취의 끈끈한 불휘발성 액체)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2,700개 일본어: 45,200,000개 중국어: 62,700,000개

유지(油脂) ⇐ 油脂(yu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유학학회학보 제3호 貴要食物의 概論> 何他葡萄糖, 色素, 鹽類及瓦斯를 含히며 其 卵白의 成分은 主成分된 卵白質外에 少量의「꾸로뿌린」粘液質〔아루쓰모세〕軟脂及油脂요 其他葡萄糖鹽類를 含有히니라(1907년5월25일)

▶의미: 유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永峰秀樹<經濟小学家政要旨>(1876) 九「油脂質は炭素と水素にる。間(ま) 僅かの淡素を含むもあり」.

▶의미: 고급지방산과 글리세린의 에스테르

중국 <最新中学教科书. 生理学>(최신 중학교 교과서 . 생리학)1904年

▶의미: 油和脂肪(기름과 지방)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 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표준국어대사전』 동물 또는 식물에서 채취한 기름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일본어:『大辞林』 ゆし【油脂】 脂肪酸のグリセリンエステル。中性脂肪(지방산 글리세린에스테르. 중성지방)

중국어:『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46,000개 일본어: 55,600,000개 중국어: 80,000,000개

유착(癒着) ⇐ 癒着(yucha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북학회월보 제1호 男女 及 小兒衛生의 最要注意> 食物의 滋養品流動液 一肉羹汁이 最宜一을 幾日間 供給하야 其 多量の 失血을 還充케 하고 限一週間 安靜平臥하야 局部의 諸般 傷痕이 安完 癒着케 함이 可하고 且 五十日 以内に는 強劇의 勞働을 嚴禁하지니라(1908년6월1일).

▶의미: 엉겨 붙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玉石志林>(1861) 一「其体、愈著せる部分の外、異なる所あるを見ず」

▶의미: 찢어진 피부 등이 다시 들러붙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 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사물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여 있음. ‘영겨 붙기’로 순화.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할 생물체의 조직면이 섬유소나 섬유 조직따위와 연결되어 붙어 버리는 일.

일본어: 『大辭林』ゆちゃく【癒着】① 粘膜や漿膜(しょうまく)など分離しているべき身体の組織面が,炎症などのためにくっつくこと(점막이나 장막 등 분리되어 있어야만 하는 신체 조직면이 염증 등으로 붙어 있는 것) ② 本来離れているべきものがくっつくこと。多く,好ましくない状態として批判的に用いる(본래 떨어져 있어야 할 것 등이 붙어 있는 것.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비판적 의미로 사용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1,200개 일본어: 5,4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육교(陸橋) ⇨ 陸橋(りくきょう rikuk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水口陸橋竣工 六日初渡式舉行工費三萬二千八百圓을投하야府內竹信組의請負로今春四月부터工事中인崇仁線으로부터普通交通の二十二米幅道路五百六十米에工事を着着進行中明年三月末까지完成하기로되었는데同工事に依한中學校裏通高等普通學校方面の道路,陸橋(水口橋)를架設하기로되었다(1932년12월8일 5면 3단)

▶의미: 구름다리.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齋藤茂吉<赤光>(1913) 葬り火「陸橋にさしかかるとき兵来れば棺(ひつぎ)はしまし地(つち)に置かれぬ」

▶의미: 도로나 철도 등을 건너기 위하여 그 위로 연결한 다리.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 ㄴ가도교. 움푹 팬 곳이나 골짜기 따위를 건너도록 걸쳐 놓은 다리. ‘구름다리’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陸橋】陸地のくぼみや線路・道路の上などを渡るために設けられた橋。りくばし(평탄치 않은 곳이나 노선 도로를 건너기 위해 그 위로 가설한 다리)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9,100개 일본어: 2,42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윤중제(輪中堤) ⇨ 輪中堤(わじゅうてい wajyuute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7면>[여의島 輪中堤 준공]. 한강북판의 여의도를 둘러싸는 윤중제(輪中堤) 준공식이 1일 오전 10시 보슬비 내리는 공사현장에서朴장대통령부처를 비롯, 3부용인 주한외교사절 金재서울시장과 시민 등 1萬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었다(1968년6월1일)

▶의미: 둘레 둑.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世界大百科事典』そのため三角州地帯では洪水の自衛手段として集落や田畑を囲む輪中堤が発達したことで知られる。明治以降も洪水と内水排除の闘いの連続であるが、明治20年代の木曾三川の分流工事完成後は輪中堤もしだいに姿を消しつつある(1930)

▶의미: 둘레 둑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윤중제는 1968년 서울특별시 한강개발계획에 따라 여의도 주위에 제방도로인 윤중제를 축조한 데서 유래되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강섬의 둘레를 둘러서 쌓은 제방. ‘둘레 둑’ ‘섬둑’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わじゅうてい【輪中堤】 輪中集落を囲む堤防。→輪中(제방 안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제방)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400개 일본어: 432,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유통(融通) ⇨ 融通(ゆうずう yuuz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外報[日本の對韓經營] 韓國度支部와 第一銀行間に 財政上融通하는 新條欵을 締結할 事(1902년11월29일 1면4단)

▶의미: 변통.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三遊亭円朝<真景累ヶ淵>(1869頃) 二「誠に今年は不手廻りで融通が悪うございます」

▶의미: 금전의 유통 혹은 곤란한 때나 곤란한 사람에게 금전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금전 물품 따위를 돌려씀. ≡통용(通融)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함. ‘변통’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ゆうずう【融通】 金などをやりくりして貸し借りすること(돈 등을 변통하여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2,800개 일본어: 18,500,000개 중국어: 26,500,000개

음용수(飲用水) ⇨ 飲用水(いんようすい inyoosu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傳染病消毒規則] 船中에 飲用水는 新鮮한 良水와 交換하고 十分其貯器를 洗淨할 事(1899년10월2일 1면3단)

▶의미: 마시는 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大和尊勝院文書・弘安三年>(1280) 六月二三日・若次郎等連署起請文(鎌倉遺文一八・一三九九九)「去比令二京上酒越奪盜取、令二飲用一輩在し之云々」

▶의미: 사람이 마시는 물.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마실 수 있는 물. ‘마시는 물’ ‘먹는 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いんよう【飲用】 飲むのに用いること。飲むこと(마시는데 사용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230개 일본어: 1,68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이서(裏書) ⇨ 裏書(うらがき uragak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부록 度支部令第十四號 共同倉庫會社章程>第十二條 任置證券은寄託品の代替證券이니其讓與와典執은寄託品の讓與又는典執함과同一한效力이有하느니證券의 裏書를 하고讓與와典執함을得함이라(1905년9월6일)

▶의미: 배서(背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野山文書>(1275) 12月10日・僧定範田地売券(大日本古文書三・七三一)「於二本証文等一者、依レ為二連券不し能二副進且加二裏書一畢

▶의미: 서적 기록 문서 서면등의 뒷면에 표기의 내용의 증명이나 설명 등을 위하여 글을 적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배서(背書)

일본어: 『大辞林』 うらがき【裏書】 1. 文書・書画などの裏面に文字を書くこと(문서나 그림 등의 뒷면에 글자를 쓰는 것) 小切手などの支払いを受ける際、その裏に住所・氏名を書き、押印して、領収の証明をすること(어음 등을 받을 때 그 뒤에 주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받았다는 증명을 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8,500개 일본어: 722,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이자(利子) ⇨ 利子(りし ris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409호 光武十年三月廿四日>第八條 年賦金은元金과利子를并히야此를計算하고各年을通히야一定平等의償還額을定히미可함이라(1906년3월24일)

▶의미: 이자. 길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大寺文書.四ノ七三>(1249) 五月二二日・葛木成包田地売券(鎌倉遺文一〇・七〇七八) 「相二副年来之利子一健如レ数可二返進一」

▶의미: 화폐를 일정기간 빌려준 것에 대한 보수.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길미, ‘변리’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りし【利子】 他人に金銭を預けまたは貸した場合に、その見返りとして金額と期間に比例して受け取る金銭.利息(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맡기거나 빌려준 경우에 그 대가로 금액과 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중국어: 『汉语大词典』 利息(이자)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0,000개 일본어: 5,830,000개 중국어: 8,160,000개

익년(翌年) ⇨ 翌年(よくねん yokunen/よくとし yokutosh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독립신문 제3면 판결 선고서> 그 아전들이 동년 십이월 분에 비도가 군에 범 흠을 보고 각기 흐터져 도피 하였다가 익년 삼월 분에 각기 집에 도라 왔스니 문첩 닥가 보 흠은 정 이월 인즉 어디셔 나온 거신지 다 갈오디 알지 못 한다 하니(1897년3월20일)

▶의미: 다음 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三遊亭円朝<塩原多助一代記>(1885)七「翌年(ヨクトシ) 先の内儀(かみさ) 人が死だから」

▶의미: 다음 해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이듬해. ‘다음 해’ ‘이듬해’로 순화. 내년.

일본어: 『大辞林』 よくとし【翌年】「よくねん(翌年)」に同じ(다음해와 같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890개 일본어: 18,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익월(翌月) ⇐ 翌月(よくげつ yokugetsu/よくつき yokutsu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學部刊本<國民小學讀本 亞米利加 獨立 三>그 히 十一月에 華盛頓이 戰船 二十과 兵丁 一萬을 留하고 其餘 全軍은 解散하며 그 翌월에 華盛頓이 또한 兵柄을 謝하고 田里로 歸하니(1895)

▶의미: 다음달.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運歩色葉>(1548) 「翌月ヨクケツ」

▶의미: 그 다음 달.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이듬해. ‘다음 해’ ‘이듬해’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よくげつ【翌月】その月の次の月。あくる月(그 달의 다음 달. 오는 달)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570개 일본어: 21,1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익일(翌日) ⇐ 翌日(よくじつ yokuji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公使館領事館費用令>第三條 本俸은外國에派駐하는時에別表第一號及第二號에依하여任處到 達하는翌日로부터給함(1895년3월28일)

▶의미: 다음 날.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菅家文草>(900頃) 五・重陽後朝、同賦秋雁櫓声来「重陽之後、翌日之夕、秋雁者月令賓也」

▶의미: 그 다음 날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느 날 뒤에 오는 날. ‘다음 날’ ‘이튿날’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よくじつ【翌日】その日の次の日。あくる日(그 날의 다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6,400 일본어: 192,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인계(引繼) ⇨ 引繼(ひきつぐ hikitsug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通信機關交付] 通信機關을 昨日下午二時에 日本接受委員 池田十三郎氏が 引繼하기로 聲明하였는디 度支 外部 兩部에서 委員을 派送하여 該機關을 交付한다더라 (1905년5월10일 2면5단)

▶의미: 넘겨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富田鉄之助<銀行小言>(1885) 上「引継ぎを受けたる者は、其員数を一紙に記入して」

▶의미: 이어받는 것 계승받는 것 넘겨받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하던 일이나 물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넘겨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ひきつぐ【引継ぐ】前任者の業務などを受け継ぐ(전임자의 업무 등을 이어받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3,400개 일본어: 6,1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인도(引渡) ⇨ 引渡(ひきわたし hikiwata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856호> 第二十二條 軍法課는 左의事務를 掌함 一 軍事司法에 關한事項 二 特赦及 罪人 引渡에 關한事項(1907년8월28일)

▶의미: 건네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藤林忠良・加太邦憲<仏和法律字業>(1886) 「Livraison Hikiwatashi引渡し」,<逃亡犯罪人引渡条例>(1887) 五条「請求に応じ其引渡を為すことあるべし」

▶의미: 사람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

중국 <法美宪法正文. 美利坚国宪法>(법미헌법정문. 미국헌법)1911年

▶의미: 甲国应乙国的请求, 把乙国逃到甲国的犯人拘捕, 解交乙国(갑국이 을국의 청구에 따라 을국에서 갑국에 도망친 법인을 잡아 을국에 돌려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줌

일본어: 『大辞泉』【引渡し】拘束した人や占有した物を他に引き渡すこと。また、売買契約の成立した商品などを売り手から買い手に引き渡すこと(구속한 사람이나 점유한 물건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 또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상품 등을 판매자가 매입자에게 넘겨주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一国应他国要求, 将当时在其境内被他国指控为犯罪或被判刑的人移交该国审判或处罚(일국이 다른 나라의 요구에 따라 타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본국에 돌려주어 심판하거나 처리하게 함)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20,000개 일본어: 35,900,000개 중국어: 19,700,000개

인상(引上) ⇨ 引上(ひきあげ hikiag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朝鮮新報를 據한 則韓國白銅貨問題에 就하야](六) 韓國政府가이의 發行流通中の 白銅貨額과 其引上한 額及其今後鑄造額等에 關한 詳細統計를 公示하고 且列國代表者에게 通牒할 事(1902년3월24일 2면1단)

▶의미: 값 올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横光利一<上海>(1928.31) 三三「関税の引き上げを政府へ向って要求した」, 田村秋子<姫岩>(1948) 二幕「復員、引揚げ、疎開の人間と」

▶의미: 정도나 가격을 보다 비싸게 한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 따위를 끌어 올림.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 ‘값 올림’ ‘올림’으로 순화. 역도 경기 종목의 하나. 바벨을 두 손으로 잡아 한 번의 동작으로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일어서는 종목이다. ⇨들어올리기, 스네치

일본어: 『大辞林』ひきあげ【引上げ】引き上げること(올리는 것. 물러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약 786,000개 일본어: 703,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인수(引受) ⇨ 引受(ひきうけ hikiuk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독립신문> [일본 외치] 인수 引受 은행은 바스 은행 차타드 은행 향향 상해 은행 횡빈 정금 은행 우에 모든 조건으로 그 주인言周印을 引 하고 각 신문에 광고 하야 그 모집을 시작 하였는디(1899년9월20일 3면3단)

▶의미: 넘겨받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富田鉄之助<銀行小言>(1885) 下「仕人の引受を記入したる後は引受人とも呼ばれるなり」

▶의미: 국제어음을 지불하는 사람이 손도장으로 서명하여 손도장 금액지불의 주인이 되는 임무자가 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음. ‘넘겨받음’으로 순화.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고 서명함.

일본어: 『大辞泉』 ひきうけ【引受】 1. 引き受けること(받아들이는 것) 為替手形の支払人が、手形に署名して手形金額の支払い義務を負うこと(외환수표의 지불인이 수표에 서명하여 수표금액에 대한 지불의무를 지는 것) 3. 有価証券の発行に際し、証券会社などがそれを売り出す目的で、発行者からその証券の全部または一部を取得する契約を結ぶこと(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회사 등이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자로부터 그 증권 전부나 일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7,900개 일본어: 14,1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인지(印紙) ⇐ 印紙(いんし in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美國誌略續稿] 一千七百六十五年英王下令於新地征印紙其法凡爲新地人民者其於一切借貸貿易婚嫁等事皆必請印紙於官而納錢自一錢至三十圓不請印紙者論罪民(1765 영국왕이 신개척지에 印紙稅를 거둔다는 명을 내렸다. 그 법은 모든 신개척지의 국민은 일체의 貸借행위나 무역 혼인 등의 일에는 반드시 관청에 인지를 보내되 그 돈은 1錢에서부터 30圓까지였다. 인지를 보내지 않는 자는 죄인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었다. 1884년3월8일)

▶의미: 인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蔭涼軒日録-文明一九年>総生寛<西洋道中膝栗毛>(1874) 一二・上「平生借金(せわ)になったからといっても印紙(インシ)を一葉(いちめへ)はれといふ訳じゃなし」

▶의미: 나라가 세입금의 징수수단으로서 발행하는 일정한 금액을 나타내는 증표(1874)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수수료나 세금 따위를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에 붙이는 종이 표.

일본어: 『大辞林』 いんし【印紙】 国が歳入金徴収の一手段として発行する,金額を表示した証

票。特定の税金や手数料の納付に使用し，その証明として証書・文書などに貼る。収入印紙・特許印紙など(국가가 세입금 징수 수단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금액을 표시한 증표. 특정세금이나 수수료 납부에 사용하며 그 증명으로 증서나 문서 등에 붙인다. 인세수증지 특허증지 등)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9,600개 일본어: 5,71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인출(引出) ⇨ 引出し/引出(ひきだし hikida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古今未曾有의 大詐欺] 此漢은 竊 捕縛호야 其罪狀을 糾明호고 皇室經濟會委員 等은 皇帝의 損害額을 調査호니 其詐取호 金額은 尙 詳知치 못호나 彼가 皇室로서 引出호 金額이 約一千七百五十萬元에 過호얏스나 其被捕時에는 所持金額이 僅히 七萬元에 不過호고 其住居及船隻 等を 賣호야도 二十萬元에 不過호 터이라(1901년7월5일 1면3단)

▶의미: 돈 찾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俳諧・毛吹草>(1638) 三「官釜箱の引出」

▶의미: 예금 저축 등을 맡긴 곳에서 빼내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끌어서 빼냄. 예금 따위를 찾음. ‘돈 찾음’ ‘찾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大辞泉』 ひきだし【引出し】引き出すこと(돈을 꺼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1,100개 일본어: 53,900,000개 중국어: 32,600,000개

인하(引下) ⇨ 引き下げ/引下げ/引下(ひきさげる hikisager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本月五日仁港日本人商業會議所에서 以韓國白銅貨問題로 開會決議] 今雖勸告韓廷이라도 實無用空言也오 且不必令韓廷으로 實行銅貨複本位之制케호고 只使現今銅貨之通用價格으로 引下於本地時價라야 實爲有效라호노니(1902년4월12일 2면1단)

▶의미: 값 내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西周<五国対照兵語字書>(1881) 「Affaler『略』引下スル」

▶의미: 끌어내리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일본어: 『大辞林』 ひづけ【日付・日附】 文書などに, 作成・提出の年月日を記すこと。また, その年月日(문서 등에 작성하거나 제출한 연월일을 기록하는 것. 또는 그 연월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560,000개 일본어: 2,52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일응(一應) ⇨ 一応(いちおう ichioo)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호 閣令第三號 官員銘心內則> 一凡下官은上官의指揮命令에從히미 가흐믈勿論이나然이니若上官의命令에法規를抵觸하ᄂ處가有하거나又其案情이不合하ᄂ處 가흐므로思考하ᄂ時一應上官에게其意를稟호디上官아尙此抵觸及不合하ᄂ事가無하ᄂ다하 야그디로執行하ᄂ미可ᄂᄃ命이有하ᄂ時從하ᄂ미可ᄂᄃ(1895년4월1일)

▶의미: 일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太平記>(14C後) 一二・大内裏造當事「勅請の旨一往(いちワウ) 辞し申すと難(いへど) も度安に及ばば争(いかで) か参内仕らで候べき」

▶의미: 한번. 일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현재는 쓰이지 않는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음.

일본어: 『大辞泉』 いちおう【一応】 一度(한번) 十分ではないが、ひととおり(). 大略(충분하지는 않으나 대충. 대략) ほぼそのとおりと思われるが、念のために(거의 그대로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770개 일본어: 4,620,000개 중국어: 56,100,000개

일조권(日照權) ⇨ 日照權(にっしょうけん nissyookken)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3면>[國民을 위한 建築行政을]일본에서고 국민들의 衛生을 위하여 日照權이 確立되었다 한다(1971년8월9일)

▶의미: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高橋和巳<白く塗りたる墓>(1970) 七「社会部による日照権および騒音公害の調査」

▶의미: 태양광선을 확보할 권리. 건물 등에 별이 드는 것을 방해받아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이나 방해배제 등의 청구 근거로 주장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70년대 이후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별 쫓 권리'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にっしょうけん【日照権】 日照を享受する権利。隣接する建築物によって日当たりが妨害され不利益をこうむった場合, 損害賠償・妨害排除などを請求する際の根拠として主張される(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인접 건물로 인하여 자기 집에 빛이 들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방해배제 등을 청구하는 근거로 주장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4,500개 일본어: 791,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일착(一着) ⇨ 一着(いっちゃん itcha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13호> 그들은 각기 敎門을 확장하라고 펍 힘을 쓰겠다. 下手方法의 第一着으로 는 교육을 急務로 하고 학교를 廣設하여 인재를 양성함에 노력하겠다(1921년7월 1일)
▶의미: 첫 번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庄原謙吉<漢語字類>(1869) 「一着イッチャクヒトテダテ」, 徳富蘇峰<将来之日本>(1886) 六「富は実に第十九世紀の一大運動力なり」.
▶의미: 일등을 가장 빨리 착수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첫 번째로 도착함. 바둑이나 장기에서 돌이나 말을 한 번 놓음.

일본어: 『大辭林』 いっちゃん【一着】 ①競走で, 最初にゴールに到着すること(경주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 일등) ② 洋服(上下そろいのものを含む) の数え方で, 一つ(.양복을 세는 단위. 한 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800개 일본어: 10,9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입금(賃金) ⇨ 賃金(ちんきん chink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19편 英吉利의諸大都會> 古人의善書를誦讀하야其過를自悟하고其非를自悔하느端을啓하고且毎日服勤하賃金은其半을留貯하야其滿出獄하느時에給하야改新하느生業을助하느니拘囚하諸人의植物은麵包牛酪及糞에不過흙이라(1896)

▶의미: 품삯.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正月「日光御供之面々・御当地町方より雇候駕禰のもの、井諸日雇賃銀之儀、一切高直に致間敷旨、町方へ相触候」(1776)

▶의미: 노동에 대한 보수로서 지불되는 금전.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 ‘품삯’으로 순화.

임대차에서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 빌려 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용의 대가.

일본어: 『大辞林』 ちんきん【賃金】① 賃貸借の場合に、借り手が払う金銭(임대차 때 빌리는 쪽이 지불하는 돈) ② 「ちんぎん(賃金・賃銀)」(임금)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71,000개 일본어: 25,7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임차(賃借) ⇨ 賃借(ちんしゃく chinsya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京仁間韓人景況] 그 집을 건축한 地段도 外國人の 점유지를 도리어 임차 하여 많은 세금을 보낸다 하며 門扉를 其築屋한 地段도 外國人の 占有地를 反爲賃借하여 厚稅를 交送한다 하며(1900년4월7일 2면1단)

▶의미: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久米邦武<米欧回覽実記>(1877) 二・四〇「英国は、田地を貴族豪家に分領せられ、農家は其地を賃借し」

▶의미: 셋돈을 내고 물건을 빌리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씬. ‘세넴’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ちんしゃく【賃借】スル 借り賃を払って物を借りること(임대료를 내고 물건을 빌리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6,600개 일본어: 3,430,000개 중국어: 4,650,000개

입간판(立看板) ⇨ 立て看板/立看板(たてかんばん tate-kanb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1면>[總動員案도 審議] 第一日の 論戰은 專혀 ‘國家總動員法에 反對하는者
는 現狀維持派의 走狗다’라는 立看板에 集注되어 本委員會를 圍繞하여 惡氣流의 一端
을 反映한 것 뿐으로(1938년3월2일)

▶의미: 세움 간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柳多留-一八>(1783) 「しかたなくたてかんばんのいしゃへ行」

▶의미: 종이나 수건을 테두리에 붙이거나 판을 만들어서 담 벽 전주 등에 세워놓는 간
판 혹은 에도시대에 세워서 위쪽에 걸어 놓았던 간판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벽에 기대어 놓거나 길에 세워 둔 간판. ‘세움 간판’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たてかんばん【立看板】 壁・電柱などに立てかけてある看板(벽이나 전봇대
등에 기대어 세워두는 간판)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6,000개 일본어: 1,0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입구(入口) ⇨ 入り口/入口(いりぐち iriguc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566호 道令 慶尙北道令第八號> 第十四條 屠場에는 入口에左의標札
을掲扨事(1909년12월28일)

▶의미: 들어오는 곳.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塵抄>(1563) 二七「神武門はみやこの入口の門なり」

▶의미: 들어가는 곳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들어가는 통로. ‘들목’ ‘들어오는 곳’ ‘어귀01’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いりぐち【入り口】 門や玄関, 勝手口など(입구. 문이나 현관 부엌으로 통하
는 출입구)

중국어: 『汉语大词典』 进入建筑物或场地所经过的门或口儿(건축물이나 어느 장소에 들어가는
통로)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410,000개 일본어: 276,000,000개 중국어: 331,000,000개

입방미(立方米) ⇨ 立方米(りっぽうメートルrippoomeetor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526호 水道給水規則> 第二十條 計量を依_るる專用給水料_は左の區分を依_る 一 工事其他一時給水 一 立方米 仁川金二十錢 平壤金十 六錢(1909년11월 10일)

▶의미: 입방메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문서 蘭領東印度海運業概況報告ノ件 明治四十三年二月>總説 明治四十一年度蘭領東印度諸港ニ入港シタル船舶總数一万九千〇二十六隻此ノ容積一千七百六十五万五千九百五十三主方未実即チ約六百二十三万八千噸(登簿一噸=二、八三立方米突)ニシテ(1910년2월25일~1911년11월20일)

▶의미: 부피단위의 하나. 길이가 1미터의 입방체의 부피를 말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세제곱’의 전 용어. 정육면체

일본어: 『大辞林』 りっぽうメートル【立方メートル】体積の単位。一辺が1メートルの立方体の体積に等しい体積。記号 m3(체적의 단위. 한 변이 1미터인 입방체와 동일한 체적. 기호는 m3)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01개 일본어: 21,2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입장(立場) ⇄ 立場(たちば tachib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21호 驚異와 悲哀에서>이러한 立場에서 自然主義의 作品을 볼진대 얼마나 淺薄하고... 自然主義의 藝術은 우리에게 아모 것도 啓示하지 못한다. 그는 단지 既知의 世界뿐 우리에게 알녀준다(1922년3월1일)

▶의미: 당면하고 있는 상황. 처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葉隠>(1716頃) 五「『随分息才にて、命あらば又逢くし』と被し仰、御落涙候へば、皆々立場を忘れ、泣沈み罷在候を」, 夏目漱石<吾輩は猫である>(1905.06) 五「立場を換へて見れば此位單純な事實は彼等の社会に日夜間斷なく起りつつある」

▶의미: 그 사람이 놓여있는 지위나 상황. 물건을 보는 관점.견지. 시점.

중국 <致徐懋庸的信>(서무용에게 드리는 편지)1933年12月20日

▶의미: 认识和处理问题时所处的地位和所持的态度(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할때 처한 위치와 태도)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당면하고 있는 상황. ‘처지(處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たちば【立場】 ① 立つ場所。立っている所(서는 위치. 서있는 곳) ② 何かをするためのよりどころ(무언가를 할 때 기댈 곳) ③ その人が置かれている, 地位・境遇・条件など(그 사람이 놓여있는 지위 환경 조건 등) ④ 物の見方・考え方. 見地. 立脚点(사물에 대한 견해 사고방식 등)

중국어: 『汉语大词典』 指观察事物和处理问题时所处的地位和由 此所抱的态度(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할 때 처한 위치와 태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900,000개 일본어: 105,000,000개 중국어: 176,000,000개

입체(立替) ⇨ 立替え/立替(たてかえ tateka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法の 不備를 奇貨로 暴利를 取하는 恩給立替業者] 이러한裏面에는法の不備한틈을타서典當舖以上으로부당한리익을보고자하는 者가적지안흐니恩給의立替라는간판이 거리에느러가는것을몰수있다(1929년12월9일 2면5단)
▶의미: 꾸어 줌. 체당(替當)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人情本・縁結月下菊>(1839) 中・三「余程内から貸金(タテカへ)があったところへ、あの石燈籠と熊川の茶碗と偽物莊子の香合を押つけられたのだから」
▶의미: 타인을 대신해서 금전 등을 지불하는 것. 혹은 금품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체당(替當)’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꾸어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たてかえ【立替え】 代金を立て替えること。また、その金銭(대금을 대신 내는 것. 또는 그 금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500개 일본어: 2,9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입하(入荷) ⇨ 入荷(にゅうか nyuuk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生蛤 多數 入荷 京城蓬萊町生蛤都家に生蛤萬餘石이着荷히얏는디石(굴억)에 大者三十錢小二十錢에販賣히더라(1918년4월17일 2면7단)
▶의미: 들어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문서>[海関輸出入荷物取扱規則ヲ外国教師ニ通ス](1965) 五「偶たま唐本が入荷したので<略>本屋へ出掛けた」海関輸出入荷物取扱規則ヲ外国教師ニ通ス書面教師首長マルクリー海関輸出入荷物取扱之規則別冊ノ通我政府ニ於テ決定候

(1869-1875)

▶의미: 상점이나 시장 등에 물건을 들이는 것 혹은 짐을 넣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짐이나 상품 따위가 들어옴. 또는 그것을 들여옴. ‘들어옴’ ‘들여옴’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にゅうか【入荷】 店や市場などに荷がはいること。また, 入れること。 ↔ 出荷(가게나 시장 등에 물건이 들어가는 것. 또는 운반해 넣는 것. ↔출하)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7,600개 일본어: 268,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입회(立會) ⇨ 立會(たちあい tachi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5호 法部令第二號> 第五條 檢事는民事上幼者或婦女에關하는訴訟과又失跡者와又嗣續할人업는遺産에關하는訴訟과又証書偽造에關하는訴訟에立會할可함 (1895년4월16일)

▶의미: 입회. 참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靈雲院文書>(1571) 八月・靈雲院納所式之事「評定算用事、此三人并連判之衆立合に可し被し遂之事,

▶의미: 사실을 지켜보기 위하여 그 장서에 동석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현장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봄. ‘참관’ ‘참여’로 순화. 증권 거래소 따위에서 거래하는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일정 시간에 거래소 안에 모여 매매 거래를 맺음

일본어: 『大辭林』 たちあい【立會】 その場において物事の成り行きや結果を見守ること(그 자리에 서 일이나 물건의 행방이나 결과를 지켜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3,200개 일본어: 40,5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잉여(剩餘) ⇨ 剩餘(じょうよ jyoooy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호 收入條規> 第十九條 各年度經費의出給命令으로翌年五月末日가

지출給의請求를아니 則該額에相當 する資金은會計法第二十五條歲計剩餘中에編入치아니
하고國庫에서推移整理 する可 否(1895년4월5일)

▶의미: 나머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食林忠良・加太邦憲>『仏和法律字彙』(1886)「EXCÉDANT. Joyo 剰余」, 藤沢利喜太郎
<数学二用ナル辞ノ英和对訳字書>(1889)「Remainder 残り 剰余」

▶의미: 남은 것. 여분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쓰고 난 후 남은 것. ‘나머지’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じょうよ【剰余】余り. 余分. 残り. 余剰(남은 것. 여분 여잉)

중국어: 『汉语大词典』多余之物(나머지 물건)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600,000개 일본어: 28,700,000개 중국어: 200,000,000개

【자】

자장(磁場) ⇐ 磁場(じば jiba/じじょう jij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별건곤 제20호 電氣文明의 一大驚異(科學講座 其一)>「受信裝置」수신소에서는 전류의
대소를 光의 濃淡으로 변케하는데는 강한 磁場을 가진 전선에다 극히 적은 反射鏡 즉,
振動子を 쓰는 것이다(1929년 4월1일)

▶의미: 자기장.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문서 陸軍省大日記>[9.25 臨着番号692 混成旅団長]近衛師団監督部ヨリ
総長已下四十四名俸給宅料留守宅渡シノ件通牒 臨着第六九二号 混成旅団長ヨリ 編成
表、職員表報告ノ件 臨着第六九三号 第六師団長ヨリ 磁場現員表進達之件(1894년7월
「臨着号目次 庶」)

▶의미: 자석이나 전류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장소.

중국 <工业常识 附录第二>(공업상식 부록2) 1913年

▶의미: 传递物体间磁力作用的场(물체사이에 자력 작용을 전하는 장)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자기장.

일본어: 『大辞林』じば【磁場】磁石や電流のまわりに生じる, 磁力のはたらいっている空間。磁
場の強さを表す SI 単位はアンペア毎メートル(記号 A/m) (자석이나 전류 주위에 발생하
는 자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장. 자장의 강도를 나타내는 SI 단위는 A/m)

중국어: 『汉语大词典』传递实物间磁力作用的场(물체사이에 자력 작용을 전하는 장)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5,900개 일본어: 6,280,000개 중국어: 25,400,000개

잔고(殘高) ⇨ 残高(ざんだか zandak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軍票流通高] 大連電을 據한 즉 現在滿洲의 軍票殘高가 二百七十六萬圓中에 市中流通高가 七十九萬圓이오(1909년4월20일 1면3단)

▶의미: 잔액.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田中・中川・伊丹<英和商業新辞業>(1904) 「Balance 差額、殘高、平均」

▶의미: 수지 혹은 대차의 차감잔액계산으로 남은 금액. 잔액. 잔금.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나머지 금액. ‘나머지’ ‘잔액’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ざんだか【残高】 収入から支出を差し引いて残った金額。また、貸借を決済して残った額(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또는 빌려준 돈과 빌린 돈을 다 정리한 후에 남은 액수)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2,000개 일본어: 3 6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잔반(殘飯) ⇨ 残飯(ざんぱん zanb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37호 各種 新聞雜誌에 對한 批判>現在의 東亞日報가 全羅道の 鎭鎭으로 宋鎭禹를 鎭鎭로 삼어 粗成된 것이라하면現在의 朝鮮日報는 鎭鎭賞金の 鎭鎭鎭鎭으로 宋秉峻의 殘飯을 退棄하는 씨레기筩이다(1923년7월1일)

▶의미: 남은 밥.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葡辞書』(1603) 「Zanpan(ザンパン) ノコッタイ。すなわち、ワケ<訳>食べ残した米」

▶의미: 남은 반찬 남은 식사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먹고 남은 밥. ‘남은 밥’ ‘음식 찌꺼기’로 순화. 먹고 남은 음식. ‘음식 찌꺼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ざんぱん【残飯】 食べ残した飯や料理(먹고 남긴 밥이나 요리)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500개 일본어: 3,9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잔업(殘業) < 殘業(ざんぎょう zang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이복명 민보의 생활표>제에기 빌어먹을 놈의 팔자, 민보는 잔 방 안을 좁다고 기어다
니는 아들을 한참 보다가 급히 주머니를 책상 위에 내놓고 계산하여 본다. 이월분(28일)
급료의 총액이 26원 70전이였다. 잔업 수당(殘業手當)까지 합하여 일급 90전에 10일간
야근 수당(하룻밤에 15전씩) 1원 50전을 합하면 틀림 없었다(1935)
▶의미: 시간 외 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細井和喜蔵<女工哀史>(1925) 五・一三「此のに兩部以外に於ては都合上殘業しなければ
間に合はぬ場合がある」
▶의미: [1925]규정의 근로 시간 이후에도 남아서 일을 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정해진 노동 시간이 끝난 뒤에 하는 노동. ‘시간 외 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ざんぎょう【殘業】 規定の勤務時間のあと、さらに残って仕事をする事。
また、その仕事。超過勤務(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것. 또는 그 일.
초과근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060개 일본어: 7,39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전선(前線) < 前線(ぜんせん zense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40호 새삼스럽게 吟味되는 朝鮮의 崔水雲主義>또한 深切한 각오를 가지여 天
道教로 하야곰 최선생으로 하야곰 영원히 朝鮮민중의 갑잇는 자랑거리가 되게 할 것인
동시에 이로써 세계개조의 前線에 나설 용기도 가져야할 것이다(1923년10월1일)
▶의미: 직접 뛰어든 일정한 활동 분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歩兵操典>(1928) 第330「成るべく側方後の地点を占領し前線の退却を收容せしむるを可
とす」
▶의미: [1928]전장에서 적과 상대하여 직접 전투 동작을 하는 부대의 선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직접 뛰어든 일정한 활동 분야. 싸움터에서 적과 상대하는 맨 앞 지역을 가상적으로 연결한 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이 지표와 만나는 선. 일기(日氣)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일본어: 『大辞林』 ぜんせん【前線】① 最も敵陣に近く、敵と直接交戦する戦線。第一線(적진에 가장 가까운 적과 직접 교전하는 전선. 제일선) ② 異なった気団の境界面が地表と交わってできる線。数十キロメートルから数百キロメートルの幅をもって長く伸びる。両側にある気団の移動の仕方によって温暖前線・寒冷前線などの区別があり、また地理的な位置によって北極前線・寒帯前線などの種類がある(서로 다른 기단의 경계면이 지표면과 섞여서 만들어지는 선. 수십 Km부터 수백Km의 폭을 가진다. 양측에 있는 기단의 이동 상황에 따라서 온도전선 한랭 전선 등으로 구분한다. 또 지리적 위치로 북극전선 한대전선 등의 종류가 있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22,000개 일본어: 40,4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저리(低利) ⇨ 低利(ていり tei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德國貸金申出] 德國이 七十五磅을 極히 低利로 張之洞에게 貸與히깃노라 申出히얏는디 擔保의 如何는아즉 未詳히더라(1900년9월13일 1면3단)

▶의미: 싼 이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徳富董花<思出の記>(1900) 10・5「十万からの資本を低利に貸したことは」

▶의미: [1900.01]싼 이자. 이자율이 낮은 것. 저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저금리.

일본어: 『大辞林』 ていり【低利】低い利率(낮은 이율) 安い利息(낮은 이자)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6,200개 일본어: 3,2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저인망(底引網) ⇨ 底引網(そこびきあみ sokobikiam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4면>[黃海渤海漁業協定] 日滿間에 締結된 黃海,渤海漁業協定の 改訂方を 折衝中이다 그런데 朝鮮側으로는 黃海)에잇어서 底引網)에는 最大限度의 制限이 되어 있고 滿洲國에 잇어서 底引網)에는 最大限度의 制限이 되어 있고(1939년11월30일)

▶의미: 바닥 끌그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古波林亀次郎<東京大正博覧会出品之精華>(1969)五・トロール漁業擾況「トロール漁業

は、噸乃至五百噸の汽船に底索網を索引せしめ、海底のを漁獲する漁業にして」

▶의미: 끌그물에 속하는 어구의 일종. 뜨는 그물 중층그물을 일컫는 말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바다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면서 깊은 바닷 속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 ‘바닥 끌그물’ ‘쓰레그물’로 순화.

일본어: 『大辭泉』 そこびきあみ【底引網】引き網の一。袋網とその左右につく袖網(そであみ)、および引き網とからなり、海底で網を引き回して底魚を捕る(예인그물의 하나. 해저의 물고기를 잡는데 쓰는 그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810개 일본어: 37,5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적립(積立) ⇨ 積立(つみたて tsumitat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409호 敕令第十一號>第二十二條 農工銀行은每年準備金으로資本の缺損을補塲을爲하야利益の百分之八以上을積立하고及利益配當の平均을得게함을爲하야利益の百分之二以上을積立함이可함이라(1906년3월24일)

▶의미: 모아서 쌓아 둠.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小栗風葉<恋慕ながし>(1898) 一六「彼の一八(チーハー)組合の積立(シミタテ)や、淫売仲間の歩合やで、日頃から其筋の賄賂(かきね)も充分に行渡ってゐる而已(のみ)ならず」

▶의미: 금액을 모아서 저축하는 것 혹은 그 금전.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모아서 쌓아 둠. 모아 쌓음’ ‘모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つみたて【積立て】金銭を積み立てること(금전을 적립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9,300개 일본어: 9,31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적자(赤字) ⇨ 赤字(あかじ akaj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광 제28호 1931年の總決算>財政上の歳入은 激減되었으나 이와 正比例로 歳出을 激減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歳出의 増加를 招來하여 決算面に 所謂「赤字」即

豫算 缺損이 生하게 되었다(1931년12월1일)

▶의미: 지출이 수입보다 많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海軍省公文備考類>[佐世保鎮守府所管軍艦修理改造新設(1)]備考 赤字ハ改造後装載セサルモノナリ(1900년6월13일)

▶의미: 붉은 색으로 써졌거나 새겨진 문자. 수지결산의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중국 <新知识辞典>(신지식 사전)1934年

▶의미: 指经济活动中支出多于收入的差额数字(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결손액)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붉은 잉크를 사용하여 교정을 본 글자나 기호.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결손액. 장부에 기록할 때 붉은 글자로 기입한 데서 유래한다. ‘결손’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あかし【赤字】① 赤色で書いた字(붉은 색으로 쓴 글자) ②〔簿記で, 欠損を赤インクで記すところから〕支出が収入や予算より多いこと(부기에서 결손을 붉은색 잉크로 쓴 것에서 유래] 지출이 수입이나 예산보다 많은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经济活动中支出多于收入的数字(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결손액)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10,000개 일본어: 45,200,000개 중국어: 61,900,000개

적조(赤潮) ⇨ 赤潮(あかしお akashi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西湖津一帶에 赤潮가 侵入]【咸興】西湖津으로부터九龍里一帶海岸은지난八九日頃부터赤潮가되이면서魚介類의斃死が多함으로漁民이恐慌을感하고있는데(1934년6월 18일 4면1단)

▶의미: 붉은 조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小林花眠<新しき用語の泉>(1921)「赤潮(アカシホ)」

▶의미: [1921]플랑크톤의 이상번식으로 인해 해수가 적갈색이나 분홍색으로 변하는 현상. 혹은 그런 해면.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편모충류 등의 이상 번식으로 바닷물이 붉게 물들어 보이는 현상. 바닷물이 부패 하기 때문에 어패류가 크게 해를 입는다. ‘붉은 조류’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あかしお【赤潮】鞭毛(べんもう)藻(虫)やケイ藻などのプランクトンが水面

近くで急激に繁殖したため、水の色が変わって見える現象(편모조류나 규조류 등의 플랑크톤이 수면근처에서 급속하게 증식한 탓에 물색깔이 달라 보이는 현상)
 중국어: 『汉语大词典』由某些微小浮游生物大量繁殖和高度密集所引起的海水变色的自然现象
 (편모충류 등의 이상 번식으로 바닷물이 붉게 물들어 보이는 현상)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3 200개 일본어: 24,400개 중국어: 2 180,000개

전도(前渡) ⇨ 前渡し/前渡(まえわたし maewata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林業事務會議] 林業事務會議 農商工部에서는 去十五日부터 京城、鏡城、平壤、水原、大邱、木浦各地의 林業事務所長을 山林局에 招集하고 會議를 開き았는데 其會議事項은 如左하고 會期는 四日間이라더다十、前渡金支給에 關한 事(1910년2월18일 3면2단)

▶의미: 전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和英語林集成 初版』(1867) 「MAYE-WATASHI マヘワタシ 前渡」

▶의미: 지급하거나 지불해야할 금품을 기일보다 먼저 주는 것. 혹은 대금을 먼저 건네주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선지급. ‘선지급’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まえわたし【前渡し】① 金品を期日より前に渡すこと(금품을 기일보다 앞서 주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59,000개 일본어: 277,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절상(切上) ⇨ 切上げ/切上(きりあげ kiriag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家舍公賣公告] 一瓦家二十六間外附屬建物三間半 此入札保証金は 價格이 百分之五以上 契約保証金は 落札代金の 百分之十以上으로함 但圓以下の 端數는 圓位에 切上함(1908년8월19일 3면4단)

▶의미: 올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防衛省防衛研究所 野戦鉄道提理部公示(第2)乗車料金表>但算出上十銭未満ノ端数ハ十銭ニ切上ゲ徴収ス 一乗車券購入ノ際ハ混雜ヲ防ク為メ料金ハ過不足ナキ様注意スベシ(1905년10월21일)

▶의미: 계산에서 구하는 단위에 못 미치는 우수리를 구하는 자릿수에 1을 더하는 것. 통화의 대외가치 올림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화폐 가치의 수준을 높이는 일. ‘올림’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きりあげ【切上げ】 ① 適當なところで切りをつけること(적당한 정도에서 매듭을 짓는 것) ② 計算で, 求める位に満たない端数を取り去り, 求める位に一を加えること(계산에서 구하는 단위에 못 미치는 우수리를 구하는 자릿수에 1을 더하는 것) ③ 通貨の対外価値を引き上げること(통화의 대외가치를 끌어올리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0,500개 일본어: 3,67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절수(節水) ⇨ 節水(せっすい sessu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防火節水の 大宣傳] 평양경찰서가 중심이 되어 평양각단체에서 일제히 오는 십팔일과이십일이랑일에 방화절수(防火節水)의대선연을행한다 흠은 임의보도한 바이나 (1921년7월18일 3면4단)

▶ 의미: 물을 아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 의미: 물의 사용을 절약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 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을 아껴서 사용함. ‘물 아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せっすい【節水】 水の無駄な使用を減らすこと(물 낭비를 줄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800개 일본어: 5,37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절취(切取) ⇨ 切取り/切取(きりとり kiritor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日人麥稈買收] 韓國產麥稈도 眞田의 原料로함이 適當한 故로 農家가 各自 麥稈을 切取한야 原料로 販賣한기만한야도 不少한 利益을 獲得한지니(1906년10월10일 2면5단)

▶ 의미: 잘라 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玉塵抄>(1550)三六「国々いさかいやうて小な国をば大な国からりとりにして弓矢合戦ば

かりぞ」

▶의미: 일부를 자르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잘라 냄. ‘자르기’ ‘자름’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きりとり【切取り】 切り取ること(잘라내는 것) ○土木工事で、地面の高い所を削り取ること(토목공사에서 지면의 높은 곳을 편평하게 만드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240개 일본어: 9,2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절하(切下) ⇐ 切下げ/切下(きりさげ kirisag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광 제27호 經濟的 危機에서 政治的 危機에> 圓價切下에 依한 解禁의 物價勞銀에 對한 影響 事跡(1929년9월6일 4면1단)이와 같이 공황의 진전을 따라 각종 산업은 대규모로 노동자의賃銀을 切下하여 關係노동자의 수는 전년도에 약 2배로 증가하였다(1931년11월10일)

▶의미: 내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伊東光晴<現代經濟を考へる>(1973) 1. 三「一九四九年九月のポンド切下げ(三〇・五%)とフランス、西ドイツ、イタリアなど二〇カ国がこれに追随したのを第一回の頂点とするならば」

▶의미: 물가의 수준이나 화폐의 가치를 낮게 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화폐 가치의 수준을 낮춤. ‘내림’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泉』 きりさげ【切下げ】 物価や貨幣価値を低くすること(물가나 화폐가치를 낮게 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2,700개 일본어: 2,57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점두(店頭) ⇐ 店頭(てんとう tent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472호 廣告> 各取扱店은右通知를受흔지는直히募集締切の日時를店頭에揭示하고其以後의請入을謝絶홀者로함(1909년9월6일)

▶의미: 앞.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黃葉夕陽郁舎詩 後編>(1823) 一・大猪川歌「店頭浩レ酒稿二僕夫始覺風光入二撚髮一」

▶의미: 가게 앞.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가게의 앞쪽

일본어: 『大辭林』 てんとう【店頭】店さき(가게 앞)

중국어: 『汉语大词典』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470개 일본어: 67,500,000개 중국어: 4,560,000개

정부(正否) ⇄ 正否(せいひ sei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加藤氏獻策](八)會計檢査院을設히야 收入支出의 均衡과 出費의 正否를 監督케히야 國家의 濫費를 抑制할 事(1902년6월28일 2면3단)

▶의미: 옳고 그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福沢諭吉<洋事情>(1866)初. 二「其論説の正否を世界中の公評に質さんか為め」

▶의미: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바른 것과 그른 것. 옳고 그름'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せいひ【正否】正しいことと正しくないこと(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옳고 그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760개 일본어: 318,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정찰(正札) ⇄ 正札(しょうふだ syoohud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最急廣告] 弊店에서 今番에 轉業上冬節所用新着品과 並在來한 商品全部를 一一正札히야 此月十四日以後로 別노히 廉價로 販賣히니 僉君子는 照亮購求히시오 (1906년10월13일 4면1단)

▶의미: 제값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雜俳・柳篋裏>(1783) 五月二八日「正札は二分諸入用しれず」

▶의미: 에누리 없는 정확한 가격이 붙은 상품의 표.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의 적당한 값을 적은 종이쪽. ‘제값표’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しょうふだ【正札】掛け値のない値段を書いて、商品につけた札(에누리 없는 가격을 써서 상품에 달은 표)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6,730개 일본어: 133,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정찰제(正札制) ⇨ 正札制(しょうふだせい syoohudase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삼천리 제6권 제9호 百貨店・連鎖店에 對抗策> 百貨店은 첫재 店鋪가 華麗하여 衆人의 注目을 끌고, 둘째 正札制度잇서 安心하고 物品살 수 잇다는 無形의 信用이 잇고, 셋째 한 곳에 百가지 千가지 다 具備하여 잇스니 便利하니까 자연히 발길이 거기에 올라 간다(1934년9월1일)

▶의미: 정찰제.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정찰제는 표제어에 없음. 정찰만 있음.<正札><雜俳・柳篋裏>(1783) 五月二八日「正札は二分諸入用しれず」

▶의미: 에누리 없는 정확한 가격이 붙은 상품의 표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 없음.

일본어: 『大辭林』에 표제어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000개 일본어: 18 6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제본(製本) ⇨ 製本(せいほん seiho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046호> 乾元節園遊會紀念寫眞帖豫約發賣公告 精巧하게「고로다이푸」版體裁縱九寸橫一尺二寸表紙表裝製本皆美麗堅牢를盡함(1909년4월13일)

▶의미: 책 매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滑稽本・東海道中膝栗毛>(1802) 四・巻首「膝栗毛の四篇目、三年を不遇して、製本既なれるは、当芝居の大名題、三都会の評判記に貫通すべし」

▶의미: 책을 만드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낱장으로 되어 있는 원고나 화고(畫稿) 인쇄물 백지 따위를 차례에 따라 실이나 철사로 매고 표지를 붙여 한 권의 책으로 꾸미는 일. ‘책 매기’로 순 화. ㄴ 제책(製冊)

일본어: 『大辭林』 せいほん【製本】印刷物などを折り畳み、また原稿などの紙葉を順序に従って取りまとめ、糸・針金・接着剤などで互いに接合し、表紙などをつけて一冊子に形づくること(인쇄물 등을 접거나 원고 등의 낱장을 순서에 따라 모아 실 철사 접착제 등으로 붙이고 표지를 달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작업)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 810개 일본어: 8 4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조립(組立) ⇐ 組み立て/組立て/組立(くみたて kumitat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459호 關稅局告示第八十二號> 浮標의構造는鋼鐵造橢圓形이니紅色으로塗하고其上에櫓形을組立하고頭部に燈器를載하고燈火의中心은水面부터高十尺이라 (1909년8월20일)

▶의미: 조립.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山口又市郎<開化自慢>(1874) 初. 下「いかに約定なればとて、大さうな目諭見、機械の組立(クミタテ)、せわに申す蒸氣船に帆前追つかいは破談のもと」,

▶의미: 짜 맞추다. 몇 개를 짜 맞추어 하나로 만드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여러 부품을 하나의 구조물로 짜 맞춤. 또는 그런 것. ‘짜기’ ‘짜 맞추기’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くみたて【組み立て・組立て】①いくつかの部分品を組み合わせて、一つのものを作りあげること(여러 부품을 짜 맞추어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②組み立てられたものの構造(조립된 것의 구조) ③考えなどを筋道たててまとめあげること(생각 등을 줄거리를 세워서 정리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01,000개 일본어: 53,1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조합(組合) ⇨ 組合(くみあい kumi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355호 内部令第二十號 虎列刺預防規則>第二條 虎列刺發生時
病家近傍の各家에서共同히야左의預防法을守할지니但衛生組合을設한地方에는衛生組合長
이其預防法을各家에告知할事(1899년9월1일)

▶의미: 조합.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農商務省達第三七号>(1885) 11月29日・三条「同業組合の規約に掲ぐべき事項は左の如
し第一項組合を組織する業名及組合の名称」

▶의미: 특별법에 의해 특정한 공동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하는 것을 인정받은 단체

중국 <日本国志>1890年

▶의미: ①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짬②여럿 독립적인 부분으로 한 덩어리를 형성
③m개의 부동한 원소중에서 n개를 꺼내어 한 조로 만들다 ①几个独立部分组成整体。②
几个独立部分组成的整体。③由m个不同的元素中取出n个并成一组，不论次序，其中每组
所含成分至少有一个不同，所得到的结果称作由m中取n个的组合。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짬. 민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출자
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결합한 단체. 변호사들의 공동 사무소가 있다. 특별
법에서 여러 가지 공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조직한 단
체. 협동조합 공제 조합 따위가 있다.

일본어: 『大辞林』 くみあい【組合】 ① 互いに組みあって争うこと(서로 맞붙어 싸움) ② 民法
上，二人以上が出資をして共同の事業を営むことを約束する契約により成立する団体。(민
법상 두 사람 이상의 출자로 사업을 공동운영한다는 계약으로 성립되는 단체.) ③ 特別
法上，各種の共同目的遂行のために，一定の資格のある人が組織する団体で，公共組合・
協同組合・同業組合・労働組合・共済組合など法人と認められているもの(특별법상 각종
공동목적 수행을 위해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직하는 단체로 공동조합 협동조합
동업조합 노동조합 공제조합 등등) ④ 特に，労働組合をいう(특히 노동조합을 가리킴)

중국어: 『汉语大词典』 组织成整体(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짬)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810,000개 일본어: 130,000,000개 중국어: 388,000,000개

중매인(仲買人) ⇨ 仲買人(なかがいにん nakagaini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鮮人仲買人問題] 仁川取引所の仁川米豆取引所에서는屢級와如히來二十四日

臨時株主總會を開き役員選任を行き六月一日부터取引を開始할豫定인디仲買人は現在
定員十五名を二十名으로増員하기로決定하고(1919년5월21일 2면6단)

▶의미: 거간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久米邦武<米欧回覽実記>(1877) 一・一四「仲買人も亦官に公告し、証拠金を出し、許可
を得て立社するものにて」、藤林忠良・加太邦憲<仏和法律字彙>(1886) 「COURTIER
Nakagainin 仲買人」

▶의미: 중매업을 하는 사람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거간꾼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なかがいにん【仲買人】 仲買を職業とする人(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중국어: 『汉语大词典』 旧社会替人介绍买卖(구사회에서 장사를 소개해주는 대신 그 중에서 돈을 버는 사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430개 일본어: 24,400개 중국어: 488,000개

중절모자(中折帽子) ⇐ 中折帽子(なかおれぼうし nakaoreboo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勸作假一進會] 惟我大皇帝陛下게옵서 時宜의 改革함을 燭知하옵시고(중략)
惟我同僚諸氏도 宜例히 服裝하느것이 妥當하나 不膽하 家勢에 果係難處인즉 從今以後
로논 單周衣에 中折帽子던지 中山帽子던지 麥藁帽子던지 隨意掛着하되 萬一世人이 一
進會라고 指斥하야 憎惡하더라도(1908년8월30일 2면4단)
▶의미: 대기의 가운데를 눌러쓰는 챙이 둥글게 달린 신사용의 모자. ※『17세기국어사
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山口又市郎<開化自慢>(1874) 初・上「黒羅紗帽子丸ぼうし、中折帽子(ナカフレバウシ)
卑ぼうし」

▶의미: 유연한 천으로 만들어져 꼭대기 부분을 마음대로 폭 꺼지게 할 수 있는 모자
이 있는 모자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꼭대기의 가운데를 눌러쓰는 챙이 둥글게 달린 신사용의 모자. ‘우
묵 모자’로 순화. ≡중절모(中折帽)

일본어: 『大辞泉』 なかおれぼうし【中折れ帽子】 山高帽の頂を前後にくぼませてかぶるフェルト
製の紳士帽。中折れ帽(중산모자의 한가운데를 전후로 볼록하게 만들어 쓰는 펠트제 신

사모자)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220개 일본어: 131,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지분(持分) ⇐ 持分(もちぶん mochibu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法律]法律第一號森林法第四條 部分林의 樹木은 國과 造林者의 共有로 하고 其持分은 收益分収部分에 均게함 部分林設定前으로부터 生存한 樹木은 國의 所有로함 (1908년3월28일 1면2단)

▶의미: 몫.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寛永刊本蒙求抄>(1592頃) 九「義縦がもち分の処にかけ錢を出さぬ者あるを天子へ申して 其民の家を閉処するぞ」

▶의미: 전체 중에서 개인이 소유 혹은 담당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나 비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몫 또는 그런 비율. ‘몫’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もちぶん【持分】 1.全体の中で各人が所有または負担している部分や割合(전체 중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분담하고 있는 부분이나 비율) 2.共有関係において、各共有者が共有物について持つ権利、またはその割合(유관계에서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또는 비율) 3. 社団法人において、合名会社・合資会社・合同会社の社員、協同組合の組合員、特殊法人の出資者などが持つ権利義務の総体としての地位、またはその割合を評価したときの評価額(사단법인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의 사원 협동조합 조합원 특수법인의 출자자 등이 가지는 권리의무의 총체로서의 지위 또는 그 할당을 평가할 때 그 평가액)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3,000개 일본어: 105,000개 중국어: 7,350,000개

지불(支拂) ⇐ 支払い/支払(しはらい shihar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133호 外報 法國政府과成都事件이라> 此件에關し法國傳道協會가淸國으로受取한 償金額은九十八萬四千兩(淸國貨位)인데皆悉前總督劉秉璋이가支拂한者라함 (1895년8월9일)

▶의미: 치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商法>(1899) 一〇五に九条「商人が商行為に因りて生じたる債務に付き自己の過失なくし

てを中止せざることを得ざるに至りたる場合に於て」

▶의미: 금전상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돈을 내어 줌. 또는 값을 치름.

일본어: 『大辭林』 しはらい【支払い】代金や債務としての金銭を払い渡すこと(대금이나 채무로 금전을 건네주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1,000개 일본어: 6,1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지양(止揚) ⇐ 止揚(しょう shi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광 제30호 滿洲事變과 中國革命> 그의 共同 敵에 對한 協調를 準備하고 있는 것이나 他方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利害의 對立을 決코 止揚치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은 漸漸 尖化하여지는 것이니(1932년1월25일)

▶의미: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瀨沼茂樹<心理文学の發展とその帰趨>(1930) 個性的心理描写「類型的心理描写を止揚し・發展させるためには、性格の形成原理としての自我意識の覚醒をまたなければならぬ」

▶의미: 헤겔 변증법에서 낮은 차원에서 모순 대립하는 두가지 개념이나 사물을 한층 고차원의 단계로 높여서 새로운 조화와 질서로 통일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피함’ ‘하지 않음’으로 순화. 변증법의 중요한 개념으로 어떤 것을 그 자체로는 부정하면서 오히려 한층 더 높은 단계에서 이것을 긍정하는 일.

일본어: 『大辭林』 しょう【止揚】ヘーゲル弁証法の根本概念。あるものをそのものとしては否定するが、契機として保存し、より高い段階で生かすこと。矛盾する諸要素を、対立と闘争の過程を通じて発展的に統一すること。揚棄。アウフヘーベン(헤겔 변증법의 근본개념. 어떤 것을 그자체로는 부정하나 계기로 보존하고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 모순된 각 용소를 대립과 투쟁과정을 거쳐서 발전적으로 통일시키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7,100개 일본어: 262,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지입(持込) ⇨ 持込み/持込(もちこみ mochikom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鮮銀持込激減 閤取引과 密輸關係] 最近鮮銀으로의金地金の持込은増加치안
코 産金増産計畫의實行期에入하였스나 不可思議의現象을呈하고있는데 此原因으로서는
一、昨年の水害に依한影響一、冬期に入하여 北鮮地方の金山은稼行困難한것一、増産に要
한諸種の資材入手難으로豫定대로増産計畫이進陟되지 못한것等の理由가잇스나(1939년2월
5일 8면1단)

▶의미: 갖고 들어오는 것.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談義本・根無草>(1763) 後・四「程なく正月二の替り、嘉例の曾我に種々の持込」

▶의미: 갖고 들어오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 없음.

일본어: 『大辞林』 もちこみ【持込み】 持ち込むこと。また、そのもの(가지고 들어가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6,900개 일본어: 4,8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지참(持参) ⇨ 持参(じさん jis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舊白銅貨交換請求日變更] 來十一月二十一日以降의 交換日指定票를 受
者는 本月二十二日 二十三日 兩日間に 現品을 持参할 事(1905년8월21일 3면4단)

▶의미: 지니고 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梅松論>(1349頃) 下「ことに仏法に歸し、夢窓國師を開山として天龍寺を造立し、一切
經を書写の御願を發し、身づから図絵し、自讃御判有」

▶의미: 금품을 가지고 가는 것. 혹은 가지고 오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무엇을 가지고서 모임 따위에 참여함. ‘지니고 옴’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じさん【持参】 持って行くこと。持ってくること(가지고 가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9,800개 일본어: 8,82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직물(織物) ⇨ 織物(おりもの orimon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19편 英吉利의諸大都會> 木綿紡績所の多繭은二百三十三에至る其器械의 巨大繭과制作의神異繭이人의意表에迥出する지라我邦中國及日本에輸出する綿織物은此府를從來する者が實多繭이라(1896)

▶의미: 씨실과 날실을 직기에 걸어 짠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9C末-10C初) 「内灸のしつらひには言ふべくもあらぬ綾をり物に絵をかきて、誠張りたり」

▶의미: [실을 물레에 넣고 짠 천의 총칭

중국 <游历日本图经>1889年

▶의미: 用棉, 麻, 丝等织成的物品(씨실과 날실을 직기에 걸어 짠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씨실과 날실을 직기에 걸어 짠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따위가 있다.

일본어: 『大辞林』 おりもの【織物】 ①たて糸とよこ糸を組み合わせ、機(はた)で織った布(기계로 실을 수직으로 교차시켜서 짠 천) ②種々の地紋・浮き紋を織り出した絹織物。また、それで仕立てた衣服(다양한 바탕무늬나 도드라지게 짠 무늬 등을 짜 넣은 견직물. 또는 그 천으로 만든 의복)

중국어: 『汉语大词典』 用棉、麻、丝等为原料织成的棉布、绸缎、呢绒、麻布、针织物和编织物等的总称(씨실과 날실을 직기에 걸어 짠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8,800개 일본어: 9,220,000개 중국어: 36,400,000개

진검승부(眞劍勝負) ⇨ 真劍勝負(しんけんしょうぶ shinkensyooib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寶鑑 附錄彙集 4권>원형극장(圓形劇場Amphitheatrum)넷 로마국 원형극장(圓形劇場Amphitheatrum)에도 들어나 뵈이논도다 보견대 넷 로마국에는 포로들이 교수 압해 서로 싸화 목을 베히며 목베히기를 연습하는 진검승부(眞劍勝負Ludus gladiatorius)를 설치하고 사름을 수천명씩 박성 압해 쏘 아니라 원로와 밋 부녀들 압해 서로 포악히 죽이며(경향신문, 1906-1910),

▶의미: 진짜 검으로 하는 승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歌舞伎・男伊達初買會我>(1753) 四「なんの用だとは、われや最前しとして置いた真劍勝負をうにゃにするか」

▶의미: 진검을 이용해서 승부를 정하는 것. 혹은 진짜로 싸우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음.

일본어: 『大辭林』 しんけんしょうぶ【真劍勝負】 ① 本物の剣を用いて行う勝負(진짜 검으로 하는 승부) ② 本気になって行う勝負。また、本気になって事に当たること(진심으로 하는 승부. 또는 진지하게 일을 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38,200개 일본어: 33,7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진체(振替) ⇨ 振替(ふりかえ hurika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株式會社漢城農工銀行株金第一回納入廣告]本銀行株式을 請入하신 各位는 左記各項에 依하여 第一回株金を 納入하심을 希望함一納入金額 各位請入株數에 應하여 一株에 對하여 金五圓의 計評內金貳圓은 已納保証金으로써 振替홀터이니 壹株에 殘金參圓의 計評으로써 追納할 事(1906년5월23일 4면1단)
▶의미: 대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田中・中川・伊丹<英和商業新辭業>(1904) 「Transfer」振替總て原金又は現物を授受せず 單に帳面上に於て一勘定科目から其高を減じ他の勘定科目の下に其れ丈けを加へ物其れ自身に毫も變動を生じないことを振替と云ふので」
▶의미: 부기로 현금수입을 동반하지 않은 거래의 분류.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J→K / 일제 때까지는 사용되었으나 J→K / 해방 후에는 쓰이지 않는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금액을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일. 또는 그 계정. ‘대체’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ふりかえ【振替】 ① 振り替えること(대체하다) ② 「郵便振替」의略(우편송금 계좌이체의 약어) ③ 實際に金銭を出し入れせず、帳簿上で、ある勘定を他の勘定へ移すこと。振替勘定(실제로 돈을 움직이지 않고 장부상으로 어떤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옮기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20개 일본어: 7,32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집중호우(集中豪雨) ⇨ 集中豪雨(しゅうちゅうごうう syuuchuugoo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경향신문 6면> 順天에 集中豪雨【順天(순천)】 이곳에는 24일 새벽 4시부터 또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이날 하오 2시 현재 164.5「밀리」의 강우량을 보였으며(1963년6월24일)

▶의미: 단시간에 내리는 강한 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朝日新聞>(1953) 八月一五日夕刊「集中豪雨木津川上流に」

▶의미: 비교적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내리는 강한 비.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의 기상용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장대비’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しゅうちゅうごうう【集中豪雨】 比較的狭い地域に短時間に降る豪雨(비교적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1,000개 일본어: 1,7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차】

차압(差押) ⇨ 差押(さしおさえ sashiosa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廣告 本人의 土地는 去甲午年天聽時에 文券闇失한 事를 上達하고 朝野咸燭하고] 本人의 土地는 去甲午年天聽時에 文券闇失한 事를 上達하고 朝野咸燭하고 自郡으로 完文을 成給한 事는 國人이 共悉인바 不意鄭寅國父子及金文煥輩가 他人에 對한 淸州支部缺席判決로 本人의 不動產를 執行하기에 異議訴를 提起하고 不動產假差押을 하온바 屢히 鄭金兩人이 證明을 憑하야 惡意第三者로 投機的賣買를 締結하야 本人을 害코져 하다가 茲에 廣告하오니(1910년8월31일 3면1단)

▶의미: 차압.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税徴収法>(1897) 11条「収税官吏滞納処分の為財産の差押を為すときは其の命令を受けたる官吏たるの証票を示すべし」, <刑事訴訟法>(1890) 107条「予審判事は臨検、搜索、物件差押に付き其日に処分を終らざるときは」

▶의미: 행정법상 국세채납처분의 한 단계로서 채납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여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행위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압류

일본어: 『大辞泉』 さしおさえ【差押え】 1. 国家権力によって、特定の物または権利について私人の処分を禁止する行為(국가권력으로 특정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개인자격 사람의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 2. 民事執行法上、私人の金銭債権について、国の執行機関が債務者の財産の事実上・法律上の処分を禁止する行為(민사집행법상 개인자격 사람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위) 3. 行政法上、国税滞納処分の一つとして、滞納者の財産を強制的に取得すること(행정법상 국세체납처분의 하나로 체납자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刑事訴訟法上の押収の一。証拠物または没収すべきものを裁判所が強制的に取得する裁判。また、その執行(형사소송법상 압수의 한 가지. 증거물이나 몰수해야만 하는 물건을 재판소가 강제로 취득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100개 일본어: 3,27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차입(差入) ⇨ 差入れ/差入(さしいれ sashiire)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102호 法部訓令第一號> 第十四條 在監人에게對하야金錢又ハ物品의送附或差入이有한時ハ迅速히領置의節次를行하 고領收證(第九號書式)을交付함이可함但遠隔한地에在한者(官廳을除함)에게對하야는 特히請求가有한者에게만交付함을得함(1908년 6월 17일)

▶ 의미: 차입.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木下尚江<良人の自白>(1904) 前・22・2『白井高からの差入だ。白井弁護士の妻君だ』

▶ 의미: 경찰서나 구치소 형무소 등에 유치 혹은 구금된 자가 외부에서 음식물 의류 일용품 서적 등을 받는 것 혹은 그런 물품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힌 사람에게 음식 의복 돈 따위를 들여보냄. 또는 그 물건. ‘넣어 줌’ ‘옥바라지’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さしいれ【差入れ】 ① 拘置・留置されている者に、外部から食べ物や必要な品物を届けること。また、そのもの(구치 또는 구류되어 있는 사람에게 외부에서 먹을 것이나 필요물품을 넣어 주는 것. 또는 그런 물건) ② ねざらいのために飲食物を届けること。また、そのもの(위로하기 위해 음식물을 전달하는 것. 그런 물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6,300개 일본어: 737,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차장(車掌) ⇨ 車掌(しゃしょう syas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鄭雲復<獨習日語正則 第五章 人倫及人事 67-하> 車掌이라는者が 間或亂暴한일을 하여 서는 못쓰겟소/車掌ト云フモノガ時々 亂暴ナ事ヲシテハ 困リマス(1907년)

▶의미: 승무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郵便報知新聞>(1882)六月二四日「車掌駅者には其正面に役名を標せし紺羅紗の大帽子を被らせ」

▶의미: 열차 전차 버스 등에 타고 여객 및 짐의 운송에 관한 사무 등을 취급하는 직원.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표준국어대사전』 기차 버스 전차 따위에서 찾삿을 받거나 차의 원활한 운행과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람. ‘승무원’으로 순화.

일본어:『大辞林』しゃしょう【車掌】列車・電車・バスなどの車中で、車内の種々の事務を扱う者(열차나 전차 버스 등의 차내에서 각종 업무를 하는 사람)

중국어:『汉语大词典』旧称电车司机(전차 기사의옛 이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6,000개 일본어: 4,780,000개 중국어: 256,000개

천연두(天然痘) ⇨ 天然痘(てんねんとう tennent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84호 内部令第八號 種痘規則 開國五百四年十月十日> 第一條 種痘를要하는事項이左와如함 一 凡小兒는生後七十日로滿一年以内に種痘를行호디但天然痘를經한證明이有하는者는此限에在치아니함(1895년10월10일)

▶의미: 천연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의 법정 전염병.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新聞雜誌一九号・明治四年>(1871) 11月「天然痘(テンネントウ)に罹らざるやう可レ致旨御布令ありたり」

▶의미: 1999년에 폐지된 전염병예방법으로 정해졌었던 법정전염병 중 하나. 병원체는 두창바이러스.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표준국어대사전』 천연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의 법정 전염병.

일본어:『大辞林』てんねんとう【天然痘】痘瘡ウイルスによる感染症。発疹は、あとに癍痕(はんこん)を残す。伝染力がきわめて強く、死亡率も高い。予防は種痘。1980年、世界保健機関により絶滅宣言が出された。天然痘。痘瘡(천연두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발진은 흉터를 남긴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사망률도 높다. 예방법은 종두. 1980에 세계보건

기구가 절명선언을 했다)

중국어: 『汉语大词典』 指天花(천연두)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23,000개 일본어: 13,700개 중국어: 947,000개

철판(鐵板) ⇨ 鉄板(てっぱん teppan)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日本彎形稻扱器新發明說]今見日人所製稻扱器則其制如倒兀字樣호야 下橫一鐵板호고 上立數十鐵齒를 如梳子樣호야 以一束稻穗로 打掛鐵齒間호야 扱而取之호니 用力이 省而稻粒이 完矣로디 猶且以扱落之際에 稍有不便으로 改爲彎形扱器호니(1902년8월25일 2면1단)

▶의미: 철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サントスの御作業>(1591)二・サンラウレンショ「ソノ セナカ ニ カエンノ てppan (テッパン)ヲ アテテ」

▶의미: 철을 눌러서 판 모양으로 만든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鐵板) 쇠로 된 넓은 조각.

일본어: 『大辞林』 てっぱん【鉄板】鉄を板状にのばしたもの(철을 판 모양으로 만든 것). 철판.

중국어: 『汉语大词典』压成板形的熟铁(쇠로 된 넓은 판)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10개 일본어: 9,200개 중국어: 55,600,000개

청부(請負) ⇨ 請負い/請負(うけおい ukeo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461호 度支部令第六號>第五條 治道에關호工事의請負와物件의買賣貸借호總히光武九年議政府令第三號에遵据호을要호이라(1906년5월24일)

▶의미: 도급.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財政經濟史料'三・經濟・物産・官林揭示>(1700) 八月「吉野郡之山かせぎ材木其外品々、口役先規より御運上にて請負畢」

▶의미: 의뢰주와 미리 기일이나 보수를 받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일을 완성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일을 떠맡음. 또는 그 일. ‘도급’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うけおう【請負う】 ①特に請負の契約によって仕事を引き受ける(특히 청부 계약에 따라 일을 맡는 것) ②返済などの義務を負う(돈 갚을 의무를 지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8,700개 일본어: 695,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체적(體積) ⇨ 体積(たいせき taise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기호흥학회월보 제12호 地文問答>空氣가 비록 輕微談薄한 物이나 具有한 能力은 多種이 有하니 例如熱을 遇한 則體積이 加大한니 是는 膨脹力이오 冷을 遇한 則體積이 減小한니 是는 凝結力이오 壓하면自緊하고 放하면自鬆한니 是는 凹凸力이오(1909년 7월25일)

▶의미: 부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藤沢利喜太郎<学二用ナル辞ノ英和对訳字書>(1889) 「Volume 立積、体積」

▶의미: 입체나 공간에 있는 부분의 크기

중국 <理法器撮要>1610年

▶의미: 物体所占空间의大小(물체가 공간을 차지한 크기)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부피

일본어: 『大辞林』 たいせき【体積】 立体が占める空間の大きさ(입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중국어: 『汉语大词典』物体所占空间의大小(물체가 공간을 차지한 크기)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0,900개 일본어: 12,600,000개 중국어: 221,000,000개

추월(追越) ⇨ 追越し/追越 (おいこし oiko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502호 隆熙三年十月十一日>第十條 他船에追越코조는船舶은他船에向하야船尾로부터白燈을表示하고又는閃火를發함이可함(1909년10월11일)

▶의미: 앞지르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防衛省防衛研究所 문서 日露戦書>査定書其他証拠書類ニ抛リ之ヲ査覈スルニ住吉丸カ其船尾灯ヲ掲示スルノ時期遅キニ失シタルト且追越船ニ対シ注意ヲ惹起セシムヘキ適當ノ手段ヲ尽サツリシトハ(1906년3월29일~1906년10월30일)

▶의미: 뒤에 있는 것이 앞에 가는 것을 앞질러서 나가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뒤에서 따라잡아서 앞의 것보다 먼저 나아감. ‘앞지르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おいこし【追越し】 ①後ろから行って, 先行するものの前に出ること(뒤에서 앞에 있는 것을 앞지름) ② 道路交通法上, 車が進路を変えて先行車の前に出ること(도로 교통법상 차가 진로를 바꾸어 앞차를 앞지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54,000개 일본어: 10,1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축제(祝祭) ⇨ 祝祭(しゅくさい syukus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義艦祝祭 本月五日是 義國祝祭日인 故로 仁港에 碇泊한 同國軍艦부구리아 号와美艦신시나지号와美艦웨아레스号가再昨日正午祝砲를發射하였더라(1904년6월8일 2면3단)

▶의미: 잔치.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矢野龍溪<経国美談>(1883) 前・二〇「揃も新年第一日祝祭の当日となりければ」,

▶의미: 축제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잔치’ ‘축전’으로 순화. 2.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일본어: 『大辞林』 しゅくさい【祝祭】 ①ある事を祝うための祭り(어떤 일을 축하하기 위한 축제) ② 祝いと祭り(축하와 축제)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21,000개 일본어: 2,960,000개 중국어: 3,310,000개

출구(出口) ⇨ 出口(でぐち deguc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51호 雜觀雜感>平壤驛의 전등이 꺼지랴 말랴 하던 7월 10일 아침 다섯시 가량이였다. 나는 車에서 내려 平壤停車場 出口로 나가랴닛가 瞥眼間에 칼치 장사 5, 6인이 누구를 금시에 잡아 먹을 듯이 구보를 하야 정거장으로 달녀 든다(1924년9월1일)

▶의미: 나가는 곳.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文明本節用集>(室町中)「出口デクチ」

▶의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설치해 놓은 입구.

중국 福州將軍新柱奏報嚴禁天主教折>(복주시 장군신주가 아뢰는 천주교 금지상소문, 1748年 2月20日)

▶의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 ‘나가는 곳’ ‘날목’으로 순화. 출로(出路). 상품을 항구 밖으로 수출함.

일본어: 『大辞林』 でぐち【出口】外へ出る口。↔ 入り口(밖으로 나오는 입구 ↔ 출구)

중국어: 『汉语大词典』 通向外面的口(밖으로 통하는 통로)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630,000개 일본어: 475,000,000개 중국어: 703,000,000개

출산(出産) ⇨ 出産(しゅっさん syuss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15호 우리의 産業運動은 開始되었도다> 國勢調査의 結果로 日本의 人口는 55,961,141人을 算하고 그 密度는 一方里(四方十里)에 2,249人을 算한다. 人口密度의 高로는 世界中 僅히 白耳義, 和蘭 등의 比類가 잇슬 뿐이오. 또 그 出産率은 1年間 元 人口의 100分之14强을 示하여 世界中何國에도 其比가 無하다(1921년9월1일)

▶의미: 해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書言字考節用集』(1717)九「出生又云。出産」

▶의미: 산물이 나오는 것 물건이 완성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해산(解産). 만들어 내거나 생겨남. 또는 그 물건.

일본어: 『大辞林』 しゅっさん【出産】①子供を産むこと(아이를 낳는 것) 子供が生まれること(아이가 태어나는 것) ②産物が出ること。産出(물건과 산물이 나오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980,000개 일본어: 11,800,000개 중국어: 48,900,000개

출산율(出産率) ⇨ 出産率(しゅっさんりつ syussanri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佛國의 出産率 年年激減] 佛國出産増加率は近年顯著히減少를示하였는대即 一九二〇年 一五九,七九〇名(159,790명) 一九二一年 一一七,〇二三(117,023명) 一九二三年 九四,八七一(94,871명)이든 것이一九二四年에는僅히七萬二千二百十六名이라더라(나우엔電)(1925년5월8일 1면6단)

▶의미: 출산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原田棟一郎<紐育>(1914)不可解の紐育「現に異常なる物質文明の不健康と不道德は、直に統計上死亡率の増加及び出産率(シュッサンリツ)の減少となって現はれて来た」

▶의미: 출산의 비율 일정기간 특히 일 평균 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아수의 비율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아기를 낳는 비율. 일정 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을 이른다. ‘출생률’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しゅっさんりつ【出産率】⇒ 出生率(しゅつしょうりつ) (출생률)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700개 일본어: 5,47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출장(出張) ⇨ 出張(しゅっちょう syucch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85호 内部令第五號> 所掌内に發生ᄃᆞᆫ境遇에ᄃᆞᆫ總巡一員巡檢三員이該所에出張ᄃᆞᆫ야消毒法을施行ᄃᆞᆫ미可ᄃᆞᆫ(1895년6월10일)

▶의미: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宗長日記>(1530)「この長月中の十日頃、小田原の館出張」

▶의미: 용무 때문에 다른 지역 장소로 나가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감.

일본어: 『大辞林』 しゅっちょう【出張】①仕事で、勤め先・職場を離れて、他の土地に出かけること(업무로 근무처나 직장 외의 다른 곳에 가는 것) ② 戦争の場におもむくこと(전쟁터에 나가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490,000개 일본어: 139,000,000개 중국어: 5,340,000개

출찰구(出札口) ⇨ 出札口(しゅっさつぐち syussatsuguc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60호 黃海道에서 어든 雜同散異> 명색일망정 黃海道 踏破가 꺾나는 시간이다.

차표만 사고 차에 올라만 안즈면서울까지 다려다 줄 판이다. 차표를 사랴는데 학생때들이 出札口에 죽-모여 서서 容易히 살 수가 업다(1925년6월1일)

▶의미: 표 사는 곳.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永井荷風<夢の女>(1903) 五「出札口の柵の外へ歩いて行って」

▶의미: 표를 내는 곳 표를 파는 출찰구의 창구.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차표나 배표 따위를 손님에게 파는 창구. ‘표 사는 곳’으로 순화.

차나 배에서 내린 손님이 표를 내고 나가거나 나오는 곳.

일본어: 『大辞泉』 しゅっさつ【出札】乗車券・入場券などを売ること(승차권이나 입장권을 파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65개 일본어: 355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출하(出荷) ⇨ 出荷(しゅっか shukk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삼천리 제12권제5호 半島の 物産과 文化> [生栗의 出荷]도내에 있는 生栗 年産量은, 약 18,000석에 달하고 있는데 其 품종이 여러 가지로 나뉘여 있다(1940년5월1일)

▶의미: 짐이나 상품 따위를 실어 내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村瀬忠太郎<蕎麦通>(1930) 三「各自が原形のままで市場に出荷し」

▶의미: <시장에 상품을 내놓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4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짐이나 상품 따위를 내어보냄.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으로 내어 보냄. ‘실어 내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しゅっか【出荷】①商品を市場へ出すこと(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 ②荷物を積み出すこと(화물을 실어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22,000개 일본어: 27,800개 중국어: 131,000,000개

취급(取扱) ⇨ 取扱い/取扱(とりあつかい toriatsuk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198호 軍部令第一號> 第十條 秘書官을兼히副長은本務를分掌한外
에는大臣에게專屬하야機密文書の取扱과秘密한事務에服하고大臣協辦의官印과軍部印을管
守함과其他人事外에 上裁와機密에關한差使往復을掌함(1899년3월2일)

▶의미: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
전』에 없음.

일본 <天草本伊曾保>(1593) イソボの生涯の事「クガイノサパキ、アルイワナイショウノ
toriatçucai(トリアツカイ) ナドワ、イカニモ、ニヨウマジイトミユレバ」

▶의미: 손으로 가져가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 혹은 물건을 처리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음. 사람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대하거나 처리함. ‘다름’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とりあつかい【取扱い・取扱】① 取り扱うこと(취급하는 것) ② 世話。接
待。待遇(돌보기 접대 대우. 정중한 대접)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2,000개 일본어: 284,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취소(取消) ⇐ 取消し/取消(とりけし torike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7호 民刑訴訟에關한規程> 第四十三條 上訴가理由가有한다고決
한時에는原判決을取消하고다시適當한判決을爲하야無罪한時에는無罪를宣告하고或無罪放
免을宣告하며 又上訴의理由가無하야고決하면上訴를却下하고加하야原裁判所檢事に通牒하
야刑을執行하는手續을하게함(1895년5월1일)

▶의미: 취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藤林忠良・加太邦憲<仏和法律字業>(1886)「RESCISION Torikeshi 取消」,福沢諭吉<福翁
自伝>(1899) 老余の半生「その翌日か翌々日か小野が又来て、前の事は取消(トリケ)しに
なつたと云ふので事は済みました」

▶의미: 취소하는 것.

중국 <日本国志>卷二十九(1890年)

▶의미: 使原有的制度, 权利, 资格等失去效力(고유의 제도 권리 자격등의 효력을 잃어
버리게 하다)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무름’으로
순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일본어: 『大辞林』とりけし【取消し】①取り消すこと(취소하는 것) 前に書いたり言ったりしたことを, なかったことにすること(전에 쓰거나 말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 ②【法】効力を發した意思表示・法律行為に瑕疵(かし)がある場合, 当事者など特定の權利を有する者の意思表示により, その効力を無効にすること(【法】효력을 낸 의사표시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 등이 특정권리를 가진 사람의 의사표현에 따라 그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亦作“取消”。使原有的制度、规章、资格、权利等失去效力(고유의 제도 권리 자격 등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하다)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32,000개 일본어: 11,400,000개 중국어: 419,000,000개

취입(吹入) ⇐ 吹き込み/吹込み/吹込(ふきこみ fukikomi)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朝博宣傳歌를 蓄音機에 吹入 今秋博覽會宣傳에對하야는그間募集中이든博覽會歌들大阪에서蓄音機板에吹入하야賣却하기로하고方今製造中이라는데此가完成되면世界各國으로廣告할터이라더라(1929년4월15일 2면8단)

▶의미: 녹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寺田寅彦<音機>(1922) 「いよいよ蠅管に声を吹込む段となつて」

▶의미: 레코드나 테이프등에 소리나 노래 연주 등의 소리를 넣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 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일본에서는 ‘吹込’로 표기한다.

(3) 현대어 사전 등재 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공기 따위를 불어 넣음. 레코드나 녹음기의 녹음판에 소리를 넣음. ‘녹음’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ふきいれる【吹入れる】 吹いて物を中に入れる。吹き込む(불어서 물건을 안에 넣다. 불어넣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 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08,000개 일본어: 2,5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취조(取調) ⇐ 取調べ/取調(とりしらべ torishirabe)

(1) 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336호 度量衡規則>第三十一條 度量衡器의修理者及使用者는取調하기爲하야當該官員의臨檢을拒치못할事(1902년10월21일)

▶의미: 문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幕末御触書集成-九四>(1847) 11月17日「殊に樽数取調之差支にも相成候に付、右体之者共、此度吟味之上夫査答申付候」

▶의미: 대상을 충분히 조사해서 그 실태를 분명히 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혐의자나 죄인을 조사함. ‘문초’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とりしらべ【取調べ】 ①取り調べること(조사하는 것) ②検察官・検察事務官・司法警察職員が, 犯罪捜査上必要があるときに, 被疑者および参考人の供述を求めること(검찰관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이 범죄조사상 필요할 때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을 요구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700개 일본어: 6,03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취체(取替) ⇐ 取替え/取替(とりかえ torika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태극학보 제16호 理科講談(小學教師 參考)>此가 炭素棒의 燃光이미 屢屢히 此 棒을 取替함이 可한디 此는 街上에 高輝한 者요 白熱燈보다는 數十倍 乃至 數百倍의 光力이 有한 者니라(1907년12월24일)

▶의미: 교체.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小川為治<開化問答>(1874) 初・下「世のひらけはじめの交易は、いはゆる物と物との取替へにて」

▶의미: 바꾸는 것. 교환.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오늘날을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 없음.

일본어: 『大辭林』 とりかえ【取替え】 ①とりかえること(바꾸는 것) 交換(교환) ② とりかえ用のもの(교체용 물품) 予備(예비) ③ 立てかえ(대금을 대신 치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98개 일본어: 2,03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취締(取締) ⇐ 取り締り/取締り/取締(とりしまり torishima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4535호隆熙二年七月廿五日>第一條 看守女監取締給與品及貸與品規則第三條와監獄傭人給與品及貸與品規程第三條에依る給與品中代料로써支給品目及金

額은左와如함(1908년7월25일)

▶의미: 단속.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田舎者<咄本・無事志有意>(1798) 「じっていになりおったらとりしまりの用心にも呼事も
あるふ」

▶의미: 단속하는 것

중국 <游历日本图经>1889年

▶의미: 公开下令禁止或取消(공개적으로 금지 혹은 취소를 하달하다)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규칙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 ‘단속(團束)’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とりしまり【取り締まり・取り締り・取締】① とりしまること(단속하는 것)

監視(감시) 管理(관리) ② 「取締役」の略(取締役(회사 등의 임원)의 약어)

중국어: 『汉语大词典』 明令取消或禁止(공개적으로 취소하거나 금지하다)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500개 일본어: 14,500,000개 중국어: 32,000,000개

취하(取下) ⇐ 取下げ/取下(とりさげ torisag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3299호 法部令第三號>第九條 試驗志願者는試驗手數料로五圓을請願
書提呈호는時에納付함이可함이라 試驗手數料는請願書를取下호거나又試驗을不受호는時라
도此를還付치아니함이라(1905년11월17일)

▶의미: 무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地方落穂集>(1763) 五「田方地所に寄用水の手絶候か、亦は仔細等有し之、畑成に願取
下げに致候節」

▶의미: 일단 제기한 소송이나 신청등을 철회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 ‘무름’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とりさげ【取下げ】取りさげること(무르는 것) 撤回(철회)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4,400개 일본어: 20,100,000개 중국어: 29 100,000개

침목(枕木) ⇐ 枕木(まくらぎ makurag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鐵道禮式] 昨日下午四時に 興化門前에서 電車鐵道開設하는 禮式을 舉行하
 는디 漢城判尹李采淵氏와 美國公使安連氏와 海關總務柏卓安氏와 商工局長宋憲斌氏와
 其他鐵道技手들과 各新聞探報員들이 齋會하여 鐵道左右에 列立하고 日本寫眞師가 撮影
 今後 李采淵氏가문저 枕木에 鐵釘을 박으미 參會하얏던 官人及新聞探員들이차례로 鐵釘
 을박고 禮式을 罷하더라(1898년9월16일)
 ▶의미: 선로 아래에 까는 나무나 콘크리트로 된 토막.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
 어사전』에 없음.

일본 野村龍太郎<工学字彙>(1886) 「Sleeper 枕木」
 ▶의미: 도로에 도상의 표면에 정비한 레일을 고정하는 것.

중국 <清议报>(청의보)七十一册<俄赶铁路>1901年
 ▶의미: 横铺在铁路路基的道砟上, 用来垫平和固定铁轨的方柱形木头(가로로 철도 노반의
 자갈우에 받치거나 철도 레일을 고정시키는 사각형 나무)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1. 길고 큰 물건을 괴는 데 쓰는 나무토막. ‘꿈목’으로 순화. 2. 선
 로 아래에 까는 나무나 콘크리트로 된 토막.

일본어: 『大辞林』 まくらぎ【枕木】 鉄道線路の下に横に並べて敷く角柱状の材。(철도노선 밑
 에 배열하여 까는 각재형 재료)

중국어: 『汉语大词典』 垫铁轨的方柱形横木(철도 레일을 받치는 사각형 나무)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2,600개 일본어: 21,500개 중국어: 3,980,000개

【타】

택배(宅配) ⇐ 宅配(たくはい takuh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동아일보 20면>[「UR태풍」이 온다 해외여행알선-화물운송업 설땅 없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이세상의 어떤 종류의 물건도 전세계 구석 구석의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소위 택
 배(宅配)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서비스를 가장 값싸고 신속하게(1990년10월17일)
 ▶의미: 집 배달.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일본 국회발언록>政府参考人(片桐裕君) その販売の実態については現在詳しく調べ
 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ある業者に聞きますところによりますと、販売して、
 運送して届ける場合に、あらかじめ所持者本人と連絡を取った上で、所持者本人が受け取
 れる配送日時を指定をし、宅配業者に受取人本人に渡すように依頼するなどしているとい
 うふうな業者もいるというふうに伺っております(2008년1월10일)
 ▶의미: 신문 우유 짐등을 각 호별로 배달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해방 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로, 1990년대 이후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우편물이나 짐 상품 따위를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일. ‘문 앞 배달’ ‘집 배달’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たくはい【宅配】新聞・牛乳・荷物などを戸別に配達すること(신문 우유 화물 등을 배달하는 것. 백종날 선물을 배달하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94,000개 일본어: 171,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투망(投網) ⇐ 投網(とあみ toam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한국:<毎日申報> [投網競技大會] 光州極樂江에서 全南光州投網同好會主催와光州日報社後援下에來十六日の日曜를期하여極樂江橋(市外松汀里街道人道橋)로부터極樂江水泳場에至하기까지中心삼아約一里餘の間에서投網競技大會를開催할터인데(1925년8월11일 3면4단)

▶의미: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물속에 넣어 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雜俳・手鼓>(1707) 「うしろから前へ投出す唐網うち」

▶의미: 피망 중 하나. 원뿔꼴로 망의 앞자락을 접어서 주머니 모양으로 해서 거기에 납추를 붙인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물속에 넣어 침. 그물의 하나. 원뿔형 모양으로 윗부분에 몇 발의 버리가 있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어 물에 던지면쥘 퍼지면서 가라앉아 바닥에 닿은 후 그것을 당겨 올려 고기를 잡는다. 그물 ‘쟁이’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とあみ【投網】被(かぶ)せ網の一種。水面に投げ広げて、魚を捕らえる網。円錐形で、上部に長い手綱を結び、網裾(あみすそ)におもりを付けたもの。比較的浅い所にいる魚を捕らえるのに用いる(수면에 넓게 퍼지도록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 원추형으로 상부에 긴 줄을 연결하고 망 주위에 무게 추를 달은 그물. 비교적 얕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000개 일본어: 34,9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투매(投賣) ⇐ 投売り/投売(なげうり nageu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財界動搖餘波 財産家破産과 綿布投賣開始] 其他四五の事業を営むに巴綿絲暴落으로因むや六十萬圓の損失招むや遂に全財産を債權者에게提供むやと目下債權者が整理中이며尙綿糸暴落に就むや織物の投賣が夙に傳説됨に至むや元田町岩佐工場에서는二十三日織物の投賣を開始むやと더라(名古屋電)1920년4월24일 2면9단)

▶의미: 막 팔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舞伎・独道中五十三駅>(1827) 序幕「ほんまにおくれかえ。オヤオヤオヤ、結構な、投売(ナゲウ)りにしても十四五両が物は」

▶의미: 재고를 빨리 팔기 위하여 이익을 무시하고 싸게 파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손해를 무릅쓰고 주식이나 채권을 싼값에 팔아 버리는 일. 막 팔기'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なげうり【投売り】 損を覚悟で、捨てるように安い値段で売ること。捨て売り(손해를 각오하고 내버리듯이 싼 가격으로 파는 것. 여름상품을 투매하다)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7,500개 일본어: 448,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특공대(特攻隊) ⇨ 特攻隊(とっこうたい tokkot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一機로敵一艦擊沈 神州護持의神風特攻隊 기사(1944년10월30일)

▶의미: 특공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国立公文書館 문서 昭和19年6月1日~昭和20年1月31日 横須賀防備戦隊戦時日誌(6)> (イ) 敵米ハ「レイテ」島上陸以来比島奪回ニ物量攻撃ヲ敢行挑戦シ来シリ我が制空部隊海陸特攻隊ハ勇猛果敢ナル必死必中ノ体当リニヨリ(1944년11월1일~1944년11월30일)

▶의미: 특별공격대(特別攻撃隊)의 약어.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일제 말 태평양 전쟁 무렵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음.

일본어: 『大辞林』 とっこうたい【特攻隊】 特別攻撃隊の略('특별공격대'의 약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380개 일본어: 3,3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파】

편물(編物) ⇨ 編物(あみもの amimon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雜報[教授課程] 磚洞普信女學館은 内外法이 有ᄃᆞᆫ 韓國士族女子를 教授ᄃᆞᆫ에 便利케ᄃᆞᆫ야 專以婦人教師로 選用ᄃᆞᆫ디 日本婦人淵澤氏가 修身、日文讀書、算術等科를 教授ᄃᆞᆫ고 日本婦人村井氏가 造花、編物等科를 教授ᄃᆞᆫ고 日本婦人井出氏가 音樂、體操等科를 教授ᄃᆞᆫ고 韓國婦人金召史가 國漢文、習字、作文等科를 教授ᄃᆞᆫ디 家貧ᄃᆞᆫ 女子는 寄宿舍를 特設ᄃᆞᆫ고 宿食케ᄃᆞᆫ다더라(1906년5월26일 3면3단)

▶의미: 뜨개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言經卿記 .天正一六年>(1588) 七月一二日「糸屋妻あみ物一連持來了」

▶의미: 섬유를 얹혀서 무엇을 만드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1 ‘뜨개질’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뜨개질하여 만든 옷이나 소품.

일본어: 『大辞泉』 あみもの【編物】 毛糸・綿糸などを編み棒・編み機などで編んで衣類・装飾品などを作ること。また、作ったもの(털실 비단실 등을 뜨개바늘 또는 기계로 옷 장식품 등을 짜서 만드는 것. 또는 만들어진 물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450개 일본어: 10,3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평영(平泳) ⇨ 平泳ぎ/平泳(ひらおよぎ hiraoyog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올림픽大會뉴스 二百米平泳]【로산젤스九日發電】 女子二百米平泳決勝에서 前畑秀子嬢은二着이되다(1932년8월11일 2면2단)

▶의미: 평영.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牧野信一<或る日の運動> 平泳ぎ、背泳ぎ、両拔手、片拔手、競泳、立ち泳ぎ一一等を悉く試みた。そして、「こんなものは他合もない」と、呟いだ(1925년2월)

▶의미: 수영법의 하나. 몸을 밑으로 해서 양 손을 수평으로 호를 그리면서 움직이며 다리는 개구리 다리를 사용한다.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개구리처럼 물과 수평을 이루며 두 발과 양팔을 오므렸다가 펴는 수영법. ≡와영(蛙泳).

일본어: 『大辞林』 ひらおよぎ【平泳ぎ】 泳法の一。うつぶせになって、両手で水平に水をかき、足は蛙足(かえるあし)を用いる。蛙泳ぎ。ブレスト(수영법의 하나. 수면에 엎드린 자세로 양팔로 원을 그리듯이 손을 움직이고 발은 개구리 다리처럼 움직인다. 개구리헤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500개 일본어: 3,19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품절(品切) ⇨ 品切れ/品切(しなぎれ shinagir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木浦: 明太品切 當地에서는舊正을因히야明太需用이各處에甚多히앗숨으로品切되야各商人許에서入荷되기를苦待中이나二十日後에入荷될듯히며新明太는七十五圓의新價值를示히앗더라(1919년1월23일 4면2단)

▶의미: 물건이 다 팔리고 없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滑稽本・古今百馬鹿>(1814) 下「よくよくの品切でなけりやァ、わたくしとはいかず。つひしか名ざしで口のかかった事は葉にしたくもなし」

▶의미: 전부 팔린 것으로 상품이 없어지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이 다 팔리고 없음. ‘동남’ ‘동이 남’ ‘물건 없음’ ‘없음’으로 순화. ≡절품(切品).

일본어: 『大辞林』 しなぎれ【品切れ】 売り尽くしてしまい、商品の在庫がなくなること(다 팔리고 더 이상 상품재고가 없는 상태)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1,500개 일본어: 37,8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하】

하물(荷物) ⇨ 荷物(にもつ nimots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廣告] 今에 通運社를 新設하고 汽船 注江号로써 内地各港에 船客과 荷物の運輸業을 營하느바 現今은 仁川 江華月串 松都堂湖 海州龍塘浦間에 隔日 航行하고

니(1901년3월12일 2면4단)

▶의미: 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廻船式目>(15C中か) 「船中にて過分に荷物を捨たる時者、水夫の私物にも可レ懸二配当一」

▶의미: 운반 운송하는 물건 화물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짐

일본어: 『大辭林』にもつ【荷物】①運んだり送ったりする品物(운반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②(負担となる物事(부담을 주는 어떤 일)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1,600개 일본어:약9,84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하역(荷役) ⇨ 荷役(にやく niyak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荷役料의 昂騰 滿鐵京城管理局對朝鮮郵船株式會社貨物連帶輸送料金は五日
부터改正實行기로되얏는디改正の要點は各港에對한 荷役賃暴騰結果の値上인바運賃에는影
響이無へ며尙且 荷役料의騰貴率은各港을平均へ야約一割強이라더라(1919년3월7일 2면5
단)

▶의미: 짐을 싣고 내리는 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隨筆・一話一言> (1779년-1820년경)三〇「荷役之刻早灸人足之數宿町乙名へ尋之可
相極事」

▶의미: 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하는 작업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짐을 싣고 내리는 일.

일본어: 『大辭林』にやく【荷役】貨物を積んだり降ろしたりすること(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하는 작업)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7,200개 일본어: 987,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하주(荷主) ⇨ 荷主(にぬし ninu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雜報[倉庫會社近況] 此亦近日中에 宏大^宏 倉庫를 建築^宏하야 一般荷主에 便宜를 計圖^宏한다^宏며 以上所記와 如히 諸般業務를 擴張^宏함으로 該會社는 從來度支部內에 在^宏하든 事務所가 狹隘^宏하고 且偏在^宏하 嫌이 不無^宏하야 今二十二日에 鍾路鞋塵上隣二層洋屋으로 移轉^宏하^宏다더라(1906년4년23일 3면3단)

▶의미: 짐 임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日葡辞書』(1603)「Ninuxi(ニヌシ)」

▶의미: 물건의 소유주 혹은 물건의 발송인.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하물의 주인. ‘짐 임자’ ‘화주(貨主)’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にぬし【荷主】① 荷物の持ち主(화물 주인) ② 荷物の発送人(화물을 발송한 사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8,600개 일본어: 312,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하중(荷重) ⇨ 荷重(かじゅう kajyuu)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貨車荷重改正 從來朝鮮鐵道會社忠北慶北慶南의各線貨車는二十六噸車와十噸車其中二十六噸車를改正하고標記荷重을三十噸으로하야國有鐵道線の貨車同様に三月十日부터實施한다더라(1928년3월11일 1면9단)

▶의미: 짐 무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野村龍太郎<工学字彙>(1889)「Load 荷重」

▶의미: 트럭 등의 화물자동차의 짐의 무게.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물체 따위의 무게. ‘짐 무게’로 순화.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 또는 무게.

일본어: 『大辞林』におも【荷重】① 荷物が重いこと(화물이 무거운 것) ② 負担や責任が重すぎる(부담이나 책임이 무거운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55,000개 일본어: 89,4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하청(下請) ⇨ 下請け/下請(したうけ shitauk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雜報[鐵道各會社寄書]敬啓者 本月六日 漢城新報欄內 京釜鐵道問題에 關한 第一에 曰 韓人會社난 口錢만 取得한다 하얏스니 大抵 何工役을 勿論하고 中請負가 下 請負의게 委任함은 世界通行하난 規例어늘 此를 藉口하야 今回 工事を 不欲授負하기난 此蠅頭利도 韓人은 不給하고 日本人뿐 攫取할 心筭이오 韓人會社長이 非大官則 兩班이 니 不可一選一舍오(1903년5월13일 3면1단)

▶의미: 아래 도급.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御触書寛保集成.四〇>(1711) 三月「奉公人下請取候儀、人宿共吟味強候に付、在々より 奉公に來候者共致難儀」

▶의미: 청부인(원청인)이 담당할 일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시 맡기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수급인(受給人)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 ‘맡 도급’ ‘아래 도급’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したうけ【下請】ある人や会社などが引き受けた仕事の全部または一部を、さらに引き受けてすること(어떤 사람이나 회사 등이 받은 일 전체나 일부를 또다시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도급을 주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5,500개 일본어: 8,49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하치장(荷置場) ⇨ 荷置場(におきば niokib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漢江荷置場 人夫等盟罷] 고양군한지면서빙고리(高陽郡漢芝面西氷庫里)에잇는 한강하치장(漢江荷置場)에서는 十三일부터 그곳에서일하고잇든 七十五명의 勞働者(勞働者)에게대하야 종래임금의一할을인하하겠다고성명하야 勞働者들은 즉시이에대한대책으로 동맹파업을단행하고 지구전에들어가게되얏는데 甬山경찰서에서는 사테의진전을경계하고잇다(1932년9월17일 7면9단)

▶의미: 하치장.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外務省外交史料館 문서>[仏国商船フルマー号木更津県下房州多田良村近海ニ於テ難破同県ニテ救助ノ件ノ分割2]候節当省官員并木更津県官員出張夫々指図および下荷物諸品為取候物相用ひ候はしけ船頭船賃荷物運送人足并荷置場理ハ入費及横浜迄荷物運送之船賃等別紙請取書之通り木更津県ヨリ(1873년2월24일-6월30일)

▶의미: 두는 장소. 두는데 적당한 장소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쓰레기 따위를 거두어 두는 장소. 실었던 짐 따위를 내려놓는 곳.

짐 두는 곳' '짐 부리는 곳'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에 표제어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390개 일본어: 428,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한천(寒天) ⇨ 寒天(かんてん kante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개벽 제35호 口腔과 全身의 影響 及 其衛生>齒刷子로 其 感染을 說明함에는 2, 3日間 使用한 齒刷子の 剛毛를 拔取하여 培養基(寒天 또는 肉汁)中에 浸漬하여 두면多數한 細菌을 發見할 것이라(1923년5월1일)

▶의미: 우무가사리.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書言字考節用集』(1717) 六「石花菜カンテン」

▶의미: 우뭇가사리를 끓여서 굳혀 얼린 뒤 건조시킨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우무. 우뭇가사리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 かんてん【寒天】①さむざむとした冬の空(으스스한 겨울 하늘) ②テングサなどの紅藻類から粘液質を煮出して凍結・乾燥したもの。菓子の材料, 微生物の培地などに用いる(우뭇가사리 등의 홍조류에서 점액질을 우려내어 동결 건조시킨 것. 과자재료나 미생물 배양 등에 사용한다)

중국어: 『汉语大词典』 표제어 있으나 의미 다름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06,000개 일본어: 146,000개 중국어: 12,100,000개

할당(割當) ⇨ 割当て/割當(わりあて wariat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199호>鐵道를二十三万七千基羅米突에延長하야도此를人口에割當하면一万人에對하야六基羅米突半에不過요(1895년12월17일)

▶의미: 배정.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田中・中川・伊丹『英和商業新辞彙』(1904)「Allotment配付、申込高が募集高に超過したる時は此に会社から按分例の方法で各申込者に引受をなす可き株式又は株式を割当てるなり」

▶의미: 할당하는 것. 분담시키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몯을 갈라 나눔. 또는 그 몯. ‘몯 나누기’ ‘배정’ ‘벼름’

일본어: 『大辭林』 わりあて【割当て】 割り当てること(배정하는 것) また、割り当てたもの(또는 배정한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8,000개 일본어: 6,36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할인(割引) ⇐ 割引(わりびき waribik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제국 관보 제226호 부록> 一 紙筆墨費는 師範生一名年額이 四元八十錢이요 學生一名年額이 三元으로 함 一 圖書購買費以下各費目에若干割引을 加함(1896년 1월 20일)
▶의미: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銀行条例>(1890) 一条「証券の割引を為し」

▶의미: 어음에 기재한 지불기일 이전에 은행 등이 지불 기일까지의 이자를 뺌 금액으로 어음을 매입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뺌. 어음 할인. ‘덜이’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わりびき【割引】 ① 割り引くこと(가격을 빼는 것) ②「手形割引」に同じ(어음할인과 같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60,000개 일본어: 154,0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할증료(割増料) ⇐ 割増料(わりましりょう warimashiry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荷主協會提案 滿鐵에서 受諾 淸津埠頭荷役割増料問題 月餘만에 解決曙光]
【淸津】 爆發頂點에잇든淸津埠頭荷役割増料金問題도關係者側の幾多의折衝을經해야今日에至한바인데(1936년 7월 17일 5면 4단)
▶의미: 추가금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東京朝日新聞>(1905)五月三日「實際割増を当て其債券を購求すり」

▶의미: 일정한 액수 양에 어느정도의 액수 양을 증가 첨가하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3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정해진 값에 덧붙이는 돈. ‘웃돈’ ‘추가금’으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할증(割り増し)만 있고 할증료는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3,000개 일본어: 18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합승(合乗) ⇨ 合乗(あいのり ainor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釜山合乗自動車 競願中不許可]【釜山】昨年以來朝鮮瓦斯電氣會社를 비롯하여方魚津中部氏釜山大倉町元根氏等三者가釜山市內乗合自動車營業許可申請을競願中이든바道當局에서오리동안慎重히審議한結果釜山市街道路가狹隘하다는것과時期尙早란理由로去五日に全部却下하였더라(1928년7월8일 4면4단)

▶의미: 함께 타기.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仮名垣魯文<安愚楽鍋>(1871)二・上「河岸へひいてきた大八車へ『ブランケット』をしきまうけて是へあひのりをきめ」

▶의미: 타는 것에 두사람 이상이 함께 타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자동차 따위에 여럿이 함께 탑. ‘함께 타기’로 순화. ≒승합. 다른 승객이 있는 택시를 함께 탑.

일본어:<日本國語大辭典> あいのり【相乗・合乗】一つの乗り物に二人以上がいっしょに乗ること(하나의 탈 것에 둘 이상이 타는 것) 同乗すること(동승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470개 일본어: 14,4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행방(行方) ⇨ 行方(yukue)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石炭 十萬 噸의 行方] 道院에서소비되는석탄이미년에무려오십일만돈경성에서는십만돈을티운다나무한바리에오원 빅탄한삼타에 일원 석유한통에삼원식으로 희한하고 등한 시유탄의시세에겨울을당한가뭇의 곤난도비상하지만은(1917년2월7일 3면 1단)

▶의미: 행방.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万葉>(8 C 後) 一五・三六二七「さ夜ふけて由久敵(ユクヘ)を知らに아가心明石の浦に船泊めて浮寝をしつつ遺新羅使人」, <万葉>(8 C 後) 一一・二七二三「あまたあらぬ名をしも惜しみ埋木の下ゆそ恋ふる去方(ユクヘ)知らずてく作者未詳」

▶의미: 목표로서 진행해가는 방향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간 곳이나 방향.

일본어: 『大辞泉』 ゆくえ【行方】 ①行くべき方向。向かっていく先(가는 방향. 가는 곳) ②行った方向。行った先(간 곳) ③③今後のなりゆき。また、将来。前途(금후의 나갈 방향. 장래. 전도)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961,000개 일본어: 39,6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행선지(行先地) ⇐ 行先地(ゆきさきち yukisakic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行先地는 安南] 짜듯한 곳만 처져서 쪼갬 곳을 변경한 듯 원산항(元山港)에 덩박중 인로국군 흠은 탄슈의 궁핍과 자금이 결핍 함으로 일본 측의 통치 여하에 불고 하고 지는 이십일에 출항 하야 부산으로 갔다 흠은(1922년 11월 23일 3면 1단)

▶의미: 목적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名語記>(1275) 六「道のゆきさきはすゑをさすこともある歎」

▶의미: [1275]앞으로 가는 길. 가야만 하는 곳. 전도 미래 장래"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2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떠나가는 목적지. '가는 곳'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林』에 표제어 없음.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4,870개 일본어: 5,15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호열자(虎列刺) ⇐ 虎列刺(コレラ korer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周報> [同壽館告白] 啓者近因旱勞不適赫炎代序恠疾盛行生民受傷即中國所稱痧疾日本所稱虎列刺也(근자에 장마와 가뭄이 교대로 오고 더위가 기승을 부려 怪疾이 유행하

여 백성들이 해를 받고 있으니 이 괴질은 바로 中國에서는 痧疾이라 칭하고 日本에서는 虎列刺라고 칭하는 것이다. 1886년7월5일 17면1단)

▶의미: 콜레라.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奥山虎章<医語類纂>(1872) 「Cholera 虎烈刺」

▶의미: 감염증병으로 2종 감염증의 하나. 콜레라 균의 감염에 의한 것. 균이 물이나 음식물과 함께 입속으로 들어가 발병한다.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해방 후에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콜레라'의 음역어.

일본어: 『大辭林』【コレラ cholera】経口的に感染したコレラ菌による消化器系の感染症(입을 통해 전염되는 콜레라균이 일으키는 소화기계 전염병)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8,890개 일본어: 8,28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호조(好調) ⇐ 好調(こうちょう koochoo)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本年上半貿易 전보다 著大한 好調] 六月中朝鮮貿易은輸移出品價四百十八萬餘圓輸移入品價五百七十四萬餘圓인디此를前年同月に比し면輸移出百七十九萬餘圓이増加し고(1915년7월8일 2면4단)

▶의미: 상황이나 형편 따위가 좋음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若月紫蘭<東京年中行事>(1911)六月曆「河鹿は家に飼って聞くよりも、溪流の辺りに自然の好調(カウテウ)を聞くのが遥かに妙味のあるは云ふまでもないことながら」

▶의미: 상태가 좋음.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상황이나 형편 따위가 좋은 상태. '순조'로 순화.

일본어: 『大辭林』 こうちょう【好調】調子や具合、景気などがよいこと。事が思い通りにうまく行くこと。また、そのさま(상태나 경기 등이 좋은 것. 일이 생각대로 잘 되는 것. 또는 그런 모양)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744,000개 일본어: 52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호출(呼出) ⇐ 呼出し/呼出(よびだし yobidash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서유견문 제10편 法律의公道> 本人或他人이라도不公平호思를抱호야衆人前辨破호는裁判을請受호기로法庭에訴호는則其罪人에關係호는官吏及其訴訟의原告를呼出호야其是非와曲直을斷호야(1895년)

▶의미: 부름.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俳譜・文政句帖五年>(1822)閏正月「大猫や呼出しに来て作り声」

▶의미: 출두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90년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전화나 전신 따위의 신호로 상대방을 부르는 일. ‘부름’으로 순화. 소환(召喚).

일본어: 『大辞林』 よびだし【呼出し】 1. 呼び出すこと(불러내는 것) 呼んで来させること(불러서 오게 하는 것) 2. 「呼び出し電話」の略(호출전화의 약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1,300개 일본어: 47,9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惑星(惑星) ⇐ 惑星(わくせい wakuse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外報[彗星과 童謡] 彗星이 出現함이 童謡에 曰 彗惑(彗星 惑星)이 東南(東南星)을 犯호야 帝王이 下堂而走라 호는 故로 民政部에서 禁止호디 効力이 無호다더라(1907년8월26일 1면2단)

▶의미: 행성.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和蘭通舶>(1805) 一「大地の行疾して火星を過る時は、必土・木の行疾して、火星の行を遅す。大地の人をして天の旗を感はしむ、故に、和蘭これを惑星と名く。吾地球も其惑星の一星也」

▶의미: 태양의 주위를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운행하는 비교적 큰 천체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행성(行星).

일본어: 『大辞林』 わくせい【惑星】 ① 太陽の周囲を公転し、十分大きな質量をもつため自身の重力でほぼ球形を保ち、その軌道近くから他の天体を排除した天体(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205,000개 일본어: 22,900,0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혼화(混和) ⇐ 混和(こんわ konwa)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皇城新聞> 廣告[大英國썬루너몬드 各種소다 製造會社] 此슈정갓튼소다는 繭絲縹出할 때에 草木灰水를 勿用하고 此를 代用하면繭津을 除去하고 絲色이 潔白하기로 特히 取用함을 勸請하고 且綿紬와 細織은 紬屬과 各色絨을 洗濯하는데 合當하고 水에 混和하면水를 柔滑케해야 沐浴도하며 鍮器銀器와 各色鐵物을 拭磨하는데 用하며 染色하는데 草木灰水를 代하여 此를 用하면光色이 增生할 事(1902년1월6일 4면1단)
▶의미: 한데 섞이어 합쳐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經濟要録>(1827) 序言「此彼校合し、混和して用ふるときは、國家を経緯し、人民を濟安んずるの業に於ては余裕あらん者なり」
▶의미: 서로 섞이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한데 섞이어 합쳐짐. 또는 한데 섞음. ‘섞임’으로 순화.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융화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됨.

일본어: 『大辭林』 こんわ【混和】 1. まじり合うこと(서로 섞이는 것) また、まぜ合わせること(섞는 것) 2. 法律で、別々の所有者に属する米や酒などが混合・融和して識別ができなくなること(법률에서 소유주가 다른 쌀이나 술 등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 摻雜在一起(뒤섞여서 한데 합함)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2,400개 일본어: 5,050,000개 중국어: 7,270,000개

회람(回覽) ⇐ 回覽(かいらん kair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漢城旬報> 各國近事[歐洲渡港停船處水路里程] 歐米回覽實記載在該異程一覽表如左(歐米의 回覽實記에 실려있는 異程一覽表를 아래와 같다. 1884년4월16일 16면1단)
▶의미: 돌려 봄. 돌아다니면서 구경함.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文明本節用集>(室町中) 「廻覽クワイラン, 久米邦武<米欧回覽実記>(1877) 例言「総て各國にて回覽せる所は、皇帝及び皇后の特旨に出るあり」
▶의미: 방방곡곡을 구경하며 다니는 것. 순서대로 돌아가며 보는 것.

중국 『近現代辭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880년대 우리말에 소개된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글 따위를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 봄. 또는 그 글. ‘돌려 보기’로 순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함.

일본어: 『大辞泉』 かいらん【回覧】 図書・文書などを、順送りに回して読むこと(도서관 문서 등을 순서에 따라 돌려서 읽는 것) ○あちこちを見て回ること(여기저기를 보고 돌아다님)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52,700개 일본어: 18,5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후불(後拂) ⇨ 後払い/後払(あとばらい atobarai)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毎日申報> [화물 임금 後拂 内國 통운 승인] 滿鐵京城管理局은内國通運株式會社에對
하야大正七年四月一日부터同八年三月末日까지左記各驛所發大貨物運賃發著手數料引替代
金手數料支線及引込線料金(棧橋線料金人換料金を合算)의後拂을承認하얏디但新義州發
은 同社支店 派出人託送의 木材賃金에 限한다더라釜山, 草梁, 龍山, 南大門, 仁川, 平
壤, 元山, 朱安, 清津會寧驛又新義州荷扱所(1918년3월30일 2면3단)

▶의미: 후지급.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紀文大尽(1892) <村井弦齋>石合戦「それはモ一貴郎(あなた)の事なら極くお安くして代
金も跡払(アトバラ)ひで差上りますから

▶의미: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것

중국 『近现代辞源』에 없음.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1910년대부터 용례가 보인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물건을 먼저 받거나 일을 모두 마친 뒤에 돈을 치름. ‘후지급’으로 순화.

일본어: 『大辞泉』 あとばらい【後払い】 代金・料金をあとで支払うこと(대금이나 요금을 나중에 내는 것)

중국어: 『汉语大词典』에 없음.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3,600개 일본어: 2,200개 중국어: 사용 안 함

흑판(黑板) ⇨ 黑板(こくばん kokuban)

(1)한중일 최초 출현 문헌 및 그 의미

한국 <대한자강회월보 제10호 教育學原理> 黑板은 黑漆노 塗하야 其字가 白而大하야 生徒
로 하야금 一覽에 瞭然케 寫지오 學校醫局은 時時로 生徒의 氣體를 檢査하야써 學校의
病이 近視眼과 龜背脊 等を 豫防寫지니라(1907년4월25일)

▶의미: 칠판.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일본 西郡貞<幼学読本>(1887) 初歩「摘字は時時児童をして黑板又は石盤に書せしむ可きこと

勿論なり」

▶의미: 나무 베니어 등에 기름 슿 혹은 도료를 칠한 검거나 녹색의 판.

중국 <西国记法>(서국기법) 1595年

▶의미: 用木頭, 水泥, 玻璃等制成的可以在上面用粉筆寫字的黑色平板(나무 시멘트 유리 등으로 제조한 분필로 글자를 쓸 수 있는 흑색 판)

(2)전파 경로 및 시기

J→K / 1900년대 초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이다.

(3)현대어 사전 등재여부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철판

일본어: 『大辞林』 こくばん【黒板】 白墨で字や絵を書き示すのに用いる黒色の板。緑色のものもある(백묵으로 글자나 그림을 써서 보여주기 위해 쓰는 검은색 판)

중국어: 『汉语大词典』 学校教具。用木头或玻璃等制成的可以在上面用粉筆书写的黑色平板(학교 교구. 나무 유리 등으로 제조한 분필로 글자를 쓸 수 있는 흑색 판)

(4)일정 빈도 이상의 사용 여부

한국어: 15,100개 일본어: 14,000개 중국어: 40,300,000개